2018 한국문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주제

한국문학과 삶의 양식(3) : 한국문학과 어린이

‖일시‖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09:00~19:00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문학회

한 국 문 학 회

2018 한국문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주제

한국문학과 삶의 양식(3) : 한국문학과 어린이

‖일시‖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09:00~19:00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문학회

한 국 문 학 회

2018 한국문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주제 : 한국문학과 삶의 양식(3) 한국문학과 어린이

◎ **주최 : 한국문학회**
◎ **일시 :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09:00~19: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개 회 식

등록 및 개회사	한태문 한국문학회 회장	9:00~9:30

학술발표

【제1부 자유주제 발표】

좌장 : 정규식(동아대)

▸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 양상 연구 9:30~10:00
-영화 <반두비>, <로니를 찾아서>, <방가 방가>를 중심으로-
발표: 김경녀(부산외대) 토론: 이선영(경성대)

▸ 근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아동의 주체성 10:00~10:30
-『웅철이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중심으로
발표: 박재현(부산대) 토론: 정기문(동아대)

▣ 휴식 10:30~10:40

▸ 촉석루 제영시의 전개와 주제 양상 10:40~11:10
발표: 하강진(동서대) 토론: 최은주(경북대)

▸ 칸트(I. Kant) 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황석우 시론의 기저 11:40~12:10
발표: 최호영(인천대) 토론: 박군석(경남대)

▣ 점심식사 11:40~13:00

【제2부 기획주제 발표】

좌장 : 박형준(부산외대)

▸ 근대문학과 어린이 -수원 지역 안준식을 중심으로 13:00~13:50
발표: 박태일(경남대)

▣ 휴식 13:50~14:00

▸ 구술생활사로 본 격동기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 14:00~14:20
- 부산지역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표: 류경자(부산대) 토론: 김국희(경성대)

▸ 황순원 소년소설과 경계성의 의미고찰 14:20~14:40

발표: 최미선(경상대) 토론: 김민옥(부산외대)

▸ 산업화 시대의 감수성과 어린이의 (재)재발견 14:40~15:00

발표: 김성환(부산대) 토론: 김옥선(경성대)

▣ 휴식 15:00~15:10

▸ 『어린이』에서 '발견'한 방정한 15:10~15:30
- '검열'의 흔적과 그 실체의 추적

발표: 장정희(서울대) 토론: 윤현진(인제대)

▸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의 문학교육 15:30~15:50

발표: 박기범(전주대) 토론: 오현석(부산대)

종합토론 및 총회

【제3부 종합토론, 총회, 연구윤리교육】

좌장 : 임주탁(부산대)

종합토론 16:00~18:00
연구윤리교육(이순욱 편집위원장) 18:00~18:30
2018년 학술상 시상식 및 총회(한태문, 학회장) 18:30~19:00

차 례

한국문학과 삶의 양식(3) : 한국문학과 어린이

자유주제 및 기획주제 발표

【자유주제 발표】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 양상 연구 ····· 김경녀(부산외대) ····· 1

토론문 ····· 이선영(경성대) ····· 18

근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아동의 주체성 ····· 박재현(부산대) ····· 19

토론문 ····· 정기문(동아대) ····· 34

촉석루 제영시의 전개와 주제 양상 ····· 하강진(동서대) ····· 36

토론문 ····· 최은주(경북대) ····· 54

칸트(I. Kant) 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황석우 시론의 기저 ····· 최호영(인천대) ····· 56

토론문 ····· 박군석(경남대) ····· 70

【기획주제 발표】

「기조발제」 근대문학과 어린이 –수원 지역 안준식을 중심으로 ····· 박태일(경남대) ····· 72

구술생활사로 본 격동기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 ····· 류경자(부산대) ····· 119

토론문 ····· 김국희(경성대) ····· 132

황순원 소년소설과 경계성의 의미고찰 ····· 최미선(경상대) ····· 133

토론문 ····· 김민옥(부산외대) ····· 150

산업화 시대의 감수성과 어린이의 (재)재발견 ····· 김성환(부산대) ····· 151

토론문 ····· 김옥선(경성대) ····· 152

『어린이』에서 '발견'한 방정한 ····· 장정희(서울대) ····· 153

토론문 ····· 윤현진(인제대) ····· 172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의 문학교육 ····· 박기범(전주대) ····· 173

토론문 ····· 오현석(부산대) ····· 193

【자유주제1】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 양상 연구

-영화 <반두비>, <로니를 찾아서>, <방가 방가>를 중심으로

김경녀(부산외대)

차 례

1. 전 지구화의 부산물 : 국제이주노동자
2. 불안정한 경계에 위치한 국제이주노동자
3. 폭력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진 국제이주노동자/난민 : <반두비>
4. 공존을 거부당하는 국제이주노동자/난민 : 로니를 찾아서
5.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의 국제이주노동자/난민 : <방가 방가>
6. 결론을 대신하여

1. 전 지구화의 부산물 - 국제이주노동자

이 논문은 국내 체류 국제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관련한 재정착과 정주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양상을 한국영화 텍스트를 통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이주노동자(이하‘이주노동자’로 명함)는 유입국 사회의 주류담론과 경제/산업 구조에 따른 ‘착취’와 ‘배척’에 의해 ‘영원한 이방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전 지구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체제는 유입국 산업구조의 ‘국제화’를 촉진·증가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사회적 소수자’[1]로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소수’는 ‘다수’가 행하는 모든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데 이러한 다수의 영향력은 ‘문화적 요인’을 통하여 집단이 휘두르는 폭력의(유·무형)형태로 나타나게 된다.[2] 다수에 의하여 작동하는 ‘폭력’의 형태는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파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화의 핵

---

*저자, 부산외대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nyed11@hanmail.net)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1) 아르준 아파두라이에 따르면 ‘소수’에 대하여 정의할 때, “‘본질상의(substantive)’의견차이”와 “‘절차적인(procedural)’의견차이”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요하면서, 소수와 관련한 중심의제는 ‘견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절차적인’소수자는 문화적·사회적 소수가 아니며, 전적 수용집단의 견해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문화적·사회적 소수가 본질상의 소수로 옮겨가는 것을 은폐하며,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게 ‘절차적 소수’들이 영속적인 문화적 소수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소수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민주 국가에서 논의하는 소수의 권리 확보에 대한 정책/연구들과 상이하게, 국민 국가에서 문화적·사회적 소수자들의 움직임(인권/문화적 지위 및 가치 존중 등)을 억누르는 이중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Arjun Appadura, 장희권 옮김, 『소수에 대한 두려움』, 에코 리브르, 2011, 91~93쪽.

2) ‘다수’와 ‘소수’의 관계에서 ‘다수’에 의한 ‘소수’를 향한 폭력성에 대하여 논하며, 이는 다수 집단이 자신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러한 폭력과 관련한 주요 원인은 다수와 소수 사이에 발생하는 특수한 내적 상호관계로서 저자는 이를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두려움이 결과적으로 다수가 소수에게 행하는 다양한 폭력의 전형을 이루는 것으로, 따라서 ‘미디어’와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간다’는 소수자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나쁜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고 술회하고 있다.
Arjun Appadura, 장희권 옮김, 위의 책, 22~23, 191쪽.

심 축 임과 동시에 주인공인 이주노동자들은 모순되게도 '국제화' 과정을 통한 수용집단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국제화는 신자유주의경제 체제의 산물인 자유무역을 통한 전 지구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는 궁극으로 전 세계를 '자본의 예속'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 보다 물질지배의 강력한 '경제적 헤게모니' 폭력의 속성에 갇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3] 이러한 신자유주의경제 체제는 국제이주노동을 가속화 하였으며,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하여 과거와 다른 '착취'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결과 이주자와 유입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다수'와 '소수'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수적 우세(권력, 문화, 지위, 경제)를 앞세운 '다수'는 '소수'집단의 정착을 허락하지 않으며, 소수를 향한 배척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범주화'를 이룬다. 이러한 특정 대상의 범주화는 '위험한 대상'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한 판단을 행할 목적으로 된 것이다. 범주화를 통하여 '다수'는 '소수'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속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소수'에 대하여 과도한 일반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4]

'국제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리에 따르면 전통적인 개념의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주를 감행하는 인력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상황개선이 주된 목적인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유입국의 '저임금·미숙련' 직종에 투입된다. 이는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대체 인력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5] 이주노동자는 크게 '남성'과 '여성' 이주노동자로 나눌 수 있으며, 남성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노동현장(남성 노동력 중심)에 집중되고, 여성 노동자들은 돌봄 및 가사노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6] 이주노동자들이 유입국에서 노동을 통하여 획득한 임금은 본국에 송금으로 이어지며 이는 본국의 가족 및 출신국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이렇듯 이주노동자는 '유입국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8] 이와 같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동력의 유입과는 별개로 법적인 체류

---

3) 과거 제국주의는 식민 지배를 영토에 대하여 정착을 통한 착취로 이득을 이루었으나, 신식민주의인 미국식 제국주의는 직접통치보다는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중시하며 이를 통한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식민주의'는 전 지구화를 통한 경제적 예속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예속관계는 노동의국제이주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국제화시대에 국제이주노동 상태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Young, Robert J. C., 김택현 옮김,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홍철출판사, 2005, 88쪽.

4)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후마니타스(주), 2008, 19~25쪽.

5)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가장 전통적인 원인은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국내 노동인구의 기피 현상과 더불어 최근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인구증가율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결혼인구의 감소와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연령의 상승, 이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는 국내 산업 현장에 미래 잠재적 노동력의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인구고령화'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력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6) David Bartram · Maritsa V. Poros · Pierre Monforte, 이영민·이현욱 외, 『개념으로 읽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사회』, 푸른길, 2017, 134쪽.

7) 박경태는 국제이주노동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인 필리핀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필리핀은 세계적인 노동력 수출국가 이다. 이는 필리핀이 자국 내 인력의 해외송출을 통한 국가수입이 GDP의 총 10%에 해당하며, 전체 수출액의 25%을 점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로 체류 중인 필리핀 국민은 최소 800만에서 최대 1,100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통하여 유입된 해외 송금을 GNP에 산정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국가적 지원정책과 이주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개인적 원인은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이주 노동을 통한 개인의 국제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박경태, 위의 책, 84~91쪽 참조.

8) "이 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

기간 초과 및 기타사유(관광비자, 단기체류비자, 방문비자,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사업장 이탈자 등)로 인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한자는 '미등록 체류자'[9]에 해당된다. 특히, 이러한 '미등록 상태'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한 착취와 폭력은 유입국 사회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10]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법의 단속행위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폭력적 행태도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합법적 체류에 대한 묵인은 암묵적인 '폭력'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저항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유입국내 이방인의 위치에 고정되게 한다.[11]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화 <반두비>(2009), <로니를 찾아서>(2009), <방가 방가>(2010)는 이러한 이주노동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정서적·육체적 폭력과 착취의 양상이 잘 드러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입국 사회에 생성된 '이주노동자담론'을 영화 텍스트를 통하여 재 고찰함으로써, 소수자/타자로서 착취와 폭력의 사회에 저항할 수 없는 하위주체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재현 방식이다.[12] 동시에 이들 작품은 이주노동자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선택된 이주라는 명제에 은폐된 강제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삶의 양상은 '난민'과 다르지 않음을 사고하게 한다.

세 영화는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된 삶의 모습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반두비>는
이주노동자의 관점을 통하여 타자이며 소수인 이주노동자에게 유입국 사회가 행하는 착취와

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 고용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참조.

9) "해당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불법이민(illegal immigration)이라고 한다. 줄여서 '불체자'라 고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단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참조.

10) 이와 관련한 근자의 연구로는, 엄미옥, 「상상된 공감, 소통의 사학-『나마스테』에 나타난 법과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6권, 대중서사학회, 2010, 183~210쪽;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35권, 우리문학회, 2012, 317~346쪽; 이길연, 「다문화시대 코리아드림의 다중성과 디아스포라: 하종오 시집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권, 한국평화학회, 2011, 287~301쪽; 이태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국경 없는 마을"사례」, 제5회 『사회연구 학술상』 수상논문, 한양대학교, 2004, 139~178쪽 등을 참조할 것.

11) 김현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신문사설에 나타난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주민 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자와 관련한 정부기관의 단속은 인간의 기본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단속과정의 비인간적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이주노동자의 호소"한국 공무원은 눈이 없다." 국민일보 2013-10-29 참조) 김현강, 「한국 사회의 이주민 담론에 대한 논증적 이해-이주노동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9~36쪽 참조.

12) 본고와 관련한 유사 연구 방법을 보여준 최근 연구로는 문재원, 「경계 횡단하기의 수행적 실천과 사이 정체성-경계지대의 문화변역으로서 이주민 영화와 공감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2권, 한국다문화·디아스포라학회, 2018, 71~97쪽; 김진희, 오윤호, 이수안, 「대중매체에 나타난 타자 재현 양상 연구 : 2000년대 TV와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탈경계 인문학』 3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0, 85~121쪽; 정민아, 「동시대 한국영화의 이주자 혼종문화와 이주 공간: <로니를 찾아서>, <반두비>, <완득이>를 중심으로」, 『영화』 5권, 아시아영화연구, 2012, 59~87쪽; 박명진, 「한국영화의 공간성과 인종 재현 양상-이주노동자 소재 영화 <바리케이트>와 <반두비>의 경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46권, 중앙어문학회, 2011, 295~327쪽; 서옥란·김 화, 「장률영화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0권, 한중인문학회, 2013, 189~212쪽 등을 참조할 것.

폭력에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현실과 궁극으로 '다수'와 '소수' 양가 모두 신자유주의경제체제 하에서 동일한 하위주체 즉, '노예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로니를 찾아서>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Intangible existence)로서 소용(所用)의 필요에 의하여 유입되었지만, 결코 수용되거나 상호 공존 할 수 없는 영원한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가 방가>는 이주노동자로 신분전환을 꾀한 유입국 사회의 하층민을 통하여 "본질적 소수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집단 내의 소수는 이주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수적 열세가 곧 소수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느 집단에서나 계급구조(특히. 자본의 상황에 따라 형성된 계급구조)에 따라 누구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수는 곧 사회적 타자로서 주류 집단에 의하여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작품은 국제이주를 통하여 유입된 이주노동자에게 행해지는 유입국 사회의 착취/폭력에 의한 불안정한 정주가 의미하는 '난민화'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연구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유입국 사회의 폭력과 착취를 통한 난민화 양상을 한국영화 텍스트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불안정한 경계에 위치한 국제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과 폭력에 미치는 사회적·문화적·정서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배타적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근대 이후 한국사회는 강대국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이어왔다. 저항의 역사는 곧 '저항민족주의'를 형성하였으며, 해방 이후 '배타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면서 '국수주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궁극으로 한국 사회를 배타적이며 공격적인 개념을 지니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국수주의적 배타성은 '우리'를 제외한 타민족의 수용성에 대해 강한 '배타성'으로 발현하게 된 것이다.[13]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우리/그들의 구분이 명확하며 다수를 '우리'로 묶고 소수를 '그들'로 묶음으로 '타자'와 '나'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의식은 소속감과 상호 연대를 강화시키며, '그들'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 시키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냉전시대에 국가주의는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신식민통치국'의 '선민(選民)'외에는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명 '후진국'으로 지칭되는 인력 '송출국'국가 출신들에 대한 경험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간접 경험을 통한 '후진국 국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미디어(media)를 통한 왜곡이다. 이는 국가적(유입국/수용국)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거대 자본의 본원(本源)인 미국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철저한 백인중심인 미국 문화는 대중문화를 통하여 백인문화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14] 그러므로 미국문화와 상이한 비백인문화

---

13) 박경태, 위의 책, 33~35쪽 참조.

14) 미국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합쳐진 '합중국'이다. 또한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강하고 압도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한 파급력은 그 자체가 초강대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성은 문화·경제·정치·군사에 걸친 전 부분에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문화이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문화의 형성에도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다문화주의'사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배적 주류문화는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개신교·유럽문화가 중심축이다. 그럼에도 미국 문화 속에는 다양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와 차별은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문화는 그 자체로 백인문화의 근원지인 유럽문화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잠재되어 있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미국문화는 발달된 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로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전파/고취시키며, 나아가 서구문화 즉, 미국문

는 저급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문화로 인식되게 한다.[15] 더불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디어를 통한 자국민의 의식고취 행위는 타자의 이미지를 왜곡/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6] 관련하여 전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미국문화는 냉전시대 미·소간 이념대립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념의 우수성 전파에 일조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전파는 이러한 미국적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유입되게 함으로써 백인문화의 '우월성'과 비백인문화에 대한 '열등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디어를 통하여 재현된 강렬한 백인성은 존재하는 모든 '비합리성'과 '비인권적' 사안에 대한 진정한 구원자로 재현되었다.[17] 따라서 '백인성'은 '비백인성'이 근접할 수 없는 위치에 상정된다. 이는 모든 비백인성 사회가 따르고자 하는 목표점이 되었으며, 비백인성을 가진 사회 내에서 '문명화'와 '비문명화'의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백인성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 및 집단은 백인성을 추구하는 사회로부터 존재의 부정을 내포하는 배척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 간 공존과 상호수용/인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 외국 인력의 유입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18]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과 관련한 담론들은 상이한 문화에 대한 수용·인정과 상호이해 보다는 '후진국에서 유입된 가난한 이민자들'이라는 선입견이 주를 이룬다.[19]

화(백인문화)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생산해 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미국문화의 전파는 언제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과 함께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들 수 있다. 두 경우 모두다 미국식 제국주의 통치의 산물이며, 분쟁 상황이 종료된 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끝났으나(현재 한국은 미군이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주둔하고 있음) 문화적·경제적 통치와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15) 이러한 서양의 지배적 담론은 서양에 의한 동양지배의 합리화의 도구로 차용되었으며, 나아가 서양에 대한 과도한 우월과 비서양인에 대하여는 서양에 의하여 변화(정확히 말하면 개조/개도)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 서양에 의한 비합리적 사고는 작금의 시대 '서양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서양문명에 의한 비 서양권의 획일화된 문화의 고정관념 중 하나는 "반아랍적·반이슬람적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의 기저에는 국제정치·경제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양은 '신비로운 동양'이라는 19세기 학문적·상상적인 '악마화'(demonology)의 위력을 증대"시켜 왔다는 것이다. Edward W. Said,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60쪽.

16) 이러한 국가의 프로파간다는 다양한 종류의 근본주의 이념과 함께 타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의 프로파간다가 만들어 낸 타자에 대한 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1800년대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Protocol of the Elders of Zion)'는 당시 유럽 전역에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키는 음모론으로 작용했다. 오늘날 이슬람에 대한 개념이 테러와 깊은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반 이슬람 국가들의 프로파간다가 포함되어진다. Arjun Appadurai, 위의 책, 125~126쪽.

17) 주로 영화를 통하여 재현된 '미국식 영웅주의'는 대량 자본에 의한 초특급 블록버스트로 생산되어 전 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미국식 영웅주의는 미국의 초국가성과 백인에 대한 선민의식을 고취/고양시키기에 충분한 도구였다. 과거 백인성은 주로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헌신된 한 사람이 미개한 종족에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에 주를 이루었다면 거대 자본에 의한 미디어의 활용은 또 다른 '신백인성'을 창조해 내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007 시리즈를 필두로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 아이언 맨 시리즈를 들 수 있다.) Philip Smith,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이학사, 2008, 319~322쪽.

18)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의 상황과 실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적용된다. 실천적 정책과, 사회적 담론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철학적 사고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자체로 다의미적 실태를 포함하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 사회 내 유입된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유입국내 국민들과 정서적·문화적 통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내 다문화정책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권금상 외, 『9가지 다문화사회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2, 27~29쪽.

19) 주제와 관련한 최근연구로는 노지현, 「이주노동자 자살 사례 연구-자살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247~281쪽; 김현강, 「한국 사회의 이주민 담론에 대한 논증적 이해-이주노동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66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또한 미디어에 노출/재현된 이민자의 모습은 부정적 담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20]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언급한 배척요인과 결합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이주자와 관련한 수용성의 핵심은 '동화주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주자와 관련한 언어·문화·정서·생활양식과 관련하여 타자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입국인 한국사회의 구성요소로 변환하기를 요구한다. 이주자 대상의 교육 및 정책의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이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폭력적 동화주의는 유입국사회가 가지는 이주자에 대한 이중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와 유입국은 '구속'과 '계약'의 자리에 위치하며 이항대립의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관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의 기계'로서만 작동하도록 코드화한다.[21]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는 유입국에서 어떠한 '탈영토화'도 허락되지 않는다. 노동의 기계로서만 존재 가치가 부여될 때,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유린당하게 된다. 생존권과 보편적 권리는 언제나 서로 대립각을 이루는데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은 이주노동자의 삶의 척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유입국 사회에 조성된 '반다문화정서'는 반이주민 정서를 주도하고 조장한다. 이러한 반이주민 정서는 확대·재생산을 거듭하며 현실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괴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유입국 사회가 행하는 폭력과 착취, 차별과 배제의 근원이 되며, 나아가 정착을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정주하지 못하는 삶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피폐하고 건조하며 고단함의 연속이다. 거부당하는 삶.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언제나 불안정한 경계에 놓여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한 삶의 전형은 난민화로 가파르게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3. 폭력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자유의 국제이주노동자/난민 : 반두비

먼저,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반두비>는 노동이주를 통한 표면적/자발적 이주가 유입국 사회의 폭력과 착취로 인하여 영원한 이방인으로 고정되며, 나아가 추방에 이르게 하는 이주노동자의 '난민화'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노동이주는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유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노동 관행'은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이주도 유입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파멸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반두비>의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주인공 '민서'(배우 백진희)는 아버지가 부재한 엄마와 함께 사는 그러나 누구보다도

9~36쪽; 김태환,「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다문화주의: W. Kymlicka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년』2014권, 한국정책학회, 2014, 263~281쪽 등을 들 수 있다.

20) 문영숙,「텔레비젼 광고의 소수 인종 재현에 관한 연구」,『Speech & Communication』23권, 한국소통학회, 2014, 139~173쪽; 손은하,「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 재현된 영상물을 중심으로」,『다문화와 평화』7권,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3, 35~65쪽 등을 참조.

21) 이진경은 들뢰즈·카타리의 철학적 사유인 <천의고원>에 대한 안내서인 자신의 저작에서 '구속'과 '계약'관계의 상대적 관계를 술회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로 들뢰즈·카타리의 전작에서 바둑알에 대한 것을 차용하여 부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주체화된 기계적 배치의 요소로서, 본원적 속성을 갖지 않으며, 오직 상황적인 속성만을 갖는" 것에 대하여 바둑알이 갖는 속성은 곧 바둑알의 기능여부는 전적 외부 알들에 의하여 기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노동'과 '계약'은 계약이라는 주변 알들에 의하여 노동이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요건들(유입국의 경제 상황, 전 지구적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국제이주의 변화 양상 등)에 의하여 노동이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진경,『노마디즘2』,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2년, 311~315쪽.

당돌한 소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의를 듣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 '카림'(배우 마붑 알엄)과의 만남은 그녀의 무료하고 지리 한 일상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한다. 카림과의 만남은 유입국 사회가 카림에게 행하는 불합리한 것들에 대하여 저항의 주체로 민서를 거듭나게 한다. 한편, 카림은 일련의 이러한 민서의 행동들이 불편한 친절이었지만,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그녀를 도와 자신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 자들에 대하여 저항한다. 카림의 임금을 체불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카림의 미래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체인 전(前)사장을 찾아가 응징하는 장면은 카림과 민서가 소수로서 서로가 강한 연대의식을 공유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행위들은 카림에게 다가올 어두운 미래에 대해 예견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결국 카림 스스로가 난민화의 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중핵적인 매개로 작용한다. 즉, 이미 도래한 체류기간과 받지 못한 임금은 카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단초가 되며, 결국 그는 스스로의 의지에 은폐된 강제된 선택인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함으로써 난민화의 과정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두비>에 재현된 이주노동자는 유입국 노동현장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 이주가 강제된 이주로 변형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이주노동자는 1년 치 임금을 체불당한 상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권단체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체념 섞인 말들을 통하여 대언되고 있다. 고용주는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이는 이주노동이 노동자의 선택되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유입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이주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노동의 착취는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유입국에서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취'의 전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착취는 이주노동자가 이주를 감행하게 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주를 통한 경제적 재화의 창출은 출신국 가족 부양의 의무와 관련 있으며,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출신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까지도 파탄 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22] 임금체불과 함께 만료기간이 다된 여권은 이주노동자인 카림의 유입국내 위치를 예표하고 있다. 제한된 시간이 되면 떠나야하는 정착이 허락되지 않는 이방인의 위치를 확인시킴으로 '노동의 기계'로만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를 상징한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주체의 시선에서 객체인 카림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냉소와 함께 주체의 공동체내 객체의 수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편의점에서 우연히 말려들게 된 취객과 종업원의 싸움에서 원인을 제공한자와 가담자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지만, 오히려 정황의 책임을 카림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유입국 사회가 가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담론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취객이 내뱉은 "추방해 버려요. 쟤들이 우리 일 자리를 다 뺏는다."라는 자조적인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이주자에 대한 거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이주민과 관련한 유입국내의 이주자 배척의 직·간접적 기재가 된다는 것이다. 배척에는 자비가 없다. 초기 카림과 민서의 만남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재현되고 있다. 민서 역시 유입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입국사회가 형성한 이주자 담론을 학습한자로 카림에 대해 동일한 시선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버스에서 카림이 내미는 옆자리에 대한 호의를 외면함으로써 유입국 사회의 이주자 담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림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동일하게 '불편한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다. 극중 민서가 던지는 질문에 "때는 무슨 색깔이

22) 이태정,「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국경 없는 마을" 사례」, 제5회『사회연구 학술상』수상논문, 한양대학교, 2004, 148~151쪽 참조.

냐?"라는 것에 대한 카림의 "너랑 똑같다."라는 답변은 담백하며 건조하다. 이것은 유입국 사회가 가지는 이주 노동자의 담론이 멸시와 천대, '가까이 해서는 안 돼는' 불결하고 천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여전히 계층 간의 계급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주류사회에 포함되지 못하며,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23]

민서의 도움을 받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민서 역시도 유입국내에서 카림이 위치한 '타자'와는 상이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타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상황과 '내연 남'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철없는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민서 또한 유입국 사회의 또 다른 '타자'이자 '소수'인 것이다. 타자와 타자의 만남은 약자의 재생산을 이끌어 내지만, 사회적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불합리성에 대한 저항으로 민서가 카림의 '전(前)사장' 집을 방문하여 행한 일련의 폭력행위들은 저항 할 수 없는 주체들의 연약한 몸부림이 될 뿐이다.[24] 앞서 '전(前)사장'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항의하는 카림에게 행하는 폭력과 민서가 '전(前)사장'에게 행한 폭력은 상이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후자의 폭력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저항 할 수 없는 소수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불가한 것이다. 출국기한이 임박한 카림에게 선택은 없었다. 사업장을 마무리하는 카림의 뒤에서 유입국의 고용자들은 조소어린 내기를 한다. 카림이 결코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의 끝에서 카림의 선택은 단 하나, '불법체류자'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선택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강요되어진 선택으로 유입국 사회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카림으로 하여금 불법체류자로 남게 한다. 아무것도 없이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불법으로라도 남아 삶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카림이지만 이 또한 유입국 사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의하여 보호소에 수감되고 강제 출국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귀국 못하는 카림에게 본국으로부터 들려온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통보와 함께 단속반에 체포된 상황은 어느 곳에서도 정주가 허락되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카림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입국 사회 내의 불합리한 제도가 난민화된 이주노동자의 재정착을 불허하며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삶마저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시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카림'은 귀향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강제추방과 함께 희망도 끝나게 된다. 가족과의 소박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차별과 배제의 자리에 고정되는 이주노동자의 자리에 카림도 서게 되는 것이다.

4 공존을 거부당하는 국제이주노동자/난민 : 로니를 찾아서

---

23) 주지하다시피 한국에 유입된 국제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양상은 사회적으로 배제의 대상이 되며,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최 하층민'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층민의 자리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주류집단에게 전달되기 까지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부족한 언어,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은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 이란주는 네팔 노동자 '찬드라'의 사례를 들어 유입국 사회 내 이주노동자들의 저항 할 수 없는 주체로서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찬드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황들은 이주 노동자의 소리를 삭제하고 있으며, 기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일련의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에서도 해당 정부는 배상과 관련한 부문에 대하여 소극적 대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란주,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2003, 172~192쪽.

24) "대부분의 영화는 관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한정된 의미들의 특별한 배열에 묶어 두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은 영화인들로 하여금 색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에게 보다 폭넓은 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항 영화(counter-cinema)의 조건을 부지런히 찾게 했다." Geoffrey Nowell-Smith, 이순오 외 옮김, 『세계 영화 대사전』, 미메시스, 2005, 882쪽 참조.

심상국 감독의 <로니를 찾아서>는 유입국 사회가 국제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공존을 거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난민화'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먼저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인호'(배우 유준상)는 도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권도 시범대회'를 준비한다. 준비한 대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나타난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점상 '로니'(배우 마붐 알엄)의 대련 요청에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그와 로니의 대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범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대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시선들은 인호가 로니를 제압함으로써 주체의 힘을 과시하여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유입국 사회의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련의 결과는 인호의 어처구니없는 '한판'패로 끝나고 만다. 예상치 못한 패배에 인호는 '자존심' 뿐만 아니라 도장의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에 인호는 로니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그를 찾기로 결심한다. 로니를 찾는 여정에서 그에 대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그 여정에서 로니의 친구라는 '뚜힌'(배우 로빈 쉬엑)을 만나게 된다. 로니의 행방을 알려준다는 뚜힌은 오히려 인호의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상황은 더욱더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고 만다.

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 노동자는 불법체류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전형적 '난민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이주노동과 관련하여 한국 내 '미등록이주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5] 이들에 대한 유입국 사회의 응대는 매우 냉소적이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존재'로 인식하여, 그들의 삶이 정주할 수 없는 여건으로 내몰리는 것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입국 사회의 일원인 인호 역시 사회적 무형의 존재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삶의 도구인 태권도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결정체다. 영화에서 재현되는 로니의 '좌판'과 인호의 '태권도장'은 두 존재가 기실 상이하지 않는 '본질적 타자'로서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인호 역시 도시의 하층민으로서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으로 대변되는 '몸'과 진부한 '태권도 기술'이 전부이다. 인호가 가진 노동기재와 이주노동자 로니가 가진 노동기재는 공통적으로 상호간에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재를 공유한다. 사회적 두 소수는 서로가 부정하는(적어도 인호의 관점에서)계층적 위치에 놓여 있지만, 궁극으로는 하나의 위치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육체를 통한 노동, 즉 '태권도사범'과 '좌판행상'은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하층민과 유입국사회의 하층민은 서로 '공유의 대상'임과 동시에 '공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화 도입부에서 재현된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들의 관계가 상이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장 행사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인부에게 위치 수정을 요구하는 인호를 바라보는 또 다른 유입국의 객관적 시선을 발견 할 수 있다. 유입국의 또 다른 시선의(태권도장 직원)독백은 인호와 이주노동자 카림이 동일한 위치에 상정되어 있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저 쪽에서 보면 왼쪽이 맞는 데"라는 도장 직원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와 '소수', '주체'와 '객체'는 언제나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전적소수'도 '전적다수'도 존재하

25) 2017년도 기준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180,498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2,049,441명) 이 중 불법체류자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251,041명으로 조사되었다. 불법체류외국인 역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한국계중국인(조선족), 베트남, 타이, 필리핀 순으로 조사되었고, 최근에는 몽골과 CIS지역 국가출신들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불법체류외국인(총계;183,106명)중 남성(124,355명)이 여성(58,751명)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자격 관련 사증 종류로는 사증면제(B-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법무부, e-나라지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유입국 사회의 구성원이 '한 공간속에 어떻게 배치되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배치의 위치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 또는 '주체'와 '객체'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로니와의 불편한 인연의 시작이 실은 인호에 의하여 '좌판'이 파괴되던 날이었음을 인지하게 되던 날 로니의 한판승이 단지 그날의 우연한 '헤프닝'이 아니었음을 인호는 감지하게 된다. 좌판은 인호의 '생존투쟁'의 기재인 태권도장과 동일 선상에서 로니의 '생존투쟁'의 기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로니의 대련요청은 좌판이 파괴되던 날 로니의 삶도 함께 파괴되었음을 전달하는 도구인 것이다. 생존투쟁에는 노동자의 감정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생존투쟁의 기재를 다루는 것에는 노동과정의 저항과 고통에 대한 인내가 결부되어 있음을 내포 한다. 일련의 행위는 유입국에 의하여 이주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물질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자본이 하나의 투쟁의 결과가 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투쟁의 장으로 나가게 한다.[26] 삶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폭력의 포문을 열었던 인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그런 인호에게 로니의 반격은 하위주체에게 허락될 수 없는 반란인 것이다. 주류집단이 정의하는 하위주체는 그들의 소리를 내지 못하며(내어서도 되지 않으며)기실(其實), 처음부터 그들의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27] 이주노동자 '노점상'단속은 마치 '사냥터'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일련의 폭력에 맞선 이주노동자의 저항은 '비폭력'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항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며 그래야만 하는 존재로서 이주노동자는 위치한다.

로니의 흔적을 찾던 인호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인호와 동행하게 된 '뚜힌'의 존재는 '수용'과 '거부'의 갈림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노동자의 전형이다. 그 또한 불법체류자로 위치가 전환 된지 이미 오래다. 그의 몸에 배치된 큰 배낭은 유입국내에서의 삶을 대변함과 동시에 고단한 삶의 무게이며 '생존투쟁'의 기재가 된다. 또한 배낭이 의미하는 상징체계는 '떠도는 삶' 즉, 정착이 허락되지 않은 난민화된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쫓기고 쫓겨난 삶의 연장선에서 정착할 공간을 찾기 위해 유입국 곳곳을 그렇게 배낭과 함께 전전한다.

인호와의 동행으로 발견하고 거주하게 된 '인호의 체육관'은 뚜힌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다. 인호의 부재를 틈타 잠시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유입국 사회가 뚜힌에게 허락한 시간적/공간적 유한성을 내포 하고 있다. '인호의 체육관'이라는 공간을 차지한 것으로 묘사된 뚜힌의 행위는 '인호의 삶에 침투해 빼앗은 것'으로 묘사되며,(인호의 관점에서) 이는 이주노동자 재현과 관련한 유입국사회 정서의 은폐된 표현이다. 그러나 '침투'와 '찬탈'로 보이는 체육관 내의 뚜힌의 행위는(청소·정리 등)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공유'와 '공존'의 장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뚜힌은 거부당하고 내쫓긴다. 뚜힌에게 이주의 동기가 된 '테이프'(한국 가요테이프)를 파괴하는 인호의 행위는 뚜힌이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용의 거부이며, 존재에 대한 말살임과 동시에 그를 향한 무차별 폭력이다. 자신의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방인에 대한 인호의 응징은 차갑고 냉소적이며 폭력적이었다. 한편 뚜힌의 공간인 '방글라데

26) 이진경, 위의 책, 434쪽, 459쪽.

27)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온한 담론은 곧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로 확장 된다. 이러한 담론은 미등록 상태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군'으로 정의하는 유입국 사회의 정서가 포진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유입국 사회의 외국인 범죄율 증가와 관련하여 개연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지목되게 된다. 그러므로 미등록 이주 상태의 노동자들은 그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제도적 장치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근자의 사건을 예를 들면 2005년 5월 결성된 이주노조의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으며, 4기 위원장 '람부 토르너(네팔)'씨는 한 달 만에 강제 추방되었다. 이들 모두 미등록 상태로 정부의 관리 대상이었다. 이세기, 『이주, 그 먼 길』, 후마니타스, 2012, 160~163쪽.

시 식당'은 주체인 인호를 객체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그곳에서 인호는 유입국 사회의 행위들이 자신에게 투사됨을 경험을 한다. 일련의 투사에 대하여 인호는 폭력으로 응수한다. 이는 유입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위주체의 '불항변성'에 대한 인호의 생각이 초기 로니와의 만남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자신의 힘을(유입국 사회가 가진 힘)과시하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상정시킨 것에 대한 복수를 선택한다. 인호가 선택한 복수는 자신이 유입국 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이(이주노동자) 범접할 수 없는 '헤게모니'의 중심임을 천명하여 주체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인호가 선택한 권력의 과시는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여 하위주체와 자신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인호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전개는 그도 유입국 헤게모니와 관련한 간접적 희생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뚜힌과의 동행으로 전적타자가 아닌 공존의 길을 알아가던 인호에게 뚜힌에게 발생한 돌발 상황은 하위주체들에게 유입국의 자비는 허락되지 않음을 알게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부러진 뚜힌의 다리는 내쫓기는 자로서 삶이 파탄난 이주노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유입국의 제도와 사회질서에 의하여 존재의 정착이 불허되고, 떠도는 삶의 여정에서 유일한 노동기재이자 이동을 용이하게 했던 육신마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후, 이송된 병원에서도 뚜힌을 향한 거부는 계속되지만, 인호의 보증에 의하여 입원하게 된 뚜힌은 병원에서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이 결정된다.

유입국 사회는 그들(뚜힌과 로니)에게 어떠한 자리도 내어 주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유입국 사회에서 찾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타자의 위치에서 배척과 배제의 대상에 상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공존하는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입국의 어떤 공간(유/무형)에서도 그들을 위한 공존과 공생의 공간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유입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담론은 난민화를 가중시키는 매개가 된다.

5.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의 국제이주노동자/난민: <방가 방가>

육상호 감독의 <방가 방가>는 한 남성의 수평적 계층 이동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양상이 유입국 사회에서 어떻게 난민화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대략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모가 동남아인을 닮은 '방태식'(배우 김인권)은 매번 도전하는 취업문 앞에서 번번이 실패한다. 잦은 실패는 이제 그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 그에게 외모를 이용하여 취업에 다시 도전해 보라는 친구 '용철'(배우 김정태)의 제안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리하여 태식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공장에 취업하게 되고 신분을 위조하여 한국인 '방태식'이 아닌 부탄 출신 이주노동자 '방가'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태식의 신분 전환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국에서 요구하는 노동의 조건에 따라 그들의 신분이나 상황이 언제나 변형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렵게 노동시장에 합류하게 된 '방가(태식)'이지만, 처음 접하게 되는 노동현장은 그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적응의 시간을 요구한다. 노동의 필요를 거부당하고 노동을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재현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이는 이주현실의 실제적 반영이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학적 비판이기도 하다.[28]

---

28)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1996년 8월 3일 '제1회 대륙 간 엔쿠엔트로 폐회사'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국가의 분열과 전쟁의 발생을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기와 군사력의 증강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억압적 권력의 등장은 대량 희생을 가져오게 되는 수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과 저항에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실수에 현장을 감독하는 사업장관리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무리들(배우 신현빈(장미 역), 배우 칸 모하마드 아사두즈만(알리 역), 배우 나자루딘(라자 역), 배우 에숀쿠로브 팔비스(마이클 역), 배우 홀먼 피터 로널드(찰리 역))도 그를 배척하기에 이른다. 설상가상 양쪽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 방가는 이주노동자와 사업장 관리자들 사이에 그의 공간이 배치하게 된다. 이는 방가의 위치 배정을 통하여 유입국 사회에서 '정착'과 '재정착'이라는 양가적 위치 어디에도 배치되지 못하는 난민화 되어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재현 방법이기도 하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노동력 착취, 일상이 된 성추행, 폭언과 위장결혼 등을 경험하게 된 방가는 그들의 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며 단합을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단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노래자랑'을 준비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방가와 이주노동자들은 그들만의 연대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희망으로 상징되었던 노래자랑대회는 곧 절망으로 변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보상 대신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의해 구속되기에 이른다. 구속에 따른 강제추방 전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는 것이 허락된 방가와 친구들은 그들이 처하게 된 삶의 모습만큼 처연하게 준비한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전하는 멜로디는 유입국사회에서 난민화가 진행된 삶에 대한 애가(哀歌)가 된다.

<방가 방가>에 재현된 국제이주노동자들은 유입국 사회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주가 강제이주로 전환하며 난민화된 이주노동자들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극 초반에 등장하는 '인력시장'은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매매하는 장소이다. 이른 새벽 노동을 소비하는 곳으로 호명되기를 기다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예고 없는 기다림은 유입국 사회에서 미래 없는 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사회나 하루의 노동을 거래하는 곳은 그 사회의 하위주체들이 운집하는 곳이며,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있는 곳이다. 하루의 노동으로 하루의 삶을 유지하는 이곳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포진하게 되었다. 노동의 상품화는 미숙련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더욱더 많은 필요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체류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인력시장을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시적 위험을 내포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된다. 극중 재현된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외치는 장면) "이미그레이션!(emigration)"(이하 '이민'으로 표기)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양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초기 이주의 길에서 '이민'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단어였지만, 이주가 난민화된 삶에서는 '추방'과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상징적 '죽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은 유입국의 하위주체인 태식에게 재현됨으로써 유입국내에서 이주노동자의 판별이 표면적 형태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태식의 어눌한 한국어와 왜소하며, 갈색 띤 피부색은 그로 하여금 유입국 국민임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듯 이러한 사안은 유입국내의 다양한 이주노동자 담론 중 하나이자 중요한 판단 기재가 된다.

태식의 '방가'가 되기 전 삶의 여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여정은 하위주체로서 동일한 공통성을 이룬다. 첫째, 방가가 되어 노동현장에 투입되게 된 태식은 그곳에서도 적응이 쉽지 않다. 태식의 부적응은 방가가 되기 위하여 '탈외모화'만이 아니라 '탈정서화'도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외모만이 아닌 정서와 내적 공감이 반영될 때, 진정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도 유입국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탈외모화'와' '탈정서화'의 비실현성은 정착하지 못하는 '난민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29] 둘째, 노동의 이주는 필연적으로

Marcos, 윤길순 옮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 2002, 270~282쪽.

29) '혈연공동체'의 특질을 강하게 소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특정 기호인 '한국인'이라는 틀 속에 집단에 속한 모든 대상을 "마술적인 포획의 올가미"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주자들을 향한 일련의 '포획행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포한다. 희망은 곧 '꿈'이며 궁극으로 도달하기 위한 목표지점인 것이다. 태식의 궁극의 꿈은 고향집으로 돌아가 '돼지갈비 집'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도 본국으로의 무사귀환에 대한 꿈이 있다. 두 '꿈'이 상정하는 현실은 실현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태식의 귀환과 이주노동자들의 귀환은 현실과 괴리를 이룬다. 태식의 잦은 실직과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상태를 악용한 장기임금체불상태는 이러한 현실의 괴리를 확증하는 장치이다. 셋째, 공간의 구분이다. 노동현장에서 유입국 직원들과 이주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분리된다. 이는 노동현장 뿐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공평한 공간인 '식당'이라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조차도 철저히 분리된다.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유입국 직원과 이주노동자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태식(방가)의 현실은 어느 곳(유입국/출신국)으로도 정착이나 이주가 용이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위치를 재현하고 있다. 노동의 현장은 분리와 차별이 일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야근은 언제나 이주노동자의 몫이며. 유입국 직원들은 배제의 대상이다. 가족의 유·무에 따라 야근의 배정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정 행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한 배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로 현실에서는 존재의 부정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부정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난민화 되는 것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배척과 압제는 소수를 연대에 이르게 한다. 연대는 저항을 위한 준비가 된다. 태식과 이주노동자들은 연대를 통한 저항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저항의 무기는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하위주체 속에 존재하는 '언어'는 저항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30] 일상에서 무차별하게 가해지던 언어폭력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적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수는 주체에 의하여 또 하나의 폭력의 희생이 된다. 언어폭력이 자행되는 그 관점에서 주체가 발산하는 분노의 리듬과 더불어 언어에서 전해지는 살기어린 분위기는 행위 없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뜻을 알 수 없는 언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동물적 감각으로만 머리위로 날아드는 언어폭력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위주체의 연대는 이러한 언어폭력에 대항하여 그들도 주체에게 같은 행위를 행함으로써 주체들의 행위를 재조명시킨다. 그러나 하위주체의 저항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완전한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불법'을 통한 '신분'의 위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다. 이미 존재가 불법인 그들의 삶에 불법을 하나 더 부과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불법이 불안한 삶과 보장할 수 없는 미래라면, 새

위'는 표면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유입국사회에서 이주자와 관련하여 '코드화된 이미지'는 변형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자는 "마술적인 포획의 올가미"에서도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진경, 앞의 책, 474쪽 참조.

30) 신 자유주의적인 경제혁명의 결과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업개혁과 토지 재분배는 멕시코 원주민(농민)의 삶을 도탄에 이르게 했다. 전통적으로 삶을 이어왔던 곳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다시피 쫓겨난 그들은 산악지대나 정글로 내몰리게 되었다. 국가권력과 대지주들에 의한 박해에 저항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치아파스'지역은 멕시코 주 정부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낙후된 곳으로 이곳으로 모여든 원주민(농민)들은 그들만의 연대를 이루고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러한 연대를 이끈 인물로 '차아파스'에서 봉기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마르코스'부사령관이 있다. 20세기 혁명이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는 메스미디어을 이용하여 그의 저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사파티스타 투쟁기간 동안 전 세계 인터넷망을 통하여 혁명을 알렸다. 이 후 멕시코 정부의 무력진압에 대해 저항 할 수 없게 된 사파티스타는 '대화'노선으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국내·외적 높은 관심과 평가를 얻게 되었다. 특히,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서신들은 해박한 지식과 철학적 통찰이 잘 혼합된 내용들로 '사이버시대 혁명가' 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으며, 언어가 가진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은폐된 현실을 재현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Marcos, 윤길순 옮김, 위의 책, 50~67쪽.

롭게 시도하려는 불법은 안정된 삶과 보장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것은 태식의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부당하게 차압당한 임금을 대가로 지급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꿈'이며 '희망'이다. 그것만 있으면, 국적취득을 위하여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고향의 두고 온 아내가 도망갈까 '노심초사' 마냥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동안 가족이 없는 '감옥'같은 한국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소망도 허락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단속이라는 유입국 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유일한 선택지만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선택은 '강제추방'이라는 상징적 죽음과 같은 상태만이 유일하다. 단속반 앞에서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장미의 어린 아들의 항변은 부서진 그들의 꿈처럼 공허한 외침이 된다.

선택의 이주가 강제된 이주로 전환된 현실에서 방가와 친구들은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고, 그런 친구들을 위로하는 방가에 의해 재현되는 알리의 '세레나데'는 그리움과 슬픔, 망향에 대한 고통의 모습이며, 난민화된 파탄 난 삶의 현실에 대한 재현의 방법이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논문은 국내 체류 국제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재정착과 정주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양상을 한국영화텍스트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전 지구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국제이주노동의 증가를 가져 왔다. 이로 인한 이주노동의 국내 유입은 한국 사회 내 새로운 소수 집단을 양산하게 되었다. 국제이주를 통한 노동의 이주는 '자발적·선택적 이주'속에 은폐된 '강제된 이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부여된 출신국내의 삶의 고단함과 가족부양의 책임은 강제된 이주를 감행할 수 밖에 없는 삶의 조건이 된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담론과 소수의 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영화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재현물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의 국제이주노동 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화 텍스트에 대한 발견과 분석 방법의 활용은 그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영화 <반두비>(2009), <로니를 찾아서>(2009), <방가 방가>(2010)는 이러한 국제이주노동의 양상이 매우 잘 드러난다. 동시에 이들 작품은 국제이주노동자의 삶이나 유입국에서 정착과 재정착이 용이하지 않은 과정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과정이 '난민'의 처지와 다르지 않음을 사유하게 한다.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반두비>는 표면적/자발적 이주가 유입국 사회의 폭력과 착취로 인하여 영원한 이방인으로 고정되어, 추방에 이르게 되는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국제이주를 통한 노동은 유입국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적인 노동관행'과 '이주노동자 담론'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이주도 언제든지 파탄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두비>에 재현된 이주노동자는 자발적 이주가 강제된 이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정착이 이주노동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입국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의지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선택에 의한 이주라 할지라도 유입국내의 정주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심상국 감독의 <로니를 찾아서>는 유입국 사회의 국제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담론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가 공존을 거부당하고 어떻게 '난민화' 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입국 사회의 담론은 '노동의 기계'로서만 존재

하는 것으로, 유입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폐기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와 유입국사회의 공존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유입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빼앗는 '불온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두비>와 <로니를 찾아서>에서의 이주동기가 자발적 이주가 강제된 이주로 변형된 양상을 보여준다면 <방가 방가>는 강제된 이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위태한 신분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국 사회를 떠나지 못하며 '강제이주'상태를 유지해야하는 배경과 요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강제추방'이라는 유예된 상징적 죽음의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 의한 단속은 곧 추방이며, 추방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의 국제이주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난민화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편의 한국영화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를 통한 '노동의 이주'는 변화지 않는 현실이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각각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국제이주를 감행하고 있다. 이주를 선택하는 그(그녀)들은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이주를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그녀)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삶의 선택지도 주어져 있지 않다. 그들의 삶을 포획하는 유입국의 법과 사회적 담론은 난민화의 여정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전 지구화를 경험한 한국사회는 더욱더 하나의 중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즉, 서구중심의 중심체계는 복수의 중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양성에 대하여 배척의 강도를 높인다. 하나의 논리를 강화시킬 때 그 사회는 닫혀지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수용성이 결여되게 된다. 수용성의 결여는 한국 사회 내 이주자에 대한 정착과 재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며 이들의 난민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진희, 오윤호, 이수안,「대중매체에 나타난 타자 재현 양상 연구 : 2000년대 TV와 현대소설을
대상으로」,『탈경계 인문학』3권, 이화여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0.
김현강,「한국 사회의 이주민 담론에 대한 논증적 이해-이주노동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총』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김태환,「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다문화주의: W. Kymlicka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년』2014권, 한국정책학회, 2014.
노지현,「이주노동자 자살 사례 연구-자살원인분석을 중심으로-」,『사호복지연구』46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문영숙,「텔레비젼 광고의 소수 인종 재현에 관한 연구」,『Speech & Communication』23권,
한국소통학회, 2014.
문재원,「경계 횡단하기의 수행적 실천과 사이 정체성 -경계지대의 문화변역으로서 이주민 영화와
공감장-」,『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12권, 한국다문화-디아스포라학회, 2018.
박명진,「한국 영화의 공간성과 인종 재현 양상-이주노동자 소재 영화 <바리케이트>와 <반두비>의
경우를 중심으로-」,『어문논집』46권, 중앙어문학회, 2011.
서옥란·김화,「장률영화에 나타난 서발턴 연구」,『한중인문학연구』40권, 한중인문학회, 2013.
손은하,「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 재현된 영상물을 중심으로」,『다문화와 평화』, 7권,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3.
이길연,「다문화사회 코리아드림의 다중성과 디아스포라: 하종오 시집『입국자들』을 중심으로」,
『평화학 연구』12권, 한구평화학회, 2011.
이미림,「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양상」,『우리문학연구』35권, 우리문학회,2012.
엄미옥,「상상된 공감, 소통의 사학-『나마스테』에 나타난 법과 인권의 문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16권, 대중서사학회, 2010.
이태정,「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국경 없는 마을” 사례」, 제5회『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한양대학교, 2004.
정민아,「동시대 한국영화의 이주자 혼종문화와 이주 공간 : <로니를 찾아서>, <반두비>, <완득이>를
중심으로」,『영화』5권, 아시아영화연구, 2012.

2. 단행본

권금상 외,『9가지 다문화사회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2.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후마니타스(주), 2008.
이란주,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2003.
이세기, 『이주, 그 먼 길』, 후마니타스, 2012.
이진경, 『노마디즘2』,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2.
Arjun Appadura, 장희권 옮김, 『소수에 대한 두려움』, 에코 리브르, 2017.
David Bartram · Maritsa V. Poros · Pierre Monforte, 이영민·이현욱 외 옮김, 『개념으로 읽는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 푸른길, 2017.
Edward W. Said,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Geoffrey Nowell - Smith, 이순호 외 옮김, 『세계 영화 대사전』, 미메시스, 2005.
Marcos, 윤길순 옮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 2002.
Philip Smith,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 『문화이론-사회학적 접근』, 이학사, 2008.
Young, Robert J. C., 김택현 옮김,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홍철출판사, 2005.

3. 기타

법무부(e-나라지표),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7년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18조 1항,

【자유주제1 토론】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노동자의 ‘난민화’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선영(경성대)

별지 처리

【자유주제2】

근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아동의 주체성

-『웅철이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중심으로

박재현(부산대)

차 례

1. 들어가며
2. 아동의 현실인식과 판타지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
  1) 『웅철이의 모험』에 나타난 현실
  2) 『이상한 나라 엘리스』에 나타난 현실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스미스는 동화 속의 환상이 아동에게는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친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훌륭한 작품은 환상을 통해 오히려 현실에 대한 깊은 언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은 환상적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똑똑하게 붙잡기 어려워 표현하지 못했던 여러 의문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다.[1] 아동은 어른과 달리 현실과 상상의 세계의 선을 긋지 않고 넘나드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환상을 통해 현실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은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들만의 의식구조가 있으며 아동문학은 이런 아동의 세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즉, 아동문학에서는 발신자인 어른이 수신자인 아동을 고려해서 작품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을 볼 때 아동이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했는지를 고려해서 쓴 작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근대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자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신자인 어른은 실제 아동의 모습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동을 바라보고 그것을 작품 속에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아동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주체가 된 작품보다 발신자인 어른이 인식한 현실을 수신자인 아동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작품이 전개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문제제기로 하여 본고에서는 톨킨이 만든 용어와 캐서린 흄의 판타지 유형을 활

1) L. H. Smith, 박화목 역, 『아동문학론』, 새문사, 1979, 295~318쪽.

용하여 근대 판타지 문학을 대표하는 『웅철이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 엘리스』을 분석해 볼 것이다. 판타지 문학을 다루는 이유는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동의 특징을 고려할 때, 판타지의 특징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 판타지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며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졌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두 작품은 아동을 어른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던 근대에 쓰여졌다는 것과 『웅철이의 모험』이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근대 우리나라 아동문학이 어른인 발신자가 아동의 고유성과 아동의 현실 인식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도 더불어 고찰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아동의 현실 인식과 판타지

판타지(fantasy)란 말은 그리스어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눈에 보이도 록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현실계 밖의 일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판타지를 '지각의 대상을 심적으로 이해하는 일' 또는 '상상력으로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모양을 바꿔놓은 활동이나 힘, 또는 그 결과'라고 정의되어 있 으며, 일반 사전에도 '종작없는 상상, 꿈같은 공상, 환상, 환각'으로 풀이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fansy라는 말이 파생하여 이후 심상 형성능력으로서는 이 '팬시(공상력)'가 imagination(상상력)과 혼용되었는데, 19세기에 콜리지는 대상과 융합 통일하는 시적 창조력이 상상력이며, 공상력은 대상을 단지 결합 하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양자를 엄밀히 구별하였다.

환상성에 대한 이론은 톨킨, 츠베탕 토도로프 등 몇몇 서구 이론가들에게서 나타난다. 톨킨(J.R.R. Tolkien)은 "환상성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활동성이다. 환상성은 단연코 이성을 파괴하지도 공격하지도 않는다. 또한 환상성은 과학적 진실성의 취향을 무디게 하지도, 그러한 지각을 둔하게 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논리가 예리하고 명백할수록 더 좋은 환상성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문학에서의 환상성 논의는 토도로프, 로즈마리 잭슨, 캐서린 흄 등의 본격 연구에 이어져 엘렌 식수스, 그리고 프로이트나 라깡, 융 등의 신화학, 정신분석학적 저작들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더욱 활발해졌다. 토도로프는 환상성을 경이적인 것과 괴기적인 것 사이의 머뭇거리는 심리 상태를 '순수 환상'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았다. 토도로프는 '나의 테마'와 '너의 테마'로 환상적 담론이 갖는 내용성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상을 갖는 정신활동이 인간의 무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2] 그러나 로즈마리 잭슨은 그러한 토도로프의 환상론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허약함을 발견한다.[3] 그녀는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마르크스적 사회학적 관점을 아울러 환상성이 계통발생의 문화적 전복이라는 객관적 의미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프로이트의 『문명의 불만』, 라깡의 주체 형성 과정의 타자 이론은 잭슨의 환상성 연구에 좋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잭슨은 환상성이 무의식(라캉의 큰타자)과 의식의 틈 사이의 진정한 주체의 형성을 방해, 때로는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문화 변형 가능성을 가능하게 도와준다고 본다. 그녀는 상징계와 상상계의 관계를 변형시

---

2)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서설」, 『토도로프 저작집』 5권, 이기우 역, 한국 문화사, 1996. 223-259쪽.

3) 로즈마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4-15쪽.

키려하는 환상의 기능적 특성에 주목하여 환상성은 기존 질서에 대해 전복적으로 도발하는 것 이외에 다름 아니라고까지 생각한다.[4] 베텔하임은 전통민담의 환상성이 아동에 끼치는 역할을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로즈마리 잭슨은 계통발생의 사회 집학적 논리를 정신병리학적 현상과 결부시켜 환상성이 내포한 전복의 의미를 부각시키려 했다면, 베텔하임은 외디푸스 갈등이라는 개체발생적 논리로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 긍정하고자 한다.[5] 결국 환상성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발현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나 사회이데올로기로부터 떼어놓기 어렵다고 본다.

캐서린 흄은 좀더 환상을 미메시스(모방론)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모방론은 일찍이 가장 오래된 예술 미학이다. 환상은 결국 전통적인 미메시스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환상 이론이 지나치게 심리학이나 현상학에 의한 연구로 치닫거나 지나치게 사회학적 연구로 기우는 것을 방지한다.

환상성을 환영문학, 성찰문학, 교정문학, 탈환영문학 이상 네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캐서린 흄[6]의 이론은 작품에서 제시되는 판타지 통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대략 알 수 있게 한다. 성찰적 환상이 이야기에 새로운 리얼리티를 제공한다면, 교정적 환상은 리얼리티의 수정과 미래의 형성을 위한 계획들을 전개한다. 성찰과 교정은 서로 같은 연속체의 다른 양극으로서 상호관련을 맺는다. 환영은 현실도피이다. 환영의 환상은 일상의 억압과 책임으로부터 독자를 해방시켜주는 공간으로 독자를 이끈다. 반면에 탈환영의 환상은 환영과 같이 현실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야기로부터 소외시킨다. 탈환영의 환상은 독자로 하여금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모순에 빠뜨린다.[7] 결국 판타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는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어른인 작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 볼 점은, 아동문학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특수 형태를 가진 문학이며, 아동코드와 성인코드라는 두 가지 코드 시스템을 갖고 있다[8]는 것이다. 발신자는 어른이지만 수신자는 아동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즉, 어른인 작가는 수신자인 아동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며 이것이 판타지의 세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른들은 對象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파악하고자 하나, 어린이들에게는 오로지 발견과 경이만이 있을 뿐이다.[9] 어린이들은 세계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세상에 자아를 投射하지만 감정은 세상을 자아에게로 이끌어와 同化시켜 버린다. 어린이들은 세상의 중심을 항상 자기라 생각한다.[10]

아동은 세계를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파악하며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현실과 환상의 세계에 대해 굳이 경계선을 긋는 법이 없이 대면한다. 즉, 그들이 인식하는 현실은 어른이 인식하는 현실과는 다르다. 상상의 세계에서 충분히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현실의 세계에서 판타지를 꿈꿀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판타지는 상상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의 실감으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

4) 로즈마리 잭슨, 위의 책, 234쪽.
5)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 주옥 역, 『옛이야기의 매력1-2』, 시공주니어, 1996.
6) 캐서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7) 캐서린 흄, 위의 책, 103-107쪽.
8) 마리아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97쪽.
9) 김요섭, 「환상공학」, 『아동문학사상 Ⅰ』, 보진제, 1970, 12쪽.
10) 김요섭, 「환상공학」,『아동문학사상 Ⅰ』, 보진제, 1970. 12쪽.

톨킨에 따르면 판타지는 '1차 세계'(Primary World)와 '2차 세계' (Scondary World)로 이루어진다. 1차 세계는 경험 세계 즉, 현실 세계를 말하며, 2차 세계는 비현실적 세계를 뜻한다. 톨킨에 따르면 판타지는 1차 세계와 2차 세계가 존재하는 이야기이고 성공적인 환상이 이루어지려면 2차 세계가 내적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톨킨은 '2차 세계 안에서 2차 창조자가 말하는 것은 진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세계의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주문은 깨어지고, 마법, 아니 예술은 실패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작가에 의해 새로 창조된 2차 세계의 법칙은 그 세계 안에서 치밀하게 짜여져서 독자로 하여금 불신의 자발적 중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11]

또한 판타지는 현실과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확장이거나 심화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판타지는 현실의 은유와 전복을 통해 현실을 더욱 잘 보게 만드는 방법이자 새로운 감성과 인식 아래 현실 그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12]

2차 세계가 리얼리티를 가지고 현실의 질감으로 다가올 때 현실의 1차 세계는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즉, 어린이들에게 상상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판타지는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들을 판타지의 내적 장치들을 통해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만들며 그들이 현실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도록 돕는다.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

1) 『웅철이의 모험』에 나타난 현실

톨킨이 언급한 1차세계는 실제 현실이며 2차세계는 판타지 내의 현실이다. 『웅철이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차세계와 2차세계가 확실히 구분되며 실제 현실인 1차세계에서 판타지 세계인 2차세계로 들어가는 방법도 비슷하다. 판타지인 2차세계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1차세계의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상징과 은유로 1차세계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역시 비슷한데 이것은 『웅철이의 모험』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티프를 차용했기 때문이다. 주요섭은 『웅철이의 모험』의 창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동화라고 할른지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이라고 할른지 긴 얘기로는 19세기 영국 작가 레위스ㆍ캐롤(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에서의 알리스의 모험"(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를 무척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기서 얻은 충격으로 나는 "웅철이의 모험"을 창작했다. 캐롤의 이 작품을 읽고 나도 그와 비슷한 장편 동화를 쓰고 싶은 충동이 생겨 쓴 것이지 모방은 절대 아니다. 두 작품을 읽고 비교해 보면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3]

『웅철이의 모험』은 친구의 큰언니가 읽어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듣다가 시작된다. 친구의 큰언니가 읽어주는 책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

11) 황병하, 「환상문학과 한국문학」,『세계의 문학』, 1997, 여름호, 138쪽.
12) 김상욱,『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사, 2002,109~119쪽.
13) 주요섭, 「내가 좋아하는 동화」, 『아동문학』, 제2집, 1962. 11, 8쪽.

도입부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웅철이는 친구의 큰언니가 읽어주는『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들으며, 별 황당한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때 웅철이 앞에 시계줄이 늘어진 모본단 조끼를 입은 토끼가 나타나서 말을 건넨다.

그래 웅철이는 놀라서 그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거기에는 몸둥아리가 눈처럼 히고 두귀가 볼똑한 집토끼가 한마리 서서 웅철이를 보고 방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철이가 더한칭 놀란것은 이 집토끼는 으젓하게 모본단 조끼를 척입었고 바루 그 조끼 주머니밖으로는 구장영감이 차고다니는것과 꼭 같은 번들번들하는 시계줄이 척 늘어져 있었습니다.[14]

시계줄이 늘어진 조끼를 입은 토끼라는 설정은『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모본단 조끼"[15]와 "구장영감이 차고다니는것과 꼭 같은 번들번들하는 "시계줄"이라는 설정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웅철이에게 길을 인도하는 보똘이네 토끼는 "시계를 꺼내들고 연성 들여다보면서 웅철이더러 어서 가자고 재촉"[16]하는데, 이는 토끼나라로 가는 차 시간에 맞추기 위함이다.

『웅철이의 모험』에서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계로 여행한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이 점도『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비슷하다.『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시간이나 공간의 모호성, 혼돈은 없다. 땅 속 나라, 달나라, 해나라, 별나라의 다양한 세계를 탐험할 뿐이다. 작가는 웅철이의 탐험을 통해 1차세계인 실제 현실을 판타지 내에서 상징과 은유로 묘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실제 현실을 교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캐서린 흄의 판타지 유형으로 볼 때 이 작품은 교정적 환상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바라본 현실은 비판적이며 이것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정되어야 하는 현실은 해나라에 제시되어 있다. 해나라는 자본주의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해나라에서는 원숭이 그림자가 제일 세력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원숭이가 그리 많지는 않은 모양인데 원숭이마다 큰 집을 짓고 살고 그집 옆에는 굉장히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조고만 조개껍질들이 하나 가득 차 있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원숭이 아래에는 수천명씩의 다른 그림자들이 종노릇을 하고있는데 이 종들의 하는 일은 별다른 일은 없고 하로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만 파는것이었습니다. 땅속에는 여기저기 조개 겁질이 백혀 있는데 그 조개껍질들을 상하지 않도록 잘 파내서는 물에 씻어 창고에 갖다가 쌓아 놓는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17]

조개껍질은 과거에 화폐로 사용되던 것인 만큼, 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 많지는 않은" 원숭이가 부를 독점하는 것은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

14) 주요섭,「웅철이의 모험」,『소년』창간호, 1937, 4. 61쪽.
15) 모본단(模本緞)은 본래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의 일종이다. 이씨 조선후기부터 근대까지 많이 사용되었다.
16) 주요섭,「웅철이의 모험」,『소년』제1권 제4호, 1937. 7, 63쪽.
17) 주요섭,「웅철이의 모험」,『소년』제1권 제9호, 1937. 12, 44쪽.

습 그대로이다. 웅철이는 원숭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림자 가운데 하나에게 조개껍질을 창고에 쌓아두는 이유를 묻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쌓어 두어야 되니간 쌓어두는것이지"라는 "무슨 소린지 몰을 대답을"할 뿐이다.[18] "하로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만 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까닭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림자의 모습은 자본주의 체제의 '소외된 노동(entfremdete Arbeit)'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원숭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림자들은 "하로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기아에 허덕인다. 조개껍질을 많이 가진 원숭이들은 개구리를 많이 먹고살지만, 원숭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림자들은 겨우 작은 달팽이만 먹고산다. 더욱이 "달팽이도 없어서 걱정"[19]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설정은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력 착취와 불평등을 보여준다.

별나라는 선행을 베푸는 아동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수정되고 이상적으로 미래가 펼쳐진 공간은 별나라이다. 이 나라는 아이들의 나라이자 빈부의 격차도 없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상적 공간이다.

"아이들만 사는 별나라는 돈이라는 것도 없고 뭘 산다는 것도 판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없으니 아이들을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일 없이 아이들 마음대로 노는 자유의 나라습니다. 그 넓은 동산에 주인이라는 것도 없고 그저 아이들이 몰려가서 김매고 물 주고 북돋워 주면 일 년 열두 달 내내 열매가 흠뻑 열리기 때문에 별나라 아이는 누구나 배고픈 일 없이 실컷 맘대로 자유롭게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여기저기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무슨 병이니 무슨 고통이니 그런 것은 조금도 없는 언제나 즐겁고 화평한 나라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싸우는 일 없이 언제나 재미있게 서로 모여 놀았습니다. 꽃밭 사이로 다니면서 춤을 추거나 여러 새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푸근한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노는 아주 깨가 쏟아지게 재미있는 나라습니다. 웅철이도 그 아이들을 따라 김도 좀 매고 나무에 물도 주고 같이 뛰어 다녔습니다." (102~104쪽)[20]

별나라는 아이들이 '언제나 즐겁고 화평한 나라'로, 현실 세계와 비교하면 돈, 사고팖, 어른, 주인, 배고픔, 병, 고통, 다툼이 없고, 자유와 배부름, 재미 등이 있다. 별나라 아이들은 지구의 아이들을 위해 불을 비춰준다. 자신들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풂으로써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별나라 아이들의 무조건적인 선행은 해나라의 어른들, 특히 원숭이와 대비된다. 그들은 재물을 축적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들은 밝음으로 어둠을 만들고 지배할 뿐이다. 작가는 2차세계인 해나라와 별나라의 대비를 통해 1차 세계의 실제 현실을 비판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모색하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1차세계의 현실은 자본주의, 계급을 비판함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노동력 착취가 존재했지만, 식민지·반식민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보다 더욱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작가는 이런 현실을 밝히고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나라로의 여행은 애초부터 작가가 비판하고 수정하고자 하

18) 주요섭, 같은 곳.
19) 주요섭, 「웅철이의 모험」, 『소년』 제2권 제1호, 1938. 1, 46쪽.
20) 주요섭, 『웅철이의 모험』, 풀빛, 2006, 102-104쪽.

는 현실이다. 작가는 어린이에게 이 현실의 세계를 판타지를 통해 알려줌으로 현실을 어른과 같은 관점에서 자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이러한 역사·사회적 의식에 의해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자연 법칙의 내적 발달 원리에 따라 그 세계를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어른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아동은 어떤 사상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이전의 타고난 그들의 성정(性情)으로 사물을 본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은 판타지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현실을 분명하게 발견하며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웅철이의 모험』에서 작가는 아동이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자신이 인식한 현실을 아동에게 알리고자 한 의도가 더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상한 나라 엘리스』에 나타난 현실

『웅철이의 모험』은 자본주의라는 토대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주의ㆍ엄숙주의라는 상부구조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주의ㆍ엄숙주의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교훈주의 작품들을 비틀고 조롱하며 정면으로 도전했다. 기계적으로 구획된 시공간 개념에 기초한 성장의 의미가 동요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육과 교훈적 성격의 아동문학 모두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아동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하며 그것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임을 보여준다.

캐서린 흄의 판타지 유형의 틀에서 보자면 탈환영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벗어나 독자로 하여금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차세계인 판타지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질서들을 비틀어버림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한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획된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1차세계인 실제 현실에서 파괴해야 할 질서란, 어른들이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 세워 놓은 도덕주의, 엄숙주의를 말하며 이런 질서의 세계를 파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아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엘리스가 처음 접하는 원더랜드는 시계를 꺼내 보며 늦을까봐 걱정하는 흰 토끼이다. 시간과 함께 공간의 구획 역시 상대적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 굴로 들어가 아래로 떨어진 엘리스는 복도를 따라 늘어선 많은 문을 바라보며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밖에 갇혀 버린 상황은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묻는 앨리스의 질문에 대한 공작부인 하인의 다음과 같은 대답 역시 안과 밖의 경계가 상대적임을 드러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엘리스가 물었다.
하인은 앨리스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사이에 문이 있다면 네가 문을 두드릴 수 있겠지. 그리고 네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 널 내보내줄 거야.”[21]

21) 루이스 캐럴, 베스트트랜스 옮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더클래식, 2013, 82쪽.

하인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바, 안과 밖의 구획이 가능해지는 것은 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이다. 하인의 대답은 같은 공간에 서있다가도 사이에 경계가 생기면 하나는 안에 하나는 밖에 위치하게 되는 묘한 상황을 그려낸다. 이렇듯 공간의 구획은 자의적이며 그렇기에 혼란스럽다.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이 흔들리면서 개인의 정체성 역시 의문시된다.

"넌 누구냐?"
대화를 유쾌하게 나누기에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약간 주눅이 들어 조마조마하며 대답했다.
"저……, 이제 저도 잘 모르겟어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얘기해!"
애벌레가 엄하게 다그쳤다.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전 지금 제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말했다.
"죄송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키가 변하니 저도 정신이 없어서요"
앨리스가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니?"
애벌레가 말했다.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번데가가 되고 그런 다음 또 나비가 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요, 당신이라면 다를지도 모르죠. 저라면 정말 기분이 묘할 것 같거든요."[22]

원더랜드에서 앨리스가 만나는 애벌레, 원더랜드의 여왕 등은 그녀에게 "넌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자신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경험을 반복한 앨리스는 신체의 변화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또한 번데기가 그 다음 나비가 되는 순차적인 성장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규정되어진 성장의 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려는 앨리스의 태도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규정되어진 모든 것들에 의문을 제시하고 허물어버림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원더랜드는 시공간 개념과 이에 기초한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만큼이나 지식의 습득과 전수, 예외규범 등이 문제시되는 세계이기도 하다. 근대 이후 학교제도의 정착은 구체적으로 학년의 정비와 각 학년에 어울리는 교과목이 정착으로 나타났음을 상기해 볼 때 시공간의 구획을 허물어뜨리고 정체성을 동요시키는 작업이 학교교육에 대한 풍자를 수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이 기계적으로 앞으로 흘러가지 않는 세계에서 나아가 정확할 수 없으며, 나이에 따른

22) 루이스 캐럴, 앞의 책, 64-66쪽.

지식의 습득 역시 생소하고 억지스럽다. 습득된 지식과 예의범적에 대한 조롱은 학교교육과 교훈에 대한 조롱과 풍자로 이어진다. 모든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억지스러운 교훈을 끄집어내는 공작부인과 가짜거북이 말하는 바다 학교에 대한 기억은 교훈만을 강요하는 교육적 태도와 학교교육의 무의미함을 꼬집는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앨리스의 질문에 가짜거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선, 비틀거리기와 몸부림치기가 있지. 그리고 자잘한 수학 과목이 있는데, 야망, 산만, 추화, 조롱 같은 것들이지."[23]

가짜거북의 이러한 대답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산수로 이루어진 당시의 교육을 꼬집는다. 가짜거북의 대답을 읽다보면 재미없고 기계적인 교육내용에 머리는 빙글빙글 돌고 몸은 비비꼬이는 학생들을 상상할 수 있다. 교훈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웃음은 교훈성 강한 당시 아동문학에 대한 패러디로 드러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현실세계의 질서를 기초부터 허무는 이 이야기가 어린시절의 꿈과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앞부분에 나오는 다음의 시 구절을 살펴보자.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신기한 사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생겨났다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나고
행복한 뱃사공들은 찬란한 햇살 아래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가네.

앨리스!
이 애틋한 이야기를
부드러운 너의 손으로
어린시절의 꿈으로 가득 찬
신비한 추억의 장소에 가져다 두렴.
머나먼 땅에서 꺾어 온
순례자들의 시든 꽃다발처럼.[24]

이야기가 끝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란한 햇살 아래 노를 젓는 광경을 묘사한 작가는 원더랜드에서 벌어지는 앨리스의 모험을 어린시절의 꿈, 기억과 연결시키며 시들어버린 꽃에 비유한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질서는 어른들의 질서와는 다른 세계의 것이며 그것은 파괴되어지는 세계인 것이다. 원더랜드의 시간, 무원칙적인 이야기는 다시 일상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잊혀지는 것이지만 신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아동의 세계인 것이다.

루이스 캐롤은 확고한 정체성을 주입하고자 하는 모든 형식의 교육을 문제로 삼고 시공간 개념과 '나'라는 정체성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문제적 현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원

23) 루이스 케럴, 앞의 책, 143쪽.
24) 루이스 캐럴, 위의 책, 앞부분.

더랜드 역시 섣불리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지 않는다. 원더랜드의 세계는 현실을 구성하는 기본범주를 균열시키고 허물어뜨리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도 끊임없이 허물어지는 세계이다. 즉, 원더랜드의 세계는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꿈과 같이 사라지는 세계이다. 루이스 캐롤은 아동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성장하는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한다. 시공간의 혼동에 따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앨리스의 계속되는 질문은 사회화 논리에 따라 규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작가는 그 이전에 아동문학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허문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교훈 문학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아동,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이라는 개념과 맞닿아있었다. 이러한 교훈 문학의 주류 속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동 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것은 도덕적 목적이나 교훈을 주려는 의도 없이 오로지 아동의 즐거움만을 위한 문학의 본격 등장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캐롤은 작품 안에서 아동이 살아있게 꾸준히 노력했다. 앨리스의 조롱 섞인 냉정함과 거리낌 없이 자유분방한 태도는 동시에 아동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질서 지향적이며 순종적인 모습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루이스 캐롤은 도덕주의, 엄숙주의를 현실로 문제삼아 비판과 조롱을 일삼는 방법으로 판타지를 전개해 나간다. 어른들이 규정해 준 구획된 세계에서 성장하기보다 아동의 독자성을 인정을 인정하고 어른들이 규정해 온 질서의 세계를 파괴한다. 그 질서의 파괴는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아동의 고유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작가 루이스 캐롤은 아동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 어른들이 아동을 교육과 훈육이라는 수직적 관점이 아니라 아동이 세계를 바라보는 고유한 방식에 대해 보다 가까운 접근 하고자 하였다.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

이상 살펴본 두 작품은 아동은 어른과는 다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근대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가 전개된 사회적 · 역사적 토양이 다르기에 아동을 인식하고 작품 속에서 다루는 방법도 다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에 아동문학에서 아동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여 작품 속에서 투영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서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아동의 전도란 성인의 시선이 전제된 아동을 뜻한다. 아동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은 전도에 의해 최근에 형성된 개념이며, '유년기'와 '동심'처럼 성인이 '의식'하는 아동은 전도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25]특히 아동의 마음, 동심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은 더욱 잘 나타나 있다."'동심'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자명한 현실이 아닌 어른들의 욕망이 응축된 판타지"[26]라는 의견이 여기에 속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아동문학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특수 형태를 가진 문학이며, 아동코드와 성인코드라는 두 가지 코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의 아동에 대한 판타지적 욕망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불일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동문학의 발신자인 어른이 실제 아동인 수신자가 충족할만한 작품보다 어른의 관점을 투영시키기 위한 것들로 채

25)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b, 2010, 161~188쪽.
26) 박숙자, 「1920년대 아동의 재현 양상 연구: 문학텍스트와 공적담론을 포괄하여」, 『語文學』 제93집, 한국어문학회, 2006, 415쪽.

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근대'와 '식민지' 상황의 토양 위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少年』의 간행 취지를 설명하는 창간사를 통해 '소년'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이 雜誌의 刊行하난 趣旨에 對하야 길게 말삼하디 아니호리라. 그러나 한마듸 簡單하게 할것은 「우리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랴 하면 能히 이 責任을 勘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이 雜誌가 비록 뎍으나 우리 同人은 이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여 온갓 方法으로 써 힘쓰리라. 少年으로 하야곰 이를 닑게하라 아울너 少年을 訓導하난 父兄으로 하야곰도 이를 닑게하여라.[27]

위의 글에 나타난 '소년'은 장차 조국의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이며 계몽의 대상,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미성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년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년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 자격은 계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을 성인과 다르게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신세대를 이끌어갈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아동의 고유한 존재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인식은 『어린이』에 이르러 조금 변화를 보인다. 방정환이 쓴 『어린이』 창간사에서는 매우 극적인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아동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낯선 것이라는데서 의미가 있다.[28] '낯선 존재'는 곧 성인과 달라야 하는 아동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새와가티 꼿

과가티 앵도가튼어린입술로 턴진란만하게부르는노래, 그것은 고대로 자연의소리이며, 고대로 한울의소리입니다 비닭이와가티 톡기와가티 부들어운머리를 바람에날리면섯뒤노는 모양, 고대로가 자연의자태이고 고대로가 한울의그림자입니다. 거긔 에는 어른들과가튼욕심도잇지아니하고 욕심스런계획도잇지아니합니 다. 죄업고 허물업는 평화롭고 자유로운나라!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의 나라입니다.[29]

'고대로가 자연의자태이고 고대로가 한울의그림자"인 아동은 "어른들과가튼욕심도잇지아니하고 욕심스런계획'을 가진 성인과는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 『어린이』 창간사에서의 아동은 더 이상 성인과 아동이 연속선상에 놓여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낭만주의적 인식에서 어린이는 천사와 같이 예찬되는 대상이 되었다. 아동은 "어른이 살아가는 방식, 인생에 대한 태도가 '어린이'라는 존재를 통해 반성되고, 새로운 자세를 자각"[30]하게 한다. 아동은 생애의 한 주기, 또는 성숙 이전 단계라는 특정 개념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

27) 최남선, 『少年』 제1권 제1호, 한성: 신문관, 1908, 3쪽.

28) 방정환이 어린이를 예찬하여 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천사는 일반인들에게 지극히 낯설고 모호한 것이었다. '천사'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낭만적 인식과 적극적인 감정 개입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9, 106쪽.

29) 방정환, 『어린이』, 개벽사, 1923년 3월호 1쪽.

30) 요꼬스까 카오루, 「동심주의와 아동문학」, 『창비어린이』, 창비, 2004년 여름호, 187~188쪽.

그러나 아동의 독자성은 식민지 상황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아동의 독자적 존재를 인식함과 동시에 식민지 상황, 민족의 현실들을 아동과 연결시켜 인식함으로 그들을 민족의 현실과 분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천도교와 같은 종교와 더불어 아동에게 현실 문제 극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당시 사회적 정서도 영향을 주었다.[31] 민족 해방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의 미래를 상징하는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보게 되었다. 즉, 식민지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아동'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문학은 발신자인 어른이 수신자인 아동의 코드를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이 간과된 것이다. 독자로서의 아동보다 식민지라는 민족의 현실이 더 앞섰기에 발신자인 어른이 아동의 관점이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동 문학 속에 녹아져 있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웅철이의 모험』 역시 아동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어린이의 자각과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 등의 어른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보다 아동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근대라는 시점과 판타지적 구조가 비슷한 이 두 작품이 이렇듯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는데 필립 아리에스에 의해 근대적인 아동개념의 형성의 물적 토대로 제시된 핵심 개념이 바로 '학교-가족-아동'이다. 서구의 경우 17-18세기 '작은 어른'으로 노동하던 아동이, 학교 및 부르주아의 핵가족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순진무구한 존재로 간주되어 어른과 명확하게 구별되었다.[32]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중산층의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문학의 독자적인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에 와서 아동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세계를 담아내는 작품들이 한국의 경우 식민지의 '학교-가족-아동'으로 이어지는 근대적인 사회문화적제도가 채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에 아동문학이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근대적인 학교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아동이 주체가 되는 문학들이 근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아동관과 아동문학을 형성하는 미학적 층위에서는 수용은 매우 활발하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33] 즉, 아동을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미학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으나 거기에 비해 아동문학을 소비하는 주체인 아동이 서구에 비하면 안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볼 때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고유성을 인식하였으나 실상은 발신자인 어른이 수신자인 아동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작품보다 그들이 인식한 현실을 아동에게 훈육하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이런 한계점이 드러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서구의 아동문학 발전의 역사적 조건은 19세기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친 후 근대화의 역기능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아동문학 전개의 역사적 조건은 1910년대 한일합방으로 인한 식민지화와 1918년 세계1차 대전의 종전을 거치면서 근대화의 역기능을 인식하는 것이었다.[34] 우리나라는 식민지적 현실을 제외하고는 근대를 언급할 수가 없다.

---

31)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파주: 창비, 2006, 194~195쪽.
32) Philippe Aries,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33) 오현숙,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34) 오현숙, 앞의 논문.

민족의 해방이라는 당면한 과제 앞에 아동은 민족의 현실을 깨우치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어른의 관점이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은 아동의 세계를 탐색하고 보다 더 아동이 주체가 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5. 나오며

아동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구, 관심, 그리고 능력-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그 모든 것-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아동은 이성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을 인식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끌어온다. 아동의 삶은 그 자체로 판타지가 충만해 있으므로 상상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판타지는 상상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의 실감으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또한 판타지는 현실과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확장이거나 심화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판타지는 현실의 은유와 전복을 통해 현실을 더욱 잘 보게 만드는 방법이자 새로운 감성과 인식 아래 현실 그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은 아동이 주체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그들만의 세계로 구성해 나가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 판타지 문학을 대표하는 『웅철이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 엘리스』을 살펴보았다. 톨킨이 만든 용어와 캐서린 흄의 판타지 유형을 활용하여 작가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며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졌는지 논의해 보았다.

『웅철이의 모험』에서는 '소외된 노동'과 노동력 착취를 비판하는 웅철이는 토끼나라(달나라)와 불개나라를 거쳐 해나라에 도착한다. 해나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동이 주체가 되어 인식한 현실이 아니라 작가가 인식한 현실이다. 캐서린 흄의 판타지 유형으로 볼 때 이 작품은 교정적 환상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바라본 현실은 비판적이며 이것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동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이전의 타고난 그들의 성정(性情)으로 사물을 본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나라로의 여행은 애초부터 작가가 비판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현실이며 이것은 아동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주의ㆍ엄숙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주의ㆍ엄숙주의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교훈주의 작품들을 비틀고 조롱하며 정면으로 도전했다. 캐서린 흄의 판타지 유형의 틀에서 보자면 탈환영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벗어나 독자로 하여금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차세계인 판타지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질서들을 비틀어버림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한다. 『이상한 나라 엘리스』는 시간, 공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통해 기존의 아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비판하고 조롱한다. 작가는 아동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 어른들이 아동을 교육과 훈육이라는 수직적 관점이 아니라 아동이 세계를 바라보는 고유한 방식에 대해 보다 가까운 접근 하고자 하였다.

근대라는 시점과 판타지적 구조가 비슷한 이 두 작품이 이렇듯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다른 이유는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서구의 경우 17-18세기 '작은 어른'으로 노동하던

아동이, 학교 및 부르주아의 핵가족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순진무구한 존재로 간주되어 어른과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중산층의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문학의 독자적인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에 와서 아동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세계를 담아내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아동이 주체가 되는 문학들이 근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전히 노동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대적 아동관과 아동문학을 형성하는 미학적 층위에서는 수용은 매우 활발하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아동을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미학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으나 거기에 비해 아동문학을 소비하는 주체인 아동이 서구에 비하면 안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볼 때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고유성을 인식하였으나 실상은 발신자인 어른이 수신자인 아동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작품보다 그들이 인식한 현실을 아동에게 훈육하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이런 한계점이 드러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민족의 해방이라는 당면한 과제 앞에 아동은 민족의 현실을 깨우치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어른의 관점이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은 아동의 세계를 이해하고 보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 작품이 전개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b, 2010,

김상욱,『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사, 2002.

김요섭,「환상공학」,『아동문학사상Ⅰ』, 보진제, 1970,

김자연,「한국 판타지 동화의 환상성 구현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5.

김혜경,『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파주: 창비, 2006,

두전하,「한, 중 동화와『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모티프」, 동화와 번역 21권, 2015.

마리아 니콜라예바,『용의 아이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박숙자,「1920년대 아동의 재현 양상 연구: 문학텍스트와 공적담론을 포괄하여」,『語文學』제93집, 한국어문학회, 2006,

방정환,『어린이』, 개벽사, 1923년 3월호

루이스 캐럴, 베스트트랜스 옮김,『이상한 나라 앨리스』, 더클래식, 2013,

로즈마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환상성 : 전복의 문학」,『문학동네』, 2001.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 주옥 역,『옛이야기의 매력1-2』, 시공주니어, 1996.

손향숙,「영국의 아동문학과 어린이 개념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오현숙,「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원종찬,「한국 아동문학이 창조한 주인공」,『창작과 비평』27권, 1999.

요꼬스까 카오루,「동심주의와 아동문학」,『창비어린이』, 창비, 2004년 여름호,
이미정,「1920-1930년대 한국 아동문학에 나타난 아동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16.
이성자,「한국 현대 판타지 동화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2003.
이수진,「영국 판타지 동화」,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이인영,「한국 근대 아동잡지의 어린이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5.
이지혜,「한국 장편 환상동화 연구」, 한경대학교 석사논문, 2012.
전희은, 1920-1930년대 주요섭의 아동문학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2.
주요섭,『웅철이의 모험』, 풀빛, 2006.
_____,「웅철이의 모험」,『소년』창간호, 1937, 4.
_____,「웅철이의 모험」,『소년』제1권 제4호, 1937. 7,
_____,「웅철이의 모험」,『소년』제1권 제9호, 1937. 12,
_____,「웅철이의 모험」,『소년』제 2권 제1호, 1938. 1,
_____,「내가 좋아하는 동화」,『아동문학』, 제2집, 1962. 11,
최남선,『少年』제1권 제1호, 한성: 신문관, 1908,
조은숙,『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9.
츠베탕 토도로프,「환상문학서설」,『토도로프 저작집』5권, 이기우 역, 한국 문화사, 1996.
캐스린 흄, 한창엽 역,『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한명환,「아동서사의 판타지이론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3권, 2008.
황병하,「환상문학과 한국문학」,『세계의 문학』, 1997, 여름호,
L. H. Smith, 박화목 역,『아동문학론』, 새문사, 1979,
Philippe Aries, 문지영 옮김,『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자유주제2 토론】

「근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아동의 주체성」에 대한 토론문

정기문(동아대)

이 논문은 『이상한 나라 엘리스』와 『웅철이의 모험』이 쓰일 당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의 시/공간적 특질을 분석해 "작품 속 판타지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며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쓰"였는지에 대해 논고하고, 동시에 "근대 우리나라 아동문학이 어른인 발신자가 아동의 고유성과 아동의 현실 인식에 얼마나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주요섭의 『웅철이의 모험』이 1937년 식민지 조선이라는 맥락에서 최초로 쓰여진 환상 문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데, 이 작품이 영향을 받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함께 비교 분석하여 의미를 추출하고 있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전개하는 연구의 맥락을 좇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한다.

1.

이 논문의 전체적인 유기적 짜임에 대해 묻고 싶다. 이 논문은 "1. 들어가며" "2. 아동의 현실인식과 판타지"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 "5. 나오며"의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들어가며"에서 논문의 기본적인 관점과 목적에 대해 밝히고 "2. 아동의 현실인식과 판타지"에서는 톨킨, 토도로프, 캐서린 흄 등의 서구 이론가의 이론에 바탕하여 판타지, 공상력, 상상력, 환상성, 환영문학, 성찰문학, 교정문학, 탈환영문학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어서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에서 본격적으로 『웅철이의 모험』과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비교 분석하고,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에서는 근대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웅철이의 모험』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짚고, "5. 나오며"에서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2. 아동의 현실인식과 판타지"에서의 이론적인 논의가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에서 구체화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2. 아동의 현실인식과 판타지"가 없다고 해도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을 읽는 데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캐서린 흄의 문학 분류에 의거할 때, 『웅철이의 모험』이 교정적 환상이며 『이상한 나라 엘리스』가 탈환영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논의를 통해 "2. 아동의 현실인식과 판타지"에서 소개한 이론가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극히 소박한 형태로 이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의 『웅철이의 모험』에 관한 분석에서, 이 작품이 캐서린 흄의 교정적 환상, 즉 리얼리티의 수정과 미래의 형성을 위한 계획들을 전개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의 『웅철이의 모험』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만을 언급하지만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에서는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근대'와 '식민지' 상황의 토양 위에 드러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에서의 이러한 판단은 최남선, 방정환 등의 소년/어린이에 관한 담론공간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렇지만 『웅철이의 모험』

에 내재해 있지 않은 식민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소년의 호명을 끌어와 논의를 펼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웅철이의 모험』에서 왜 식민지의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았는지, 혹은 텍스트의 무의식에 그것이 내재해 있는지 등의 방향으로 논지가 전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앞의 질문에서 “3. 판타지 유형에 따른 현실인식”의 『웅철이의 모험』에 관한 분석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만이 내재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에서 “『웅철이의 모험』 역시 아동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어린이의 자각과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 등의 어른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4. 근대 아동문학과 아동의 주체성”의 소년에 관한 담론을 전개한 후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에 작품 자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4.

발표자는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서구의 경우 17-18세기 ‘작은 어른’으로 노동하던 아동이, 학교 및 부르주아의 핵가족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순진무구한 존재로 간주되어 어른과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중산층의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문학의 독자적인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에 와서 아동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세계를 담아내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아동이 주체가 되는 문학들이 근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전히 노동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대적 아동관과 아동문학을 형성하는 미학적 층위에서는 수용은 매우 활발하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아동을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미학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으나 거기에 비해 아동문학을 소비하는 주체인 아동이 서구에 비하면 안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볼 때 우리나라 근대 아동문학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고유성을 인식하였으나 실상은 발신자인 어른이 수신자인 아동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작품보다 그들이 인식한 현실을 아동에게 훈육하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엘리스』와 주요섭의 『웅철이의 모험』, 이 두 작품을 근거로 서구와 식민지 조선의 근대 아동에 관한 담론, 미학적 응전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5.

주지하다시피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은 복잡다단하다. 그렇기에 당연히 당대를 살아간 식민지 지식인의 사유와 미학적 응전 또한 혼종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섭 또한 조선의 평양,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 미국 등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유하고 글을 썼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을 가늠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가들 대다수가 일제라는 매개를 통해 문학을 인식한 것과 달리 주요섭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쳤다는 사실은 특이한 이력이다. 이는 일본어로 번역된 텍스트가 아니라 영어 원서를 통해 서구를 마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이력이 다른 식민지 문학가들과는 차이나는 지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작가론을 통해 주요섭의 『웅철이의 모험』을 읽는다면 어떠한 특이점이 드러나는지 묻고 싶다.

【자유주제3】

촉석루 제영시의 전개와 주제 양상

하강진(동서대)

차 례

1. 머들어가기
2. 제재로서의 촉석루 성격
3. 촉석루 제영시의 분포 특징
4. 촉석루 제영시의 형식적 특징
5. 촉석루 제영시의 주제 양상
6. 나오며

1. 들어가기

본고는 고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창작된 矗石樓 題詠詩의 통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문학의 실체는 시문 창작의 대상이 된 장소나 인물을 따지는 일로 수렴된다. 그중 한 고을의 문화경관을 대변하는 樓亭은 예나 지금이나 문학 창작의 산실로서 지역민의 독특한 문화적 기억을 전승해 왔다.[35] 누정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생산된 작품들이 풍부하며, 누정문학은 지역문학의 형성과 발달의 측면에서 각별한 위상을 갖는다.[36] 따라서 한국의 대표 누정인 촉석루를 기반으로 창작된 제영시 연구는 경남지역의 문학사, 나아가 한국의 고전문학사 서술을 補綴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촉석루 제영시를 연구하려면 작품의 전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다. 누정문학 연구의 사정을 살펴보면, 영남루를 제외하고는 통시적인 작품 현황이 학계에 구체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37] 촉석루의 경우 일찍이 촉석루 시를 수록한 책이 나왔으나 수록한 작가는 300여 명에 남짓했으며, 더구나 작품의 해당 출전이 누락된 까닭에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촉석루 제영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분류한 문제점이 있었다.[38] 이에 우선

35) 허경진, 『대전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1996 ; 허경진,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2000 ; 우응순, 『누정, 선비문화의 산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36) 하강진, 「밀양고전문학사의 전개」, 『밀양문학사』, 밀양문학회 엮음, 2018.
37) 정경주 역주, 『영남루 제영시문』, 밀양문화원, 2002 : 정석태, 「영남루문단의 형성과 전개 양상」, 『언어와 문학의 생성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발표자료집),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2017.11.
38) 김상조 편, 『촉석루시집』, 진주시 공보실, 1979 ; 진주문화원 편/김상조 역, 『진주예찬』, 1996.

현판시를 중심으로 촉석루 시를 소개한 글이 나왔다.[39] 필자는 현판시와 일부 명사들의 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작품 수 총량은 900편이 넘고, 작자도 650여 명에 이른다고 대략 밝힌 바 있다.[40]

촉석루 제영시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산출된 작품을 한곳에 모으는 실증적 작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전래하는 각종 읍지와 개인 문집들을 열람해서 관련 시수록 여부를 일일이 조사해서 보충한 결과,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현재까지 촉석루 제영시의 총량은 977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41] 짐작건대 단일 누정시로서는 최다 수준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 탐구하려는 하위 주제를 몇 가지로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성향은 어떠한가? 작가의 출신 지역이나 신분 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둘째, 시기별로 작품의 분포 실태는 어떠한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로 구분해 제시할 것이다. 셋째, 작품의 형식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 원운과 차운시의 관계, 창작 관습을 아울러 분석할 것이다. 넷째, 작품의 주제 양상은 어떠한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촉석루 제영시의 역사적 전개를 구명할 것이며, 또 영남루 제영시와의 비교를 통해 변별되는 지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2. 제재로서의 촉석루 성격

제영시는 산수나 건물 등의 특정한 대상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제재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각의 존재는 시문 창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누각 중수의 정보는 제영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요긴하다. 따라서 촉석루의 창건, 중수, 보수 등의 경과를 인지해야만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문 제재로서의 촉석루가 갖는 장소성은 누각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촉석루는 평양성 북성의 장대인 부벽루, 밀양 관아의 객사인 영남루와 마찬가지로 진주성의 南將臺로서 공공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전기까지는 진주목사(정3품)가, 1603년 합포의 경상우병영이 이곳에 이전 설치된 뒤 1635년 11월부터는 경상우병사(종2품)가 각각 관할했다. 이때 진주도호부와 경상우병영은 상급기관인 경상감사의 지휘를 받았다. 그리고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우병영이 해체된 그 자리에는 진주부와 1896년 경상남도청이 각각 들어섰고, 1925년 도청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진주성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목사, 우병사, 관찰사 등의 본직 관리들은 촉석루에 등림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신이나 산청, 의령, 하동, 함안, 합천 등 인근 지역의 수령들도 자연스레 진주를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따라서 많은 시문이 생산되는 창작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셈이었다.

촉석루의 장소성은 무엇보다 수려한 자연경관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부벽루, 영남루와 더불어 조선 시대 3대 누각의 하나로 회자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에 전라도의 면앙정·식영정·송강정·환벽당처럼 국문시가의 歌壇을 형성하게 한 중심 무대는 아

39) 황의열, 「촉석루 시 평설」, 『경남문화연구』20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8.
40) 하강진,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 경진출판사, 2014, 342쪽.
41) 필자는 조만간 『역주 촉석루 역대 시문 집성』(가칭)을 출간할 예정인데,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니었지만, 시인 묵객들은 영남의 명소를 유람할 때면 으레 촉석루를 손가락으로 꼽았다. 특히 촉석루가 남해 금산이나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고, 덕천서원이 산청에 있던 관계로 시문 창작의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다.

진주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한 촉석루는 1241년 진주목사 김지대(1190~1266)가 단일 건물로 창건한 것이다. 조선초기에 이미 본루 좌우에 새의 날개처럼 부속누각을 거느렸다. 서각으로 1481년 쌍청당과 1522년경 임경헌(관수헌)이, 동각으로 1498년 능허당(함옥헌)과 청심헌이 각각 건립되어 웅장한 위용을 갖추었다. 이처럼 4채의 부속누각이 본루를 옹위한 형태는 다른 누각과 차별화되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부속누각 모두가 소실되는 불운을 겪었다. 전란 후 동각은 복구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청심헌은 1757년 이전까지 존재했고, 함옥헌은 20세기 초에 사라지고 말았다.

목조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단청을 새로 입히고 건물 목재나 기와를 수리해야 오래 보존될 수 있다. 누각의 책임자는 보수는 물론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소실될 경우 대대적인 중창 공사를 벌여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했다. 다만 시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택해 고을의 민력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소요 물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전근대 촉석루의 관리 책임은 진주목사와 진주판관(종5품)에게 있었다. 문헌 자료상 촉석루 창건 이후 첫 중수는 1322년 진주통판 安震(1293~1360)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1380년 왜구 약탈로 소실된 것을 1413년 진주목사 權衷이 중건했다. 1491년에는 진주목사 慶紅이, 1583년에는 진주목사 申點이 잇달아 중수했다. 그리고 경상우병영이 진주성으로 이전된 이후로는 경상우병사가 병마우후(종3품)와 더불어 관리의 책임을 맡았다. 그리하여 1618년 진주목사 겸 경상우병사 南以興이 중수했으며, 1693년 禹弼漢, 1724년 李台望, 1786년 金廷遇, 1810년 元永胄, 1886년 鄭騏澤이 각각 중수했다. 병영이 해체되고 난 이후인 1908년 진양계에서, 1949년에는 국보촉석루중수위원회에서 중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고, 1960년 진주고적보존회에서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42]

촉석루는 무엇보다 임란의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다. 제1차 진주성전투에서 처절한 항쟁 끝에 승전을 이끈 김시민 장군을, 제2차 진주성전투 때에는 순국지사 삼장사를 위시해서 논개라는 의기를 얻었다. 승전과 패전의 현장인 이곳을 방문한 문인들에게 강한 창작 동기를 불러일으켜 촉석루 제영시 창작의 계기를 제공했다.

3. 촉석루 제영시의 분포 특징

1) 작가의 출신 지역별 현황

고려말 정을보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작가를 기준으로 676명이고, 작품 수는 845

42) 이상의 본루와 부속누각의 연혁에 대해서는 필자의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59~133쪽)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최석기는 「촉석루 연혁 재고」(『동양한문학연구』40집, 동양한문학회, 2015, 283쪽)에서 경상우병사 김태허가 1606년 촉석루 본루를 중건하기 시작해 1618년 남이흥이 완공했다고 했다. 이는 임진왜란 때의 촉석루 전소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뒤에 반론을 펼친 것이고, 더구나 김태허의 중건 착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논문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태허는 촉석루가 아니라 실은 진주성 내의 弓家, 女牆, 砲樓, 대변루 등을 정비했을 따름이다.

제 977수이다. 이는 촉석루 경내의 의기사나 의암, 진주성의 사적들을 제외한, 오로지 촉석루 제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다. 명루로 곧잘 비교되는 부벽루나 영남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량이 많은 편이다. 예컨대 嶺南樓 제영시는 339명 478제 690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43] 밀양이나 응천이나 무봉암 등 영남루 제재가 아닌 작품 70수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출간된 『영남루시운』의 자료를 더하면 어림잡아 작가는 469명, 작품 수는 878수로 늘어난다. 이를 촉석루 제영시와 대비할 때 작품 수는 엇비슷하지만 작가 수에서는 훨씬 적다.[44] 그러면 촉석루 제영시의 작가와 작품 분포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한다.

① 출생 지역별 작가 분포

지 역	경남	경북	전남	서울	전북	경기	충남	충북	황해	강원	미상	계
작가 수	337	134	54	44	18	12	10	6	3	2	56	676

② 경남 지역별 작가 분포

진주	산청	합천	의령	함안	하동	거창	고성	밀양	함양	창녕	창원	기타	계
67	63	42	32	22	18	17	17	14	14	13	8	10	337

작가의 출생지는 행장이나 연보 등을 참고해 파악한 것으로, 표①에서 보듯이 경남지역에서 출생한 이는 전체 676명 중 337명으로 절반인 49.8%를 차지한다. 이 결과는 촉석루가 경남 진주에 있으므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어서 지역 연고성이 강한 경북을 비롯해 전남, 서울, 전북, 경기의 순서를 보인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표②에 나타나듯이 진주가 337명 중 67명으로 19.9%, 산청이 63명으로 18.7%의 수치를 보였다. 두 지역을 합치면 약 40%를 차지하고, 합천・의령・함안・하동・거창・고성까지 포함할 때에는 무려 73%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촉석루 제영시는 서부경남 출신의 문인들이 창작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2) 작품의 시대별 창작 현황

시대별로 창작된 촉석루 제영시의 분포도를 살펴볼 차례인데, 작가의 출생 시기와 작품의 창작 시기를 표로 각각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3) 정석태의 논문에서 통계로 잡은 작가는 19세기 중반까지 출생한 문인들이고, 산재한 문집을 조사하면 작가나 작품이 더 발견된다.

44) 『영남루시운』(남권희・전재동 역, 경북대 출판부, 2018)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창작된 영남루 시문을 수록한 필사본인데, 여기에는 영남루의 본루와 부속누각뿐만 아니라 관아의 부속건물인 동헌과 덕민정・남수정 시문이 함께 들어 있다. 한편 소루(침류당)의 작가 중 정석태의 논문과 정경주의 『영남루 제영시문』(109쪽)에는 '장문보'로, 『영남루시운』(364쪽)에는 '도사 조징'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③ 출생 연대별 작가 분포

연 대	1299년 이전	1300~99	1400~99	1500~99	1600~99	1700~99	1800~99	1900년 이후	계
작가 수	1	9	25	79	59	97	371	35	676

④ 창작 시기별 작품 분포

연 대	1300~99	1400~99	1500~99	1600~99	1700~99	1800~99	1900년 이후	미상	계
작품 수	4	39	90	132	104	177	300	131	977

표③을 보면 작가 676명 중 고려시대에 출생한 이는 10명으로 극소수이다. 이는 하륜(1347~1416)이 언급했듯이[45] 고려말까지 제영시가 제법 있었으나 도중에 유실되었고, 누각 또한 왜국 침입으로 1413년 중창 이전까지 소실된 상태라 창작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조선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영시가 창작되었는데, 작가의 대다수는 19세기 이후에 출생한 인물로 전체 60%에 달한다. 표④는 작품 詩題에 창작 시기가 명기되어 있거나 작가의 이력 혹은 생애를 감안해 만든 것이다. 창작 시기를 대체로 알 수 있는 작품은 846수 정도로 전체 약 87%를 차지한다. 이중 16세기 이전에 지어진 작품은 133수로 전체 약 14%이고, 약 31%인 300수가 1900년 이후에 창작되었다.[46] 그리고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미상으로 처리한 131수 중 96수는 뒤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1900년 전후로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촉석루 제영시는 19세기 후반에 출생한 문인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누정 작가의 보편성과 특수성

촉석루 시의 작가층에는 진주나 그 인근 지역의 출신의 문인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작시 계기는 누정시가 대개 그렇듯이 촉석루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유람이 제일 흔하고,[47] 지방행정 담당자나 사신으로서의 공무 수행과 밀접히 관계가 있다.

---

45) 하륜, 「진주촉석루기」(『동문선』권81), “題咏之美, 則有勉齋鄭先生之排律六韵・常軒安先生之長句四韵, 亦有耘隱偰先生之六絶句. 和韵而繼之者, 有若及庵閔先生・愚谷鄭先生・彛齋許先生, 皆佳作. 前輩之風流文彩, 因可想見矣.”

46) 영남루 제영시의 경우 총 878수 중 약 56%인 495수가 임란 이전에 창작된 분포 실태와는 구별된다. 아마도 경상감영이 밀양과 가까운 대구에 위치함으로써 접근하기 비교적 용이한 관내의 관리들이 내방해 제영시를 지은 까닭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1592년 전까지 창작된 시문을 엮은 『영남루시운』의 존재도 크다.

47) 김구경, 남효온, 문경동, 이황(1501~1570), 조숙, 권응인, 김뉴, 김창흡(1653~1722), 최계옹, 권두경, 정석달, 권수대, 강원일, 이상정(1725~1788), 남경룡, 하재곤, 안인일, 이양오, 최광남, 이근오, 이약렬, 남공철, 조수삼, 류휘문, 이약렬, 이가순, 이학규, 이제영, 신좌모, 민재남(1802~1873), 박희전, 심규택, 성채규, 진정범, 이유원, 강진규, 이진상, 배극소, 강문오, 강위, 김기호, 문상질, 허원식, 김우, 송병선, 이헌영, 장석신, 이상규, 오세로, 서천수, 김회석(1856~1932), 이현구, 정동철, 구연호, 반동락, 권녕호, 하봉수, 배상근, 김영학,

먼저 관내 고을 통치와 관련된 경상감영 소속의 관리들이다. 고려말 朴融의 직함은 경상도 경력이었다. 조선시대의 李陸, 成俔, 許琛, 金克成, 金安國, 金正國, 李彦迪, 宋純, 朴啟賢, 俞泓, 權好文, 洪聖民, 柳永詢, 鄭賜湖, 金止男, 朴慶新, 尹暄, 李秀彦, 洪萬朝, 李宜顯, 李瀰, 李止淵, 曺始永 등은 경상도 관찰사였다. 그리고 관찰사를 보좌하던 직책인 경상도사 黃士佑, 丁煥, 丁景達, 朴善長, 黃謹中, 任有後, 李玄祚, 金錫一, 鄭基安, 李趾秀 등도 촉석루 시를 지었다. 이중 일부는 영남루 제영시를 함께 남겼다.[48]

다음으로 진주목사, 통판(판관), 진주교수(제독), 경상우병사 등은 진주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촉석루 시를 작품을 지었으니 열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진주 인근 고을에서 벼슬살이했거나 특별한 왕명을 받들고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를 남긴 이로는 태실 증고사 鄭以吾, 8도체찰사 李石亨, 함양군수 金宗直과 金鑢, 증고사 李荇, 경상도 감군어사 黃俊良, 곤산훈도 金紐, 영남어사 辛應時, 초유사 金誠一, 호송관 金功, 소모유사 河受一, 도원수 韓浚謙, 창원부사 申之悌・鄭文孚, 통영 선호어사 李光胤, 체찰부사 南以恭, 영남선유사 金中淸, 5도체찰사 李慶全, 독운어사 睦大欽・黃杰, 어사 尹順之, 종사관 吳翻, 안음현감 朴長遠, 거창현감 南老明, 사옹원 취토관 權斗經, 사근도찰방 朴狃衢・李麟祥, 황산도찰방 尹愔, 경상우도 암행어사 鄭晩錫・呂東植・李헌영, 산청현감 南公轍, 기실참군 趙秀三, 자여도찰방 金瑩・韓哲浩, 경상암행어사 金學淳・徐尙勳, 상주진 토포사 李鍾俊, 함안군수 吳宖默, 영남선무사 李重夏 등이다. 이중 일부는 영남루 제영시를 아울러 지었다.[49]

보다시피 위의 인물 중에는 상당수가 재임 기간 중 촉석루와 영남루의 제영시 작가로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중복 사례는 진주와 밀양이 경상감영의 관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두 누각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여러 제영시 작가군에도 두루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문단을 결성해 특정한 누각을 제재로 상시 창작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시각[50]은 실상과 동떨어진 논리적 비약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촉석루 제영시를 지은 작가층의 차별적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작품 생산 배경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촉석루 시 작가에서 주목되는 특별한 관계망을 모색해보는 일로 귀결된다.

첫째, 면암 崔益鉉(1833~1906)이 1902년 4월 하동 횡천에서 열린 최치원 영정 봉안식에 참석하고 난 뒤 여러 고을을 거쳐 두 달 뒤 촉석루를 방문하는 길에 진주권의 학자들이 일시에 동행해 시문을 수창하고 학문을 강론했다. 곧 서부 경남의 기호학파 문인들이 세력을 공고히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51] 여정마다 강학회나 시회가 개최됨으로써 영호남 학자

조용헌, 양종락, 하겸진, 우하구, 조긍섭, 신영규, 노흥현, 김영시, 권도용, 조정래, 류잠, 나상숙, 한우동, 도상조, 박원종, 이전후, 김희연, 김황, 박성수, 문재봉(1903~1969), 박로철, 신성규, 최양섭, 손창수 등이다.

48) 성현(1439~1504), 김극성, 김안국, 김정국, 이언적, 송순, 정환, 박계현, 유홍, 홍성민, 정경달, 이미(1725~1779) 등이다.

49) 이석형(1415~1477), 황준량, 김륵, 신지제, 김중청, 윤신지, 윤기(1741~1826) 등이다. 한편 강대수는 진주목사와 밀양군수 때, 오횡묵은 고성군수 때 영남루 시를 지었다. 그리고 류경심은 1558년 순변사 김수문의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두 누각의 제영시를 함께 남겼다. 조숙 또한 1568년 풍기군수에 임명되자 당시 진주에 주재하던 관찰사 정유길에게 인사차 갔다가 촉석루 시를 지었고, 2년 뒤에는 그와 함께 영남루 시도 지었다.

50) 영남루 제영시의 작가 역량, 시기별 분포, 산출된 작품의 양을 고려해 '영남루 문단'이라는 독자적 범주로 상정한 정석태의 견해를 들 수 있다. 문단 실체는 공시적으로 문인들끼리 상호 연대의식의 틀 속에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할 때 성립 가능한 일이다. 통시적으로 누정시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문단 자체의 존재를 설정할 수 없다.

들이 지역을 초월해 격의 없이 교유하고 소통하는 결사의 장을 펼친 일은 지역 유학의 발달사에서도 매우 뜻깊은 사례에 속한다. 당시 최익현은 이황의 시에 차운한 제영시를 지었는데, 호남의 제자 최기룡·조우식을 비롯해 영남의 김영조·이택환·강영지·하우식이 스승을 곁에서 시종하며 촉석루 제영시를 함께 지었다.

둘째, 촉석루 제영시의 확장과 관련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師友 관계를 들 수 있다. 성재 許傳(1797~1886)의 제자인 이민식·김인섭·허원식·안종덕·이상돈·이도묵·최한승·이도추·이대형·노응호·김재인·이대형·황희수 등의 작품이 있다. 그리고 연재 宋秉璿(1936~1905)의 제자로 정봉기·박태형·한유·하우식·조계승 등이 있고, 그의 동생 심석재 宋秉珣(1839~1912)의 제자는 변호석·배성호·서상두·김회석·이현구·권두희·정형규·권재성 등이다. 또한 기정진의 제자 노백헌 鄭載圭(1843~1911)는 사우의 폭이 넓었는데, 이태현·김현옥·최한승·민치량·전상무·권상찬·권두희 등의 문우와 배성호·권운환·이택환·전기주·민용혁·민치홍·정봉기·류원중·최덕환·남정우·조용상·남창희·김상혁·권봉현·곽태종·민로식·하우식·이태식·심종환·정규석·이정수·정기·이교면·한우동·이인호 등의 제자를 들 수 있다. 이외 李震相, 郭鍾錫, 河謙鎭의 제자 중에서 촉석루 시를 지은 이가 많다. 이들은 노사학파로 분류되는 학자에 속한다.

셋째, 부자나 형제 등의 혈연적인 유대가 촉석루 시 창작의 촉매로 작용한 경우이다. 우선 父子의 관계에 있는 작가로는 윤훤-윤순지, 이소한-이은상, 이단상-이하조, 정기안-정만석, 하세응-하필청, 최광남-최상익, 최광삼-최상각-최한승(조손), 최상원-최호문, 이지용-이교문-이일(조손), 김시후-김회석, 장석신-장희원, 노근수-노흥원, 류현수-류잠, 송준필-송수근, 박형동-박로철, 손영석-손창수, 김영시-김상준, 심상봉-심규섭 등이다. 다음으로 兄弟 관계는 강대수-강대적, 김창집-김창흡, 박광보-박광석, 이진상-이운상, 송병선-송병순, 서상두-서상건, 권재환-권재성, 정규영-정해영, 하장식-하정근 등이 있다.[52] 일부는 조부·아들·손자가 모두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또 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위, 외삼촌과 생질, 고모부와 처질 사이 등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관계는 촉석루 시 작가층의 한 특색이라 하겠다.

넷째, 진주가 유배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촉석루 시 창작의 배경이 된 것도 있다. 성균관 전적 임회(1562~1624)는 전남 나주에서 양산으로, 이조정랑 조희일(1575~1638)은 대전에서 하동으로, 전 영덕현감 이지걸(1632~1702)은 서울에서 곤양으로, 전 영의정 김창집(1648~1722)은 서울에서 거제로, 부수찬 김성탁(1684~1747)은 경북 영양에서 광양으로, 이유원(1814~1888)은 서울에서 거제로 각각 유배된 적이 있다. 특히 황학·김우한·최흥원·안경직은 유배지의 김성탁을 위문하러 가면서 촉석루 시를 지었다.

이처럼 촉석루 시는 18세기 후반부터 호남을 아우르는 서부 경남 노사-한주 학파의 대대적인 결집, 사우나 혈연의 관계에 의한 창작 전통의 계승, 유배지 방문 등의 특수한 창작 조건으로 다량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촉석루 제영시의 형식적 특징

51) 하강진,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 396~404쪽 참조.

52) 이밖에 여수 방답첨제사 정지심의 아들 정석달(1660~1720), 경상우병사 신익념의 동생 신익황(1672~1722), 산음현감 서명규의 형 서명서(1711~1795), 단성현감 채응일의 아들 채제공(1720~1799), 삼가현감 김영택의 아들 김상정(1722~1788), 하동군수 이재형의 형 이재의(1772~1839) 등이 가족을 종유하거나 방문하던 도중 촉석루에 들러 시를 지었다.

1) 촉석루 제영시의 양식별 분포

촉석루 제영시는 고려말 등장해 한문학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던 19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러면 600여 년간 창작 시기별로 지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어떠한 양식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5언				7언				기타	계
	절구	율시	배율	계	절구	율시	배율	계	등	
1300년대	-	-	-	-	1	-	3	4	-	4
1400년대	3	1	2	6	17	11	5	33	-	39
1500 전후	-	-	-	-	7	1	-	8	-	8
1500년대	-	4	1	5	48	33	4	85	-	90
1600년대	2	16	1	19	29	76	3	108	5	132
1700년 전후	-	-	-	-	2	2	-	4	-	4
1700년대	4	4	-	8	15	80	1	96	-	104
1800년 전후	2	2	-	4	7	12	-	19	-	23
1800년대	2	7	-	9	26	142	-	168	-	177
1900년 전후	1	2	1	4	10	81	-	91	1	96
1900년대	6	4	-	10	46	235	9	290	-	300
계	20	40	5	65	208	673	25	906	6	977

위 표에서 보듯이 5언시는 전체 977수 중 65수로 약 6%에 불과하고, 7언시는 모두 906수로 전체 비율이 약 93%로 총량에서 압도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촉석루 본루 외에 부속누각을 제재로 한 시와 부속누각의 운자를 쓰되 촉석루를 시제로 삼은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7언시 중 율시가 전체의 약 69%를, 절구는 약 21%를 차지한다. 특이하게도 청하 權克中(1585~1659)이 지은 70구 140행의 장편 5언시가 있고, 양서 李光胤(1564~1637)과 도원 朴元甲(1564~1618)이 8행 48자의 '무단일단운체'로 지은 고시가 있다.

제영시를 보면 대개 차운시가 큰 비중을 지닌다. 원운의 권위를 창의적으로 응용한 차운시는 기억의 터전이 되어 누정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갖게 한다. 촉석루 제영시는 7언율시를 중심으로 널리 향유되었음이 드러난다. 고려후기의 면재 鄭乙輔(1285~1355)가 7언배율의 12행시를 지어 선편을 잡았다. '支'운의 '時, 詩, 衰, 遲, 詞, 垂, 奇' 운자이다. 하지만 차운시는 백문보, 백미견, 김구경, 이석형, 김종직, 성현, 유호인, 조숙, 황준량, 유홍, 신응시 등 임진왜란 이전에 활동한 작가의 작품이 전할 뿐이다.

촉석루 시의 지배적 양식은 조선전기의 박융과 조선후기의 신유한이 지은 7언율시를 들 수 있다. 우당 朴融(1347~1428)도 경상도 경력 시절에 촉석루를 방문하고 '尤'운에 속하는 '區, 樓, 流, 浮, 州' 운자를 써서 진주의 수려한 풍광과 문화 전통을 칭송했다. 이 시에 차운한 이

는 줄잡아 70여 명에 이른다. 그리고 청천 申維翰(1681~1752)은 1712년 '尤'운에 속하는 '流, 州, 樓, 愁, 遊' 운자를 활용해 촉석루의 감회를 인상적으로 읊었다. 이를 차운한 작가만도 전체 676명 중 258명으로 무려 38%를 웃돈다. 이중 시제에서 신유한의 호나 이름을 직접 밝힌 작가도 다수 있다.[53] 가히 신유한이 촉석루 전체 제영시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4] 일부 작가는 박융과 신유한의 시운인 '州'자 대신 통운의 '洲'자를 사용해 의경을 독자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촉석루 현판에도 새겨진 박융이나 신유한의 시는 문인들에게 종횡으로 경쟁 심리를 유발해 제영시 창작의 욕구를 강하게 자극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외 촉석루 7언율시의 원운 작가로 이황(1501~1570), 정돈균(1855~1941)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절구 중 7언의 형식 또한 촉석루 시에서 의미 있는 한 흐름을 형성했다. 그 중심에 학봉 金誠一(1538~1593)의 「矗石樓一絶」 시가 있다.[55] 압운을 보면 '紙'운이고, 운자는 '士, 水, 死'이다. 이 원운에 차운한 작가로는 홍화보, 민승룡, 최상각, 이가순, 여동식, 이진상, 오횡묵, 김시후, 오계수, 기우만 등이 있다.

2) 촉석루 제영시 시어의 특징

촉석루 시의 독특한 양식적 특징은 시어의 배치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시의 주된 경향이 임진왜란의 사적을 시에 담는 일이었다. 이에 삼장사의 충절을 상징하는 '三忠・三壯士・壯士・三臣・忠臣・烈士・節士'가 본루나 부속누각의 제영시에 빈번히 나타나는데, 작가만도 대략 72명에 이른다.[56] 그리고 논개의 순국이나 관련 사적을 지칭하는 '佳人・佳娘・佳姬・佳娥・義娘・翠娥・娼娥・忠娥・娥眉・蛾眉・美人・麗人・義妓'를 활용한 작가가 약 32명으로 파악된다.[57]

특히 위의 두 범주에 속하는 시어를 한 시행이나[58] 두 시행에 함께 배치해 시적 효과를 극

---

53) 예컨대 하응명(1699~1769), 최천익, 조의양, 안인일, 이양오, 강정환, 최상각, 최천익, 김영, 류휘문, 하진현, 이지수, 민재남, 박희전, 이상두, 문상질, 하경칠, 변영규, 오횡묵, 최경한, 차석호, 이희로, 조장섭, 정병조, 황병관, 권도용, 신성규, 강문식(1907~1963) 등이 있다.

54) 영남루 차운시 중 성원도가 1344년 '先'운의 '天, 前, 邊, 煙, 筵' 운자로 지은 7언율시를 원운으로 삼아 지은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수량을 압도한다. 한편 이 영남루 원운을 사용해 촉석루 제영시를 지은 이로는 제세희(1881~1943)가 유일하고, 그 반대의 사례는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

55) 이 시의 작가 문제로 '최경회설'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울러 작품 속의 삼장사가 누구인가에 대해 근대까지 호남과 영남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으나 지금은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하강진,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 417~425쪽 참조.

56) 작가로는 정사호(1553~1616)를 위시해 권극중, 하세응, 김중원, 허휘, 민승룡, 도우경, 조문언, 홍화보, 강정환, 최광남, 최상각, 하진현, 이지연, 황윤중, 김종락, 최호문, 정종덕, 임응성, 성종극, 이진상, 최익현, 권봉희, 안종덕, 오계수, 윤택규, 류두영, 기우만, 신병조, 강시형, 양상엽, 이희로, 조호래, 최호림, 황현, 전기주, 강사영, 조성락, 정동철, 문진호, 정규영, 정인휘, 정동명, 최정우, 정병조, 장지연, 박태형, 조경식, 하봉수, 최현달, 안식원, 황병관, 조용헌, 황원, 남창희, 위계룡, 김상혁, 황병중, 안정려, 박형동, 김영시, 김상수, 조정래, 임양호, 한우동, 장기홍, 안희제, 정덕영, 권숙봉, 김수응, 안상정(1888~1947) 등이 있다.

57) 작가로는 정유정(1611~1674) 이후로 이지걸, 권태시, 최계옹, 이하조, 윤봉오, 강원일, 김우한, 하재곤, 윤기, 박광보, 이재의, 이원조, 강인회, 하달홍, 심규택, 최일휴, 이유원, 변영규, 김우, 박의집, 김택영, 정은교, 최영년, 손봉상, 구연호, 오진영, 하겸진, 허정로, 조긍섭, 심창숙, 이우삼, 한우동, 이사영, 김승주, 박성수(1897~1989) 등이 있다.

대화시킨 경우가 허다한데, 작가는 어림잡아 170명 정도이다. 예컨대 후자와 관련해 추월헌 손삼변(1585~1653)이 지은 아래의 7언율시가 최초의 작품이지 싶다.

녹색 물결 장강이 고금에 흐르고	綠漲長江今古流
진양 성곽이 물가 반을 차지했네	晉陽城郭半汀洲
가파른 바위에 떨어진 꽃은 미인의 한이요	危巖花落佳人恨
전쟁 성채에 머문 구름은 장사의 시름이라	戰壘雲沈壯士愁
풍월은 대개 주인 없는 곳이 많지만	風月常多無主地
천지에 제일로 이름난 누각 있구나	乾坤第一有名樓
용사년 재난은 다시 엊그제 같은데	龍蛇浩劫還如昨
영웅의 감회가 이는 오늘의 유람	惹起雄懷此日遊

- 손삼변, 「與楊拙軒許國・曺白巖光啓・孫迂叟鵬遠・成遯邨徠登矗石樓」, 『추월헌집』권1 -

위 인용시는 시제 속의 한 인물인 손붕원(1588~1635)의 졸년을 감안할 때 1635년 이전에 지었음이 분명하다. 작가는 시어 '가인'과 '장사'를 함련의 두 시행에 배치해 촉석루에 깃든 역사적 의미를 각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지칭하는 '龍蛇', 전란의 자취를 함의하는 '折戟'이나 '沈戟', 전쟁 통에 억울하게 죽은 이를 가리키는 '猿鶴' 등의 시어가 빈번히 쓰였다. 이러한 창작 방법의 경향성은 제재 특성상 임진왜란의 사적이나 아랑의 절개와 관련된 시어가 극히 적은 영남루 제영과 대비된다.

5. 촉석루 제영시의 주제 양상

1) 진주의 문화경관에 대한 자부심

촉석루는 진주의 문화경관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 고려말 창건된 이래 이곳을 다녀간 인사들은 진주 고을의 번성함과 촉석루의 웅장함을 노래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까지 진주 지역과 누각에 별다른 사건이 없어 태평할 때는 화락한 미적 세계를 시 속에 자연스레 응축시켰다. 후대 차운시의 원운이 되기도 한 정을보, 정이오, 박융, 하연, 배환, 김종직의 작품을 먼저 거론할 만하다. 이에 대한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59] 여기서는 먼저 정을보의 시를 차운한 담암 白文寶(1303~1374)의 7언배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등림하여 옛날 놀던 일 새삼 생각하며	登臨偏憶舊遊時
강산에 애써 답하려 시구 다시 찾노니	強答江山更覓詩
나라에 어찌 난세 다스릴 현인 없겠냐만	國豈無賢戡世亂
술이 나를 부추기에 연로함이 실감나네	酒能撩我感年衰
지경 맑아 쉽게 세속 자취 끊게 하고	境淸易使塵蹤絶

58) 예를 들어 고체시로는 하석징(1672~1744)의 「촉석루」가, 7언율시로는 이명오(1750~1836)의 「矗石樓次板上韻晩兒同作」이, 7언절구로는 정태현(1858~1919)의 「등촉석루」가 가장 빠른 작품으로 파악된다.

59) 하강진,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 249~277쪽과 343~356쪽 참조.

자리 넓으니 춤사위 해봄이 어떠랴	席濶何妨舞手垂
붓 들어 공연히 춘초구를 짓다가	點筆謾成春草句
술잔 멈추고 또 죽지사 불러보거늘	停杯且唱竹枝詞
기녀가 숙부드럽게 바싹 앉으니 더욱 즐겁고	妓從坐促爲歡密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더디 가기를 바라는데	人與時偕欲去遲
이곳의 고상한 회포는 진정 속세랑 다르니	此地高懷眞不世
적성산과 현포라도 온전히 기이하지 못하리	赤城玄圃未全奇

- 백문보, 「次矗石樓韻」, 『담암집』권1 -

백문보는 촉석루의 명칭을 최초로 부여하고, 촉석루 창건자를 밝혔으며, 촉석루의 이칭인 壯元樓를 얻게 한 인물로 실로 인연이 깊다. 위 시는 1380년 왜국의 약탈로 촉석루가 소실되기 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누각 외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누마루에서 펼쳐지는 주변 분위기를 物我가 온전히 일치하는 도가적 이상 세계에 비유했다. 화자는 마냥 즐겁고 기이한 분위기에 심리가 고양된 상태로 그야말로 낭만적인 고아한 풍류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러한 시적 경향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전환된다. 즉 조선후기의 시들은 임란의 짙은 그림자를 비껴갈 수 없었다.

남강이 띠처럼 외로운 성을 껴안았고	南江如帶擁孤城
누각은 벼랑에 돌출해 차지한 땅 맑은데	樓出懸崖占地淸
언덕 대숲은 절로 이뤄 빈 난간에 빛깔 드러내고	岸竹自成空檻色
때맞춰 모여든 물가 짐승은 먼 여울에서 울도다	汀禽時和遠灘聲
저녁 생황노래가 꽃이 둘러싼 자리에 퍼지고	笙謌夕動花圍席
봄날 피리소리가 버들 가린 병영에 한가롭네	鼓角春閒柳掩營
억병 취해 존귀한 체모는 완전히 잊은 체	醉飽渾忘尊體皃
춘흥을 함께 하며 태평성대를 즐기노라	共將春興樂昇平

- 권제응, 「矗石樓與兵使南憲喆飮酒張樂」, 『취정유고』권4 -

위의 시는 취정 權濟應(1724~1792)이 1783년 진주목사로 부임한 지 한 해가 지난 시점에 경상우병사 남헌철과 풍류를 즐기면서 지은 작품 중 제2수이다. 었다. 세부 소재로 남강, 진주성, 대숲, 여울, 병영을 차례로 배열했다. 이 공간적 배경에서 연출되는 장면은 모두가 조화롭고, 작가가 다스리는 진주 고을의 문화경관에 대한 자긍심이 물씬 묻어난다. 임진왜란의 아픈 기억은 스며들 틈이 없고, 나머지 두 작품도 삼장사나 논개의 자취를 찾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분명 동시대의 시인들과 매우 다르게 오로지 '태평성대'를 읊은 것이라 오히려 낯설기까지 하다.

2) 임진왜란의 대응과 구국 의지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선비들은 직책의 유무를 막론하고 구국 항쟁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그 무렵 촉석루에 등림해 제영시를 지은 이로는 김성일, 하응도, 강칭, 강렴, 하수일이 있다. 이들은 정식 군무를 수행했거나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맞섰는데, 당시의 우국 심경을 시로 진솔하게 표출했다.

이중 촉석루에 시판으로도 걸려있는 학봉 김성일(1538~1593)과 만송 강렴(1544~1606)의 작품은 기존의 논의로 대신하고,[60] 여기서는 나머지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언제 군악 울리며 신령한 고을 회복할까　　何時笳鼓復神州
태양은 분명히 이마를 내리 쬐고 있는데　　天日分明照下頭
이제야 남은 병사를 다시금 모집했나니　　如今更募收餘卒
말끔히 못하면 누각에 오르지 않으리라　　不得澄淸不上樓

우리 고을 홀로 보장 고을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何幸吾州獨保州
영남의 회복은 이 도투마리에서 비롯되나니　　嶺南恢復此機頭
부디 그대 노력하여 늦더라도 공을 이뤄　　憑君努力桑榆業
옥패 차고 경회루에서 다시 뵈옵기를　　玉佩重瞻慶會樓
- 하수일, 「次文子愼題樓上韻二首」, 『송정집』권2 -

인용시는 송정 河受一(1553~1612)이 1592년 8월 召募有司로서 새로 확보한 곡식을 군량미로 비축하고 여러 곳에 흩어진 군사를 다시 불러모은 뒤, 이보다 두 달 전 소모유사로서 손경례와 함께 직분을 수행한 文劼(1563~1598)이 촉석루에서 지었던 시를 차운한 것이다. 화자는 군병을 거느려 왜적을 남김없이 소탕하겠다는 당찬 결의와 더불어 문할이 앞으로 전공을 세워 어전에서 책훈을 받는 영광이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말한 강렴의 작품은 바로 문할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그리고 영남 각처의 의병을 모아 초유사 김성일의 휘하에서 활약하다 정유재란 때 순절한 송와 姜偁(1544~1597)은 「壬亂倡義在矗石樓次李汝諧舜臣寄韻」(『송와유집』) 시에서 이순신 장군의 용맹한 전략과 신묘한 비책으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칭송했다. 또 영무성재 하응도(1540~1610)의 「亂後登矗石樓有感」(『영무성재일고』 권1)은 마지막 두 행이 결락된 형태로 문집에 전한다. 그는 1597년 8월 사근도찰방에서 진주판관으로 전임해 전란 후 황폐한 촉석루에 올라 진주성과 죽은 병사들에 대한 처연한 심경을 전란 전 노래와 춤으로 흥성했던 누각 분위기와 극단으로 대비해 곡진하게 읊었다.

위 시들은 작가들이 지휘관이나 의병으로서 직접 전장에 참여했거나 진주 관리로서 당시의 처절한 현장을 목격한 뒤 사무친 심정을 강개하게 노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곧 이들의 구국 의지는 촉석루가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터전으로 시 속에 자리를 잡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3) 순국 영웅의 기억과 내면 성찰

두 차례의 진주성전투에서 걸출한 순국 영웅을 여럿 배출했다. 제1차 진주성전투와 관련한 사적으로 1619년 '김시민장군전공비'를 촉석루 경내에 세우고, 1652년 '충민사'를 건립했다. 그리고 전란 후 이내 三壯士인 경상우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의 충혼을 기리는 제단을 쌓아 향사했다. 1607년에는 경상도 관찰사 정사호가 우병사 김태허와 의논해 사당을 지어 치제하면서 나라에 즉시 사액을 요청해 '彰烈'을 하사받았다. 1686년 '촉석정충단비'와 1723년 '정충단사우중수비'를 건립했다.

論介는 대외항쟁에서 보여준 충절의 전형이다. 그러나 미천한 기녀라는 이유로 공식 기록에 애초 배제되었다. 하지만 류몽인(1559~1623)이 1621년 『어우야담』을 찬술할 때 처음으로 순국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문헌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무렵 농포 정문부의 차남 정대륭

60) 하강진,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 278~298쪽 참조.

(1599~1661)은 부친의 상중임에도 유언을 받들어 진주로 남하한 지 5년째이던 1629년 危巖으로 불리던 남강 바위에 '義巖'을 전서체로 새겨 역사적 진실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 경상도사 오두인(1624~1689)은 1651년 10월 「의암기」를 지어 논개를 실재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1722년 경상우병사 최진한은 진주 선비 정식(1683~1746)가 찬술한 「의암사적비명」을 비석에 새긴 뒤 이를 촉석루 곁에 세움으로써 논개 순국의 선양과 국가 공인의 기틀로 삼았다. 그는 즉시 이 비석을 근거로 논개 정려를 계속 청원했지만 재임 중 성취하지 못했다. 또 경상우병사 남덕하는 전임자의 뜻을 이어나간 끝에 1740년 가을에는 조정으로부터 논개 순국 인정을 의미하는 '義妓'라는 정표를 받았다. 이듬해 우병사 신덕하는 정려각을 창건하면서 '義妓論介之門' 편액을 문미에 내걸었다. 논개 사당 '의기사'도 얼마 뒤 건립되었고, 정약용은 1780년 「의기사기」를 지었다.[61]

이렇듯 구국 항쟁의 상징인 삼장사와 논개를 잊지 않으려는 민중의 간절한 염원과 충의지사들의 확고한 의지는 촉석루를 각별한 문화적 기억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었다. 기억은 기록을 낳는 법이라 촉석루를 찾는 문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발동시켜 제영시의 확산과 주제 심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누각을 오늘날에 세웠으니	臺館今雖設
화려함은 진작 못 보던 것	繁華未見曾
흥망은 강물 따라 흘렀고	興亡隨逝水
인생사는 바람 앞 등불 같은데	人世似風燈
쓸쓸한 가을날 수북한 살쩍이 시름겨워	愁鬢繁秋颯
아찔한 난간에 밤이 들도록 기댔노라	危欄入夜憑
세 충신이 한 날에 죽었거늘	三忠一日死
아이들도 지금까지 칭송하네	童稚至今稱

- 정사호, 「次板上韻示金節度」, 『화곡집』권1 -

인용시는 경상감사 鄭賜湖(1553~1616)가 1607년 동쪽 부속누각인 청심헌의 현판시에 차운한 것이다. 시제 속의 '金節度'는 우병사 김태허를 지칭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청심헌은 우병사 이수일이 우병영을 진주로 이전한 이듬해인 1604년에 이미 중건해 놓은 상태였다. 화자는 예전의 화려한 규모를 회복한 모습에 안도하면서, '三忠'의 순국 사실을 어린아이까지 인지할 정도로, 그들의 명성이 진주 지역에 자자했음을 알려준다.

진주성은 신라 이래 이름난 한 구역인데	菁城羅代一名區
몇 번이나 거친 곳에 누각을 다시 세웠나	幾度荒蕪更起樓
용두사 옛터에 벼랑은 언제나 아찔하고	龍寺古基厓尙矗
<u>의암</u> 자취에 강물은 하염없이 흐르는데	<u>義巖</u>遺迹水空流
오랜 세월 흥폐에도 강산은 그대로건만	百年興廢江山在
만고의 부침 속에 속세는 덧없구려	萬古消沈塵世浮
아득한 옛 사적을 지금 물으니	往事茫茫今欲問
사람들은 옛 강주를 말할 따름	居人但道舊康州

- 정유정, 「矗石樓敬次王父忠毅公韻」, 『봉강유고』권1 -

61) 이상의 내용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하강진의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149~233쪽)을 요약해 인용했다.

인용시는 봉강 鄭有禎(1611~1674)이 조부인 농포 정문부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진주성이 신라시대 이래로 경치가 빼어난 장소에 위치해 왔다는 사실을 전제한 뒤, 그곳의 용두사 옛터에 세워진 촉석루가 세월의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몇 차례 중수를 거쳐 여전히 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 장구한 역사가 고을 사람들이 말하는 '康州'라는 옛 명칭에 깃들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있다. 이 고호는 경덕왕 때 菁州에서 개칭된 것이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義巖'이라는 시어가 사용되어 논개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의암 명칭은 그의 숙부 정대륭이 소위 논개 바위에 새김으로써 고유명사의 지위를 얻어 그 뜻이 더욱 깊었다.

위의 촉석루 시에서 '三忠'(정충단, 창렬사 포함)이나 '義巖'(논개 사적 포함)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두 범주의 용어가 단독 시제로 활용된 것을 든다면, 삼장사는 감수재 박여량(1554~1611)의 시가, 의암은 겸옹 배석휘(1653~1729)의 시가 각각 최초의 사례라 하겠다. 여하튼 임란 유적 관련 시어는 촉석루 제영시의 경향을 주도했으니, 청천 申維翰(1681~1752)이 지은 아래의 시가 대표적이다. 원래는 시판으로 걸렸으나 현재는 주련으로 게시되어 있다.

진양성 너머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晉陽城外水東流
대숲과 난초는 물가에 푸르게 어렸다	叢竹芳蘭綠映洲
천지에는 임금에게 보답한 삼장사요	天地報君**三壯士**
강산에는 길손 붙잡는 높은 누각일세	江山留客一高樓
가병에 해 비치자 숨었던 교룡이 춤추고	歌屛日照潛蛟舞
병영 막사에 서리 치니 자던 백로 근심하네	劍幕霜侵宿鷺愁
남쪽 바라보니 두성에 전쟁 기운 없는지라	南望斗邊無戰氣
장단에서 풍악 울리며 한봄을 노니는구나	將壇笳鼓半春遊

- 신유한, 「題矗石樓」, 『청천집』권1 -

그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출생이고, 일본과 중국에까지 명성을 드날려 '三國文章'으로 불렸다. 1708~1709년 생부와 양모의 초상을 잇달아 치르고 나서 1713년 증광시에 장원급제했다. 창작 시기는 1712년(임진년) 가을, 부모를 여의어 위축된 심신을 추스르고 과거 급제를 준비하던 때이다. 제1~2행에서 아름다운 서경 묘사에 치중하며 경쾌한 어조로 시작한다. 제3~4행에서는 태고의 자연 경물과 인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따져 호기심을 유발한다. 三壯士라는 시어 호출은 묘하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만 120년이 되는 해와 겹치고 있다. 국난을 구한 충절의 화신으로 삼장사를 회고하며 깊은 감회에 젖는 모습이다. 제5~6행에서는 누각 내부에서 관찰한 주위의 정경을 읊고 있다. 만물이 시기에 맞춰 활동하는 '연비어약'의 조화로운 질서가 충만한 세계를 주시한 것이다. 제7~8행은 자연 만물도 인간 세상도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신유한의 시적 어조를 경쾌한 음성으로만 읽어야 할까? 불의의 외침을 받아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던 촉석루는 역사 통찰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촉석루에서 즐기는 여유는 삼장사가 기꺼이 희생한 덕분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인식이다. 곧 풍류와 성찰의 두 측면이 공존하는 촉석루이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혈기왕성한 나이의 청천은 심층적 의미를 표현하면서도 격한 시어는 노출하지 않았다. 관리들에게 긴장을 끈을 놓지 않도록 교훈적 가치를 넌지시 던지는 창의적 수사 전략이라 하겠다. 경쾌한 어조에 감추어진 맥락을 간파하는 데에 이 시를 읽는 묘미가 들어있다.[62]

촉석루는 역사 반성의 현장이자 선비의 강직한 내면 의식을 함양하는 장소감을 지닌 심상

공간으로 두루 각인되었다.

몸은 죽었으되 마음은 살아 죽은 게 아니니	身死心生未是死
살아도 죽은 것 같다면 누가 살았다 말하랴	生而如死孰云生
남쪽 고을의 대지에 영웅들이 죽었고	南藩大地英雄死
북궐의 어진 하늘에는 비와 이슬 내렸지	北闕仁天雨露生
큰 절의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여 죽었고	大義堂堂當死死
높은 풍도로 매섭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지	高風烈烈不生生
한 잔 술로 천추의 죽음 불러 위로하니	一盃招慰千秋死
넋이 돌아와서는 내 삶을 훈계하는구려	魂可歸來誓我生

- 하재원, 「矗石樓與諸友賦生字」, 『도곡유고』권1 -

인용시는 진주에 거주한 도곡 河載源(1812~1881)이 지은 것인데, 특이한 것은 홀수 행에는 '死'자를, 짝수 행에는 '生'자를 반복적으로 배치했다. 다소 낯선 시 형식을 통해 지식인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사색하고 있다.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의로 당당하게 죽는 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라는 교훈을 삼장사의 순국에서 찾았다. 구차한 생의 도모는 진정한 선비가 취할 길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뒷날 사소 愼炳朝(1846~1924)는 이 시를 차운해서 유사한 시상을 반영했고, 그의 손자 愼昊晟(1906~1974)은 1971년 현재 논개사당의 현판에 새겨진 「의기사중건기」를 지었다.

4) 유람의 참 목적과 시대 의식

촉석루에 등림한 시인들은 순국 영웅의 원한이 깊이 서려 남강도 흐느껴 울며 흐르지 못하는 것으로 감정을 이입했다. 조우인(1561~1625)의 시를 비롯해 조선후기에 창작된 허다한 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에 순국지사의 고귀한 넋이 깃든 곳이기에 방종한 유람을 경계하는 주제 의식의 표출이 주조를 이루었다.

난간 너머 남강은 목메어 못 흐르나니	檻外長江咽不流
지금도 사람들이 진양 물가 말하는구나	至今人說晉陽洲
세금을 집집마다 가중하게 걷지 말며	休把繭絲充斥戶
차마 풍악을 고루에 쌓이도록 할소냐	忍敎歌管貯高樓
남은 사당에 풀이 묵고 침침한 성은 한스러운데	遺祠草宿沈城恨
오래된 바위에 이끼 돋았고 지는 달이 시름겹다	古石苔生落月愁
백년토록 의열에 보고 느끼는 바 있거늘	義烈百年觀感在
바람 쐬면서 등한히 노닐 일은 아니라네	臨風匪是等閒遊

- 강정환, 「矗石樓次申周伯板上韻」, 『전암집』권2 -

전암 姜鼎煥(1741~1816)은 함안 칠원에서 출생했으나 만년에 거창에서 살다 별세했다. 오열하는 남강에서 영웅의 원한을 상기하며 7언절구를 지은 용재 강덕부(1668~1725)의 손자이다. 위 인용시처럼 관리들의 횡포로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진주 지역민을 포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충신을 제향하는 사당이 있는 진주성이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한스러워하고, 이끼 돋은 의암에 비치는 달빛마저 시름겹게 느끼고 있다. 고을을 맡은 관리들은 촉석루에서 음

62) 시의 자세한 맥락과 사회문화적 해석은 하강진의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331~34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가무로 세월을 허송하기보다는 義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런 만큼 화자 자신도 너절한 유람을 즐길 수 없다고 다짐한다. '等閒'이라는 시어가 이 작품에 처음 나온다.[63]

관리로서 민생에 무관심하거나 나그네로서 풍광만을 그저 감상하는 행위를 뜻있는 지식인들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때 '等閒'과 의미가 유사한 '汗漫'이라는 용어를 맨 마지막 시행에 배치해 의경을 표현했다.[64]

지난 전란 말하려니 분한 눈물 흘러	欲說前塵憤淚流
근심스레 옛 물가로 고개를 돌린다	悄然回首古汀洲
금수강산은 뉘 것이 되었나	江山繡錯誰家物
비바람에 장사루가 황량토다	風雨荒凉壯士樓
깃발 세워 호령한 일은 옛 꿈속에 아련하고	大纛號令迷舊夢
왜놈들 멋대로 날뛰어 새 시름을 자아내네	小酋橫突釀新愁
기녀 바윗가에 물결이 더욱 성내거늘	娼娥岩畔波猶怒
우리들이 무슨 마음으로 너절히 놀겠나	我輩何心汗漫遊

-김창숙, 「矗石樓次板上韻」, 『심산유고』권1 -

위의 시는 심산 김창숙(1879~1962)이 1916년 2월에 지었는데, 당시 그는 남쪽 지역을 유람하던 길에 촉석루에 들렀다. 진주의 도시 경관은 일제의 의도대로 재편되었고, 촉석루가 위치한 진주성은 해체된 뒤 반민족적 행위가 횡횡하는 얼룩진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다.[65] 화자에게 촉석루는 새로운 근심을 자아내는 존재이고, 기녀의 바위가 거세게 분노하는 물결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일제의 지배에 대한 저항감은 올곧은 학자에게 시대가 요청하던 의식이었다.

시인들은 세상이 무탈할 때에는 촉석루를 제재로 낭만적 풍류를 노래했다. 반면에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시적 구도가 달라졌고, 이러한 창작 경향은 내내 촉석루 제영시를 주도했다. 누각에 깃든 충혼 의백을 호출해 지식인으로서의 결기를 다지거나 역사의식 없이 방탕한 유람을 즐기는 무리를 질타했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반역사적인 침탈을 준엄하게 비판했다. 시적 제재로서 갖는 촉석루의 장소 심상은 국내의 여타 누정과 차별화되는 제영시의 특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6. 나오며

이상에서 여러 문집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촉석루 제영시의 작가층, 형식과 내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정한 누정시를 대상으로 통시적 연구는 처음 시도한 것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왜란 때 부분적으로 파괴된 촉석루는 이곳을 방문한 문인들에게 창작의 계기를

63) 이외 '等閒'을 활용해 유사한 시상을 나타낸 이로는 김종락(1796~1875), 김인섭, 허원식, 육용정, 이근문, 정전기, 이현구, 권두희, 김영학, 권도용, 김종호, 안상정, 정연준, 김학수, 도현규(1905~1995) 등이 있다.

64) 예컨대 이풍익(1804~1887), 강진규, 조시영, 구연호, 조경식, 하겸진, 성석근, 김창숙, 하정근, 권재성, 민인식(1902~1972) 등의 작품이 있다.

65) 이와 관련해 하강진의 『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32~47쪽)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공함으로써 촉석루로 대변되는 누정이 지역문학의 산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촉석루 제영시의 총량을 조사한 결과 작가는 676명, 작품 수는 845제 977수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촉석루는 최다의 누정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둘째, 작가는 경남 출신이 가장 많아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진주를 비롯해 인근 지역의 작가들이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가는 유람객이 제일 많고, 고을 통치와 관련된 관리들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누정시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인 작가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한 문단은 과도한 견해임을 알 수 있었다. 작가층 중 가족이나 사우 관계에 있는 문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특징적이었다. 특히 영호남의 노사학파가 촉석루 제영시를 많이 남긴 것은 주목할 사례라 하겠다.

셋째,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대략 846수로 전체 약 87%에 달했다. 이중 16세기 이전의 작품은 133수로 적은 분포에 머물렀다. 작품의 약 31%인 300수가 1900년 이후에 창작되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에 출생한 문인들이 대거 작가로 포진한 결과였다.

넷째, 촉석루 시 중 5언시는 전체 5%인 65수에 불과하고, 7언시가 약 93%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으며, 그중에 7언율시가 약 69%에 달했다. 그리고 선편의 잡은 정을보의 시는 조선전기까지만 원운으로서의 효용성을 가졌다. 대신에 조선후기에는 신유한의 시를 차운한 제영시가 38%를 상회해 거대한 흐름을 이루었고, 박융과 이황과 정돈균의 작품도 거론할 만했다. 또한 임란 사적과 유관한 시어가 관습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누정시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섯째, 촉석루 시의 주제의 양상을 진주의 문화경관에 대한 자부심, 임진왜란의 대응과 구국 의지, 순국 영웅의 기억과 내면 성찰, 유람의 참 목적과 시대의식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항일 전투에 직접 참전한 작가들의 작품은 촉석루 시의 변별성을 강화했다.

여섯째, 조선후기 이후로 순국 영웅을 호출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강개한 충의 정신을 주제로 내세우는 창작 경향이 지배했다. 이에 따라 촉석루의 문화경관을 부각하는 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촉석루 유람도 올바른 시대의식을 체득하는 계기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일제강점기에는 반민족적 행위를 시를 통해 비판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누정문학의 특성은 물론 지역문학사를 구성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상조 편,『촉석루시집』, 진주시 공보실, 1979.
김수업,『논개』, 지식산업사, 2001.
김준형,『진주성 이야기』, 알마, 2015.
우응순,『누정, 선비문화의 산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정경주 역주,『영남루 제영시문』, 밀양문화원, 2002.
진주문화원 편/김상조 역,『진주예찬』, 1996.
허경진,『대전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1996.
허경진,『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2000.
하강진,『진주성 촉석루의 숨은 내력』, 경진출판사, 2014.
하강진 외,『천년도시 진주의 향기』,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편자 미상/남권희・전재동 역,『영남루시운』, 경북대 출판부, 2018.

김봉곤,「영남지역에서의 노사학파와 한주학파의 성립과 학설교류」,『공자학』14집, 한국공자학회, 2007.
정석태,「영남루문단의 형성과 전개양상」,『언어와 문학의 생성공간, 그 특수성과 보편성』(발표자료집),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2017.11
최석기,「촉석루 연혁 재고」,『동양한문학연구』40집, 동양한문학회, 2015,
하강진,「김해 연자루 제영시 연구」,『지역문학연구』10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하강진,「밀양 영남루 제영시 연구」,『지역문학연구』13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6.
하강진,「퇴계학파의 영남루 제영시에 대하여」,『퇴계학논총』12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06.
하강진,「진주 촉석루 제영시의 제재적 성격」,『한국문학논총』50집, 한국문학회, 2008.
하강진,「진주 남강 절벽의 바위글씨로 읽는 근대 인물의 사회문화사」,『근대서지』8호, 소명출판, 2013.12.
하강진,「다산 정약용의 시문학 공간으로서 진주」,『영주어문』27집, 영주어문학회, 2014.
하강진,「밀양고전문학사의 전개」,『밀양문학사』, 밀양문학회 엮음, 2018.12.
황의열,「촉석루 시 평설」,『경남문화연구』20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8.

【자유주제3 토론】

「촉석루 제영시의 전개와 주제 양상」에 대한 토론문

최은주(경북대)

이 연구는 고려 시대부터 근대까지 창작된 촉석루 제영시를 대상으로 ①촉석루의 장소성, ②제영시의 분포 특징(작가의 출신 지역, 시대적 창작 현황 등), ③제영시의 형식적 특징, ④제영시의 주제 양상 등을 통해 역사적 전개와 주제 양상을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대별로 산출된 촉석루 제영시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여 그 통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같은 발표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의 논의에서는 촉석루 제재의 제영시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의 목적과 성격을 떠올려 본다면, 제재에 한정을 두는 것이 의미가 깊을 듯합니다. 하지만 의기사나 의암, 진주성의 사적들을 읊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촉석루가 함께 자리할 듯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구 대상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각주 7번에서 언급하신 향후 출간될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포괄되는지 궁금합니다.

2. 논의의 목적에서 촉석루 제영시의 역사적 전개를 구명하는 것을 하위 주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시대적 창작 현황이나 작가의 분포를 통해 일정 부분 알 수 있고, 또한 주제 양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긴 합니다. 하지만 특정 공간의 장소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생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기별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런지요.

3. 촉석루 제영시는 “18세기 후반부터 호남을 아우르는 서부 경남 노사-한주학파의 대대적인 결집, 師友나 혈연의 관계에 의한 창작 전통의 계승, 유배지 방문 등의 특수한 창작 조건으로 다량 생산”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문에서 서술한 것들은 제영시의 다량 창작의 조건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제영시가 지닌 특징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학파 내에서의 창작 규범이나 동류 의식 같은 것을 제영시에서 찾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논의에서 밀양의 영남루와의 비교를 통해 촉석루 제영시가 가진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분명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듯합니다. 특히 촉석루 제영시에서는 임진왜란이나 순국 영웅을 빈번하게 드러나지만, 영남루 제영시에서는 임진왜란의

사적이나 아랑의 절개와 관련된 시어가 극히 적게 드러나는 지점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촉석루가 전쟁과 관련된 강력한 기억이 재생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혹 더 깊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논의를 통해 영남루 제영시와 촉석루 제영시를 함께 남긴 인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제영시 창작에 있어서, 그 누정이 名樓로 일컬어지거나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장소감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동일 작품을 남긴 이들 가운데 각각의 누정에서 느낀 장소성의 변별점이 작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제4】

칸트(I. kant) 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황석우 시론의 기저

최호영(인천대)

차 례

1. 서론 : 1920년대 한국 문단과 황석우 시론의 위치
2. 감정의 특화와 예술의 절대성 표방
3. 칸트 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기분'의 숭고한 영역 발견
4. '생명' 개념의 함의와 자유시 논의의 방향성
5. 결론 : 근대시 성립의 과제와 조선적 자유시의 한 방향

1. 서론 : 1920년대 한국 문단과 황석우 시론의 위치

상아탑(象牙塔) 황석우(1895~1959)는 근대 초기 한국에서 사상사적 측면에서나 시사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이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건대, 그는 다이쇼기 일본을 풍미하던 데모크라시의 분위기를 계기로 정치세계에 눈을 뜬 이래, 조선고학생동우회, 의거단(義擧團), 코스모구락부, 흑도회, 만주이주조선농민보호연구회 등 여러 단체에 가담하여 아나키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석우는 『근대사조』(1916.1), 『대중시보』(1921.5)와 같이 아나키즘과 공산주의 색채가 농후한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근대적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다. 시사적 측면에서 보건대, 그는 1920년대 전후의 한국 문단에서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근대 시론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석우는 『삼광』(1919.2), 『폐허』(1920.7), 『장미촌』(1921.5), 『조선시단』(1928.10) 등 문예잡지와 시전문지를 지속적으로 간행함으로써 당대 문단에서 '문학 장'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1] 이처럼 황석우는 근대 초기 조선에서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치사상적 방면과 문예적 방면을 넘나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황석우의 문학에서 아나키즘의 성격을 읽어내고 정치사상적 방면에서 그의 역할에 주목하려는 논의와[2] 근대 한국 문단에서 상징주의를 소개하고 자유시를 논의하는 등 문예적 방면에서 그의 활동을 살펴보려는 논의를[3] 전개해왔다. 이와

1) 황석우의 행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자료에 나와 있는 연표를 참고하였다. 정우택, 『황석우 연구』, 박이정, 2008, 585~599면; 정우택, 「황석우 연보」, 『근대서지』 제3호, 근대서지학회, 2011, 78~97면.

2) 정우택, 「『근대사조』의 매체적 성격과 문예사상적 의의」, 『국제어문』 제34집, 국제어문학회, 2005, 149~198면; 노춘기, 「황석우 시의 자연과 생명의 가치-시집 『자연송』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16집, 한국어문학회, 2012, 237~265면; 안지영, 「황석우 시에 나타난 '생명 인식과 아나키즘의 영향」, 『어문연구』 제41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57~382면; 권정희, 「『아세아공론』 소재 황석우의 글쓰기」. 『한국문화연구』 제26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4, 99~125면.

3) 김영철, 「한국 상징주의의 수용양상-김억·황석우·주요한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집,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17~30면; 김춘식, 「신시 혹은 근대시와 조선시의 정체성-황석

함께 황석우의 문학세계에서 양자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측면을 고찰하려는 논의[4] 또한 전개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황석우가 식민지 조선에서 문학, 사상, 정치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 '문화'를[5] 형성하는 데 기여한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인으로서 황석우가 지닌 면모나 그의 시론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황석우는 당대 문단에서 김억, 주요한과 함께 본격적인 근대 시론을 제출한 몇 안 되는 시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그의 특이한 위치는 철학적인 개념어와 형이상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근대시의 미학적 영역을 개척하려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이 아마도 그의 문학을 난해하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다른 시인에 비해 그의 시세계에 대한 관심을 저해해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황석우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시인으로서 갖춰야 할 "체험과 천분(天分)"을 강조하면서도, 예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을 통한 후천적인 학습으로 이를 보다 풍부하게 길러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6]

이런 점에서 황석우가 근대 시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 학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황석우 시론의 내적 논리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가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칸트의 미학에 주목하여[7] 그의 시론에 내재한 미학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황석우가 칸트의 미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때, 그의 시론과 칸트 미학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의 시론이 지닌 특이한 지점뿐만 아니라 조선적 근대시에 내포된 한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2. 감정의 특화와 예술의 절대성 표방

황석우는 『삼광』(1919), 『폐허』(1920), 『장미촌』(1921) 등 1920년대를 대표하는 문예잡지를 발행하기 이전에 『매일신보』를 통해 몇 차례 문학평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1918년

우·현철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8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73~97면; 노춘기, 「황석우의 초기 시와 시론의 위치-잡지 『삼광』 소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32호, 한국시학회, 2011, 35~60면; 노춘기, 「시전문지 『조선시단』 소재 시와 시론 연구-매체 내 황석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2, 257~283면.

4) 조두섭, 「황석우의 상징주의시론과 아나키즘론의 연속성」, 『우리말글』 제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541~554면. 이와 함께 황석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황석우가 주도한 시전문지 『장미촌』을 대상으로 아나키즘과 상징주의가 혼재된 경향을 밝혀낸 논의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황석우의 문학에서 아나키즘과 상징주의의 연관성에 주목하려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조영복, 「『장미촌』의 비전문 문인들의 성격과 시 사상」,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203~247면).

5) 정우택에 따르면, 1920년대 초기 조선에서 발행된 잡지는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문학'과 '사상'을 아우르는 '문화'의 산물이라 볼 수 있으나, 이후 점차 '문학'과 '사상'이 각자의 영역으로 분화·전문화되는 흐름을 보인다(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35~65면).

6) 황석우, 「詩 作家로의 抱負-附 新年 詩壇에 對한 一二의 ○言」, 『동아일보』, 1922. 1. 7; 정우택, 『황석우 연구』, 219면.

7) 선행연구에서 황석우 시론과 칸트 미학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논의로는 이은지의 논의가 유일하다. 이 논의에서는 칸트의 취미판단에 근거하여 황석우가 제시한 '기분' 개념의 원리와 함의를 설명하고 있으나, 황석우가 다소 칸트 미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양자가 변별되는 지점에 황석우 시론의 특이한 미학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이은지, 「황석우 초기 시론의 '천재'와 '민중' 문제」, 『어문연구』 제42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329~333면).

8월 28일부터 8월 29일에 걸쳐 발표한 「현대조선문단(現代朝鮮文壇)」은 현재까지 확인된 그의 최초의 문학평론이다. 이 글에서 황석우는 당대 조선 문단이 "예술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개탄하는 가운데 예술의 독립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기존에 존재하던 "유형의 윤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현실세계와는 무관한 "새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8] 이후에도 황석우는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시를 비롯한 예술이 '감정'의 산물이며, 이에 따른 시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유시'를 주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가) **詩歌는 勿論, 氣分藝術이다.** 그러나 그 氣分뿐의 單純ᄒᆞᆫ 것썹질의 表現이여서는 아니 된다. 氣分은 어는 氣分이던지 一種 衰味를 가젓다. 이것은 氣分의 特性 = 天性이라고도 ᄒᆞᆯ 것이다. 그러나 곳 이 單純ᄒᆞᆫ 哀의 表現이여서는 아니 된다. **氣分은 어느 未知의 世界를 包ᄒᆞᆯ ᄒᆞᆫ 氣圍氣에 불과ᄒᆞ다.** (…중략…)
>
> 第一의 段階를 버서난 **氣分은 다시 ᄒᆞᆫ 熱에 依ᄒᆞ야 旋風의 勢로 詩人의 心野에 덥혀들 ᄭᅵ는 비로소 叡智는 『血眼狂』이 되야 그 氣分을 좌우로 헷치고 그 氣分의 밋헤 출넘거리는 海嘯와 갓흔 感情에 ᄭᅵ여든다.** 이곳에서 ▯語의 掘鑿】이란 劇烈ᄒᆞᆫ 運動이 이러난다.
>
> 「詩話ㅡ氣分과 叡智」 부분[9]

> (나) 自由詩의 發祥地ᄂᆞᆫ 더 말ᄒᆞᆯ 것 업시 彼 佛蘭西임니다. 自由詩 以前에 在ᄒᆞᆫ 劇詩ᄂᆞᆫ 音數, 體裁 等에 關한 複雜ᄒᆞᆫ, 怪難ᄒᆞᆫ 法則에 支配되여 잇섯슴니다. 彼알렉신도리안 調의 十二綴音의 法則과 갓흠은 그 顯著한 例임니다. 이것은 ▯一行一段落制】라고도 ᄒᆞᆯ 法則이엇슴니다. (…중략…) **이런 不自由의 典據, 外的 制律이 詩人의 自由, 奔放의 感情을 拘束, 壓迫ᄒᆞ여 왓슴니다.** 近境 우리의 흔히 듯ᄂᆞᆫ ▯반잔부민】이란 語ᄂᆞᆫ 이 時代의 土産語品임니다. 곳 彼 法則에 反ᄒᆞᆫ 詩ᄂᆞᆫ ▯반잔부민】이라고 呼ᄒᆞ얏기 ᄭᅵ문임니다.
>
> **이 前提詩形에 反抗ᄒᆞ여 立ᄒᆞᆫ 者가 곳 自由詩임니다. 自由詩ᄂᆞᆫ 그 律의 根柢를 個性에 置ᄒᆞ엿슴니다.**
>
> 「朝鮮 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부분[10]

황석우는 ▯매일신보】에 발표한 자신의 첫 시론에서 '기분'을 잘 엮어낸 '직물'에 시의 음악성["율(律)"]을, '기분'을 베틀로 섬세하게 짜내는 사람에 "일인(一人)의 시인(詩人)"을 빗댐으로써 시를 '감정'의 산물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후 그가 ▯매일신보】에 발표한 내용에다가 「기분(氣分)과 예지(叡智)」, 「어(語)의 저장(貯藏)」이라는 두 개의 절을 추가하여 ▯삼광】에 발표하고 있다고 볼 때, 그의 초기 시론의 목적은 시인이 감정을 포착하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에서 황석우는 시를 "기분예술(氣分藝術)"이라 정의하고서 '기분'에 담긴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분'은 어떤 기분이라도 일종의 "쇠미(衰味)"를 가졌다는 점에서 낡기 마련이며, 그것이 기분의 숙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인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시적인 감정을 획득한다고 해도, 그의 생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동하는 생활 가운데 감정 또한 시시각각 변화해갈 수밖에 없다. 그가 "기분(氣分)은 어느 미지(未知)의 세계(世界)를 포(包)ᄒᆞᆯ ᄒᆞᆫ 기위기(氣圍氣)

---

8) 황석우, 「現代朝鮮文壇(一)」, ▯매일신보】, 1918. 8. 28; 정우택 편, ▯황석우 연구】, 139면. 인용문에서 굵게 강조한 표시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히며 이하 생략한다.
9) 황석우, 「詩話ㅡ氣分과 叡智」, ▯삼광】 제3호, 1920. 4; 위의 책, 146면.
10) 황석우, 「朝鮮 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매일신보】, 1919. 11. 10; 위의 책, 149~150면.

에 불과(不過)ᄒᆞ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다. 실제로 황석우는 '기분'에 담긴 층위를 구별하고, '기분'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기분'의 유동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우리의 생활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의 밑에도 '출렁거리는 파도소리'와 같은 '감정'이 뛰놀고 있다. 황석우는 시인이 바로 그 생동하는 '감정'을 '예지'로 포착하여 '말'로 실어낸 산물을 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석우가 시를 '감정'의 산물로 보는 입장에는 유동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감정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이 깔려 있다.[11]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대 조선에 남아 있던 기존의 시는 '감정'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양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첫 시론을 발표한 데 이어 (나)에서 당시 조선에 만연하고 있던 "신체시(新體詩)"를 비판하고 "조선 시단의 발족점(發足點)"으로서 "자유시"을 내세우는 것이다. 좀 더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신체시는 메이지 초기 일본 시단에서 재래의 가요로부터 서구시를 모방하려는 과도기의 산물로서 57, 75 등 "음수(音數)의 제약(制約)"을 가진 시에 불과하였다. 황석우는 일본에서 신체시가 일어나던 당시의 사정과 당대 조선이 처해있는 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니와, 무엇보다 신체시가 당대 조선에서 태동하는 생활감정을 노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의 출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시는 프랑스에서 '12음절'의 법칙과 "1행 1단락제(一行一段落制)"와 같은 외적 제재로 시인의 자유분방한 감정을 구속해온 알렉산드랭(alexandrin)을 극복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황석우가 생활의 유동성에 따라 시인의 감정이 끊임없이 변화해간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외적 제재로 인해 자유로운 감정을 담아낼 수 없는 기존의 시를 부정하고 생동하는 감정을 담아낼 시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에게 자유시는 각자의 생활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성(個性)"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석우는 시를 '감정'의 영역에 위치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의 형식으로 '자유시'를 주창함에 따라 예술로서 시의 독자적인 가치를 표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황석우는 시인이 접촉하는 세계를 '신'과 같은 신성불가침의 세계에 위치시키고, 시인을 비롯한 독자들이 그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서 '영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의 미적 가치를 절대화하고 있다.

> (다) **自我 最高의 美를 훔키며, 그 美에 觸ᄒᆞᆯ ᄭᅵ의 『늣김』을 普通 『靈感』 或은 『神興』이라 ᄒᆞᆫ다. 더 强ᄒᆞ게 말ᄒᆞ면 『靈感』 『Inspiration』은 神의 白雪의 힝긔(句)로운 頰에 燭ᄒᆞᆯ ᄃᆡ, 그 손을 ᄭᅡᆨ 쥐일 ᄃᆡ 이려나ᄂᆞᆫ 『魂의 淨ᄒᆞᆫ 肉感』일다.** 이 肉感의 適이 엉겨, 뱜ᄠᆞ거운 말】이 되야 全神經의 織錐의 絃에 슷쳐 써러질 ᄯᅢ가, 詩 抒情詩를 낫는 境일다. 詩가 ᄒᆞᆫ 液體란 意義ᄂᆞᆫ 이곳에서 더욱 발게 盡ᄒᆞ여진다.
>
> 「詩話(前續)」 부분[12]

> (라) 大體 鑑賞이람은 무엇인가. 먼저 鑑賞 그 물건의 字義붓허 말하여 나가자. 鑑賞이람은 英語의 Apriation이란 것의 譯語 손쉽게 말하면 그 글字 自身이 示明하여 잇는 것갓치 「鑑(보아)하여 맛본다」는 것의 意味일다. (…중략…) 그러나 單純히 鑑賞을 「맛보는 것」이라고만 말하여서는 ᄯᅩ한 誤解가 생길 줄 안다. **「맛본다」는 것은 勿論 彼 飮食의 달고 쓰고 맵고 짠 것을 맛 보득히 肉에 달**

11) 이와 관련하여 황석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도 하다. "詩人의 倉庫에는 아모 것도 업다. 다만 若干의 뱜말의 셤】이 싸혀 잇슬 뿐이다. 勿論 이 뱜말】 안에는 그 刹那, 刹那에 엇은 氣分으로 익여 만든(粘造) 말과 ᄯᅩ는 그 詩人의 平日에 特別히 사랑ᄒᆞ던 말과의 二種이 잇슬 것이다." (황석우, 「詩話 ㅡ氣分과 叡智」, 뱜삼광】 제3호, 1920. 4; 위의 책, 147면)

12) 황석우, 「詩話(前續)」, 뱜매일신보】, 1919. 10. 13; 위의 책, 144면.

닌 입으로 맛본다는 것이 아니고 곳 聽, 視, 觸, 嗅 等 感覺의 全的 活動을 하는 「靈의 味覺 ― 「마음의 味覺」으로써 한다는 것이갯다. 마음은 元來 萬能일다.

「詩의 鑑賞과 그 作法(前續)」 부분[13]

앞서 언급했다시피 황석우는 「현대조선문단」에서 시인을 비롯한 예술가를 "천재(天才)"에 비유한 바 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며 현실과는 다른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술이 어디까지든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절대생명(絶對生命)"을 지녔다고 말하면서 "예술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하였다.[14] 이런 관점에 따라 황석우는 (다)에서 시인이 접촉하는 세계를 "신(神)"의 위치에까지 격상시키는 가운데 시의 미적 가치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인은 '신'과 같이 현실을 초월한 세계와 접촉하게 될 때 "자아(自我) 최고(最高)의 미(美)"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황석우가 시인과 신이 접촉할 때의 '느낌'을 "영감(靈感)", "신흥(神興)"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황석우는 시인이 '영혼'이라는 비가시적이고 초월적인 매개를 통해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예술로서 시의 미적 가치를 절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접근해도 마찬가지이다.

(라)에서 황석우는 통상적으로 오해하듯이 시에서 내용이 "의미(意味)"가 아니라 "그 내면(內面)에 담겨 잇는 기분(氣分) 전체(全體)"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시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보다 "기분(氣分)의 곡직(曲直)", "고저(高低)", "강약(强弱)", "청탁(淸濁)"과 같이 '기분'의 미묘한 움직임을 느끼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황석우는 독자의 입장에서 시를 감상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시각에 의해 시의 표면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감각(感覺)의 전적(全的) 활동(活動)"을 통해 그 이면에 담긴 시인의 '기분'을 느끼는 데로 나아가야한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시인이 '신'으로 표상되는 신성불가침의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 '영혼'의 매개가 필요했던 것처럼, 독자 또한 시인이 창조한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영혼' 혹은 '마음'의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황석우는 초기 시론에서부터 예술의 독자적 가치를 표방하는 가운데 비가시적이고 초월적인 매개를 도입하여 시의 미적 가치를 절대화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3. 칸트 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기분'의 숭고한 영역 발견

앞에서 우리는 황석우의 초기 글들을 통해 그가 예술을 '천재'의 산물로 보고 시의 독자적인 지위를 표방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황석우는 시를 '감정'의 산물이라 보고서 새로운 시의 형식으로 '자유시'를 주창하였으며, 시인을 '신'과 같은 신성불가침의 세계와 접촉하는 존재로 보고서 시인을 비롯한 독자들이 그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서 '영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할 때, 시는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예술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의 다른 장르들에 비해 독특한 미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15]

---

13) 황석우, 「詩의 鑑賞과 그 作法(前續)」, 【학생계】 제6호, 1921. 1; 위의 책, 178면.
14) 황석우, 「現代朝鮮文壇(一)」, 【매일신보】, 1918. 8. 28; 위의 책, 139면.
15)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황석우를 비롯한 1920년대 한국의 시인들이 이광수 등 전대의 계몽주의 문학과는 달리 미의 영역을 바탕으로 "낭만주의적 태도, 절대적 주관성"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해왔다(황호덕, 「한국 근대에 있어서의 문학 개념의 기원(들)―신채호, 이광수, 【창조】파의 삼분법(三分法)적 가치 범주와 '문학' 개념」, 【한국사상과 문화】 제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3~31

하지만 황석우의 글을 좀 더 검토하다보면, 그가 시 혹은 자유시를 미의 영역에 위치시키려고 시도하는 것과 함께 거기서 벗어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그가 시의 원천으로 제시한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가) 近代, 進步ᄒᆞᆫ, 日本詩人 中에 或 ᄇᆞᆯ氣分詩】等 云々ᄒᆞᆫ 사람이 잇섯다. 그뿐 아니라 임의 이것에 依ᄒᆞ야 된 詩品이 만타고 ᄒᆞᆯ 수 잇다. **이런 것은 그 朦朧ᄒᆞᆫ 氣圍氣(氣分)를 다만 ᄒᆞᆫ, 嘆美形式에 依ᄒᆞ야 表現ᄒᆞᆫ 者일다.** 이런 詩에는 固히 何等의 徹底ᄒᆞᆫ 內容이 잇는 者가 안니다. (…중략…)
>
> **氣分이라 ᄒᆞᆷ은 더한 番 말ᄒᆞ면『마음의 ᄒᆞᆫ 적은 朦朧ᄒᆞᆫ 幻燈』이라 ᄒᆞᆯ 수 잇다.** 엇지 ᄒᆞ엿던지 우리가 어느 氣分에 觸ᄒᆞᆯ 째에는 ᄒᆞᆫ 泡上의 細菌을 檢査ᄒᆞ는 것과 갓흔 纖密ᄒᆞᆫ 눈으로 그것을 풀어 읽지 안으면 안니 된다. 이것이 詩作의 第一段의 要壘일다. 氣分은 어느 째에는 霧粒보다도 더 적고, 또 어느 째에는 天地보다도 더 玄黃ᄒᆞ다.
>
> 「詩話ㅡ氣分과 叡智」 부분[16]

> (나) 그런데 無關心이람은 엇더한 것인가. **無關心이람은 獨逸語의 Disinterestedness의 譯語인대 利害得失의 왼갓 邪念, 邪想, 所謂 欲의 領土, 本能, 實際的 世界로붓허 써난 恍惚, 忘我ㅡ或은 沒我, 脫實이라고도 함ㅡ의 境에 잇는 마음의 狀態를 가르킴이니 마음이 이러한 境에 잇지 아니하면 藝術의 眞正한 製作과 鑑賞이 不可能하다 함일다. 彼 獨逸哲學者 「칸트」Kant의 設에 依하면 「所有의 本能」으로붓허 超越하는 것이 美的 態度의 根致, 本境, 眞境이라 한다** (…)
>
> 第二는 周到精密한 注意를 要한다. 彼 **無關心이 어느 作에 對할 째에 要하는 鑑賞의 第二의 「純正條件」의 鵠이라 할진대 注意이라는 것은 鵠이라 할 수 잇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것은 注意와 親切이 달다는 것이다. 注意는 다못 彼 無關心主義나 親切主義의 共通的으로 要求하는 條件의 한 아가 될 뿐이다. 作品評 中에 親切이 잇고도 精密, 周到한 注意의 缺한 批評이 오직이나 민치 안은가.
>
> 「詩의 鑑賞과 그 作法(前續)」 부분[17]

앞서 살펴보았듯이 황석우는 초기 시론에서 일관되게 시인이 신과 접촉할 때 파생하는 '감정'을 시로 표현한다고 봄에 따라 시 혹은 시가를 "기분예술(氣分藝術)"이라 정의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기분(氣分)은 시인(詩人)의 동정(動靜)을 살피는 자(者)가 아니오, 기분(氣分) 그 자(者)가 먼저" 시인에게 말해온다고 말함에 따라 시인이 어느 "미래(未來)를 축(築)케 ᄒᆞ는 도안(圖案)"과 같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기분'의 압도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8] 이처럼 황석우가 새로운 시의 원천으로서 '감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엄밀하게 말해, 그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분'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층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가)에서 황석우는 '감정'을 특화시킨 산물인 "기분시(氣分詩)"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기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분시'는 '단편시', '인상시'라고도 불리는 개념으로서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자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구어자유시의 장르이다.[19] 여기서 황석우는 메이지 시기 일본의 시단을 휩쓴 자유시운동에 주목하는

면).

16) 황석우, 「詩話ㅡ氣分과 叡智」, 【삼광】 제3호, 1920. 4; 정우택 편, 앞의 책, 146면.

17) 황석우, 「詩의 鑑賞과 그 作法(前續)」, 【학생계】 제6호, 1921. 1; 위의 책, 179~181면.

18) 위의 책, 145면.

19) 메이지 말 일본의 구어자유시 운동에서 '기분시'의 출현에 대해서는 佐藤伸宏, 【詩の在りかㅡ口語自由詩をめぐる問い】, 笠間書院, 2011, 55~64면 참고. 그리고 '기분시'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일본의 자유시 구현 양상을 비교한 논의로는 졸고, 「한일 상징주의론의 전개와 '생명' 개념 도입의 비교 고찰

가운데[20] ‘기분시’로 창출한 ‘기분’을 두 가지 층위로 바라보고 있다. 첫 번째의 층위는 단지 몽롱한 분위기를 띤, “탄미형식(嘆美形式)에 의ᄒᆞ야 표현(表現)”된 것이다. 글의 맥락으로 보건대, 이는 시인의 내면 혹은 인격에서 비롯하였다기보다 그저 찰나에 떠오르는 감정을 토로한 것에 머문 기분으로 보인다. 이를 말해주듯이 황석우는 글의 다른 부분에서 기분이 “그 기분(氣分)ᄲᅮᆫ의 단순(單純)ᄒᆞᆫ 것썹질의 표현(表現)”이거나 “단순(單純)ᄒᆞᆫ 애(哀)의 표현(表現)”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자신의 스승인 미키 로후(三木露風)를 비판하고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황석우에게 기분은 단순히 감정의 토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현실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미지(未知)의 세계(世界)”를 느낄 수 있는 통로였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황석우는 기분의 두 번째 층위를 “마음의 ᄒᆞᆫ 적은 몽롱(朦朧)ᄒᆞᆫ 환등(幻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는 다른 글에서 앞서 언급한 전자의 기분이 아니라 후자의 기분의 산물로서 자유시에서 내용률(內容律), 내재율(內在律), 내심률(內心律), 내율(內律), 심률(心律), 개성률(個性律), 성률(性律) 등 “영률(靈律)”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21]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황석우에게 진정한 기분은 시인의 내면과 인격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현실을 초월해있는 세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앞서 시인이 ‘신’으로 표상되는 신성불가침의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 ‘영혼’ 혹은 ‘마음’의 매개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 현상계와 실재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영혼’ 혹은 ‘마음’과 같은 초월적 매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 황석우에게 ‘기분’은 현실과 무관한 세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미적 가치를 담보하는 요소이면서, 현실을 초과한 세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숭고한 가치를 담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는 글의 맥락에 따라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기 위해 전자에는 ‘기분’을, 후자에는 ‘감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황석우가 ‘기분’을 두 가지 층위로 구별하여 자유시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서 칸트(I. kant) 미학과의 만남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황석우는 (나)에서 미에 관한 칸트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독자의 입장에서 시를 감상할 때의 제1의 요건으로서 “무관심(無關心)”을 설명하기 위해 칸트의 견해를 끌어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무관심’은 독일어 “Disinterestedness의 역어(譯語)”로서 실제 현실에서 오는 “소유(所有)의 본능(本能)”이나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벗어난 “마음의 상태(狀態)”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칸트적인 맥락에서 보건대, 이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일체의 목적 없이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예술의 미적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2] 이 지점에서 앞서 황석우가 시를 ‘감정’의 산물로서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에 위치시키려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일차적으로 그에게 ‘기분’은 시의 미적 가치를 담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황석우는 이어서 시의 감상에 관한 제2의 요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분’에 담긴

」, 【한국 근대문학의 저변과 생명의 심연－동아시아 생명 사상과 한국 생명주의 문학의 지평】, 어문학사, 2018, 49~59면 참고.

20) 실제로 황석우는 조선 시단의 발족점으로서 ‘자유시’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자유시가 미토미 큐요우(三富朽葉), 가토 가이슌(加藤介春), 후쿠다 유사쿠(福士辛次郎) 등이 일으킨 자유시운동으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은 ‘기분시’의 창작을 모토로 하는 ‘자유시사’의 멤버들이었다(황석우, 「朝鮮 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매일신보】, 1919. 11. 10; 위의 책, 150면).

21) 이는 위의 책, 같은 면과 황석우, 「詩의 鑑賞과 그 作法－中等學生의게 與하여」, 【학생계】 제4호, 1920. 11; 위의 책, 175~176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I. Kant, 【판단력 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4, 215~216면.

숭고한 영역을 환기하고 있다. 그에게 시의 감상은 당시 유행하던 “친절(親切)” 혹은 “경건(敬虔)”과 같은 일체의 현실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주도정밀(周到精密)한 주의(注意)를 요(要)한다.” 말하자면, 시인이 신과 같은 초월적인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 ‘영혼’ 혹은 ‘마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독자 또한 시에서 ‘영혼’ 혹은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전적 활동(全的 活動)”을 통해 시인이 창조한 세계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시인이 접촉하는 ‘기분’이 “어느 때에는 무립(霧粒)보다도 더 적고, 또 어느 때에는 천지(天地)보다도 더 현황(玄黃)”하여 쉽사리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는 아무리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시인의 ‘기분’에서 우러나는 “곡직(曲直)”, “고저(高低)”, “강약(强弱)”, “청탁(淸濁)” 따위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즉, 독자가 원천적으로 시인의 ‘기분’을 명확하게 의미화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23] 이 지점에서 황석우는 ‘기분’에 담긴 숭고한 영역을 겨냥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을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황석우는 칸트의 미학을 계기로 하여 ‘기분’에 담긴 두 가지 층위를 변별할 수 있었다. 그에게 ‘기분’은 시를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미의 표지이면서도, 현실과 현실을 초과한 세계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숭고의 표지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를 각각 ‘기분’과 ‘감정’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려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황석우가 어떤 계기로 칸트의 미학을 접할 수 있었으며, 그가 칸트 미학과의 접촉으로 획득한 ‘기분’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먼저, 황석우가 칸트의 미학을 접할 수 있었던 통로는 여러 방향을 상정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그가 활동하던 동시대 사상계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말하자면, 황석우가 문단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정직이 「강씨철학설대략(康氏哲學說大略)」을, 양건식이 「서철강덕격치학설(西哲康德格致學說)」(1915)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양건식의 글이 중국에서 량치차오(梁啓超)가 발표한 「근세제일대철강덕지학설(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1903~1904)과 일본에서 나가에 초민(中江兆民)이 번역한 【리학연혁사(理學沿革史)】(1886)와 영향관계에 놓였다고 볼 때, 당시 동아시아 차원에서 칸트 철학이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4] 이런 분위기에서 황석우는 자연스레 칸트의 철학과 미학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선 경로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황석우의 일본 유학 체험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석우는 1915년에 처음으로 도일(度日)한 이래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과에 수학한 바 있다.[25] 이를 단서로 와세다대학교에서 유통된 칸트의 현황을 추적해보면,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의 【태서미학사(泰西美学史)】(1900)를 확인할 수 있다.

칸트는 또한 미(美)와 장엄(莊嚴)을 별종의 것으로 하여 미가 취미(趣味)의 판단에 의해 감지될 수

---

23) 주지하다시피, 칸트에게 ‘숭고’는 수학적 숭고로 대표되는 절대적인 크기와 역학적 숭고로 대표되는 위력적인 대상에 직면하여 인간이 상상력의 한계의식을 느끼는 것을 계기로 발생한다. 이때 칸트는 불쾌감을 쾌감으로 전환하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서 ‘숭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지젝은 칸트의 ‘숭고’를 ‘실재계’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물자체’를 현상성 너머에 두려는 칸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말하자면, 그에게 현상성의 너머에는 무(無)만이 있다는 점에서 ‘물자체’는 그러한 근본적인 부정성에 불과하며, 숭고함은 현상계가 사물을 정확하게 표상할 수 없다는 사실로써 현상계 그 자체 안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위의 책, 253~293면; Slavoj Žižek,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326~346면).

24) 이에 대해서는 이행훈, 「양건식의 칸트철학 번역과 선택적 전유」, 【한문의 고고학－한국 전통 지식의 굴절과 근대 학문의 기원】, 소명출판, 2016, 165~192면 참고. 근대 일본에서 칸트 수용에 관한 자세한 사정은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一), 「일본 칸트 연구의 역사와 오늘날의 과제 1862~1945」, 백종현 엮음, 【동아시아의 칸트철학】, 아카넷, 2014, 163~199면 참고.

25) 정우택 편, 앞의 책, 19면.

있는 것이라면, 장엄은 우리 마음에서 자신을 압도하게 되는 것을 느끼는 감정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고 한다. 미는 원래 우리의 감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 한해 형태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반해, 장엄은 크기에 제한이 없이 절대적으로 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력이 압도되어 한편으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성(自由性)이 지력의 제약을 피해 자재(自在)로 활동하여 무한하고 초자연의 것을 헤아림으로써 자신의 심력(心力)의 크기를 느끼고 쾌미(快味)를 깨닫는다**. 미감이 순수의 쾌감이라면, 장엄은 불순과 고통이 뒤섞인 쾌감이다.

「(3) 그 장엄의 설」 부분[26]

주지하다시피, 시마무라 호게츠는 메이지 후반의 일본에서 신극운동을 일으킨 인물이자 도쿄전문학교(현 와세다대학교)를 거점으로 당대 문단을 휩쓴 자연주의 문학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가 집필한 【서미학사】는 도쿄전문학교 문학과에서 강의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황석우가 이 대학에 유학할 당시 칸트 미학이 일찌감치 학문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총107쪽에 불과한 이 책에서 시마무라 호게츠는 미와 미학의 개념, 미학의 원천, 미학사의 기원 등 미학 일반에 관해 논의한 다음, 고대, 중세, 근세에 이르는 각 시기 미학관의 특징과 각 시기를 대표하는 미학자의 입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마무라 호게츠가 근세 미학의 경향을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대별하고 있다는 점과 근세 미학의 정점에 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칸트 미학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먼저, 시마무라 호게츠는 '미'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칸트에게 "미의 판단"은 다른 어떠한 목적에서도 벗어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현실적 유용성이나 도덕상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대상으로부터 "심미적 쾌감"을 느끼게 될 때 '미'를 자각할 수 있다.[27] 이는 【판단력비판】에서 '미'를 논하는 칸트의 입장과도 상통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마무라 호게츠는 '미'와 '숭고'를 구별하여 '숭고'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칸트의 '숭고'를 '장엄(莊嚴)'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크기와 형태가 제한되어 있는 '미'와 달리, '장엄'은 우리의 감각을 벗어나 있는 '절대적으로 큰 것'에 의해 발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큰 것'에 직면하여 '불쾌'을 느끼지만 그것을 절대적 총체성으로 파악하려는 이성에 의해 '쾌감'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장엄'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판단력비판】에서 '숭고'를 논하는 칸트의 입장과도 상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황석우가 일본에 유학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칸트의 미학이 유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상계에서도 '미'와 '숭고'를 구분하여 칸트의 미학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석우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칸트의 미학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며, 향후 그의 시론에서 '기분'을 '미'와 '숭고'의 층위로 변별하는 데 칸트의 미학은 하나의 참조점이 되었을 것이다.

4. '생명' 개념의 함의와 자유시 논의의 방향성

앞서 우리는 황석우가 '기분'에서 미적 가치와 함께 숭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칸트의 미

26) 島村抱月, 【泰西美学史】, 東京専門学校, 明治33, 103~104면. 원문의 번역은 인용자의 것임.
27) 위의 책, 101면.

학이 적잖은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말하자면, 그에게 '기분'은 시를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미의 표지이기도 하면서, 현실과 현실을 초과한 세계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숭고의 표지이기도 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그는 전자에는 '기분'이라는 개념을, 후자에는 '감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후자에 자신의 예술적 지향점이 있음을 표방하였다.

이처럼 칸트의 미학은 황석우가 '기분'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는 칸트의 미학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수용하여 자유시의 존재방식을 모색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황석우는 칸트의 설을 소개하고 나서 "이설(異說)이 분분(紛紛)히 이러나는 곳은 곳 이곳일다. 차등(此等) 이설(異說)의 그 대표적(代表的) 될 만한 것의 경개(梗槪)라도 짜서 멧 다듸 소개(紹介)하고 십지마는"이라고 말함으로써[28] "미적 태도"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숭고'와 연결해보면, 칸트에게 '숭고'가 절대적으로 크거나 압도적인 대상 자체보다는 그것을 반성적이고 감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에서 발생한다면, 황석우에게 '숭고'는 압도적인 대상과 자신의 마음 혹은 영혼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성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황석우는 '숭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생명'이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예술(藝術)은 어대ᄭᆞ지던지 불가혼동(不可混同)ㅡ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절대생명(絶對生命)을 가졋다."라고 말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예술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다른 글을 살펴보면, 그가 미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것과 함께 숭고한 가치를 표방하기 위한 근거로서 '생명'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의미(意味)가 아니고 그 내면(內面)에 담겨 잇는 기분(氣分) 전체(全體) 곳 생명(生命)을 일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인의 '기분'과 '생명'을 동일한 차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29] 말하자면, 앞서 그가 시인이 창조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독자들이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어렴풋하게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것처럼, 독자의 입장에서 시의 내용으로서 '기분'은 명확하게 의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뚜렷한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유동적 흐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분'에 담긴 숭고한 가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석우는 '기분'과 '생명'을 동일시하여 당대 조선에서 출범해야할 자유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황석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를 추구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로는 조선인의 생활과 감정을 담은 독특한 시를 추구하고자 했다.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자.

> (가) 詩ᄂᆞᆫ 繪畵的 要素와 共히 音樂的 要素와의 精을 握ᄒᆞᆫ 藝術일다. 그럼으로 【音響】의 節制 洗鍊이 詩의 가장 緊要ᄒᆞᆫ 工夫일다. 『音響』**은 詩란 산 人格의 呼吸 그 脈의 鼓動일다.** 이것이 普通 詩의 音性律 音量律 等이라ᄂᆞᆫ 하ᄂᆞᆫ 者일다.
>
> △
>
> **詩의 象徵派라며 民衆派라며 寫象派 等이람은 그 內容으로보담도 色彩 香 音響의 配列形式 如何에 區別되ᄂᆞᆫ 者일다.**

28) 황석우, 「詩의 鑑賞과 그 作法(前續)」, 【학생계】 제6호, 1921. 1; 정우택 편, 앞의 책, 179면.

29) 황석우, 「詩의 鑑賞과 그 作法ㅡ中等學生의게 與하여」, 【학생계】 제4호, 1920. 11; 위의 책, 175~176면. 이러한 관점은 「詩歌의 諸問題」, 【조선시단】 제8호, 1934. 9; 위의 책, 285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詩話(選外)ㅡ詩의 初學者에게」 부분[30]

(나) 條件. **自由로운 人格者의 것드림. 自由로운 社會, 相互扶助의 大精神에 基한 「徹底한 個人自治」 社會의 建設을 主張함**

主張. 極度의 理由를 가지고 極度까지 主張함

排斥. **自己의 理想에 反하는 社會, 制度, 人物, 道德, 習慣, 法律, 其他 一體를 또한 極度의 理由를 가지고 極度까지 排斥함**

「諸 名士의 信條와 主張과 排斥」 부분[31]

먼저, 황석우는 '생명'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를 지향하고자 했다. 이때 '생명'은 개체마다 분유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체적인 속성을 띠면서도 개체와 그를 둘러싼 우주만물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황석우가 시에서 표방하는 '인격'은 개인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기호이면서 개인의 존재론적 지위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확립시키는 기호이기도 하다.

(가)에서 황석우는 시를 "산 인격(人格)의 호흡(呼吸) 그 맥(脈)의 고동(鼓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그가 시를 '기분예술'로 정의하고 시인이 창조한 세계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위치시킨다고 해서 시인의 '기분'을 현실과 동떨어진 산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인이 느끼는 '기분'은 기존에 존재하던 현실적인 가치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이들의 가치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황석우는 시인의 '기분'이 각자의 생활에서 파생한 산물이자 시인 자신의 내면과 일체화된 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인격'이라는 기호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 시인의 살아있는 '인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혈액(血液)" 혹은 "액체(液體)"와 같은 물질적인 표지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황석우가 시를 '인격'의 산물이라 보는 관점에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담겨 있지만, 여기에는 달리보자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사상적 차이를 확보하려는 입장 또한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어서 다른 이들과 변별되는 개개인의 독자적인 사상이 시에서 "상징파(象徵派)", "민중파(民衆波派)", "사상파(寫像派)" 등과 같이 각자의 주의를 담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에서도 황석우는 '인격'을 개인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기호이자 개인의 존재론적 지위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확립시키는 기호로 도입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그에게 개인의 '인격'은 "사회(社會), 제도(制度), 인물(人物), 도덕(道德), 습관(習慣), 법률(法律)"을 막론하고 "자기(自己)의 이상(理想)"에 반하는 "기타(其他) 일체(一體)"를 극도로 "배척(排斥)"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그는 바로 어떤 것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自由)로운 인격자(人格者)"를 자신의 '신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황석우는 개인적 차원에서 확립된 '인격'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서로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自由)로운 인격자(人格者)"의 형성과 함께 "상호부조(相互扶助)의 대정신(大精神)"에 입각하여 "「철저(徹底)한 개인자치(個人自治)」 사회(社會)"를 건설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석우는 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를 지향하고자 했다. 이는 그간 그의 문학을 아나키즘의 경향으로 정초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거기에는 '생명'에 관한 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30) 황석우, 「詩話(選外)ㅡ詩의 初學者에게」, 【매일신보】, 1919. 9. 22; 위의 책, 142면.
31) 황석우, 「諸 名士의 信條와 主張과 排斥」, 【개벽】 제12호, 1921ㅣ. 6; 위의 책, 218면.

을 알 수 있다.

(다) 諸君이여! 우리 詩壇은 적어도 自由詩로부터 發足치 안으면 아니 되겟슴니다. 그리고 詩壇이 次々 씨우는 씨를 짜러 象徵詩, 民衆詩, 人道詩, 或 寫象詩, 等에 詩를 分ᄒᆞ여 나가는 것이 가장 賢明ᄒᆞᆫ 順序라 ᄒᆞ겟슴니다. **젹어도 우리가 日文詩壇, 世界詩壇에 對立하며 나가는 데는 이 新詩形에 限ᄒᆞ겟스닛가 우리 個性의 獨特ᄒᆞᆫ 시 詩形을 세우지 안어셔는 아니 되겟슴니다.**

「朝鮮 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부분[32]

(라) 民族魂, 人類魂으로 多樣의 獨立한 各 民族의 國語가 一語로 統一되어 가려는 今日에 在한 우리에게는 所謂 國民詩歌 云云하는 말의 價値부터 疑惑 적은 것이나마 우리가 억지로 어느 時期까지 所謂 國民的 色形을 가진 詩歌 우에 서서 나아갈 동안은 이 國民詩歌의 要件을 그 랭궤지 우에 두는 것보다 그 詩의 作者가 그 國民의 一員되는 것의 우에 둘 수 밧게는 업습니다. 둘재는 그 國民性을 表現한 것임을 要하겟습니다. **「랭궤지」는 그 詩에 在한 物的 材料 곳 그 思想, 感情을 發表하는 한 그릇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니까 英語나 佛語로 綴한 詩라는 朝鮮人이나 日本人이 그 日本人 또는 朝鮮人으로의 國民性에 觸한 情操나 思想을 表現한 것일진대 곳 日本人이나 朝鮮人의 國民詩歌라 하겟습니다.**

「注文치 아니한 詩의 定義를 일러 주겟다는 玄哲 君에게」 부분[33]

다음으로, 황석우는 '생명' 개념을 활용하여 조선인의 생활과 감정을 담은 독특한 시를 지향하고자 했다. 이때 '생명'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현 순간에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지속적인 흐름이 담겨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대 조선 문단에서 사용하는 자유시는 조선의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당시 조선인의 독특한 생활에서 비롯하는 감정을 담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에서 황석우는 "신체시"와 "자유시"를 구분하여 조선 시단에서 자유시 출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출현한 "신체시"는 이미 시 의성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시형(詩形)"이며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 시단에 유행하는 "자유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세계적인 "시형"이다. 그래서 황석우는 이 글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단이 신체시의 단계를 거쳐 자유시로 나아갈 필요가 없이 당면하고 있는 자유시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일본의 사정과 당시 조선의 사정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황석우는 자유시와 같은 세계적인 시형을 일본과 조선 시단에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해온 사상과 감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보고 있다. 이때 그 민족이 산출한 자유시는 그 민족의 독특한 개성을 담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황석우는 "젹어도 우리가 일문시단(日文詩壇), 세계시단(世界詩壇)에 대립(對立)하며 나가는 데는 이 신시형(新詩形)에 한(限)ᄒᆞ겟스닛가 우리 개성(個性)의 독특(獨特)ᄒᆞᆫ 시 시형(詩形)을 세우지 안어셔는 아니 되겟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황석우는 '언어'에 주목하여 자유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시형'과 '시'를 구별하여 조선 시단에서 자유시의 출현 의의를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언어'에 담긴 고유성에 주목하여 자유시를 "국민시가"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민시가"로서 자유시는 그 민족의 "국민성(國民性)을 표현(表現)한

32) 황석우, 「朝鮮 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매일신보】, 1919. 11. 10; 위의 책, 149면.
33) 황석우, 「注文치 아니한 詩의 定義를 일러 주겟다는 玄哲 君에게」, 【개벽】 제7호, 1921. 1; 위의 책, 200~201면.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그 민족이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해온 '언어'로써 나타날 수 있다. 말하자면, 황석우에게 "문자"와 구별되는 "랭궤지", 즉 언어가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하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일원인 시인이 그 민족의 언어로써 창작한 자유시는 필연적으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시가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그는 "조선인(朝鮮人)이나 일본인(日本人)이 그 일본인(日本人) 또는 조선인(朝鮮人)으로의 국민성(國民性)에 촉(觸)한 정조(情操)나 사상(思想)을 표현(表現)한 것"을 "일본인(日本人)이나 조선인(朝鮮人)의 국민시가(國民詩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 각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감정이 담긴 자유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황석우는 조선인의 특이한 생활과 감정을 담은 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생명'에 관한 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 근대시 성립의 과제와 조선적 자유시의 한 방향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1920년대 황석우 시론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조선적 자유시의 한 방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황석우는 초기 시론에서부터 시를 '감정'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시로서 자유시를 표방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인을 '신'과 같은 신성불가침의 세계와 접촉하는 존재로 봄에 따라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다른 장르들에 비해 시의 독특한 미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유시의 지위를 '숭고'의 측면에 위치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가 시의 창작과 감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관되게 '기분'과 '감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황석우가 '기분'을 '미'의 측면과, '감정'을 '숭고'의 측면과 결부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칸트 미학의 영향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칸트가 압도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 '숭고'를 발견한 것과 달리, 황석우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분'에 담긴 '숭고'한 영역을 발견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생명'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이 고유성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시를 추구하고자 했으며, 조선인의 독특한 생활과 감정을 담은 시를 추구하고자 했다. 황석우에게 '기분'이 다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면서도 해당 존재를 다른 누구와도 변별시키는 '고유성'의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는 결국 '국민시가'를 조선적 자유시로서 정초하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나키즘과 상징주의는 그에게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된 방향성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황석우는 '기분'에 관한 근본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주체와 주체를 조화시키는 이념(Idea)에 대한 사유를 전개함으로써 조선적 자유시의 한 전범을 마련하려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우택 편, 【황석우 연구】, 박이정, 2008.

2. 논문 및 단행본

권정희, 「범마세아공론】 소재 황석우의 글쓰기」. 범한국문화연구】 제26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4.

김영철, 「한국 상징주의의 수용양상ㅡ김억·황석우·주요한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범인문과학연구】 제2집,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김춘식, 「신시 혹은 근대시와 조선시의 정체성ㅡ황석우·현철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범한국문학연구】 제28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노춘기, 「황석우의 초기 시와 시론의 위치ㅡ잡지 범삼광】 소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범한국시학연구】 제32호, 한국시학회, 2011.

_____, 「시전문지 범조선시단】 소재 시와 시론 연구ㅡ매체 내 황석우의 역할을 중심으로」, 범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2.

_____, 「황석우 시의 자연과 생명의 가치ㅡ시집 범자연송】을 중심으로」, 범어문학】 제116집, 한국어문학회, 2012.

백종현 편, 범동아시아의 칸트철학】, 아카넷, 2014.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이수련 옮김, 범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안지영, 「황석우 시에 나타난 '생명 인식과 아나키즘의 영향」, 범어문연구】 제41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이은지, 「황석우 초기 시론의 '천재'와 '민중' 문제」, 범어문연구】 제42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이행훈, 범학문의 고고학ㅡ한국 전통 지식의 굴절과 근대 학문의 기원】, 소명출판, 2016.

임마누엘 칸트(I. Kant), 범판단력 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4.

정우택, 「범근대사조】의 매체적 성격과 문예사상적 의의」, 범국제어문】 제34집, 국제어문학회, 2005.

_____, 범문우】에서 범백조】까지ㅡ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범국제어문】 제47집, 국제어문학회, 2009.

_____, 「황석우 연보」, 범근대서지】 제3호, 근대서지학회, 2011.

조두섭, 「황석우의 상징주의시론과 아나키즘론의 연속성」, 범우리말글】 제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조영복, 범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최호영, 범한국 근대문학의 저변과 생명의 심연ㅡ동아시아 생명 사상과 한국 생명주의 문학의 지평】, 어문학사, 2018.

황호덕, 「한국 근대에 있어서의 문학 개념의 기원(들)ㅡ신채호, 이광수, 범창조】파의 삼분법(三分法)적 가치 범주와 '문학' 개념」, 범한국사상과 문화】 제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島村抱月, 범泰西美学史】, 東京専門学校, 明治33.

佐藤伸宏, 범詩の在りかーロ語自由詩をめぐる問い】, 笠間書院, 2011.

【자유주제4 토론】

「칸트(I. kant) 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황석우 시론의 기저」에 대한 토론문

박군석(경남대)

이 연구는 황석우 시론이 칸트 미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석우는 「朝鮮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매일신보》, 1919. 11. 10), 「詩話」(『삼광』 3호, 1920. 4. 14), 「詩의 鑑賞과 그 作法ㅡ中等學生의게 與하여」, 【학생계】 제4호, 1920. 11, 「詩의 鑑賞과 그 作法(前續)」(【학생계】 제6호, 1921. 1) 등의 시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시인으로서 그는 시작품 「頌」과 「神我의 序曲」(《태서문예신보》 14호, 1919.1.13.)에서 출발하여, 「어린 弟妹의게」라는 표제하에 「봄」, 「밤」, 「열매」, 「영」의 짧은 시 4편」((《태서문예신보》 16호, 1919.2.17), 「丁巳의 作」 이라는 표제하에 「棄兒」, 「神我의 序曲」, 「揶揄」 등 시 3편(《삼광》 창간호, 1919.2) 등을 실었고, 이후 1921년까지 『폐허』, 『개벽』, 『학생계』, 『장미촌』 등에서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긴 공백을 거쳐 1929년에 첫시집 『자연송』(조선시단사)을 발행합니다.

이마뉴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베이컨의 경험론을 종합했다고 평가받았던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순수이성비판』(1781)을 통해 '새로운 형이상학의 기초'를 닦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선험적(先驗的) 판단을 통해 의지 행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실천이성을 다룬 『실천이성비판』(1788)과 특수한 것에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력을 다룬 『판단력비판』(1790)을 저술하였습니다.

18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칸트의 철학은 내용이 방대하고 용어의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1920년대 전후로 전개되는 황석우의 시론도 21세기 지금-여기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지 자료의 분석만으로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마음으로 저의 의문점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은 칸트 철학의 담론, 황석우 시론의 사회·문화적 배경, 시론 텍스트 자체의 이해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1920년대 전후 동양의 각 나라들은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대적 국가 형성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의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기 위하여 전통적 사회 체계를 근대적 사회 체계로 전환해가는 문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때 조선 문단에서 '인격'과 '민족'의 개조에 관한 논의는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면서 생활의 실상을 외면하고 열등한 민족성을 개선해 수 있는 방향성을 서구의 사상들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대안의 모색은 검열 제도에 기반한 일제의 언론 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버틀란트 러셀에 의해 소개된 신칸트주의가 중국, 일본, 조선에 늘리 유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20세기 동양에 소개된 서구의 사상들은 당대의 상황에 맞게 선별하여 재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세기 초 우리에게 소개된 칸트 철학의 담론들에는 의지 행위와 관련된 실천이성에

초점을 두고 미적 체험을 평가하고 있으며, 감성-오성-이성으로 이어지는 주관(순수이성)의 고유한 인식 작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칸트 철학은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이 상호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듯합니다.
모호하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칸트 철학이 서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학계에서 진행 중인 듯합니다. 황석우의 시론이 칸트 미학의 수용에서 비롯되었다면, 20세기 동양에 소개된 칸트 철학과 18세기에 형성된 본래 칸트 철학은 본 연구에서 어떤 관계(동일, 차이, 다름 등)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20년 전후 공적 담론에서 언급한 영혼(靈魂), 개성, 생명, 자연, 인격 등은 당대 지성인의 고뇌와 지향을 드러내는 주요 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칸트 철학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생들이 접한 서구 사상을 번역하여 소개한 상징주의, 낭만주의, 데카당스, 실존주의, 생철학, 에머슨 철학 등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언론들은 1920년대 일제가 주도한 문화운동에 편승하여 이러한 서구의 근대 사상으로 내세우며 '인격 개조'와 '민족 개조'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당대의 공적 담론 위에서 정립된 황석우의 시론이 다른 담론이 아니라 칸트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석우는 시론 「詩話ㅡ氣分과 叡智」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第一의 段階를 버서난 **氣分**은 다시 ᄒᆞᆫ 熱에 依ᄒᆞ야 旋風의 勢로 詩人의 心野에 덥혀들 ᄭᅵ는 비로소 **叡智**는 『血眼狂』이 되야 그 氣分을 좌우로 헷치고 그 氣分의 밋헤 출넘거리는 海嘯와 갓흔 **感情**에 ᄭᅵ여든다."

기분이 "ᄇᆞᆷ마음의 ᄒᆞᆫ 적은 朦朧ᄒᆞᆫ 幻燈】"에 불과하기 때문에 "泡上의 細菌을 檢査ᄒᆞ는 것과 갓흔 纖密ᄒᆞᆫ 눈으로 그것을 풀어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叡智의 ᄇᆞᆷ血眼狂】"으로 "그 氣分을 좌우로 헷치"는 노력을 통해 "그 氣分의 밋헤 출넘거리는" 感情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은 "어느 ᄯᅢ에는 霧粒보다도 더 적고, ᄯᅩ 어느 ᄯᅢ에는 天地보다도 더 玄黃"하여 종잡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그 자체로서 시적 소재가 될 수 없으며, '기분'을 '예지'로서 파악할 수 있을 때 시의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때 예지(叡智)는 칸트가 말한 '순수 이성'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석우가 시론 「詩話ㅡ氣分과 叡智」에서 말하는 '제일의 단계'와 '제이의 단계'가 '기분'과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양상과, 이때의 '감정'을 '기분의 숭고 영역'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의 대상에 대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조발표】

근대문학과 어린이
-수원 지역 안준식을 중심으로

박태일(경남대)

차 례

1. 수원과 어린이문학
2. 작가 혼동과 수원 귀속
3. 삶의 동력 셋
 1) 소년 활동의 전개
 2) 인쇄출판과 별나라
 3) 어린이문학가의 두 층위
4. 안준식 어린이문학의 됨됨이
 1) 줄글과 훈육
 2) 동화와 소년소설에 나타나는 이중성
 3) 동요의 간접화, 기타
5. 수원 지역문학 연구를 향하여
 (참고문헌)
 (붙임) 안준식 작품 죽보기

1. 수원과 어린이문학

경기도 수원 지역문학지를 들여다보면 몇몇 명망가가 보인다. 나혜석.박팔양.박승극.홍성원.백도기와 같은 이다.[1] 그들 가운데 나혜석 경우는 일찌감치 기념사업회가 마련되었고 여러 현양 사업을 벌이고 있다. 월북 작가 박승극 경우는 전집이 한 차례 마련되어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2] 그럼에도 아직까지 눈길 바깥에 놓여 있는 이가 적지 않다. 대표 작가가 안준식.구직회.정청산이다. 정청산은 이즈음 수원박물관이 수원시정연구원에 맡겨 조사를 마무리한 「독립운동가 발굴조사 사업」에서 새로 찾은 광복지사로 이름을 처음 지역에 들냈다.[3] 그는 어린이문학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과 이념 투쟁을 벌였던 열혈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뒤늦게나마 고향 수원이 그를 품어 주었다. 안준식과 구직회는 수원 지역문학인이라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구직회 경우 글쓴이가 몇 해 앞서 그를 비롯해 여섯 작가가 내놓은 『소년소설육인집』(신소년사, 1932)을 엮어 내면서 그가 수원 지역문학인임을 밝힌 상태다.[4] 안준식

1) 『경기 문학지도 1』, 경기문화재단, 2000, 16-44쪽.
2) 박승극문학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박승극 문학전집 1 소설』, 학민사, 2001. 『박승극 문학전집 2 수필』, 학민사, 2011.
3)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018, 142-146쪽.

경우는 아예 수원 지역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을 포함해 수원 지역문학인을 살피노라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 그것도 1920-30년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성장과 발전에 그들이 중요한 몫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안준식.구직회.정청산에다 박승극까지 더하면 단위 소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인은 내놓은 몇 곳 가운데 하나로 수원이 꼽힌다. 이러한 수원 문학인에다 평택 진위 출신 이동규, 고양 박세영, 은평에서 중요 활동을 했던 송영과 인천 출신 김도인.진우촌까지 더하면 경기도 지역이 우리 현실주의 어린이문학 성장에 끼친 영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은 합천의 이주홍.손풍산을 비롯해 진주 엄흥섭, 마산 권환. 강호.이구월, 언양 신고송, 함안 양우정, 밀양 박석정, 하동 김병호.강로향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지역의 활발했던 모습과 맞물린다. 1920-30년대 한국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을 지역 잣대로 보자면 경상남도와 경기도 출신 청년 문학인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과 성과를 일구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어린이 연속 매체가 범신소년】과 별나라】 그리고, 범시와음악】이다.

이들 가운데서 오래도록 중심적이고도 선명한 투쟁을 벌였던 곳이 별나라】다. 그리고 그 별나라】의 인쇄.편집.출판.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았던 이가 수원 문학인 안준식(安俊植)이다. 그럼에도 그에 관해서는 이제껏 어린이 문학사회는 물론 수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별나라】와 맞물린 갖가지 연구[5]가 일었으나, 펴낸이 안준식과 관련한 개별 연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으로서는 그가 자지역 문학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까닭에 그랬다 치더라도 어린이 문학사회에서 별나라】에 두터운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뜻밖이다. 일이 이렇게 된 가장 큰 까닭은 안준식과 관련한 실증 정보가 엷었던 데 있을 것이다. 수원으로 보자면 안준식은 지역 근대 첫 어린이문학가다. 게다가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 매체 투쟁의 핵심인 별나라】를 틀어잡고 그 중심 인물로 살다 간 사람이다. 송영과 박세영은 그가 냈던 별나라】의 편집을 맡았

---

4) 구직회(具直會 : 1910~?)는 1932년 현재 조선청년총동맹 아래 경기도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를 이끄는 청년 지도자였다. 양감면 동소리에서 '무산 아동'을 위한 밤배움 대화의숙(大化義塾)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주로 범신소년】에서 줄글과 동요,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소년소설 「가마니장」은 계급주의 소년소설의 본보기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박태일, 「1930년대 한국 계급주의 소년소설과 범소년소설육인집】」, 범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83-220쪽 : 범소년소설육인집】, 도서출판 경진, 2013, 19-62쪽.

5) 별나라】를 본격으로 다룬 첫 글은 2004년 글쓴이가 내놓았다. 경남.부산 지역 어린이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살피기 위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 뒤 류덕제가 별나라】를 따로 떼어 다루는 본보기를 보였다. 박태일, 「나라잃은시대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범한국문학논총】 37호,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신현득, 「범신소년】·별나라】 회고」, 범아동문학평론】 31-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 189-200쪽. 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범국어교육연구】 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305-334쪽. 박영기, 「일제강점기 아동문예지 별나라】 연구-송영과 임화를 중심으로」, 범문학교육학】 제3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43-177쪽. 김봉희, 「나라잃은시기, 계급주의 아동극 운동 : 범신소년】과 별나라】를 중심으로」, 범아동문학평론】 36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11, 48-75쪽. 최명표, 범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290-292쪽. 이근화, 「별나라】 소재 문예물 연구 : 1930년대 아동문예물의 이면과 문학적 전략」, 범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9-256쪽. 원종찬, 「1920년대 별나라】의 위상 : 남북한 주류의 아동문학사 인식 비판」, 범한국아동문학연구】 2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65-104쪽. 손증상,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 별나라】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범한국극예술연구】 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13-48쪽. 류덕재,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의미」, 범한국아동문학연구】 26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35-172쪽 :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의미」, 범한국아동문학연구】 26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35-172쪽. 정진헌, 「1920년대 별나라】 동요 연구 : 주요 문인 활동과 작품 현황을 중심으로」, 범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7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105-141쪽.

고, 정청산은 별나라사 직원, 박승극은 『별나라』 중요 글쓴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수원 지역문학의 발전, 나아가 근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 발전에 끼친 그의 이바지는 확연하다.

이 글은 안준식을 다룬 첫 글이다. 안준식과 그의 문학을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사에 올려 세우고, 수원 지역문학 전통으로 귀속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논의를 세 매듭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첫째, 이제껏 소수나마 알려져 왔던 안준식에 관련한 이해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둘째, 그의 삶을 재구성한다. 셋째, 그의 어린이문학이 지닌 성격과 특성을 살피는 순서가 그것이다. 이 글로 말미암아 안준식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근대 수원 지역 어린이문학이 마땅하게 우리 민족문학 전통과 자산으로 넉넉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란다.

2. 혼동과 수원 귀속

안준식을 개별로 다룬 2차 담론은 이제껏 없었다. 나아가 2010년대 초반까지 그를 올림말로 다룬 사전류 기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이름을 선뵌 곳은 '한국 근대 청소년 소설 선집' 가운데 한 권 『하늘은 맑건만』(2007)에서다. 「아버지와 딸」을 실으면서 작가 소개로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다. 본명은 안준식, 호는 평원(平原). 『신소년』과 『별나라』에 「물대기」 「호떡선생」 「임간학교」 등의 청소년소설을 발표했다."[6]고 짧게 적었다. 안준식의 필명(호)은 운파(雲波)인데 그것은 다루지도 않았다. 오히려 '평원'이라 썼다.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그 뒤에도 나타난다. 곧 '한국아동문학 연구자료총서'를 내면서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 둘 작품을 한 자리에 섞어 올렸다.[7] 그리고 개별 항목은 아니지만, 『별나라』와 박세영의 관계를 다룬 글에서 최명표 또한 잘못을 되풀이했다.[8]

이렇듯 드문 글임에도 그들은 모두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 사람 안준식과 경상북도 영천 사람 안준식은 다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같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빌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잘못은 이재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1978년 『한국현대아동문학사』를 펴내면서 안준식과 안평원을 같은 사람으로 올렸다.[9] 그 뒤부터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된 셈이다. 둘이 전혀 다른 사람임을 글쓴이가 처음 밝힌 때가 2012년이다.[10] 그 뒤부터 나온 안준식 관련 기술에서는 두 사람을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류덕제다. 그는 안준식에 관해 누구보다 긴 풀이를 하면서 안평원과 따로 실었고, 두 사람이 다른 이라는 사실을 되짚었다.[11] 안준식을 '소년운동가' '아동문학가'로 일컫고 생몰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썼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쪽과 달리 북한에서는 일찌감치 1950년대부터 안준식에 관련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

6) 최시한.최배은 엮음, 『하늘은 맑건만』, 문학과지성사, 2007, 282쪽.
7) 안평원 작품 「나무꾼의 쉬는 곳」.「설한풍의 밤」.「옥색 '호로병'」.「험산을 밟고」를 안준식 작품 「아버지와 딸」과 나란히 놓았다.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엮음, 『별나라를 차져간 소녀 3』, 국학자료실, 2012, 540쪽.
8)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34-35쪽.
9)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21쪽.
10) 박태일, 앞에서 든 글, 1988-189쪽. 그 뒤 영천에서는 새로 찾은 자지역 작가로 그를 다루고 있다.
11) 류덕제 엮음,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자료집 ① 1900-20년대』, 소명출판, 2016, 1034-1035쪽 :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필명」,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 청동거울, 2017, 307-309쪽.

①1901 12월 13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출생. 1916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쇄 로동에 종사하였음. 1926년 6월에는 별나라】사를 창건하고 그의 주필로서 사업하였음. 1927년에는 박세영, 송영과 함께 별나라】사를 '카프' 아동문학부의 기관지로 개편하고 프로문학 출판물 발간에 정진하였음. 1932년에는 극단 범신건설】 사건으로 일제 감옥에 투옥됨. 1945년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지하 활동을 하다가 1950년 6월 28일 이후에는 문화선전성 직속 국영 서울 제1출판사 부사장으로 공작하였음. 1951년 3월에 북반부로 넘어 오다가 황해도 금천군에서 적의 폭격에 의하여 별세하였음.

-「략력」[12]

②1901년 12월 13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출생. 1916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쇄 로동에 종사. 1926년 6월에는 별나라】사를 창건하고 그의 주필로서 사업. 1927년에는 박세영, 송영과 함께 별나라】사를 '카프' 아동문학부의 기관지로 개편하고 프로문학 출판물 발간에 정진. 1932년에는 극단 범신건설】 사건으로 일제 감옥에 투옥. 1945년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지하 활동. 1951년 3월에 북반부로 넘어 오다가 황해도 금천군에서 적의 폭격에 의하여 별세.

-「략력」[13]

①과 ②는 세 해를 띄우고 이루어진 기술이다. 그럼에도 속살은 거의 같다. ①을 보다 요령 있고도 짧게 간추린 풀이가 ②다. 그러다 보니 경인년전쟁기 "서울 제1출판사 부사장" 이력이 빠졌다. 그런데 둘의 기술에서 그의 태생과 사망 연대에다 학력에 관해 밝혀 둔 점이 각별하다. 1901년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1916년 보통학교를 졸업했다는 정보는 그의 삶을 가늠하는 데 좋은 참조점이다. 게다가 생몰 연대에서는 나달에다 사망 원인까지 적시했다. 곧 12월 태생이며 1951년 3월 후퇴하다 황해도 금천에서 유엔군 폭격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남북한을 통털어 안준식을 두고 이루어진 가장 꼼꼼한 정보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의심할 바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기술이 실린 책을 펴냈던 시기, 곧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 초기 어린이 문학사회를 이끌었던, 1945년 이전 카프 세대들이야말로 안준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교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별나라】 중심 편집인이었던 송영과 박세영에다 신고송.강호.엄흥섭.박승극.정청산이 현장 문학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송영과 박세영은 월북 작가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요, 초기 북한 어린이 문학사회를 이끈 대표 실세였다. 안준식에 관련한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 ①, 곧 1945년 이전의 북한 사회주의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전통 자산을 간추려 널리 알리고자 한[14] 선집 이름을 굳이 그들이 공들여 냈던 잡지 별나라】를 그대로 끌어와 썼던 일은 우연이 아니다. 별나라사 직원으로 일했던 수원 후배 정청산은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장을 거쳐 선집 별나라】는 물론, 북한 어린이문학 출판물을 내는 핵심 기구 아동도서출판사 주필을 맡고 있었다. 그러니 ①, ② 두 기술을 둘러싼 필진은 안준식과 공사로 깊은 친연성을 지닌 인물. 누구보다 안준식의 가계와 사람됨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이다. 이미 저 세상 사람임에도 생일 날짜까지 적시한 것이 그 점을 잘 말해 준다.[15] 거기다 위원회 소속은 달랐으나 같은 작가동맹 동맹원으로 활

12) 별나라】, 아동도서출판사, 1958, 188쪽. 이 책은 조선민주청년출판사에서 1956년에 낸 첫 판을 일부 더해서 낸 재판이다. 1957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번인본으로 내기도 했다. 세 책 모두 작가 「략력」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다.

13) 별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87-196쪽. 운파라는 호를 쓴 동명이인이 있다. 농업 지식을 펴는 일에 나섰던 이다. 본디 이름 장완호(張琬鎬).

14) '프로레타리아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낸 첫 근대 어린이문학사 기술에서 소항목을 갖추어 다룬 유일한 두 사람이 박세영과 송영이다. 그 둘이 지녔던 정통성과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별해방전의 조선 아동문학】, 아동도서출판사, 1956, 30-43쪽.

15) 안준식의 「략력」이 실린 별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경우, 18명이 작품을 실었다. 그 가운데

발했던 동향 박팔양까지 가까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끌었을 대표 출판물 둘에 쓰인 안준식 관련 기록은 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쪽에서 안준식을 수원 사람으로 비정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에 관한 관심이 엷었던 데 있을 터다. 게다가 그나마 볼 수 있는 유일 기록에서 '본적'이 서울시로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그가 1932년 왜경에 이른바 '출판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을 때 만들어진 신문 조서가 그것이다. 거기서 안준식은 직업을 '인쇄업 겸 출판업'으로, 본적은 서울 '혜화동 89번지 3'으로, 주소지는 '혜화동 1-65'번지로 적었다.[16] '혜화동 89번지 3'은 안준식의 집 주소다. '혜화동 1-65번지'는 ▶별나라◀를 냈던 별나라사 주소지이자 그 인쇄소 동아사 자리다. 왜경은 그의 서울 집 주소지를 '본적'으로, 그의 일터 주소를 '주소지'로 적은 것이다. 안준식 경우 '본적'은 그의 태생지와 다른 거주지를 뜻한 셈이다.[17] 그렇지 않다면 고향 수원에 있었던 '본적'을 현재 서울 거주지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인쇄업 겸 출판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거기다 ▶별나라◀라는 연속 간행물을 내고 있었던 그다. 인쇄소.출판사 운영과 검열 과정, 다른 갖가지 법적 이해 충돌이 문제 될 경우가 잦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1932년에 앞서 일찌감치 본적지를 일터인 서울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오랜 시기 그 둘레에 머물며 각별하게 지내다 월북했던, 카프와 ▶별나라◀ 세대 지인들이 앞장 서서 낸 출판물에 실린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가 수원 출생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쪽 안준식 기술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두 가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학력과 탄생 연도 문제다. 북한 쪽 '략력'에는 안준식이 1916년 수원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서 '인쇄 로동'에 들어선 것으로 적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 배재고보 재학 사실이 보인다. 1924년 5월 '전조선야구전'에서 휘문고보와 배재고보가 시합을 벌였는데, 거기서 배재고보 선수로 그가 이름을 올렸다.[18] 1924년 배재고보 재학이 확실하다. 그러다 서울 "야구계에 종사하든 유지 청년들"이 '서울야구단'을 만들어 1925년 9월 "배재운동장에서 서울아머리칸과 야구시합을" 벌였다. 그 단원 10명 가운데 외야수 안준식이 들었다.[19] 이듬해 1926년에도 "서울구락부 외야수"로 그가 시합에 나섰다.[20] '서울야구단'은 배재고보 출신이 모여 만든 야구단이다. 따라서 안준식은 1924년 하반기에서 1925년 전반기 사이 배재고보를 중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어서 1925년 8월부터 '보광학교'에서 무보수 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21] ▶별나라◀를 내기 앞서 있었던 일이다.

12명은 그 무렵 북한 문학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다. 「략력」 기술을 위해 본인 확인을 거쳤다는 뜻이다. 「략력」에 생년월일까지 적지 않은 이는 리동규.홍구.권환 셋에 그친다. 그 책이 나온 무렵 이미 죽은 이다. 1950년 6월에 죽은 리동규는 1923년 생년만 적었고, 1947년 서울에서 죽은 홍구 경우는 생일은 적지 못하고 1908년 3월까지 적었다. 권환은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머물러 있다가 1954년에 마산에서 영면했다. 죽은 이 가운데 최서해.박고경.안준식은 생년월일까지 다 적었다. 함경북도 성진 출신 최서해 경우 일찌감치 1932년 죽은 이로, 널리 알려진 작가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 박고경은 1936년 신병으로 죽었다. 그와 깊은 친교를 맺었던 북한 출신 남궁만.리원우.김우철.안룡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까닭에 나달까지 적을 수 있었다. 안준식도 비슷한 경우겠다. 북한 쪽 기록을 믿을 수 있는 한 터무니다.

16) 신고송.임화.이찬.안준식과 ▶별나라◀ 사원 정청산.박주호가 붙잡혔다. 「출판법위반 급 기타 검거에 관한 건(우리동무 사건)」, 1932. 12. 15. http://db.history.go.kr/id/had_178_0020

17) 수원 출신 정청산은 1931년 6월 이른바 치안유지법으로 붙잡혔을 때는 '본적'을 수원으로 적었다. 그러나 1933년 1월 이른바 출판법 위반으로 다시 붙잡혔을 때는 '본적'이 '경성부' 곧 서울시로 바뀌었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a_4989_3875

18) 「전조선야구전」, ▶중외일보◀, 1924. 5. 19.

19) 「새로 조직된 서울야구단 오날 첫 싸홈」, ▶매일신보◀, 1925. 9. 23.

20) 「4구락부야구연맹전 전기」, ▶동아일보◀, 1926. 8. 17.

이렇듯 안준식이 배재고보에 진학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둘 때, 그와 배재고보사이에 평생 이어졌던 끈끈한 인연은 이해가 쉽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운영한 별나라사와 별나라 '동인'에 배재고보 출신 학연이 가장 단단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 별나라를 힘껏 도운 이[22]만 보더라도 인천 출신 진우촌과 최병화가 배재고보 출신이다. 송영은 1917년 배재고보에 입학하여 1919년 중퇴하기 앞서 "배재 소년"으로 새누리라는 회람 잡지를 만들면서 습작기를 보낸 이다.[23] 동인 염근수 또한 배재고보 중퇴생으로 보인다.

초기 동인은 아니지만 별나라사 직원 가운데서도 배재고보 출신이나 배재고보 연고는 큰 고리를 이룬다. 대표되는 이가 별나라 중심 편집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세영이다. 그는 송영과 동기생으로 배재고보 제4회로 졸업했다. 별나라가 더 나오지 못하고 왜로 탄압이 극심했던 실국시대 말기에는 모교 배재고보 직원으로 몸을 맡기기도 했다. 그리고 안준식과 같은 수원 사람 박팔양은 배재고보를 졸업했고, 박승극은 중퇴한 사람이다.[24] 송영은 "친밀히 교우하는 문인"으로 안준식을 들기도 했다.[25] 나아가 별나라사가 서울에서 이루었던 대외 행사 경우 학교 시설로는 배재고보 강당과 운동장을 되풀이 썼다.[26] 거기에 드물게 천도교기념관이 끼었을 따름이다. 이런 관계는 별나라 폐간 뒤에도 이어졌다. 안준식의 인쇄소 '동아사'에서 찍은 배재고보 동창회보, 곧 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배재동창회, 1941)가 한 물증이다. 안준식과 배재고보 사이 연고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학연이었던 셈이다.[27]

그런데 안준식은 언제 배재고보에 입학했던 것인가?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1916년과 서울 배재고보 재학이 확인되는 1924년 사이에는 8년이라는 거리가 있다. 1924년 하반기나 1925년 상반기에 학교를 중퇴했다 하더라도 언제 입학해 몇 학년 재학하다 그만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안준식 당대에는 늦은 나이 입학이나 사정에 따라 휴학/복학이 잦았다. 그는 배재고보를 만학도로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배재고보 재학 사실이 왜 북한

---

21) 서울 다옥정 서울야학교는 "무산 아동과 직업 아동" 교육을 해왔는데, 확장하여 교명을 보광(普光)학교라 개칭하고 야학뿐이었던 것을 주야 2부로 9월 5일 제2학기 개학을 할 것이라 했다. 7명 무보수 교원 가운데서 안준식이 들었다. 「서울야학교 개명 확장 주야 이부로 내용을 확장」, 매일신보, 1925. 8. 29.

22) '동인'이라 내놓고 적지 않았지만, 피와 눈물 그리고 땀을 흘린다는 표현을 빌려 별나라 초기 출판에 공감하고 도와 준 사람이라 알 수 있다. 한정동.주요한.유도순. 진종혁.이학인.김도인.이정호.안준식.최규선.이강흡.양재응.연성흠.원경묵.최병화.김영희.강병주.최희명.박아지.윤기항.염근수에 걸친 20명이다. 「별나라를 위한 피.눈물.땀!! 수무 방울」, 별나라, 1927, 6월 호, 40-43쪽.

23) 송영, 「그때의 이면사① : 신흥예술이 싹터 나올 때」, 문학창조, 1934, 68쪽. 「작가작품연대표」, 범삼천리, 1937, 제9권 제1호, 241쪽.

24) 박팔양은 배재고보 제4회(1920)로 졸업했다. 박세영은 그 두 해 뒤인 제6회(1922) 졸업생이다. 진우촌은 배재학당 본과 제13회(1922) 졸업생이다. 배재고보 제6회와 같다. 최병화는 고보 제12회(1928)다. 박승극은 1924년 배재고보를 4년만에 중퇴했다. 염근수는 1921년 양정고보 2학년 때 동아일보에 동시 「피꽃」을 발표한 일이 있어 양정고보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졸업생 명부에는 없어 중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배재고보 학생 교우지 배재에 시 「혈화」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별나라 초기부터 동인으로서 안준식과 깊은 유대를 갖고 편집을 도왔다. 양정고보를 중퇴하고 배재고보에서 학업을 이은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그 또한 안준식과 같이 졸업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안준식 둘레에서 배재고보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이는 박팔양.송영.박세영.진우촌.박승극.최병화.염근수 모두 일곱 사람이다. 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 배재동창회, 1941, 15쪽 : 19쪽 : 20쪽 : 50쪽. 「혈화」, 배재, 1928, 제11호, 72쪽. 「양정교우회원명부」, 양정, 1937, 제14호, 138-162쪽.

25) 「작가작품연대표」, 앞에서 든 책, 241쪽.

26) 「별나라사 주최 해방기념동요동화회, 23일 오후 1시 배재강당서, 본사 후원」, 중앙신문, 1945. 12. 21. 「별나라 7주년 기념 '동요.음악.동극의 밤'은 이러케 열엿다」, 별나라, 1933, 9월 호, 40-43쪽.

27) 배재고보 동창회 명부는 졸업생을 잣대로 삼은 것이어서 중퇴생 안준식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기록에서 빠졌을까? 중퇴했던 까닭과 본인이 이미 유명을 달리한 터라 성근 기록이 된 점도 있을 수 있다. 무산계급으로서 안준식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려는 뜻도 작용했음 직하다.

북한 쪽 기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안준식의 출생 연도다. 이른바 출판법 위반 기소장에 따르면 출생 연도를 밝히지 않은 대신, 나이를 당 34세로 적었다.[28] 기소된 때가 1932년 7월이니, 탄생 연도가 1899년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 쪽 기록보다 햇수로는 세 해, 만으로 두 해가 앞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준식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굳이 연도를 밝히지 않은 기록일 뿐 아니라, 두 해나 앞섰다면 배재고보 진학 연도도 훨씬 늦어진다. 그만큼 만학의 가능성이 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년월일을 다 밝힌 북한 쪽 기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북한 쪽과 달리 우리 쪽에서는 안준식의 삶에 관한 정보를 더 찾을 수 없을까? 요행히 짧지만 세 가지 기술이 보인다.

①안준식(운파), 별나라의 옷이요 밥이요 집이니가 더 말할 수 업고 키가 훌적 크신데다 목소리가 크세서 미구에 그 목소리는 '라듸오' 모양으로 전세계를 진동하실 것임니다 비바람 눈을 모릅쓰고 분투하시는 선생님은 언제나 늘 별나라사에 게시고

-「별나라를 위한 피. 물 . 짬!! 수무 방울」 가운데서[29]

②운파 안준식 선생

말슴 잘하시기론 엄지 손이지요. 성량이 크기로 제일, 음악적으로 크신 게 아니라 무용적으로 크신 것이다. 이런 이약이를 해도 청중은 놀날만합이다 더구나 엽헤 안진 사람들은 눈이 공연히 둥그래집니다. 키가 크신 것은 과거의 '일류 스포츠맨'이란 것을 말하는 듯, 그런데도 눈물이 많은 분입니다. 별나라를 닛자 닛자 해도 못 닛는 것은 아마 이 눈물이 남에게 비하야 만으신 때문인가 봅니다. 선생님은 술하곤 아조 절대 대입니다. 아모 금주회에 입회하시면 톡톡이 수완을 보이실 모양, 그 「쑨인 줄 아십닛가 담배도 안 잡스시니 치부술이 능한 세음, 선생님은 아든 님이 셋, 짜님이 두 분이라고 그런데 모두가 별나라보다 동생이라고 함니다. 그리고 웃으운 것은 밥 잡수실 때 콩밥이 아니면 역정을 내심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주의할 일.

-「이 해를 보내는 집필 선생의 전모」 가운데서[30]

③혜화동 안준식 씨 5남 병원(炳元)

-「여항(閭巷)」 가운데서[31]

(1930년 안준식 모습)[32]

---

28) 「출판법위반 급 기타 검거에 관한 건(우리동무 사건)」, 앞에서 든 누리집.
29) 별나라】, 1927, 6월 호, 40-43쪽.
30) 별나라】, 1934, 송년호, 22-23쪽.
31) 「여항」, 별매일신보】, 1935. 8. 8.

①에서는 ▶별나라◀와 맞물린 안준식의 절대적인 위상과 함께 몸에 관한 정보가 돋보인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②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가계에 관한 정보가 더했다. 곧 '성량이' '무용적으로' 매우 큰 "일류 스포츠맨"이었고 다정다감하며 술 담배를 금했다는 점이다. 자녀는 아들 셋에 딸 둘인데 그들 모두 "별나라보다 동생"이라 했다. 1926년 6월 이후에 태어난 셈이다. '성량'이 '무용적으로' 매우 컸다는 사실은 뒤에서 살피겠지만 그가 '동화구연가'로서 이름을 얻었던 점이 관련된다. 그리고 '일류 스포츠맨'이었다는 점은 이미 말했듯 배재고보 재학 때 야구선수로 활약했으며[33] 그 출신 야구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실과 맞물린다. 야구에 관한 안목과 역량이 남달랐던 까닭에 안준식의 별나라사에서 무산 소년들이 할 수 있을 '권구(拳球)대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안준식은 '일류 스포츠맨'으로서 목청이 컸던, 매우 활달했던 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아들 '병원'의 탄생을 알렸다. 1930년대 초반 안준식의 위상이 그런 사실을 지상에서 다룰 만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가 자녀로 아들 다섯에 딸 둘을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노력에 따라서는 월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유족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앞에서 이제껏 안평원과 같은 사람으로 알려지거나 서울 출신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안준식이 수원 태생 문학인임을 비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생몰 관련 정보도 더했다. 운파 안준식(1901-1951)은 경인년전쟁 비롯 뒤 서울에서 '인민군'의 출판 관계 중책을 맡아 일하다 1951년 3월 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황해도 금천에서 폭격으로 죽었다. 일찌감치 안준식의 지인이 중심이 되었을 북한 쪽의 「략력」 기록이 그 점을 뚜렷이 알려 준다. 그는 남다른 성량과 건장한 몸으로 야구에 특장이 있었던 이로, 동화구연가로서 뛰어난 활동을 할 수 있을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의 수원 고향 귀속과 함께 학력에 관한 정보도 더했다.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나온 뒤 서울 배재고보에 재학했다 중퇴한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안준식의 삶과 문학을 살피노라면 그가 열 해 동안 한결같이 고투하면서 일구었던 별나라사와 ▶별나라◀ 출판 둘레에 고향 수원 지연과 배재고보 학연을 지닌 문인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끈끈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은 고스란히 한국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을 뒷받침하고 이끌었던 공적과 맞물린다.

3. 삶의 동력 셋

안준식은 길지 않은, 쉰을 겨우 넘긴 삶을 안준식.안운파.운파.구름결[34]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살았다. '구름'을 앞세워 세사에 순조로움을 겨냥했는지 모른다. 그렇건만 그의 삶은 간단치가 않았다. 운동에 특장이 있었던 것과 같이 삶 또한 격동적이었다. 그런 밑자리에는 인쇄소 동아사와 ▶별나라◀ 출판을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이가 겼었을 고통이 보인다. 왜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더는 낼 수 없게 되기 한 달 앞선 1934년 12월 호 ▶별나라◀에는 흥미로운 문답이 오갔다. 충주의 신예 작가 한백곤이 묻고 '별나라사'에서 답하는 꼴이다.

---

32) 「집필 선생님의 면모(1)」, ▶별나라◀, 1930, 6월 호, 목차 뒤 2쪽.

33) 배재고보는 축구를 잘했으나 야구 또한 뛰어났다. 1920년 10월 4일 '전선야구대회'에서 "영광의 우승을 획득하여 우리 운동계에 신기록을 작하다." ▶배재학보◀, 1921, 2호, 34쪽.

34) 목차에는 '안준식'이라 적고, 본문에는 '구름결'이라 올려, 둘 다 썼음을 알려 준다. ▶어린이독본◀(새벗사 엮음), 회동서관, 1928, 119쪽.

안운파, 박세영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한백곤 생
(답)운파, 박세영 두 분은 인쇄업을 해서 먹고 사네 누구한테 이약이는 말어
-「기묘무궁대학」 가운데서[35]

'인쇄업'으로 '먹고' 산다 했다. 「략력」에서도 '인쇄 로동'자임을 밝힌 터다. 안준식은 적지 않은 가솔의 생계와 '별나라사' 운영을 '동아사' 경영으로 버텼다. 자기 인쇄소를 갖기까지 남다른 각고와 시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가 어느 때부터 인쇄소를 마련했는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문헌 자료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안준식의 삶과 활동을 재구성하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가늠이 가능한 삶은 셋으로 모인다. 곧 소년 활동가와 인쇄출판인 그리고 어린이문학가로서 모습이 그것이다.

1) 소년 활동의 전개

소년 활동가로서 안준식은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별나라】를 내기 앞선 초기, 【별나라】 창간 뒤 폐간까지, 을유광복까지 잠행기, 마지막 광복기 활동이 그것이다. 먼저 초기, 그가 처음 소년 활동가로 이름을 낸 때는 24살 무렵인 1925년이다. 기미만세의거의 승리와 집단주의를 앞세운 사회주의 사조의 유입으로 온 나라 안에 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런 조직이 220곳을 넘었던 때다. 그러한 증가는 왜로의 직간접적인 방해와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로 말미암은 고초의 많은 자리는 지도자의 몫이었다. 안준식 또한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5년 8월 보광학교 교원으로 일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이름을 보인다. "무산 아동과 직업 아동" 교육을 해오던 서울야학교가 '개칭', '확장'해 운영하려는데 "무보수 교원"으로 안준식이 일하리라는 정보다.[36] 그가 서울야학교에서부터 교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학교 '확장' 뒤 새로 일하기로 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배재고보 재학 사실을 염두에 두면, 보광학교 확장 개칭 뒤부터 본격적인 소년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안준식은 그 뒤 동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광청년회'에도 참여했다. 동광청년회를 두고 "무산 청년의 신진용"이라 썼다.[37] 소년 활동가 안준식이 서 있었던 자리가 드러난 셈이다. 곧 경제 소속이 '무산 청년'에 든다는 점, 청소년 지도자 가운데서 그가 새 진용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해 안준식은 보광학교 운영 경비 일부를 달마다 도와주기로 했다.[38] 보광학교가 확장할 때 무보수 교원으로 일하리라고 했던 안준식이 학기가 바뀌려는 때 이번에는 운영 경비를 도우기한 것이다. 그의 소속을 "인쇄회사 동아사 주인 안준식"이라 뚜렷이 썼다. 이로 미루어 보광학교 무보수 교원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경비 보조로 도우려 했을 수 있다. 그 처지란 다름 아니라 인쇄회사 동아사 경영에 온힘을 기울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안준식은 1925년에 이미 새 '진용', 새 얼굴을 지닌 소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해마다 5월에 이루어지던 '어린이데이'에도 참여했다. 그에 관해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자 했을 때, '신광(新光)소년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것이다.[39] 그리고 정홍교.

---

35) 【별나라】, 1935, 1.2월 합호, 51-52쪽.
36) 「서울야학교 개명 확장 주야 이부로 내용을 확장」, 【매일신보】, 1925. 8. 25.
37) 「동광청년 조직」, 【동아일보】, 1925. 9. 22.
38) "보광학교가 신학기부터 일층 더 확장될 터이라 하는데" 그 학교에 "종래부터 많은 노력을 하던" 안준식이 "매월 10원씩 유지비로 동교에 긔부하기로 승낙"하였다. 「경비 보조」, 【시대일보】, 1926. 1. 29.

장무쇠 들이 활동한 '명진소년회'에서도 창립준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안준식 소년 활동이 지닌 새로움은 방정환과 '색동회'로 대표되는 비상설 중앙 기구 '조선소년운동협회'에 맞서 새로운 전국 단일 연합 기구로 출범했던 '오월회'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월회에는 천도교소년회와 중앙기독교청년회 일부가 참여했음에도 개량적인 기존 '조선소년운동협회'와는 다른 길을 뚜렷이 했다. 곧 강령에서 "사회진화 법칙에 의하여" "시대 조류에 순응"코자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노선을 비쳤다.[40] 활동 초기부터 안준식은 '무산 청년'으로서 '무산 소년'을 위해 활동이라는 지평을 뚜렷이 한 새 세대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인쇄소 동아사를 바탕으로 천도교계 잡지 【어린이】나 기독교계 잡지 【아이생활】과 달리 【별나라】를 내게 된 일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었던 셈이다.

둘째, 【별나라】 창간 뒤다. 안준식은 1926년 【별나라】 창간 뒤부터 더 활발하게 활동 영역을 넓혔다. 1927년 6월에는 '성북동'에서 '성북소년회'를 만들었다. 서울 동부 '동광청년회'에 이어 성북 지구에도 소년회를 넓혀 나가는 맵시다.[41] 세대와 노선 경계가 뚜렷한 안준식 두리의 활동은 자세력 결집을 바탕으로 삼았다. "아동문학 연구 꽃별회 창립"이 그 하나다. 회원 거의 모두가 초기 【별나라】 동인이거나 글쓴이로 이름을 올린 이다.[42] 그와 함께 "소년문제 연구 단체" '별탑회'도 만들었다. 이 두 조직을 중심으로 노선 활동뿐 아니라, 전국 활동까지 겨냥했다.[43] 그리하여 '오월회' 쪽과 '조선소년운동연합회' 쪽 좌우 대치가 어린이날 행사를 놓고 해마다 격화, 누그러지곤 했다. '조선소년연합회'는 그 한 결실이었다. 그런 과정에 안준식은 오월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빠지지 않았다. 관련 행사 때마다 그는 별나라사와 '경성현대소년구락부'.꽃별회.별탑회를 아우른 오월회의 중심 인물로 나섰다.[44]

이어 오월회는 "방향 전환"을 배격하면서 1928년 조선소년연합회에서 다시 '경성소년연맹'으로 가지를 치고, 조선소년연합회를 조선소년총연맹으로 바꾸어 "종래의 부르조아적 완미한 교양"으로부터 "과학적 지식", 곧 계급주의 교양으로 더욱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 과정에서도 안준식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조선아동문예작가협회'를 따로 만든 것도 그러한 노선 격화와 관련된 일이었다.[45]

---

39) 「자치의 정신」(어린이를 옹호하자 7 : 어린이데이에 대한 각 방면의 의견), 【매일신보】, 1926. 4. 11.

40)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190쪽.

41) 「창립된 성북(城北) 소년」, 【매일신보】, 1927. 6. 25.

42) 회원은 유도순.한형택.김도인.진종혁.한정동.최병화.노수현.강병주.주요한.양재응.염근수다. 「아동문학 연구 꽃별회 창립 유지의 발긔로」, 【중외일보】, 1927. 1. 17.

43) 「별탑회원 출발」, 【매일신보】, 1928. 8. 13.

44) 1926년과 1927년 두 해에 걸쳐 '어린이날' 행사 준비에서 그 점이 드러난다. 1927년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단체연합회의를 열었을 때 안준식은 별나라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럼에도 대립이 풀리지 않았 . 그러하여 두 조직 통합을 꾀하기 위해 7월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를 열었을 때 창립준비위원에 서울 대표로 방정환.안준식.연성흠.정홍교.고장환.최청곡과 같은 이가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조선소년연합회에서 10월 창립대회를 열었을 때 안준식이 사회를 맡고, 임시의장 방정환이 회의를 이끌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 방정환 아래서 안준식은 중앙검사위원으로 뽑혔다. 「어린이날 준비로 소년단체연합회의」, 【중외일보】, 1927. 4. 10. 「소년계의 희소식 두 지도 단체가 악수」, 【매일신보】, 1927. 8. 1.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 원만히 진척, 조선소년운동협회측과 오월회측과의 타협으로 소년운동 통일 서광」, 【중외일보】, 1927. 8. 1.「전선소년연합회 창립회의 제1일」, 【매일신보】, 1927. 10. 18. 「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에 관한 건」,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 서류 3】, 1927. 8. 3.

45) 새로 출범한 조선소년연합회도 활동이 순조롭지 않았다. 오월회 핵심 구성원이 1928년 2월 '경성소년연맹'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소년연합회가 1928년 3월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조직을 '조선소년총연맹'으로 바꿀 것을 결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부르조아적 완미한 교양으로부터 과학적 지식" 보급과 "무산 소년 교양에 주력"하는 방향을 계발하였다. 그러자 천도교 측과 그 동안 어린이날을 만들어 소년 활동을 이끌었던 "색동회.조선소년운동협회는 손을 뗐다. 조선소년총연맹은 지역 소년동맹의 연맹 가맹을 받아들이고 더 힘 있는 강령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소년 활동의 분열과 대립은 더해 갔다. '조선아동문예작가협회'에는 김영팔. 양재응.최병화.강근수가 안준식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조선아동문예작가협회 창립」 【중외일보】, 1929.

1929년 어린이날 행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치러질 수밖에 없었다.[46] 이러한 소년 활동의 대립과 통합 모색, 그리고 다시 대립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안준식은 그 '준비위원'이나 '위원'으로서 이념과 활동 자리를 뚜렷이 한 것이다.[47] 그 점은 1932년 '어린이날 준비회에 대한 공개장'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 소위 조선의 '어린이날'이란 것이 그 출발을 우익 민족주의자의 굴복 인종 온순 등등의 일종 동물애호 운동과 가튼 데에서 출발한 것은 여긔에서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가 업다.
> 더욱이 점점 양편 대립이 심화한 금일에 잇서서는 단순한 '애호운동'에서 일보 전진해서(6자 략) 도구가 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업다. -(줄임)-
> × ×
> 여느날 신문엔가 예년과 가튼 판에 박은 듯한 '준비회' 소식과 싸라 점 더 노골화한 '스로강' 기념 프로와 밋 준비위원의 씨명이 례한 가운데 나의 성명이 씨여 잇섯다
> 물론 나에게 승낙을 구한 것은 커냥 그와 가튼 문의 통지 등의 하등의 행동도 엄시 자기네 씨리 어듸서 엇더케 결의햇는지도 모르게 발표하여 버리엿다
> 내가 어린이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드래도 그 불법 행동에 대하야 불평이 잇겟거든 하물며 반대하는 나로서는 여간 분개햇든 것이 아니다
> 그래서 곳 준비회로 그 불법을 청하고 그 취소 급 사고 광고를 금일 20일까지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엿든바 20일이 지나도록 하등의 소식도 엄고 그에 대한 광고도 엄섯다
>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준비회의 행동이냐?
> -(줄임)-
> 만천하 독자 제군과 더욱히 가튼 소년 운동권 내에 잇는 동지 제군에게 신문에 발표된 나의 성명을 보고 의혹과 오해를 품고 잇슬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공개 아니할 수 엄서서 이 일문을 초한 것이다
> -「어린이날 준비회에 대한 공개장」 가운데서[48]

방정환이 이끌었던 진영의 '어린이날' 행사의 출발을 "우익 민족주의자의 굴복 인종 온순 등등의 일종 동물애호 운동과 가튼 데에서 출발한 것"이라 한 데서 비아냥이 드높다. 인식에서 뚜렷하게 차별을 두었다. 그들은 기념 프로그램에 승낙도 얻지 않고 준비위원으로 안준식을 올렸다. 그러니 읽는이나 "가튼 소년 운동권" "동지 제군"이 "의혹과 오해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같은 소년 운동권"이란 다름 아니라 계급주의 노선이다.

이렇듯 소년 활동에서 계급주의라는 반왜, 항왜 이념 조직과 진영의 중심 고리이자 든든한 바탕이 안준식과 별나라사였다. 그를 둘러싸고 젊은 활동가들이 오갔고, 안준식의 집과 사무실은 꾸준하게 그들이 만나는 주요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49] 그와 맞물려 안준식을 향한 감시 또한 집중적이었을

---

7. 6.

46) 「임박된 아동일 준비」, 【매일신보】, 1929. 4. 25.

47) 「경성소맹(京城少盟)에서 '어린이'날 준비」, 【중외일보】, 1930. 4. 1. 「어린이날준비위원회를 개최 부서와 규정 기타를 결정 소년총연맹에서」, 【매일신보】, 1930. 4. 4. 「'전선어린이날중앙연합 준비회' 집회 취재 상황 보고」, 【사상에 관한 정보(부본)】, 1931. 3. 19. 「금년 어린이날 기념 중앙연합 준비 임시 기관을 조직」, 【매일신보】, 1931. 3. 20. 「어린이날 기념, 준비회 임시 조직, 중앙준비기관으로써, 위원 급 부서 등 결정/시설사항 등 결정」, 【조선중앙일보】, 1932. 4. 16. 「어린이날 기념 준비 임시 조직」, 【조선중앙일보】, 1932. 4. 16.

48) 『**조선**중앙일보】, 1932. 4. 26.

49) 1927년 12월 서대문 【별나라】사 주필 안준식의 '집'을 지나가는 "헌병대 형사에게" 이른바 왜왕과 관련한 "불경한 언동"을 했다는 혐의로 '로동총동맹' 간부 리창재가 붙잡혔다. 그에 대한 공판이 다음해 1월과 3월에 이루어졌다. 이때 '사건' 장소인 안준식의 '집'이란 이른바 '영락정 1정목'에 있었던 별나라사이자 인쇄소 동아사를 뜻한다. 이창재가 있었던 '로동총동맹' 사무실은 그 가까운 이른바 '영

따라서 1932년 그의 두리 인물들이 왜로 감시망에 옥죄여 겪은 신건설사폭거와 그를 빌미로 계급주의 노선 전체 붕괴를 뜻하는 카프 해체 수순이 이어졌다. 1932년 “적색 잠행 운동”을 한다는 혐의로 젊은이들이 경찰서에 끌려간 것[50]이 물꼬였다. 이어 신고송이 중심이 되어 냈던 【연극운동】으로 안준식도 왜경에 ‘인치’되었다.[51] “‘민족 개량주의’라는 투항주의적 간판”과 달리 계급 해방 활동이었던 까닭이다. 그런 투쟁 밑자리에 별나라사와 지역 곳곳 별나라 지분사, 그리고 안준식이 있었다.[52]

1935년 뒤로 안준식의 소년 활동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다. 왜로가 1937 중국대륙침략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땅에서 이른바 ‘국민정신총동원’을 꾀하는 과정에서 소년 활동은 더 숨 쉴 수 없었다. 어린이날 행사 또한 1937년을 마지막으로 삼았다. 안준식은 그러한 어린이날 마지막 행사까지 멀찍이 지켜보는 몸이었을 것이다. 을유광복까지 긴 잠행기가 시작된 것이다.

셋째, 을유광복 뒤 활동이다. 안준식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데는 1945년 9월 8일 한국민주당 발기인이 낸 전단이다. 여운형.안재홍이 이끈 ‘인민위원회’에 격렬하게 맞서는 자리다.[53] 거기 안준식의 이름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안준식의 을유광복 이전 걸음걸이로 볼 때 잘못된 일이다. 1932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민당에서 이름을 끌어댄 것이다. 그가 본격 이름을 올린 것은 광복을 맞아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국어린이날준비위원회’ 결성에서다.[54] 이어 당일 휘문중학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행사에서는 서울시어린이날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안준식이 기념사를 했다. 연배로나 투쟁 경력으로 보나 지난 시기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년 조직 활동에서 그가 지닌 대표성을 보여 주는 일이다.[55] 그 행사를 마치고 인사차 이루어진 서울 언론사 방문 또한 그가 맡았다.[56] 이어 1947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 준비 때도 안준식이 이름을 올렸다. 1946년 준비위원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에다 우파 소년 활동가도 여럿 이름을 올린 자리다.[57]

그리고 안준식은 을유광복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년 조직 활동에도 나섰다. 그리하여 1947년 1월 광복 뒤 새로운 소년 활동의 ‘신출발’을 위해 지도자협의회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는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58] 또한 “민전 선거대책 위원 각위” 157명 가운데서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여성.성인기.이정구.이우적 들과 함께 안준식도 이름을 올렸다.[59] 그는 이미 남로당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주의 계열의 행동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

락정 2정목’에 있었다. 그는 별나라사 안에 있다 그런 일을 꾀했다. 「불경사건 공판, 노동총동맹 이창재」, 【동아일보】, 1928. 1. 15. 「불경사건 공판」, 【동아일보】, 1928. 3. 10. 게다가 “전 조선 남북 각지 어느 곳 하나” 없이 “수백 명”이 검거되기도 했던, ‘연강소년회’의 ‘공산소년비밀결사 사건’(‘노농소년위원회사건’, ‘조선삐오네르사건’)으로 ‘공판’에 넘겨진 정청산.김봉룡.박상윤 들이 ‘적색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만나던 장소 가운데 하나도 안준식의 집이었다. 【중외일보】, 1931. 6. 3. 【매일신보】, 1932. 1. 20.

50) 【매일신보】, 1932. 9. 20.

51) 「연극운동사의 관계자 인치」, 【매일신보】, 1932. 12. 1.

52) 「전조선현상동요.율동대회」, 【별나라】, 1934. 4월 호, 59쪽.

53) 「한민당, 임정 외에 정권 참칭하는 단체 및 행동 배격 결의 성명서」, 【삐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김현식.정선태 엮음), 소명출판, 2011, 52-53쪽.

54) 「어린이날 행사 전국준비위원회 결성」, 【조선일보】, 1946. 3. 12. 「소년 문제 대강연」, 【자유신문】, 1946. 5. 11.

55) 여운형.김기전.김주하.이강국.이원조 들이 축사를 이었다. 「오월 훈풍에 축복 바든 어린이날 기념행사, 7년만에 다시 차저 작일 성대 거행」, 【중앙신문】, 1946. 5. 6.

56) 【중앙신문】, 1946. 5. 9. 【한성일보】, 1946. 5. 9.

57) “조선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 준비위원에 안준식을 비롯 양재응.최청곡.정홍교에다 현덕.김원룡.정태병.박흥민과 같은 새 세대도 이름을 올렸다. 「소년 운동자 제2차 간담회 개최」, 【동아일보】, 1947. 2. 9.

58) 【한성일보】, 1947. 1. 29.

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 비롯과 함께 10월부터 서울에서 인민군 문화선전성 제1인쇄공장의 부사장 직함으로 일할 수 있는 터무니였다. 그리고 그 길은 스스로 고향 수원과 일터 서울을 버리고 북행을 고를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끝은 안타까운 죽음.

2) 인쇄출판과『별나라』

안준식은 사회 진출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쇄출판인으로 한결같았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쇄 노동' 일을 시작했는지, 어느 때 인쇄소 동아사를 마련했는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26년 1월 보광학교 확장 기사에 "인쇄회사 동아사 주인 안준식"이라 썼다.[60] 이미 1926년에 앞서 동아사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1916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배재고보 재학이 확인되는 1924년 사이, 어느 때부터 '인쇄 로동'을 시작했으며 동아사[61]는 그 한 결실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인쇄출판인으로서 그의 됨됨이는 무엇보다 별나라사와 별나라】 출판과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볼 수 있는 별나라】는 제한 된다. 모두 82권 가운데 갈무리한 45권[62]을 빌려 대강을 짐작할 따름이다. 아쉬운 일이다. 안준식은 창간 처음부터 폐간까지 별나라】 펴낸이 자리를 오롯이 지켰다. 인쇄소 동아사 찍은이는 처음 안영식(安英植)이었다. 항렬로 보아 안준식과 형제 사이거나 친척이었을 것이다. 뒷날 잠시 최병화를 거쳐 이유기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쇄출판인으로서 안준식의 삶을 별나라】 발간 환경과 관련해 살피고자 한다. 범별나라】 글쓴이, 유통과 독자, 출판의 어려움, 별나라사 출판 현황, 부대사업이 그것이다.

첫째, 별나라】 글쓴이다. 별나라】는 초기부터 "지면의 반 이상을" '독자'의 글로 채우겠다는 생각[63]을 지녔다. 따라서 여느 어린이 매체보다 힘껏 독자 작품을 실었고, 그들이 마련한 '독자문단', '별님들의 모임'과 같은 투고문단은 별신소년】의 것과 함께 우리 현실주의 어린이 문학의 곳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나라】 초기 글쓴이는 '동인' 중심이다. 1927년 6월 현재 별나라】를 위해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으로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서 펴낸이 안준식은 "별나라의 옷이요 밥이요 집"이었다.[64] 그런데 다시 넉 달 뒤에 '별나라 동

---

59) 별중외경제신문】, 1947. 2. 15.

60)「경비 보조」, 별시대일보】, 1926. 1. 29.

61) "자본가의 돈도 업고 그저 빈 주먹 그대로 다만 겨우겨우 그 달을 지내여 가는 조그만 인쇄소를 안준식 동무님이 가지신 그것으로 겨우 경영의 도리를 어덧다"「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6쪽.

62) 무엇보다 검열과 탄압으로 나오지 못했거나 발매 금지를 겪은 호가 적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게다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별나라】의 갈무리 또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창간호 별나라】는 아직 미발굴 상태다. 1926년 6월 1일에 나왔다는 사실도 통권 2호 발행일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폐간호는 1935년 1.2월 합호, 곧 통권 80호다. 을유광복을 맞자 속간호 두 권을 더 냈으니 82권으로 그쳤다. 이들 가운데서 글쓴이는 45권을 확인했다. 37 미발굴 상태다. 전체 55%에 그친다. 세목은 아래와 같다. 1926년 : 7월 호, 9월 호. 1927년 : 4월 호, 5월 호, 6월 호, 7월호, 8월 호, 10월 호. 1928년 : 3월 호, 제3권 제5호. 1929년 : 5월 호, 7월 호. 1930년 : 2.3월 합호, 6월 호, 7월 호, 10월 호, 11월 호. 1931년 : 1.2월 합호, 3월 호, 4월 호, 5월 호, 6월 호, 7.8월 합호, 9월 호, 10.11월 합호, 12월 호. 1932년 : 1월 호, 2.3월 합호, 4월 호, 7월 호. 1933년 : 2월 호, 4.5월 합호, 8월 호, 제8권 제8호, 제8권 제9호, 12월 호. 1934년 : 제8권 제10호, 9월 호, 통권 78호, 통권 79호. 1935년 : 1.2월 합호. 1946년 : 속간 1호, 속간 2호. 미확인 가운데 1926년 9월 호와 1927년 6월 호는 아단문고(관리 박천홍)에 간수되어 있어나 도움을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63)「투고를 환영합니다」, 별나라】, 1926, 7월 호, 32쪽.

64) 거의 모두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이나, 전남에 있었던 박아지, 대구 최희명, 진남포 한정동과 같이 서울 바깥에서 별나라】와 친교를 맺었던 이도 있다.「별나라를 위한 피.물.땀!! 수무 방울」, 앞에서 든 책, 40-43쪽.

인'으로 적은 이는 모두 19명이다.[65] 처음 기록에 들어 있었던 강병주.원경묵.윤기항.주요한이 빠지고 박누월.방정환.송영, 세 사람이 더했다. 두 기록에 다 이름을 얹은 이는 16명[66]이다. 이러한 들쭉날쭉한 '동인' 모습은 처음 별나라】 동인이 이념 결집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 같은 소년 활동권이 이저런 연고로 별나라】 발간에 찬동하고 글쓴이로 나섰던, 유연성을 지닌 까닭이었다. 그러니 '본사에 집필하실 선생님'은 대상과 범위는 훨씬 넓었다.[67] 그 무렵 소년 활동에 나섰거나 공감했던 지도층 청년이나 교사, 작가 또는 연고가 닿은 사회 저명인사를 아울렀다. 그리고 별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썼던 주요한과 같이 별나라】에 대한 지지를 보여 준 이도 포함되었을 것이다.[68] 따라서 별나라】의 편집 방침이나 노선 변화에 따라서 글쓴이의 드나듦은 적지 않았다.

①별나라는 것과 속이 아조 달나젓다 소년노동자 소년농민 소학생 여러분의 참된 기관으로 모양을 변하고 나왓다

그 전에는 달큼한 문예품이나 덥허 놋코 재미만 잇는 옛날 이야기나 우리들과 관계업는 욕심쟁이인 영웅 전기 가튼 것도 석거서 실어 왓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살님사리와 또는 잘 살어보자는 운동과 관계가 업는 것이며는 절대로 실치를 아니하기로 하엿다

-(줄임)-

정하보 강호 임은광(隱光)(임홍은) 선생들의 우리들의 화가는 별나라를 위하야 힘을 써주시고 또는 앞흐로도 힘을 써주시게 된 것은 깃분 일이다.

-「편집후기」 가운데서[69]

②여섯 해 전 "처음 나도든 날" 그때는 덮어놓고 '가난한 동무'의 동무가 되겠다고 소리를 첬다. 세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엇덧튼지 가난한 동무"면은 누구든지 다 '동무'가 되가 되겟다고 하든 것을 버리엿다.

가난하다고 다 우리의 동무가 아니다. 공장의 동무! 농촌의 동무만이 우리의 동무인 것을 알엇다 또 그 이듬해 나이가 다섯 살이 먹든 생일에는

또 나는 동무를 더 똑똑히 하고 십헛다

공장의 소년이라고 농촌의 소년이라고 나의 동지(동무라고 하는 것보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엇다

그러면?

가장 용감한 조합소년부의 동무만이 더 우리의 동지이라는 것을 알엇다 나는 이렷케 변하여 왓다

-안준식, 「단 한 곳, 단 한 가지」 가운데서[70]

---

65) 「본사에 집필하실 선생님」에 이름을 올린 39명 가운데서 '별나라 동인'이라 별표를 해 둔 사람은 김도인.김영희.이정호.이학인.이강흡.염근수.방정환.박누월.박아지.송영.유도순.양재응.안준식.연성흠.진종혁.한정동.최규선.최병화.최희명 에 이르는 모두 19명이다.

66) 김도인.김영희.박아지.안준식.양재응.연성흠.염근수.유도순.이강흡.이정호.이학인.진종혁.최규선.최병화.최희명.한정동.

67) 강매.김기진.김동혁.김도인.김영희.이관용.이긍종.이성용.나원정.이성환. 이익상.이중화.이종숙.이정호.이학인.이강흡.염근수.민태원.방정환.백성욱.백남규.박누월.박아지.신영철.송영.안재홍.윤극영.유도순.양재응.안준식.연성흠.조동숙.진장섭.진종혁.최남선.최규선.최병화.최희명에 걸쳤다 「본사에 집필하실 선생님」, 별나라】, 1927, 10월 호, 앞표지 속광고.

68) 주요한.김억과 같은 이도 작품을 실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손수 원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낸 시집에서 작품을 가려 재수록하는 꼴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단의 선배"가 지닌 명성을 별나라】가 활용하고자 한 데 그친다. 「편집후기」, 별나라】, 1927, 8월 호, 59쪽.

69) 별나라】, 1930, 10월 호, 뒤표지 안쪽.

70) 별나라】, 1931, 6월 호, 2-3쪽.

③처음브터 지금까지 별나라를 짜어 놋튼 이가 아래와 갓다
안준식 김도인 최병화 박세영 임화 송영 염근수 엄흥섭
그리고 글을 쓰든 동무님들이 작구작구 갈니여 가다가 지금갓치 우리들의 리익과 또는 압길만을 위하야갓치 거러가는 아저씨들과 동무들로된 것이이다
-「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가운데서[71]

①에서는 1930년 무렵 글쓴이 변화를 엿보게 한다. '우리들', 곧 노농 무산 소년의 "살님사리와 또는 잘 살어보자는 운동과 관계가 업는 것"은 '절대로' 싣지 않기로 했고, 새로 정하보. 강호.임홍은과 같은 이가 그림을 도와주기로 했다. 모두 카프 미술분과 화가다. 글쓴이 또한 그런 두리에 있었던 셈이다. ②는 별나라】 펴낸이로서 안준식이 편집 노선의 변화를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26년 창간 무렵에는 "가난한 동무"를 앞세웠지만 이념 정위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1928년 무렵에는 "가난한 동무" 가운데서도 무산 노농 소년만을 겨냥했다. 1930년부터는 "용감한 조합소년부의 동무", 곧 계급주의 조직의 하부 세포로서 방향을 굳혔다. 그리고 1931년 현재, 그 길로 별나라】는 더 힘차게 걸어가리라는 각오를 밝혔다. 별나라】가 편집 노선에서 세 차례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그것이 작품 수록과 오롯이 맞물려 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별나라】 글쓴이의 드나듦과 나란했음은 확실하다. ③은 창간 무렵부터 1933년까지 별나라】의 '리익'과 '앞길'에 함께해 온 이라며 여덟 사람을 들었다. 범별나라】가 제국주의 왜로의 감시와 탄압을 거쳐 오는 동안 '진성' 동인이었다는 뜻이다.[72]

둘째, 별나라】 유통이다.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곧 서울 경우 서점에서 손수 살 수 있었다. 서울 바깥에서는 지분사에서 얻을 수 있었다. 지분사조차 없는 곳에서는 손수 별나라】 본사로 주문하거나 정기 구독하는 방식이다.[73] 이 가운데서 공을 많이 들인 것은 지분사였을 것이다. 평균 100군데 남짓 지분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4] 이러한 지분사는 별나라】 유통뿐 아니라 자지역 소년회 활동의 중심으로, 어린이날이나 별나라】 돌과 같은 기념일을 맞아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역 소년 활동의 중심 거점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지분사가 되려면 일정 부수를 넘는 별나라】를 팔 수 있어야 했다. 그 수치를 밝힌 기록은 없다. 다만 짐작은 가능하다. 곧 "지분사가 설치 아니 된 곳이라도" '선금으로' 50부 이상 '주문'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기록이 그것이다.[75] 지사나 분사 마련에 필요한 최소는 50부 남짓이었던 셈이다.[76]

그렇다면 이러한 유통 방식을 빌려 별나라】를 사서 읽은 독자는 얼마일까? 열 해에 걸쳐 나온 잡지여서 그것은 시기마다 다르고, 호수마다 다를 수 있다. 그에 관련한 꼼꼼한 통계는

---

71) 별나라】, 1931, 6월 호, 6쪽.
72) 다만 별나라】 글쓴이로 등장이 잦지 않은 임화까지 올린 것은 그 무렵 카프에서 지니고 있었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 볼 수 있다.
73) 「독자 여러분!」, 별나라】, 1926, 7월 호, 60쪽.
74) 1930년 현재 150군데나 되는 지사와 서점으로 보내고 2000이 넘는 개인 독자에게 별나라】를 보냈다. 1931년 6월에는 지사가 백여 군데라 했다. 1933년에도 "백 여 군데의 지분사", 그리고 "겨우 된 책을 백오십 군데나 되는 지사와 서점으로 백부 이백 부 제일 적어야 50부 식을 뭉쳐 보냅니다"고 적었다. 「별나라 출세기」, 별나라】, 1930, 6월 호, 26쪽. 「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6쪽.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33, 2월 호, 6쪽.
75) 별나라】, 1930, 7월 호, 34쪽.
76) "본사는 종래의 지분사에 대한 보신금제를 일절로 폐지하고 할인에 대하야도 지사의 충실과 거듭 독자층 획들을 위하야 좌와 여히 개정함. 1, 보신금제는 차를 폐지함 2, 지사의 활동을 일부분이라도 보조키 위하야 좌기와 여히 할인함. 가, 50부 이상 주문에 대하야 2할인이나 100부 이상 주문에 대하야 3할인. 다, 200부 이상 주문에 대하여 4할인." 「지사 규정 일부 개정」, 별나라】, 1932, 2.3월 합호, 앞표지 안쪽.

없다. 다만 몇몇 기술을 빌려 별나라】 독자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것은 1927년 창간 1년 뒤 "1만의 노농소년소녀 독자"라는 기록이다.[77] 이듬해인 1928년에는 "한 2만 명" 된다 했다.[78] 2만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1931년 창간 여섯 돌을 맞을 때 독자는 "약 2만 6700여 명"[79]이었다. 그런데 1931년 6월 현재 통권 51호에 "지금까지 발행된 잡지 수효가 약 552000권이라 썼다. 단순 대비로 호당 10823권 어름을 냈다는 뜻이다. 따라서 2만에서 3만에 가까이 이른 독자 수는 별나라】 지분사 회원과 등록 개인 구독자 수를 죄 묶은 것으로 봄이 옳다. 그러므로 1931년 '애독자' 수로 서울 1000에다 지역 1만으로 적은 것이 범별나라】 평균 구매 독자 수에 가까운 것이라 여겨진다. 1931년 「별나라에 나타난 각 지방 소년 계발 상황」에서 10371명에 이른 것이 그럴 듯하다. 별나라】는 개인 구독자, 지분사 독자, 서점 구매자를 아울러 평균 1만 남짓 구매 독자를 가졌던 셈이다. 거기다 그것을 돌려 읽었을 지분사 회원까지 염두에 둔다면 3만에 이르는 독자층을 얻을 수 있다. 별나라】 또한 평균 1만 권씩을 찍었을 것이다. 매우 큰 파급도와 영향력이다.

별나라】의 유통 범위와 지역 분포는 어떨까? 이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별나라】는 나라 모두에 걸쳤을 뿐 아니라, 만주 중국을 거치고 일본을 지나 멀리 미국과 쿠바에까지 이르렀다. 유통 범위가 한인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다 걸린다. 국내에서는 경기와 함남, 함북 순서로 독자수가 많았고 충청도, 그 가운데서 충북이 가장 적었다. 경기도가 2133명인데 견주어 충북은 5명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별나라】 독자 수만 드러내는 게 아니다. 별나라】가 대표하는 사회주의, 계급주의 노선을 향한 지역적 친소의 경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별나라】에서도 이들 충청도를 두고, "문화발전에 잇서서도 뒤써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남북도는 아즉 봉건 사상이 가장 강렬하야 량반이나 찻고 째나 한탄하는 모양 갓다"고 비꼰 것이다.[80]

셋째, 발간의 어려움이다. 그것은 두 가지에서 말미암는다. 먼저 검열이다. 별나라】는 출판 편집을 해서 다른 인쇄소로 넘기는 여느 잡지와 달리 "손수 '글'을 쓰고 또 모화오고 또 손수 인쇄를 하고 제본하고 또 발송을 하고 배달"까지 하는 일원 노선을 따랐다. 그리고 1주일 또는 2주일 이른바 총독부 경무국에서 검열을 받고, 인쇄에 넘겨 4-6일 동안 인쇄를 마치고 배포에 이른다.[81] 하지만 별나라】가 지닌 이념 성향 탓에 검열 강도는 어느 매체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에 따른 원고 압수, 출판 불허는 발간을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다 배포 금지까지 끼

---

77) 「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4쪽.

78) "기자 선생님 우리 별나라 애독자 총수는 얼맘닛가 그리고 10월부터 된다 된다 하든 독자 메-달을 언저나 됨니가. 회령 한태봉. 한 2만 명은 되지만 실상은 이보다 2만 갑절은 더 되는 쎄음이지요." 「별님에 모임」, 별나라】, 1928, 제3권 제5호, 95쪽.

79) 별나라】 독자 수 기록은 들쭉날쭉하다. 「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는 창간 여섯 해 뒤인 1931년에 "3만의 독자와 가치"와 "독자가 약 26700여 명이나 된다"고 나란히 적었다. 크게 잡아 3만에 이른다는 뜻이겠다. 1933년에는 "별나라 애독자"가 서울에만 1천, 지역에 1만이라 했다. 창간 초기 1만 독자를 가졌다 점점 늘어나 1931년에는 3만에 가깝게 늘었던 셈이다. 「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4 : 6쪽.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33, 8월 호, 39쪽. 독자 투고문 안쪽이지만 "별나라 10만 독자 여러분"이라 적은 곳도 눈에 뜨인다.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31, 12월 호, 33쪽.

80) '개인 독자 수' 함남 210, 전남 185, 함북 160, 경남 147, 평남 121, 평북 95, 황해 15, 충남 11, 충북 5. '지사에 나타난 독자 수' 함남 834, 전남 804, 함북 803, 경기 770(서울 500), 전북 464, 평북 406, 황해 360, 충북 0, 충남 60. '서점위탁판매소에 나타난 독자 수' 경기 1295(내 서울 1035), 함남 425, 평남 420, 함북 170, 경남 160, 황해 120, 강원 100. 이것을 도별로 계산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정도다. 경기 2133, 함남 1469, 함북 1133, 전남 1118, 전북 633, 평북 661, 평남 611, 황해 495, 경남 488, 경북 420,강원 292, 만주 292, 일본 210, 충남 71, 미국 25, 큐바 15, 중국 5, 기타 300 총계 10371인. 「별나라에 나타난 각 지방 소년 계발상황」, 별나라】, 1932, 신년 임시호, 41-42쪽.

81) 「별나라 출세기」, 별나라】, 1930, 6월 호, 25-26쪽.

어든다. 출판 불허로 적힌 경우만 하더라도 1928년에서 1934년까지 모두 19회나 보인다.[82] 검열로 말미암은 원고 삭제 기록은 별나라】 곳곳에서 흔하다.

> ①면치 못할 사정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원통하게 한다
> -「편즙을 마치고」 가운데서[83]

> ②원고의 대부분은 사정으로 못 실니고 급하게 다시 꾸미느라고 내용은 빈약으로 일변해 버렷다
> -「편집후기」 가운데서[84]

> ③이번 송년호는 발행되자마자 발매 금지가 되야 퍽 미안합니다 그럼으로 송년호를 주문하신 분에게는 부득이 1.2합호로 대송하게 되얏슴니다 많은 양해를 빔니다 그리고 이러케 발행하게 된 것을 관노하시기를 바람니다.
> -「사고」[85]

검열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드러낸 몇 보기다. ①에서 말하는 "면치 못할 사정"이란 '원통'스러운 검열이다. "원고의 대부분"을 검열로 빼앗기고 "다시 꾸미느라고"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을 ②는 알려 준다. ③에서는 '발매 금지'를 알려 준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관노(寬怒)'를 바라는 속살에는 제국주의 왜로를 향한 '노(怒)', 곧 적개심을 요구하는 별나라사의 뜻이 담겼다. 이러한 검열 탓으로 합호, 미간행, 부실 편집과 같은 것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86]

발간의 다른 어려움은 편집진 구속.투옥이다. 그것은 발간을 뿌리부터 가로막는 악재였다.

> ①별나라도 험한 올 녀름을 지나왓스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어려 만 명 독자를 위하야 글을 써 주시든 몇 분의 소식이 여지것 업서셔 말이다 그럿것만 별나라는 더욱 용력을 내여 나가고 잇다.
> -「편집후기」 가운데서[87]

> ②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안어도 여러분께서 미리 잘 아시고 게실 줄 밋습니다 만은 참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별나라 집안이 한참 동안이나 비엿섯습니다 그래서 별나라도 나오지 못하고 기념사업도 부득이하게 되엿습니다
> -「사고」 가운데서[88]

---

82) 1928년 朝鮮출판경찰월보】 제3호부터 1934년 제76호까지 가운데 '불허가 압수 및 삭제 출판물 기사 요지'에 따른다. 朝鮮출판경찰월보】 제3호, 별나라】, 제3권 제9호, 1928. 11. 29. : 제6호, 제4권 제3호, 1929. 2. 26 : 제11호, 제4권 제6호, 1929. 7. 2 : 제16호, 제5권 제2호, 1929. 12. 16 : 제20호, 제5권 제2호, 1930. 4. 7 : 제20호, 제5권 제4호, 1930. 4. 29 : 제21호, 제5권 제5호, 1930. 5. 17 : 제22호, 제5권 제6호, 1930. 6. 11 : 제28호, 제6권 제1호, 1930. 12. 20 : 제29호, 제6권 임시호, 1931. 1. 16 : 제31호, 제6권 제3호, 1931. 3. 28 : 제35호, 제6권 제6호, 1931. 7. 9 : 제40호, 제7권 제1호, 1931. 12. 23 : 제41호, 1월분, 1932 : 제45호, 5월분, 1932 : 제61호, 9월분, 1932 : 제66호, 2월분, 1933 : 제67호, 3월분, 1933 : 제76호, 12월분, 193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db.history.go.kr/id/had_074

83) 별나라】, 1931, 4월 호, 57쪽.

84) 별나라】, 1931, 10.11월 합호, 49쪽.

85) 별나라】, 1935, 1.2월 합호, 52쪽.

86) 1928년 1929년 "두 해 동안에는 다섯 번이나 잡지는 못 나오고 다섯 번이나 병신된 꼴로 나오고 몇 번이나 열녀든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30년 역시 두 호나 나오지를 못하엿다."「별나라는 이러케 컷다-별나라6년략사」, 앞에서 든 책, 4쪽

87) 별나라】, 1931, 10.11월 합호, 49쪽.

88) 별나라】, 1934, 9월 호, 앞표지 안쪽.

①은 글을 “써 주시든 몇 분의 소식이 여지것 업서셔” 걱정이라 썼다. 별나라사 사원 김주호.정청산과 같은 이들을 구속시킨 일을 뜻한다. 그들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②는 이른바 신건설사폭거로 카프계 인물들이 대거 검거된 뒤 별나라】사에 불어 닥친 재난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다. 별나라】가 마지막 나온 1935년을 한 해 앞둔 1934년 6월 돌을 맞이하여 “참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편집실이 “한참 동안이나” 비었다 했다. 신건설사폭거는 그 무렵 신문 지상에 경과가 알려지고 있었던 까닭에 읽는이를 향해 “일일히 말하지 안어도”라 썼다.

별나라】가 이렇듯 편집실.인쇄소 직원의 유고나 검거 사태를 굳이 별나라】 지면 안에 밝히는 것은 임시호나 미간행이 길어지곤 했던 데 따른 사과의 뜻이다. 그런데 더 밑바닥에는 범별나라】가 겪고 있었던 이념 투쟁, 매체 투쟁의 강도가 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직원의 유고 사실은 1931년에서 카프 해체에 이르기 직전인 1934년까지 더 잦았다. 그러나 1931년 이전에도 드러나지 않은 갖가지 방해와 억압이 별나라】를 뒤덮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편집진, 제작진의 구속과 탄압으로 별나라】의 재정 또한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별나라】 마지막 호를 내기 한 호 앞인 1934년 송년호에서는 별나라】 잔금 정산을 호소하는 다급한 글을 실어 그런 사정을 암시한다.

> ①전선에 널여 잇는 지사원 제씨에게 감사한 뜻을 표합니다. 압흐로도 끈임없는 노력을 비옵나이다.
> 그러고 별나라의 성장을 도읍는 의미로 지대만은 좀 청산해 주어야 되겟슴니다.
> -「지사원 제씨에게」[89]

> ②이번호로서 올해를 맛치니, 각 지사책임자는 별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대만은 년말 안으로 청산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원고도 만이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 -「사고」[90]

흩어져 있는 ‘지사’ 책임자에게 별나라】 값을 ‘정산’해 달라고 썼다. 같은 부탁을 다른 꼴로 같은 쪽에 두 차례나 얹었다. 그만큼 별나라사 운영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원고’를 많이 보내 달라 했다. 폐간 뜻은 없었다는 뜻이다. 가팔랐던 왜로의 억압과 감시는 마침내 1935년 1.2월 합호를 끝으로 별나라】 폐간을 불렀다. 5월 카프 해체와 별나라】 폐간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우리 계급주의 문학 노선에서 별나라】가 지닌 상징성이 그래서 뚜렷하다. 그 가장 밑자리에서 뒷받침하고 이끌었던 이가 안준식이다. 그런 그를 두고 동인 김도인은 “백절불굴하는 정신”[91]을 가진 이라 상찬했다.

안준식은 별나라】를 아홉 돌 버텨 낸 저력을 바탕으로 어른 문학지를 내고자 했다. 그것이 별문학창조】다.[92] 1934년 6월 10일자로 창간호를 냈다. 이른바 신건설사폭거로 계급주의 문인 지식인을 향한 구속, 회유, 탄압이 최강도로 치달았던 때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별문학창조】라는 계급주의 잡지를 새로 낸 것이다.

> 본사에서는 7 8년간 모든 고난을 박차고 나왓습니다 그 성과로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엿습니다

89) 별나라】, 1934, 송년호, 56쪽.
90) 별나라】, 1934, 송년호, 56쪽.
91) 별나라】, 1930, 6월 호, 23쪽.
92) 매호마다 별나라】 부록으로 ‘작은 별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데, 별나라】 초기에 뜻으로만 끝난 일이겠다. 「별님의 모임」, 별나라】, 1927, 8월 호, 55쪽.

-(줄임)-

문학창조는 재래의 여러 가지 잡지에서 보든 것과 갓흔 그런 일시적 존재가 안이라 영속적으로 별나라와 갓치 약진할 것임니다

-「사고」 가운데서[93]

별문학창조】 창간의 뜻은 두 가지다. 곧 별나라】를 빌려 자란 소년 문학인과 조직의 한결같은 이념 투쟁과 문학 활동을 거듭 뒷받침하겠다는 뜻이 하나다. 이미 별나라】 지분사를 바탕으로 나라 곳곳에 터 붙이고 있었던 '동무'들의 문학열을 받아들일 이음매가 시급했던 것이다. 별나라】를 빌려 굳힌 향유층을 힘으로 삼아 어른 문학에까지 관리 망에 넣고자 한 뜻이었다. 다음은 계급주의 문학 진영의 매체가 거듭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것을 되살리려는, 진영 안쪽이 지녔던 강한 매체 투쟁 의욕이다. 이 점은 별문학창조】 창간호 글쓴이나 2호 예고를 살피면 쉽게 짐작된다.[94] 이러한 별문학창조】는 자연스럽게 편집 겸 발행인으로 안준식이 이름을 올렸고, 발행소는 별나라사, 인쇄는 그가 꾸렸던 동아사였다.

별문학창조】 창간호는 창간사를 볼 수 없다. 검열로 말미암아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편집후기가 창간사를 대신해 무겁다. "작가다운 양심을 잃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고 또는 위대하게 노력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이의 글만 모아 놓고자" 한다고 썼다. 그리고 "조선문학의 성장을 비로소 별문학창조】에서 보여 보겠다는 자부와 자만을" 내비쳤다. 그 '성장'이란 다름 아니라 계급문학 진영의 통일된 전선 구축일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광고 난에서는 그 무렵 계급주의 문학 선집을 대표하는 이기영.권환.송영이 합저로 낸 별농민소설집】과 별프시인집】, 별프작가7인집】, 번역서 범어린 페-터】, 그리고 별소년소설육인집】을 올렸다. 별나라사의 것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반 계급주의 노선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집들이다. 이들은 별나라사나 그와 관련을 깊게 맺은 이들이 만든 출판사 이름을 달고 있다. 아울러 그들 모두 별나라사에서 팔던 책이다. 이미 글쓴이 선정이나 편집에서부터 계급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매체를 내겠다는 뜻이 뚜렷했던 셈이다. 그러니 별문학창조】는 2호로 이어지기 힘들었다.

별나라】는 그동안 8주년 기념호와 기념사업까지 만반으로 준비하여 노코도 모도가 수포로 고라가고 말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안어도 여러분께서 미리 잘 아시고 게실 줄 밋습니다 만은 참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별나라 집안이 한참동안이나 비엿섯습니다 그래서 별나라도 나오지 못하고 기념사업도 부득이하게 되엿습니다 또 문학창조도 썩 갓흔 사정으로 못 나왓섯고

-「사고」 가운데서[95]

별문학창조】가 이어지지 못한 사정은 별나라】가 맞닥뜨린 사정과 같다. 다름 아니라 신건설

93) 「별나라 문학창조 영업국」, 별나라】, 1934, 4월 호, 61쪽.

94) 이기영.송영.박팔양.박승극.박세영.권환.엄흥섭.적구로 이어지는 이름은 그 무렵 계급주의 문학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거의 모두 카프 쪽 사람이었다. 그들은 다시 별나라】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이라는 중층적 연결망을 지닌다. 소설의 박화성과 시에 김조규가 이색적일 따름이다. 소설에는 이기영.엄흥섭.이동규.박화성이 작품을 올렸고, 송순일.김남천.한설야의 것은 검열로 말미암아 "그대로 파무든" 작품이 되었다. 거기에 송영의 회고록과 임화.박승극.윤곤강의 비평이 더했다. 시에는 임화.유완희.김해강.박아지.박세영.김조규.권환이 이름을 올렸다. 김윤석과 김팔봉이 낱낱으로 섹스피어 인물론과 입센론을 선뵈 이채를 띤다. 그리고 '문학과 현실'이라는 기획 난을 마련해 이기영.송영.엄흥섭이 짧은 평문을 실었다.

95) 별나라】, 1934, 9월 호, 앞표지 안쪽.

사폭거로 계급주의 진영의 대표 문인들이 거의 모두 이른바 '전북경찰부'에 구속된 탓이다.[96] 엄혹한 탄압이라는 출판 환경이나 필진 구속에 이르기까지 별나라】와 문학창조】는 같은 시련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문학창조】는 비록 1호로 그쳤지만, 우리 사회주의 현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마지막 불꽃을 올린 매체 가운데 하나다.

넷째, 별나라사의 인쇄출판 사업이다. 별나라사 출판부가 별나라】를 내는 일뿐 아니라 그 일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별나라】가 나왔던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시기에 이른 출판 세목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97] 그것을 보이는 유일 기록이 1933년에 내놓은 「본사에서 발매하는 명저」다. 모두 11권[98]이 보인다. 그 가운데 '별나라사 발행'이라 적은 것은 농민소설집】과 왜?】 둘에 그친다. 어린 페-터】 경우 발행소는 '유성사서점'이나 '동아사'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에도 '별나라사 인쇄부'가 찍은 것이 있을 것이다. 별나라】 폐간 뒤에는 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 하나가 보일 따름이다. 별나라사의 인쇄출판 사업은 별나라】 발행이 중심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책이 아닌 다른 학교 교구나 사무용품에도 발을 들이고 있었다. 주문 방식이었는데[99], 별나라】 초기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러다 1930년 따로 '동아보육사(東亞普育社'를 만들어 맡겼다. "교육용품 일절, 인쇄지류 각종, 도서출판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100] 별나라사의 인쇄.출판.영업 역량을 도높이고자 한 뜻이다. 1933년까지 그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판부를 확대, 학교 비품과 문구류 인쇄 판매[101] 사업은 꾸준했다. 이와 함께 별나라사는 안에 '별나라 대리부'를 두어[102] 별나라사에서 찍거나 펴내지 않은 책도 '선금' '주문' 방식으로 파는 서점 기능을 맡겼다. 지역 독자를 위한 배려였다.

다섯째, 별나라사의 부대사업이다. 별나라사는 별나라】 출판 말고도 해마다 오는 돌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벌이거나, 절기에 걸맞은 행사를 만들었다. 그를 빌려 잡지 출판에서 더 나아가 소년 활동을 부추기고 이끌었다. 그 가운데 돌맞이 '기념 행사'는 6월을 맞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1927년 첫 돌에는 '전조선소년소녀작품전람회'를 열고자 했다.[103] 창립 네 돌인 1930년에는 "별나라창립4주년 기념사업 '전선소년소녀웅변대회"를 열 예정이었다.[104] 그러나 뜻 같지 않자 범위를 좁혔다. 별나라 수원지사가 중심이 되어 '기남소년소녀현상웅변대회'로 치르려 했다. 그마저도 "돌연 부득이한 사정", 곧 왜로가 집회를 막은 탓에 계획으로 그쳐야 했다.[105]

---

96) 그러한 비록 나오지는 못했지만 2호 예고 광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 무렵 계급주의 계열의 인사들로 다채롭게 글쓴이를 넓혀 나가고자 한 것이다. 백철.유진오.김태준.박팔양.홍효민이 그들이다.

97) 거기다 별나라사 출판부에서 출판한 것과 별나라사 인쇄부에서 찍기만 한 것이 뚜렷이 나뉘지도 않는다. 펴낸이를 별나라사나 별나라출판부라 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는 별나라사 인쇄부, 곧 동아사가 찍은 문헌도 여럿 있을 것이다.

98) 이기영, 민촌】. 박영희, 소설평론집】. 프작가7인집】(집단사). 프시인집】(집단사). 청곡 옮김, 어린 페-터】. 농민소설집】(별나라사). 별별】(신소년사). 소년소설육인집】(신소년사). 소년소설집】(조선소년사). 왜?】(별나라사 : 발매중지), 이효석, 노령근해】. 별나라】, 1933, 2월 호, 목차 뒷장.

99) 별나라】, 1927, 4월 호, 1쪽.

100) "'전선학교를 망라한 일대 규모' 영업 과목은 도서인쇄 교육도서 출판, 학교용지 각종, 서적 급 잡지류, 화양지 문방구 원고지 경전지 학용품 구비." 별나라】, 1930, 10월 호, 뒷표지 뒷장.

101) "각 학교의 이익을 돕기 위해 소용되는 서류를 인쇄 판매. 통신록, 학적병성적고사용지, 수업료 봉투, 출석부 용지, 성적일람표, 수업료 미수원부, 학교 일지." 「별나라사 출판부 확대」, 별나라】, 1933, 2월 호, 목차 뒷장.

102) 별나라】, 1931, 제6권 제3호, 뒤표지.

103) 도서, 습자, 수공품에다 동화, 동요들을 받았다. 「별나라 1주년 기념사업」, 별나라】, 1927, 4월 호, 1927, 목차 뒤쪽 광고.

104) 별나라】, 1930, 6월 호, 82-83쪽.

그런 가운데서 1932년 돌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4월 호에 「무산아동연합대학예회 규정」을 먼저 발표했다.[106] 그리하여 "전선야학강습소 사립학교 연합대학예회"로 행사를 마친 뒤 별나라】 지상을 빌려 고마움을 드러냈다.[107] 이 행사에 "수백 여 군데의 무산 아동 야학의 학생들 작품 즉 그림, 글씨, 수공품 및 문예 작품들인 벽소설, 동요, 동시, 레뽀르따쥬 등 수천 여 점"을 '전시'했다. 계급주의 진영으로서는 "온갖 합법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군중적인 계급 문화"[108] 활동을 벌인 성공한 본보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제국주의 왜로 쪽에서 볼 때는 거꾸로 '반일' '용공' 세력을 파악하는 주요 실마리기도 했다. 일곱 돌 때인 1933년에는 행사를 크게 줄여 서울 학원을 중심으로 '별나라 7주년 「동요.음악.동극의 밤'을 배재고보 강당에서 열었다.[109] 1934년 8주년 기념식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이밖에도 별나라사는 다른 부대사업도 벌였다. '경성소년 권구(拳球)대회'를 후원한 것도 한 가지다.[110] 거기다 '독자 위안의 밤'[111]을 열기도 했다. 지역 지사에서는 독자를 늘이기 위해 '독자회(농촌소년문고운동)' 작품 현상 응모, 웅변대회, 동화동요대회와 같은 것을 마련했다. 별나라사에서 이끈 이러한 소년 모임과 학예 활동은 고스란히 나라 안 지분사 소년 활동의 본보기였다. 나아가 별나라사가 지향했던 무산 노농 소년을 위한 이념 결집과 단결, 그리고 투쟁 의욕을 드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각 지방의 별나라】 및 범신소년】의 지사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맑스주의 아동문학 크류쇼크들의 역할"을 논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노동자 농민의 반왜 투쟁에도 참가하였다. 곧 동맹 파업이 일어나면 "삐라도 뿌리고 기금도 모집하였고 조합원들의 비밀 회합이 있으면 '피케'도 썼었고 '레포'도"[112] 했다. 카프 해체가 별나라】 폐간과 맞물려 드는 모습은 당연한 셈이다. 그리하여 1935년 1.2월 합호를 마지막으로 카프의 어린이 문학 기관지였던 별나라】는 폐간을 맞고 그 석 달 뒤 카프도 '해산' 수속을 마쳤다.

안준식은 별나라】가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을유광복까지 인쇄소 동아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범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를 젖혀 둔 다른 특별한 인쇄물은 보이지 않는다. 출판사 이름을 내걸고 낱책을 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국시대 말기에는 모든 인쇄용 종이를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관리 아래 배정을 받는 꼴이었다. 별나라】를 냈던 이른바 '요주의 인물'이었을 그가 마땅한 출판을 바라기는 어려운 정황이었다. 그럼에도 소규모 인쇄업은 이어 나갔던 까닭에 광복을 맞자마자 이내 별나라】 속간호와 속간 2호 두 권에다 1930년대에 냈던 주요 계급주의 출판물을 다시 찍어 낼 수 있었다. 안준식의 생계를 책임졌던 인쇄출판인으로서

---

105) "기남(幾南)소년소녀현상웅변대회를 본 지사 주최로 개최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엿스나 돌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하게 되고 말엇삽긔 만은 동무들께 넓히 사고합니다 별나라 수원지사 백" 「사고」, 별나라】, 1931, 7.8월 합호, 45쪽.

106) "주간 요, 율동, 극, 발표회-야간 아동작품 전람, 자유화, 습자, 작품, 동요" 발표. 별나라】, 1932, 4월 호, 앞표지 안쪽.

107) 「사고」, 별나라】, 1932, 7월 호, 뒤표지 안쪽.

108) 북한에서 냈던 해방 전 조선의 아동문학】에서는 1932년 7주년 행사를 1933년 행사로 잘못 적었다. 그리고 별나라사 주최 '무산 아동 작품 전람회'는 "반인민적 반혁명적 '대중 계몽 운동'에 대항하여 그를 섬멸하며 동시에 진정한 계급적 대중 교양", "혁명 사상의 배양을" 위한 투쟁 활동으로 보았다. 일 주일 동안 이어진 이 행사에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 무산 아동 학원 50여 곳이 참가하여 사흘 동안 음악, 무용, 아동극 들을 공연했다고 썼다. 해방 전 조선의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23쪽.

109) 「별나라 7주년 기념 「동요.음악.동극의 밤」은 이러케 열엿다」, 별나라】, 1933, 9월 호, 40-43쪽.

110) "잘 사는 집의 도련님"이 이쁜 야구복에다 값비싼 '야구화나 방망이로 야구를 하는 것과 달리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들"은 그런 것을 갖추어 할 수 없다. "맨주먹으로 방맹(쌧)을 대신해" 8월 14일부터 100여 명의 소년 선수들이 배재고보 구장에 모여 제1회 권구대회를 열었다. 「제1회 전경기권구대회」, 별나라】, 1930, 10월 호, 14쪽.

111) 별나라】, 1931, 제6권 제3호, 19쪽.

112) 해방 전 조선의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19-20쪽.

삶은 꾸준하고 한결같았던 셈이다.

3) 층위 둘

외국 유학을 거쳐 언론계나 상급학교에 몸 담은 근대 초기 지식층 문학인과다르다. 나라 안에서 교육 제도 안팎을 드나들며 문학사회에 나선 '무산 청년' 출신의 자생 문학인이다. 그들은 앞 세대와 달리 이념 학습으로나 실천 활동 쪽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문학사회 여러 곳에서 티내기가 활발했다. 안준식은 그들 가운데서도 앞자리에 든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문학가로서 또한 독특하다. 그것은 타고난 목소리나 재능에 힘입었을 동화구연가와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됨됨이를 아울러 지닌 데서 비롯한다. 이 둘이 얽혀 만드는 역동적인 모습이 안준식 어린이문학의 특성을 이룬다.

첫째,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은 1926년 【별나라】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이름을 냈다. 이른바 '경성도서관'에 마련된 '경성소년구락부'의 '현대소년동화대회'에 그와 염근수가 참가한 것이다.[113] 눈 여겨 볼 사실은 그 행사가 56회였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횟수를 거듭한 일이다. 따라서 안준식의 동화구연가로서 모습은 그 앞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1925년 '보광학교'에서 무보수 교원을 맡으려 했을 무렵에 이미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을 것이다. 안준식이 소년 활동가로서 나섰던 무렵이다. 그러다 【별나라】 발행과 함께 그 유통과 맞물려 안준식의 구연동화 활동의 범위와 빈도도 늘었을 것이다.[114]

1928년 군산으로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안준식은 이미 '실연으로' "정평이 잇는 동화계의 명성(明星)"[115], 곧 샛별이었다. 그런데 동화구연가로서 그의 됨됨이는 다시 둘로 나뉜다. 곧 동요동화회 현장에서 하는 구연과 방송 매체를 빈 구술이 그것이다.

① 정기동화대회 개최, 연건동 명진소년회관 연사 안준식 장무쇠[116]

② 「임간(林間)동화대회 취운뎡에서」[117]

③ 「군산에서 정기동화대회」[118]

④ 「별탑회 주최 특별동화동요회 입장하는 이에게 추첨권 주어 각등(各等)에 상품을 진정(進呈)」[119],

⑤ 「양감동화회 성황」,[120]

⑥ 「수원동화대회 성료」[121]

⑦ 「급고」 「급고」[122]

---

113) 「현대소년동화대회」, 【동아일보】, 1926. 11. 13.

114) 조은숙은 실국시대 동화구연이 핵심이었던 동화회의 개최 양과 그 변화를 따지면서 면서 단계를 네 매듭으로 나누었다. 1910년 무렵부터 1924년까지 왜국 어린이문학가의 피식민지 순방 동화회에 자극받아 정기적인 동화회를 마련하기도 한 제1기,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전국 순회 대규모 동화회가 가장 활발하게 열렸던 제2기,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양적으로 줄었으며 현상동화대회가 큰 흐름이었던 제3기, 그리고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왜로에 영합한 '군국주의' 동화회가 열리기도 했던 제4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안준식은 제2기를 대표하는 동화구연가로 시작한 셈이다. 조은숙, 「식민지 시기 '동화구연회'의 공간」,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273쪽.

115) 「별탑회원 출발」, 【매일신보】, 1928. 8. 13.

116) 【동아일보】, 1928. 4. 8.

117) 【중외일보】, 1928. 7. 27.

118) 【중외일보】, 1928. 8. 15.

119) 『매일신보】, 1929. 2. 7.

120) 【동아일보】, 1929. 2. 21.

121) 【동아일보】, 1932. 8. 25.

⑧「별나라지사 동화회」[123]

일간 신문이나 ▶별나라◀에서 보이는 구연 행사를 모은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안준식이 구연했을 행사는 이보다 훨씬 많았겠다. 연승흠.장무쇠와 함께 1924년에 만들었던 명진소년회가 연 매주 토요일 동화회에서 그가 구연을 한 기록이 ①이다. ②는 가회동 '임간수양동화대회'에서 구연한 기록이다. 이정호.홍은성과 함께 안준식을 "동화계의 명성"이라 일컬었다. ③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정기동화대회'에서 그가 연사로 자리한 기사다. ④는 그가 참여했던 '아동문제연구단체' 별탑회에서 정초 "특별동화 순회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동화동요대회'에 방정환.연성흠.이정호와 함께 안준식이 연사로 나섰음을 알려 준다. 그들은 이어 여러 곳으로 순회를 나갈 예정이었다. 거기서도 그는 빠지지 않았다.

⑤는 수원 양감 별나라지사에서 동화와 동요대회를 연 기록이다. 안준식은 동화, 송영과 박세영은 동요 쪽에서 초청되었다. 성황을 이루었는데, 구직회가 일하고 있었던 양감 동소리 밤배움 대화의숙(大化義塾) 학생도 함께했을 행사다. ⑥ 또한 '수원동화대회 성료'를 알렸다. 삼일학교 신축 강당에서 이루어졌고 안준식은 「바보 길동」을 구연했다. 양감 출신 박승극이 수원청년동맹 위원장을 맡고 있을 무렵이다. ⑦ 또한 수원과 인천에서 이루어질 동화회 행사에 안준식이 연사로 참석할 것임을 알려 준다. 마지막 ⑧은 정청산이 활동하고 있었던 별나라용산지사에서 이루어진 동화회 기록이다. 안준식이 한결같이 연사 자리를 지켰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안준식은 서울 뿐 아니라, 별나라지사가 있거나 소년 동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기도 지역까지 동화구연가로서 나섰다. 흥미로운 사실은 활동 범위가 그 앞 세대,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 회원들과 같이 전국을 도는 걸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영자금뿐 아니라 집회 감시.검열이 안준식이 들어 있었던 조직, 문학인 쪽에 우심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큰 행사 마련이 어려웠고, ▶별나라◀나 ▶신소년◀ 지분사의 도움을 확연히 받을 장소를 중심 행사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역외에서는 ▶별나라◀와 지연이 가장 굳건한 수원이나 인천 쪽이 거듭 중요 행사지가 된 까닭이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두 번째 모습은 방송 구술이다.

①「라디오 방송」, 동화 「만두 장수」[124]
② 「JODK」, 동화 「어린 궁수」[125]
③「라디오 방송」, 「어린 활량」[126]
④「JODK」, 동화 「없는 ×전」[127]
⑤「라듸오 순서」, 동화 「불상한 복순」[128],
⑥「JODK」, 동화 「어리석은 길동」'[129]
⑦「JODK」[130]

①에서 ⑦은 「JODK」, 이른바 '경성방송국'에서 안준식의 동화 구술이 전파를 탈 것임을 알

122) ▶별나라◀, 1933, 9월 호, 56쪽.
123) 「21일 밤 별나라룡산지사 주최 동화대회를 여는데 연사는 안준식」, 『중외일보◀, 1930. 8. 20.
124) ▶동아일보◀, 1927. 11. 9
125) ▶조선신문◀, 1929. 5. 10.
126) ▶동아일보◀, 1929. 5. 10.
127) ▶조선신문◀, 1929. 11. 16.
128) ▶중외일보◀, 1930. 1. 18.
129) ▶조선신문◀, 1931. 6. 26.
130) ▶조선신문◀, 1932. 5. 10.

려 준다. ‘경성방송국‘이 만들어진 때가 1927년 2월이다. ①은 그 해 11월에 안준식이 동화 「만두 장수」를 구술했음을 일깨운다. 방송 초기부터 그가 동화구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 ②에서는 1929년 동화 「어린 궁수」에 이어 「어린 활량」 구술이 보인다. ⑤에서는 1930년 정초 동화 「불상한 복순」을 방송했고, 그것은 ⑦로 이어진다. 예보되지 않은 것까지 넣는다면 1927년 방송 초기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동화구술가로서 한글 방송 활동을 거듭한 셈이다. 그런데 그가 마련했던 방송 구술 동화는 창작일 수도 있고, 이미 알려진 것일 수도 있다.[131] 눈길을 주어야 할 것은 그 자신의 창작 동화일 경우다. 이 자리에 찾아 올린 작품들은 제목으로 보아 고스란히 안준식 창작 동화의 세목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됨됨이는 을유광복 뒤에도 이어진다. 곧 1945년 12월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있을 별나라사 주최 ‘해방기념동요동화회’에서 그가 동화 구연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그 점을 암시한다.[132] 이런 기록은 방송 쪽까지 포함해 꾸준히 동화구연가로서 몫에 그가 충실했음을 일깨워 준다.

둘째,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됨됨이다.[133] 오늘날 확인 가능한 그의 문필은 모두 61편이다. 스무 살 때인 1921년 ▯조선일보】 투고시 초연(初戀)」을 처음으로 1946년 2월, ▯별나라】 속간 2호에 실은 ‘별나라 독본’ 「새해」가 마지막이다. 햇수로는 스물여섯 해에 걸쳐 작품을 내놓았으니, 그 기간 활동한 문학인 치고는 작품 양이 많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점은 자신이 냈던 ▯별나라】에 거의 모든 작품이 실렸고, 그것은 적지 않게 검열, 압수, 배포 금지에다 폐간으로 말미암아 활동의 절대량이 줄어든 일과 맞물린다. 따라서 광복기 ▯별나라】 속간조차 더 잇지 못했던 시기, 곧 1946년 속간 2호의 줄글 「새해」 뒤부터 1951년 숨지기 앞까지 여섯 해 동안 작품이 비는 것은 아쉽지만 이해가 가능하다. 앞으로 ▯별나라】의 발굴에 따라 더 많은 작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준식은 문학 초기를 시와 수필, 그리고 번역으로 시작했다. 1921년 시 「초연」뿐 아니라, 편지글 「도회에 계신 S씨에게. 관악 하에서」[134], 모리스 루블란의 ‘괴기탐정소설’을 옮긴, 「513」[135]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별나라】 창간과 아울러 낱낱으로 나오는 호 책머리에 ‘권두’를 실으면서 비슷한 ‘강좌’나 ‘훈화’ ‘소년 독본’과 같은 줄글을 더했다. 거기다 동화, 소년소설 발표도 꾸준하게 이었다. 동요 또한 많지 않으나 빠뜨리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재담 꼴의 우스운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면모로 보면 자연스러운 갈래 이동이다. 동화 구연 사이사이 이러한 재담을 섞었을 수도 있다. 작품 수에 견주어 안준식의 갈래 선택은 다양하다. ‘권두’가 18편, ‘훈화’ ‘수필’과 같은 줄글이 모두 13편, 이야기문학 가운데서 동화 14편, 소년소설 7편, 가락글 가운데 시 1편, 동요 5편, 그리고 번역 2편에 재담 1편이다. 우리와 달리 북한 문학에서는 그의 작품을 중요 선집에 넣어 그를 잊지 않았다. 곧 카프 시기 어린이문학을 총집성한 선집 ▯별나라】(1956)에서부터 시작해, ▯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2005)에 이르기까지 드문드문 보이는 모습이 그것이다.[136]

---

131) 전래 이야기, 번안이나 개작을 거친 동화가 여기에 든다.

132) 「23일 오후 1시 배재강당서, 본사 후원」, ▯중앙신문】, 중앙신문사, 1945. 12. 21.

133) 안준식의 어린이문학 창작은 스스로 구연을 위해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창작한 자기 작품을 구연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들까지 안준식 문학의 총량에 넣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예보되었던 구연동화 작품 6편도 이 자리에 포함시킨다. 「어리석은 길동」의 경우는 그 뒤 ▯별나라】에 연재 동화 「바보 길동」으로 확대된 것을 여겨진다. 「만두 장수」(「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7. 11. 9. 「어린 궁수」(「JODK」), ▯조선신문】, 1929. 5. 10. 「어린 활량」(「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9. 5. 10. 「없는 ×전」(「JODK), ▯조선신문】, 1929. 11. 16. 「불상한 복순」(「라듸오 순서」), ▯중외일보】, 1930. 1. 18. 「어리석은 길동」(「JODK」), ▯조선신문】, 1931. 6. 26.

134) ▯범 】, 1921. 8. 20.

135) ▯조선일보】, 1921. 9. 15-9. 30.

136) 북한에서 마련한 근대 어린이문학 선집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87-196쪽)에 동화 「이사 가는 다람쥐」와 소년소설 「아버지와 딸」이 실렸다. 그리고 류희정이 엮은 ▯920년

점은 두 가지다. 안준식이 별나라】 말고는 신소년】과 같은 유사 매체에 작품을 거의 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137] 그의 어린이문학이 지닌 한 특징일 수 있는 점이다. 별나라】나 별나라】가 지향했던 문학 경향에 관한 일치도와 함께 자신이 책임자며 편집인이었던 별나라】에 대한 매체 충성도가 매우 높다. 위에 올린 거의 모든 작품은 안준식이 이끌었던 별나라】에 실려 있다. 모두 61편 가운데서 별나라】 바깥 매체에 발표한 것은 11편에 그친다. 절대 다수인 82%가 별나라】 발표다. 이런 점을 소극적으로 보자면 지면을 안정적이고 항상적으로 얻기 위한 방략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작품 검열, 압수로 말미암아 청탁하거나 확보된 원고가 실리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일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매체 경영 편집 말고는 눈을 돌릴 수 있을 여유가 없었던 것도 한 까닭이겠다.

또한 안준식은 개별 작품집을 내지 않았다. 출판업을 하는 이로서는 이례적이다. 이 점은 소년 활동가와 인쇄출판인 활동을 아울러 해야 했던 까닭에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동화 구연으로 작품집을 굳이 내놓아야 할 조급성이 덜했을 수 있다. 창작 작품 양이 본격 작품집으로 묶어야 할 만큼 많지 않았다는 생각도 한 몫을 했음 직하다. 그런데 을유광복 이후 안준식은 새로운 문학 환경 아래서 자신의 동화집 발간을 꾀했다. 소년소설집 「달도 운다」가 그것이다. 이것은 별나라】를 속간하면서 "해방 후 본사 획기적 출판물 예고"로 내놓은 광고 속에 드러난다.[138] 그 속에는 「달도 운다」.「광주 나물 장수」.「바보 길동」 "외 수 편"을 싣는다 적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안준식 어린이문학의 됨됨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준식 문학은 거의 모두 별나라】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그밖에 신문에 올린 작품이 몇 편 끼일 따름이다. 오늘날 확인된 그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곧 '권두', 수필을 아우른 줄글, 동화와 소년소설에 걸친 이야기, 시와 동요를 묶은 가락글에다 번역, 재담을 더한 기타 작품이 그것이다. 이제 그들 대강을 훑어보고자 한다.

1) 줄글과 훈육

안준식이 쓴 줄글 가운데 특징 있는 것은 별나라】를 낼 때마다 앞자리에 올린 '권두'다. 드물게 송영.박세영이 거들고 '편집인'[139] 이름으로 오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안준식은 거의

대 아동문학집(1)】(현대조선문학선집 1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에 「배곱흔 애기」를, 별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문학예술출판사, 2005,)이 소년소설 「아버지와 딸」을 올렸다. 그럼에도 안준식은 1960년대 뒤부터 나온 책에서는 이름이나 작품을 보기 힘들다. 잊힌 셈이다.

137) 61편 가운데서 별매일신보】에 1편, 별중외일보】와 별조선중앙일보】에 5편, 별조선일보】에 5편, 모두 11편이다.

138) 새로운 광복 환경 아래서 별나라사는 이미 내놓았던 작품집 가운데서 되찍을 만하다고 여긴 것뿐 아니라 새 출판물도 기획했다. 되찍은 것으로는 박세영 시집 별산제비】가 대표적이다. 1938년 '동아사' 이름으로 냈던 별산제비】는 '별나라사출판부' 이름으로 다시 냈다. 그와 달리 송영.박세영의 별아동극집】, 안준식의 별달도 운다】는 광복을 맞아 신간으로 기획한 책이다. 그런데 해방 속간호에 이어 두 달 뒤에 속간 제2호(1946. 2. 10)의 광고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별농민소설집】 대신 번역서 별어째서 가난한가】가 올랐다. 거기다 출판사 주소지는 서대문구 일정목 166으로 실국시대와 같은데 이름을 자유출판사로 바뀌었다. 이른바 미군정 아래서 별나라사를 자유출판사로 재등록한 결과라 여겨진다. 별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뒷표지 바깥.

139) '권두' 가운데서 '편집인' 이름으로 오른 것은 안준식의 것이라 볼 터무니가 약하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운파나 안준식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권두'만 그의 것으로 확정한다.

오로지하게 '권두'를 썼다. 별나라】 펴낸이로서 자기 책무를 낱낱 호마다 밝히고 다지는 무거운 자리였다. 오늘날 안준식의 '권두'는 18편이 보인다.[140] 이들은 속살에서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첫째 별나라】 발간에 따른 감회를 담은 글, 소년을 위한 일반 권계를 담은 글, 그리고 소년 활동의 자세나 투쟁 방향을 일깨우고자 하는 뜻을 담은 글이 그것이다.

> ①별나라가 한 돌을 마지하기까지에는 독자 여러분이 몰으시는 슯음과 원통한 일이고 분함이 그 얼마나 만엇섯는지 몰음니다 더욱이 독자 여러분씌 미안함은 우리는 죽을힘을 다하여 별나라를 맨드러 내여 노아도 내용이 빈약하여서
>
> -「첫 돌을 마지하면서」 가운데서[141]

> ②지난 일곱 해 동안 별나라는 서리를 맛고 절벽에서 써러지고 돌쑤리에 부닥치여 쓸어도 질 번 잡바도 질 번 하얏지만 -(줄임)-
>
> 별나라는 새해와 더부러 결심하는 것이다 엇더한 잡해가 잇고 엇더한 고비가 잇드래도 제처노코 나갈 것을- 그래서 왼 조선의 동무가 모다 별나라의 동무가 되야 참으로 깨다른 소년이 되고 갑 잇는 소년이 되게 할 큰 임무를 가진 것을 깁히 깨닷는 바이다
>
> -「새해와 별나라의 임무」 가운데서[142]

> ③9년을 맛든 별나라는 보다 큰 임무를 하려 하엿든 것인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로 발행 이후에 올해처럼 괴러움을 맛본 적은 업다.
>
> 그것은 사월 이후부터는 여러 달 게속 하야 못 나왓고 짜라서 별나라의 동네가 아조 쓸쓸해 진 째문에 더 말할 수 업는 형편에 빠젓다.
>
> -(줄임)-
>
> 보라! 말성 만코 원망스러움 만튼 이 해는 폭풍이 몰녀가는 먼지와 가티 날나가버린다 뭇 사나운 개, 쑤르독그와 세밧트, 삽사리와 누렁이들은 물녀가는 것이다
>
> 그리하여 악마와 가튼 이 개떼는 아조 쓸 듯이 업서젓다. 얼마나 우리들은 이 개들과 싸오고 익이기에 괴로왓든 것이냐?
>
> -「이 해를 보내면서」 가운데서[143]

①은 별나라】 한 돌을 맞는 '권두'다. 제국주의 왜로의 눈길과 발길 아래서 한 해 동안 독자가 모르는 '원통'한 일, 분함이 얼마인지 모른다 했다. "죽을힘을" 다해도 별나라】가 마음에 차지 않아 괴롭다는 뜻을 담았다. ②는 일곱 돌 기념 '권두'다. 그 동안 별나라】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자빠질 뻔 했지만 거듭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다졌다. 어떠한 '잡해'와 '고비'도 이기고 무산 소년을 이끌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이다. ③은 각별히 말썽 많고 '원망'스러움 많았던 1934년을 보내며 한 해 별나라】가 겪은 고통을 비유적으로 알렸다. 식민자 왜로를 '악마'와 같은 사나운 '개떼'라 비겨 옹골찬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서 더부사는 적들을 '쑤르독그'.'세밧트'.'삽사리'.'누렁이'와 같은 개 종류로 표현했다. 이 개떼들이 먼지가 사라지듯 없어졌으면 하는 결기를 숨기지 않고 싸우며 보냈던 한 해였다. 위와 같이 '권두'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산 소년 소녀들을 위한 '과학' 매체로서 별나라】의 본분과 의지를 다하리라는 다짐을 거듭 밝혔다. 발행인 안준식이 겪은 고충이 고스란하다. 이와 달리 보다 일반적인 자리에서 소년 소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권두'도 한 가지를 이룬다.

---

140) 앞으로 해당 유형의 작품 세목은 글 끝에 붙인 「운파 안준식 작품 죽보기」를 참조 바란다.
141) 별나라】, 1927, 6월 호, 3쪽.
142) 「새해와 별나라의 임무」, 별나라】, 1932, 1월 호, 9쪽.
143) 별나라】, 1934, 12월 호, 1쪽.

①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쎄서들은 집안이 구차하고 가난에 싸저서 먹고 살긔의 두 눈이 뒤집히여 불쎙이와 갓치 이글이글 나려 쏘이는 폭양에서 주먹쎙이 갓흔 비지땀을 쑥쑥 흘니시면서 죽도록 일을 하시고 게시지 안습니가?" -(줄임)- 잠시라도 쉬지 말고 땀흘니시고 일하시는 부모를 위하야 세상을 위하야 우리의 장래를 위하야 녀름의 만물이 자라는 것과 갓치 자라며 더위를 먹어 죽기까지라도 일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게는 녀름도 업다】 가운데서[144]

②아-모 것도 안코 눌린 그대로 압푼 그대로 슯흔 그대로 입을 딱 버리고 먼 산만 멀둥멀둥 바라보고 잇느니 엇더케 하잔 말임닛가 -(줄임)- 그러나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노는 것 싸홈하는 것이 단지 나라고 하는 나만을 위하야 하는 것이면 아니 됨니다. 일반 대중을 위하야 즉 여러 사람을 위하야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싸홈하지 않으면 안 됨니다.

-「우리도 일합시다」 가운데서[145]

③"아- 동무들아! 원통하다고 슯허 마시오 압흐며 배곱흐다고 우지 마시오 당신들의 모-든 궐리를 차즐 어린이날이 도라왓슴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마지하러 공부하는 동무도 농사 진는 동무도 놀고 잇는 동무도 울고 잇는 동무도 다-가치 하나로 싸지지말고 손의 손목을 마조 잡고 억개를 서로 겯워가며 룡감하고 활발스럽게 압흐로 압흐로 행진하여 나아가 어린이날을 깁부게 마지며

-「우리도 나아갑시다」 가운데서[146]

①은 여름을 맞은 무산 소년에게 주는 일깨움이다. 돈 많은 사람은 더위를 피해 야단법석을 떨지만, 그들의 가난한 어버이는 '폭양' 아래 비지땀을 흘리며 죽도록 일한다. 그러므로 무산 소년은 "부모를 위하야 세상을 위하야" 자신의 "장래를 위하야" 더위를 먹어 죽기까지 할 듯이 "일하고 공부"하자고 말한다.[147] 무산/유산의 계급 차별을 뚜렷이 한 권계다. ②도 ①에서 멀지 않다. 도회건 농촌이건 무산 소년들은 "눌린 그대로 압푼 그대로 슯흔 그대로" "먼 산만"[148] 보듯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하야"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싸워야 하리라 일깨운다. 이때 "일반 대중"이란 무산 노농 계층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계는 ③에도 이어진다. 원통과 슬픔, 아픔과 배고품에 젖어 있지 말라 외쳤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 같이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감하게 걷자고 했다. 기죽지 말고 무산 소년의 연대감을 더욱 굳게 하라는 권계다.

①취한 어른들에 귀염밧는 나라가 아니며 압흐로 나아가겟다는 모든 어른 아희의 나라임니다 -(줄임)-

'무지개 나라'와 '독개비 텬디' 여지업시 반대하고 자연스런 과학의 나라를 것자 넘어저서 울기만 하든 약한 것을 버리고 정숙하게 머리를 가다듬어서 일어나며 나아가며

-「별나라 선언」 가운데서[149]

②여섯 해 전 "처음 나도든 날" 그때는 덮어놓고

144) 별나라】, 1927, 8월 호, 1쪽.
145) 별나라】, 1928, 3월 호, 1쪽.
146) 별나라】, 1929, 5월 호, 1쪽.
147) 별나라】, 1927, 8월 호, 1쪽.
148) 「녀름」, 별나라】, 1933, 8월 호, 3쪽.
149) 별나라】, 1928, 제3권 제5호, 1쪽.

'가난한 동무'의 동무가 되겠다고 소리를 첬다. 세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엇덧튼지 가난한 동무" 면은 누구든지 다 '동무'가 되겟다고 하든 것을 버리엿다.

-(줄임)- 공장의 동무! 농촌의 동무만이 우리의 동무인 것을 알엇다 또 그 이듬해 나이가 다섯 살이 먹든 생일에는

또 나는 동무를 더 똑똑히 하고 십헛다

-(줄임)-

가장 용감한 조합소년부의 동무만이 더 우리의 동지이라는 것을 알엇다 나는 이렷케 변하여 왓다

-「단 한 곳, 단 한 가지」 가운데서[150]

③그러나 이 해도 점으로 가고 새해가 오려 한다 이제 우리는 더욱 내용을 시대에 적합토록 꾸미려는 것이다 따라서 재래의 소년회 소년동맹 소년군 가튼 것을 해소해 버리고 참된 우리의 긔관 조합의 소년부의 강화를 꽤하는 새해의 큰 임무를 다하야 어려분과 갓치 이제 약속하는 것이다.

-「1931년을 보내며」 가운데서[151]

별나라】를 빌려 이루어진 소년 활동의 투쟁 방향을 밝히고 있는 권두다. ①은 두 돌맞이 글. 별나라】는 무지개나 도깨비 세계와 같은 비현실을 물리치고 "자연스런 과학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졌다. "과학의 나라"란 다름 아니라 역사 유물론에 바탕을 둔 반제, 계급 해방의 현실을 암시한다. 그것이 별나라】 동무에게 주는 새 '선언'이라 썼다. ②에서는 투쟁 노선 변화를 담았다. 1926년 창간 무렵 별나라】는 "가난한 동무"의 동무가 되겠다고 소리 쳤다. 1928년부터 "공장의 동무" "농촌의 동무", 곧 노농 무산 소년을 향한 계급 노선을 뚜렷이 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더 나아가, "용감한 조합 소년부의 동무만"을 '동지'로 삼았다. 1931년, 앞으로 "갈곳은 단 한 곳" "밧게 업다"고 단호하다. 그것은 반제국 계급 해방의 날에 닿아 있다. 곧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러한 과정은 별나라】의 편집 방향 변화며, 매체 투쟁의 노선 변화며,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내용 변화를 드러낸다. 점차 인민성과 계급성 그리고 당파성을 더하는 쪽으로 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③에서는 ②의 결론을 다시 되씹는다. 193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각오를 담은 자리다. 별나라】의 "내용을 시대에 적합토록" 하고 대상을 '참된' '긔관', "조합의 소년부" 강화를 꾀하는 '임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조합의 소년부의 강화"라는 당파성은 노골적인 반제 항왜 투쟁을 뜻한다. 탄압과 처벌의 1차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 뒤 폐간까지 별나라】가 서 있었던 자리는 어려움이 겹치고 덮치는 과정일 것이 뻔하다.

'권두'를 빌려 별나라】 발행자인 안준식이 소년 활동의 투쟁 방향을 밝히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살폈다. 처음 '가난한 동무'에서 시작하여 무산 노농 소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하다 "용감한 조합 소년부"라는, 계급주의 하부 세포로서 몫을 더욱 뚜렷이 하는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별나라】가 폐간을 맞게 된 빌미였다. 이렇듯 별나라사 소년 활동 노선의 지침과 성찰의 자리였던 '권두'는 을유광복 뒤 속간호에서도 거듭했다.[152]

둘째, 이들 '권두'와 달리 다른 한 무리 줄글을 안준식은 남겼다. 별나라】 본문 안에 실었

150) 별나라】, 1931, 6월 호, 2-3쪽.

151) 별나라】, 1931, 12월 호, 3쪽.

152) 실국시대 '왜적'과 "한 몸둥이라고 하는" 계략에 조선의 문화, 말, 문자, 성명까지 다 빼앗기고 우리는 "제웅 가튼"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 맞서 10만이나 되는 투사가 피를 흘렸다. 그러한 "악마가 뒤흔들든" 때는 지나가고 '해방'을 맞았다. 자유스러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며, 조국의 투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당부를 담았다. 「조선 해방과 소년 소녀에게」, 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1-2쪽.

던 ‘훈화’, ‘소년 강좌’, ‘소년 독본’에다 수필이 그것이다.

> 3월 초8일
> 이 날이 우리들의 어머니 세계의 어머니의 경절날인 것이다
> 이날에는 공장의 어머니나 식골의 어머니나 고기잡이 어머니나 교환수 쎄스썰 엇던튼지 일터에서 버리하시고 가난하시고 약하시고 설음 만으신 우리들의 어머니가 긔운 잇게 날뛰시는 날인 것이다“
> -「어머니날」 가운데서[153]

오월 첫 공휴일에 맞이한 ‘만국부인의 날’, 곧 국제부녀절을 일깨워 주는 ‘소년 강좌’다. “설음 만으신” 어머니를 잊지 말고 힘 있게 어머니날을 지키자 했다. 이런 글은 ‘국제소년데’, 곧 어린이날에도 되풀이했다. 중요한 경축일을 맞아 그 의의와 행동 지침을 일러 주는 자리가 ‘강좌’인 셈이다.

> 공장에 가는 소년직공 남녀 직공은 밧분 듯이 달니고 있스며 우편배달부는 우편물을 한 뭉치 들고 밧부게 지나가고 지겟군게꾼 우유배달부도 휙휙 지나감니다.
> 전차 운전수와 차장도 벌벌 써는 것 갓트며 쎄스썰들은 새우처럼 쪽크리고들 지나감니다.
> -(줄임)-
> 그리하야 이 치운 겨울 아츰은 움직이기 시작햇슴니다 모든 것이 가난한 로동자의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햇슴니다 그러나 어제밤에 화려한 서울에서 굶고 어려서 세상을 써난 사람이 멧치나 될 줄 아심닛가 그것은 너무나 수효가 만코 애처러와 말할 수 업슴니다.
> 서울은 움직입니다 아조 긔운 차게 움직입니다만은 모두가 누구를 위하야 움직이는 것이겠슴닛가 바람은 잉잉 움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와 가티도 긋치지를 아니하며 움니다.
> -「겨울의 거리」 가운데서[154]

위의 것은 ‘별나라 독본’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진 줄글이다. 어린이들이 배웠으면 좋을 일깨움을 담은 줄글에다 ‘독본’이라 이름을 붙였다. 「겨울의 거리」는 겨울 거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풍광을 ‘가난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린이에게 새로운 현실을 일깨우고자 한 셈이다. 이러한 일깨움을 갖춘 글은 멀리 사회주의 모국 소련으로까지 나아가, 그들의 사람살이를 소개하는 데에 이르기도 했다. 「‘쏘비엣트 로서아’의 잇는 농촌 ‘아이들의 집’」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아이들의 집’ 운영 실태를 보고하며 사회주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씩씩하고 자유스럽고 귀여웁게 자라”[155]는 모습을 담았다. 【별나라】나 안준식의 이념 방위가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를 잘 알려 주는 줄글이다.

이밖에도 다른 유형의 줄글이 몇 편 더 있다. 「연합학예회를 맛치고-여러분께 감사한 말삼을 듸림」[156]은 별나라사 주최 ‘전선야학강습소 사립학교 연합대학예회’를 마치고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지상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글이다. 편지글 꼴의 줄글도 한 편 보인다. 「순이야」가 그것이다. 이국 만주 땅으로 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룸펜 생활을 하고”[157] 있으면서 고향의 누이가 월사금을 못 내 학교를 쫓겨나 집에서 울고만 있다는 기별을 받은 오라버니가 보낸 편지글이다.

---

153) 【별나라】, 1931, 3월 호, 2-3쪽.
154) 【별나라】, 1933, 2월 호, 2-3쪽.
155) 【별나라】, 1932, 4월 호, 47쪽.
156) 【별나라】, 1932, 7월 호, 6-7쪽.
157) 【별나라】, 1933, 8월 호, 30-31쪽.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권두'는 별나라사 사장이자, 별나라】 편집 책임자로서 안준식의 여러 소회가 담긴 줄글이다. 별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제시에서, 그 무렵 소년 독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권고와 훈화, 거기다 소년 활동의 투쟁 방향 제시와 같은 속살이 중심임을 살폈다. 별나라】를 이음매로 나아갔던 안준식의 의지와 별나라사의 운영 방침,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발행 역정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다. 그런 곁에 본문의 '훈화', '독본', '강좌'를 거쳐 일반 수필 몇 편이 안준식 줄글을 여러 길로 이끌고 있음을 보았다.

3) 동화와 소년소설에 나타나는 이중성

안준식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동화를 8편 남겼다. 방송 예정으로 이름을 올린 「어린 궁수」.「어린 활량」 들을 뺀 뒤다. 많지 않다. 그들 가운데 5편이 단편이다. 「바보 길동」.「산양개」.「옥색 호로병」 세 편은 연재 동화다. 「바보 길동」은 '장편동화', 「이사 가는 다람쥐」에는 '유년동화'라 이름 붙였다. 많지 않은 작품임에도 나름으로 여러 종류를 시험했다. 먼저 단편 동화부터 보자. 그런데 이들은 1926년 2편(「영장」.「이상한 돌종소리」)을 선뵌 뒤 몇 해 건너 1932년 「사자와 원숭이」로 넘어 간다. 꾸준했던 창작 갈래는 아니었던 셈이다.

별나라】 2호에 올린 「영장(靈將)」은 안준식 동화 가운데 가장 먼저 보인다. 목차에는 '동화'라 적었으나, 본문에는 '역사전설'이라 붙였다. 평안도 박천의 노총각 사냥꾼 김 포수가 묘향산 사냥길에 만난 처녀와 혼례를 맺고 그녀의 구 척 거인 아버지 부탁-날고기와 소금을 가져와 달라는-을 들어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김 포수는 박천강 가에서 말을 타고 가는 초립동을 만나 거인의 앞뒤 사정을 듣게 된다. 초립동은 정몽주였다. 그가 말해 준 대로 고려는 그 뒤 멸망했다. 박천강 둘레에 있었음 직한 장수 이야기에다 고려 망국, 정몽주 이야기, 거기다 산골 착한 노총각의 혼사 모티프까지 드러난다. 아직 창작 동화에 이르지 않고 전래 이야기와 뒤섞은 맵시다. 거기다 작품은 읽는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수께끼 짜임새를 지녔다. 처녀와 거인 아버지, 그리고 초립동의 정체는 누구인가. 고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며 점점 커지는 물음에 대한 답이 차례로 주어진다. 거기다 말씨는 입말투에다 '습니다' 삼가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 ①그러한 장사가 만히 나랴면 어느 나라든지 산텬정긔가 됴와야 하고 나라를 잘 다사리여 백성이 태평하랴면 그런 장사가 만히 생겨야하지요 만약 그런 장사가 차차 업서지면 그 나라도 점점 멸망하는 것임니다
>
> -「영장」 가운데서[158]

> ②말을 맛치고 그 귀공자는 쓸쓸한 빗으로 도라가랴 함니다 김 포수난 다시 공손히 절을 하고 "귀공자의 존함은 누구심닛가"하고 물으니 "나는 뎡몽주"라고 대답을 하고 강을 건너 갓슴니다 이 뎡몽주는 고려말조의 대충신으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임니다.
>
> 과연 그 후 30년이 지나지 못하야 고려국은 망햇슴니다.
>
> -「영장」 가운데서[159]

①에서는 줄친 '생겨야 하지요'는 직접이건 간접이건 대화의 인용이 아님에도 입말투다. 글말투로는 '생겨야 한다'가 옳다. 거기다 '것임니다'는 말할이/서술자보다 들을이/읽을이에 더

158) 별나라】, 1926, 7월 호, 31쪽.
159) 별나라】, 1926, 7월 호, 32쪽.

초점을 맞춘 삼가체 말씨다. 입말투에다 삼가체로 글을 끌어가고 있다. ②에서는 아예 텍스트 안쪽에 입말투임을 드러내는 명시 표지가 쓰였다. 곧 '여러분'이라는 현상적 청자가 그것이다. 서술자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러분'에게 삼가체로 말을 건네고 있다. 말을 건네는 글맵시를 갖추었다. 거기다 '습니다'로 삼가체를 썼다. 구연동화가였던 안준식은 읽을이를 향해 글을 써야 함에도 들을이를 향해 구연을 하는 듯한 말씨로 글을 끌어가고 있다. 문자성 속에 구술성이 담겨 있는 셈이다.

두 번째 동화 「이상한 돌종소리」도 비슷하다. 옛날 시골에서 자란 효자 태봉이 효성 덕에 임금의 상을 받게 되는 줄거리다. 이 작품 또한 옛이야기를 구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구연 동화다. 입말투와 삼가체를 되풀이한다. 청자 지향적인 동화구연가로서 면모가 작품 속에 잘 녹아 있다.

전래하는 옛이야기에 닿아 있는 듯한 초기 단편 동화와 달리 「사자와 원숭이」는 전형적인 동물 우화다. 바탕은 남아프리카 어떤 산골, 사자와 원숭이에 얽힌 이야기다. 사자가 원숭이를 잡아먹자 살아남은 원숭이가 사자를 없앨 꾀를 냈다. 그리하여 사자 굴을 확인해 둔 뒤, 친구를 모아 성성이에게 가 도움을 청한다. 사자가 곰새끼 하나밖에 되지 않을 깜이라 얕잡아 보고 있더라며 성성이의 화를 돋운다. 그리하여 성성이가 달려가 "천하를 호령하던 사자"를 죽여 버린다.

> 대감 참 고맙슴니다 저이들의 왕이 되십시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갑겟슴닛가 그럼 내일에는 만흔 동무를 데리고 가지요" 하고 노을이 빗기는 저 산 고개를 넘어갓슴니다.
>
> 그러나 저이들은 고개를 넘자 말자 고만 다 다라나 버렷슴니다 그러나 그 잇흔날 하로 종일 기다려도 한 놈의 원숭이도 안이 왓슴니다 사흔날 나흔날 멧칠을 두고 기다려도 소식이 업섯슴니다.
>
> 그제야 고 작은 원숭이한테 속은 줄 알고 분해하면서도 원숭이의 꾀를 칭찬햇슴니다.
>
> -「사자와 원숭이」 가운데서.[160]

원숭이는 성성이에게 자기들 왕이 되어 달라 간청하고 다음 날 "만흔 동무"를 데려 오겠다 약속한 뒤 달아나 버렸다. 속은 것을 안 성성이는 분했지만 원숭이의 꾀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한 원숭이가 큰 적인 사자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일깨우고자 한 작품이다. 동무와 단결하고 꾀를 내 싸우는 지혜가 그것이다. 말씨는 「영장」과 마찬가지로 입말투에 삼가체를 썼다. 안준식 동화 가운데 오로지한 '유년동화' 「이사 가는 다람쥐」 또한 같다.

> 어른과 아이들이 바구니를 씨고 도토리를 주어 넛슴니다 한편으로서는 가랑닢을 글거모음니다 이래서 동산은 다시 막숙해젓슴니다
>
> 다람쥐들은 아조 큰일 낫슴니다 전에는 그러치는 안트니 인제는 우리들의 량식을 사람들이 다 가가저가는구나 할 수 없시 우리는 저 깁흔 산속으로 이사를 가야하겟다고 잇흔날 밤에 다람쥐들은 깁흔 넘어 산 속으로 이사를 갓슴니다 달은 산마루턱에 걸녀 잇고 눈에는 패ㅅ말둑이 군데군데 꽂처 잇섯슴니다 다람쥐들은 왼 싸닥을 모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속으로만 드러갓슴니다
>
> -「이사 가는 다람쥐」 가운데서[161]

숲속 다람쥐들이 어느 때부터 먹이인 도토리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된다. 어른 아이들이 바구니를 끼고 와서 다 주워 간 까닭이다. 그리하여 더 머물지 못하게 된 다람쥐들은 더 "깊은

160) 별나라】, 1932, 2.3월 합호, 18쪽.
161) 별나라】, 1933, 12월 호, 31쪽.

산속"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군데군데 '패ㅅ말둑'이 꽂혀 있는 길을 따라. 이 작품을 두고 북한 쪽 풀이는 명료하다. 이른바 '산림조합 령'이니 뭐니 하며 깊은 산속까지 왜로 착취의 마수가 뻗쳤다는 뜻이라 읽은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쥐의 이사」는 왜로의 착취를 못 견뎌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북간도로 몰려가던" 그 무렵 "근로 농민들의 정형을 비유"한 작품으로 올라선다.[162]

「병아리」[163]는 김 첨지네 병아리 떼와 가까운 양계장 병아리 떼 사이에 오고가는 일을 중심으로 얽은 우화다. 김 첨지네 떼는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낸다. 거기 견주어 양계장 때는 기계로 대량생산된다. 김첨지네 병아리 떼가 놀러가, 그들이 갇혀 지내는 것을 일깨운다. 마침내 그들이 밤을 도와 양계장 주인을 골리고, 병아리 까는 기계를 고장 나게 만든다. 감금과 억압, 그리고 해방이라는 속살을 갖추었다.

「바보 길동」은 세상에 알려진 홍길동전을 바탕에 깔고 이루어진 작품이다.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진사 집에는 매일 도둑이 들어 곡식이며 세간을 훔쳐 간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 진사는 도둑 막을 궁리를 하나 번번이 당하기만 했다.

> 그 이튿날 밤은 더 단단히 직히엿섯스나 어느새인지 곡간 지붕을 뚤코 집어갓습니다
> 또 그 잇튿날은 곡간 지붕까지 직히엿섯스나 담밋 땅을 파고 집어갓습니다
> 엇던튼지 사람의 짓은 분명하엿스나 도저히 잡을 수는 업섯습니다 만일 이대로 얼마동안을 더 나아간다면은 김 진사의 뚱뚱한 몸둥이는 홀쭉해질 모양임니다
> -「바보 길동」 가운데서[164]

그런데 이렇듯 부자를 괴롭혔던 도둑이 마을에서 바보로 알려진 길동이라는 청년임이 밝혀진다. 길동은 더 마을에 머물 수 없어 서너 달을 걸어서 '조선' 밖으로 나간다. 그리하여 높은 산에서 과일을 따먹으며 실제 장사로 자란다. 그런데 이 「바보 길동」은 연재가 이어지지 못했다. "장편동화 「바보 길동」 안준식 작은 사정에 의하야 다음 호에 끗을 맛게 되엿슴니다"[165]라 했다. 안준식이 왜경에 검거된 까닭 탓인지, 작품 검열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래 홍길동 이야기의 의적 화소에다 전래하는 장수 전설까지 얽어 만든 동화임에 왜로 검열 쪽에서 불편했을 것에 틀림없다.[166]

「산양개」는 사냥개를 키우는 부자를 내세워 유산계급의 억압과 횡포를 일깨우고자 한 동화다. 사냥을 즐기는 그는 좋은 사냥개를 찾다 드디어는 이태리에서 왔다는 개 나폴리를 비싼 값에 사서 사냥을 즐긴다. 처음에는 나폴리도 주인의 맘에 들기 위해 열심히 애써 많은 사냥을 한다. 그러나 사냥감을 잡으면 모두 주인에게 내어 주고, 자신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개는 점점 쇠약해진다. 사냥 기술도 떨어질 밖에.

> 나의 모든 쓰라리고 슯흐고 분하고 원통한 사정을 말한다면 놀내며 나가튼 것은 부러워할 리가 업슬 것일세 여보게들 나의 쓰라린 사정을 좀 드려보려나 나는 조그만 자유도 업네 그려 그리고 내

162) 【해방 전 조선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61쪽.
163) 목차에서는 지은이가 안준식으로, 본문에서는 송영으로 적혀 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다음 호 「사고」로 밝혔다. 【별나라】, 1934, 12월 호, 56쪽.
164) 【별나라】, 1933, 2월 호, 26쪽.
165) 「사고」, 【별나라】, 1933, 8월 호, 15쪽.
166) 북한 쪽에서는 이 작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는다. "장편 동화 「바보 길동이」는 길동이라는 환상적인 주인공의 기적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 제도를 폭로하고 한 거름 나아가 박연암의 「허생전」에서 볼 수 있는 리상향을 묘사함으로써 일제 통치를 반대하고 승리한 뒤 자유와 독립의 나라 인민 조선의 앞날을 보여" 준다. 【해방 전 조선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61쪽.

생명싸지 돌보지 안코 모든 힘을 다햐야 산양을 하야 무러다 주면 저이들만 실컷 먹고 살이 쑤여케 써가면서 나는 배가 곱허 혹시 조금만 잘못해도 막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하니 이런 일이 잇나
-「산양개」 가운데서[167]

나폴리가 다른 개들에게 신세 한탄하는 자리다. “쓰라리고 슯흐고 분하고 원통한” 나폴리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인 영감에게 맞고 살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다섯 해 쯤 지난 때, 나폴리는 주인 말도 잘 듣지 않고 배가 고프면 사냥감을 먹기도 했다, 그러자 주인의 행패는 더 심해진다. 이른바 유산계급/무산계급의 계급 갈등과 수탈 현실을 주인과 개에 빗댔다. 작품이 더 나아갔더라면 사냥개가 주인을 물든가, 해꼬지를 하는 쪽으로 나아갔을 터다. 그러나 작품은 사냥개가 하소연하는 데서 그쳤다. 더는 연재가 되지 못했는데, 검열로 말미암은 것이 틀림없다. 곧 “있는 힘을 다 써서 꾸며 놓은 3월 호를 내지 못하고” 마침내 4월 호로 건너뛰는 ‘답답한’ 심정을 밝히는 자리에서 안준식의 「산양개」가 ”못 실니게 되야 미안하게 되엿다“[168] 고 알리고 있는 까닭이다.

「옥색 ‘호로병’」 또한 「산양개」와 마찬지로 연재 동화이나 한 호 밖에 확인할 수 없다. 바탕을 중국 장안으로 삼았다. 어버이로부터 금이야 옥이야 귀염을 받으며 자란 방춘이라는 아이가 개미가 든 호로병으로 신통을 부리는 이야기다. 안준식의 순수 창작이라기보다 이야기 감을 중국 쪽에서 끌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안준식 동화는 짧은 단편이나 연재 형식의 다소 긴 작품이나 할 것 없이 대립 계급 사이의 억압과 갈등, 그리고 그를 벗어나기 위해 계급 안쪽의 자각이나 단결(「원숭이와 성성이」, 「산양개」), 제국주의 왜로의 수탈을 암시(「이사 가는 다람쥐)하는 속살을 갖춘 것이 대종이다. 그러면서 효행, 나라 사랑과 같은 덕목을 부추기는 작품이 들어선다. 그들을 위해 순수한 창작적 기반뿐 아니라 전래 장수 전설(「영장」), 중국 쪽 이야기(「옥색 ‘호로병’」)와 맞물린 줄거리로 엮어 작품 수에 견주어 이야기 너비는 넓은 쪽이다. 작품의 말씨는 한결같이 청자 지향성이 뚜렷한 입말투에다 ‘습니다’ 삼가체를 버릇처럼 거듭했다. 읽는 독자뿐 아니라 듣고 보는 구연 관람층을 향한 말씨다. 문자성 속에 구술성이 녹아든 꼴이다. 동화 구연가라는 안준식의 특장이 자연스레 드러난 셈이다.

이들 동화와 달리 오늘날 확인된 안준식의 소년소설은 7편이다. 별나라】 ‘해방 속간호’에 실었던 「도라온 아버지」 한 편을 제쳐 두고 나머지는 모두 실국시대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 4편, 곧 「달도 운다」.「광주 나물 장수」.「호떡 선생」.「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는 연재 형식이다. 「달도 운다」에는 ‘장편소년소설’이라 붙였다. 나머지 「우리 어머니는 미첫다」.「아버지와 딸」.「도라온 아버지」는 1회 발표 단편이다. 전체 창작 편수에 견주어 연재 비중이 높다. 그 까닭은 자신이 발행자며, 책임자로서 지면 배정이 쉬웠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면 확보의 항상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더 컸겠다. 작품이 넘치는 일은 문제 되지 않지만, 작품 검열이나 기타 글쓴이 사정으로 발행 분량을 얻을 수 없을 경우는 문제가 커진다. 안준식은 별나라】 초기인 1927년부터 광복기까지 연재 또는 일회 발표 형식을 빌려 자신이 지녔던, 무산 소년을 향하거나 그들을 위한 경험적 이야기 욕구를 꾸준히 채웠던 셈이다.

「달도 운다」는 가장 먼저 발표한 연재 소년소설이다. ‘만주’를 파는 고학생 수남이 주인공이다. 그는 남달리 공부를 잘했으나, 시샘하는 동무가 더 많아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감이 되는

167) 별나라】, 1934, 2월 호, 42쪽.
168) “박승극 씨의 「문학가가 되려는 이에게」 변일 씨의 「독약박사】(제4회) 안준식 씨의 「산양개」 김대균 씨의 「말대리」 또 세계문학자 소개를 못 실니게 되야 미안하게 되엿다.” 「편집여언」, 별나라】, 1934, 4월 호, 64쪽.

신세다. 그런 어느 봄날, 만주를 팔러 서울 시내를 떠돌다 수남은 자신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차에 치여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를 맞닥뜨린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단지까지 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어느 병원도 가난한 수남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 그런 과정에 이웃집에 불이 붙었는데 분한 탓에 수남이 지른 짓이라 무고를 받아 경찰서에 갇힌다. 가난한 고학생 수남이가 겪는 가족 파탄 과정을 뼈대로 삼았다. 그런데 작품 서술 방식이나 표현에 보이는 구술성은 동화와 마찬가지라 흥미롭다. 입말투에 삼가체가 그것이다. 게다가 연재 작품인 만큼 줄거리 전개에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절단 기법도 끌어 왔다.

> 잇째 수남이는 만주통을 버서 던지고 사람을 헤치며 쒸여들어가서 "아! 어어 어머니 어머니 이게 왼일이심니가 아! 어머니"하고 수남이는 어머니의 목을 부더안고 무심한 하눌을 치여다 보고 부르지즈며 통곡을 하엿슴니다 수남이가 통곡하는 사졍을 누가 알엇겟슴니가? 단지 서산에 지는 해와 청청한 하날에 넙희 쓴 구름 한 뎅이 밧게는 아지 못하엿슬 것이 올시다 엇지될는지(다음호)
>
> -「달도 운다」 가운데서[169]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수남이 '통곡'하는 자리다. 서술자가 손수 현실 청자를 향해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었다. 들을이의 수긍을 바라는 듯한, "수남이가 통곡하는 사졍을 누가 알엇겟슴니가?"라는 월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게다가 단락이 끝나는 곳에 "엇지될는지"와 같이, 직접 진술을 빌려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절단 기법을 썼다.

「우리 어머니는 미쳣다」는 소년 창수가 겪는 이야기다. 어머니가 미처 집을 나가자 어린 창수는 명동성당 영아원에 맡겨져 자랐다. 그러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와 서울을 떠돈다. 그런 가운데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어른을 만나 몸을 기대며 집을 나간 어머니의 사정과 부자로 살고 있다는 큰아버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큰 집에 살고 있던 큰아버지는 찾아간 조카 창수를 모른다 도리질쳤다.

> 신부는 악을 벼락 갓치 머 창수가 왜 왓서 안 되어 가- 가 네 마음대로 다른 대로 가 여기서는 한 번 실타고 내쌘 아해는 다시는 듸러지 안어 하고 문을 닷고 안으로 들어가버렷슴니다. 아- 여러분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하여라 개천의 빠진 자를 건저 주어라 의식이 업는 자에게는 의식을 주어라 사람은 다 갓치 사랑하자 하는 교회에서도 이 무정하게 하니 이 세상은 엇더한 세상이라는 것을 가이 알 것이 올시다
>
> -「우리 어머니는 미쳣다」 가운데서[170]

창수는 큰아버지 김 부잣집에서 쫓겨나 하는 수없이 자신이 몸을 맡겼던 명동성당 영아원으로 다시 간다. 그러나 신부가 모질게 쫓아낸다. 부자의 패륜과 종교의 위선을 말하기 위한 뜻이다. 소년 창수의 가정 비극을 빌려 무산 소년에게 무정한 세상의 실상을 깨우치고자 했다. "아- 여러분 악한 자를……올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 청자 지향의 구술성이 거듭 압도하는 작품이다.

「광주 나물장수」 또한 가정 비극을 그렸다. 주인공 영춘은 함경도 산골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농사를 짓다 빚에 쪼들려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남한산성 밑까지 와서 마을 사람 덕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그가 다리를 부러뜨려 어머니는 고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물을 해 서울로 가져가 판다. 그런데 고생 끝에 돌아오는 고개에서 그 돈을

---

169) 별나라】, 1927, 4월 호, 40쪽.
170) 별나라】, 1928, 3월 호, 56쪽.

도적에게 빼앗기고 거의 죽을 몸이 되어 돌아온다. 이를 두고 북한 쪽에서는 “농촌의 소작 농민이 지주의 착취로 살”길이 없어 도시로 류랑“하나, ”이미 도시에서는 공장의 실업 로동자들의 사태로 넘치였을“ 무렵, 왜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폭로하고 동시에 억압 받는 근로 계급이 걸어갈 길을 암시”[171]한 작품이라 풀었다.

「호떡 선생」은 안준식의 소년소설 가운데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172] 이 작품은 여느 소년소설과 달리 무산 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내세운 드문 경우다. 주인공 신 선생은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생 병록이의 서울 유학을 세 해 동안이나 뒷바라지하고, 남아 있는 그 어머니와 동생의 생계까지 책임졌다. 그 일을 위해 부잣집이나 지인의 도움조차 얻지 못한 형편이다. 월급을 가불해 비용을 댔다. 그러면서 자신은 호떡 한 개로 끼니를 때우는 바람에 호떡 선생이라 별명이 붙었다.

> ①“그러나 병록아! 나는 고만 써나간다
> 정들엇든 녯 고향을 버리고 정처업시 떠나게 되엿다 학교에서 날보고 홋썩 선생이라고 좆처 내기 때문에 하는 수 업시 아마도 나의 사정은 너에게 알지 못할 것이다
>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안어도 좃치만 너도 아다십히 박봉을 타 가지고 네에게 보내니 어듸 밥 먹을 돈이 잇든 그래하는 수 업시 하로에 홋썩 세 개식을 먹고 지내 왓단다 그래서 홋썩 선생이 되엿다.
> 이제는 네에게 보내든 돈도 보낼 수 업다 그러나 너무 락망은 마러라.
> -「호떡 선생」 가운데서[173]

> ②오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압흐나 성하나 하로도 빠지지 안코 열심으로 단이엿스나 이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일즉이 하숙옥으로 돌아와 즉시 집으로 편지를 써서 부치엿습니다
> 그리고 집에서 답장 오기만 기다리고 하로하로 보내엿다.
> 병록이가 집에 편지한 지가 나흘 되는 날이엿다.
> -「호떡 선생」 가운데서[174]

병록이와 그 집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신 선생은 마침내 학생이나 교사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자신이 돌보아 주던 병록 어머니마저 돌아가고 그 장례비를 가불하기 위해 학교로 갔다 마침내 쫓겨났다. 그리하여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병록에게 편지를 보내고 떠나간다. “학교 월사금과 하숙옥에 밥갑까지 두 달치”나 밀려 있던 병록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작품 주인공은 신 선생으로 보이나 그 속살을 거머쥐고 있는 맥락은 무산 소년 가족이 겪는 가난상과 고초다. 이 작품 또한 구술성이 두드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입말투에다 삼가체를 쓰면서도 ②의 밑줄 친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사 서술형을 뒤섞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술성과 문자성의 교체 현상이라 부를 만하다. 이런 모습은 안준식이 지닌 작가적 역량 부족이라기보다 이야기의 재현을 향한 욕구와 구연이라는 방법적 욕구가 한 작품 안에 뒤섞인 까닭이라 볼 수 있다. 동화 구연이 중심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작가 안준식 입장에서는 의도된 실수였던 셈이다.

---

171) 【해방 전의 조선 아동문학】, 앞에서 든 책, 61쪽.
172) “안운파 선생 작 호떡 선생은 수십만 독자의 대환호 속에서 계속 되든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호에 못 실리게 되엿습니다 다음 호에 다시 계속 될 터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별나라】, 1930, 제6권 제3호, 17쪽.
173) 【별나라】, 1931, 5월 호, 37쪽.
174) 【별나라】, 1931, 5월 호, 36쪽.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는 장님 아버지를 둔 소년 철수 이야기다. 철수는 보통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장님 아버지가 점치러 다니는 일을 도와준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거나 소원을 들어 주는 점쟁이 아버지를 그는 존경해 마지않는다. 그런데 정작 아들인 자신이 병이 들고 월사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자 아버지는 목숨과도 같이 아끼는 생계 밑천 북과 부적을 저당 잡히고 구완을 했다. 그럼에도 철수 병이 낫지 않는다. 40일이나 아파 누워 있었던 철수는 아버지가 점을 내세워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을 등쳐먹고 산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리하여 학교를 그만 두고 노동 시장에 나섰다. 어린 철수를 써주는 곳이 있을 리 없다. 철수네 집의 가난상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다. 그런 위에 아버지 세대가 지니고 있었던 '미신'을 향한 비판도 함께 꾀했다. 이 작품 또한 서술자가 입말투의 삼가체와 예사체를 뒤섞고 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맵시가 드러난다.

> 세상은 참으로 골으지 못하다 사람은 다 갓흔 사람이요 다 갓흔 쌍 우에서 살아가고 잇건만 엇던 사람은 돈이 넘어 만어 걱졍 돈이 업서 걱졍 벙어리가 되어 걱졍 벙어리가 안이여도 말을 할 수가 업서 걱졍 안진방이가 되어 걱졍 다리를 가지고도 마음대로 단일 수가 업서 걱졍 배가 불녀 걱졍 곱허 걱졍 하여간 세상은 이가치도 모든 것이 걱졍 걱졍 걱졍 투성이로 된 세상이다
>
>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 가운데서[175]

철수가 독백하는 자리다. 갖가지 부조리한 '걱정' 들을 되풀이한 자리다. 청자 지향의 삼가체는 꾸준하다. 그런데 옛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나열과 반복의 수사적 변화가 흥건한 모습이다. 삼가체와 예사체 종결어미의 뒤섞임과 마찬가지로 낭송이나 구연에 더 알맞을 구술 장치인 셈이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 탓에 생계 수단을 팔아 임시변통을 해 가난상을 극대화하는 「우리 아버니는 장님이다」와 비슷한 줄거리는 「아버지와 딸」에도 보인다. 열네 살 복순이의 어머니는 지난 해 유행 감기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굴뚝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린다. 그러한 가난 속에서 복순이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사진값과 추렴을 내지 못하자 아버지는 마침내 생계 수단인 징을 내다 판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자 복순은 아버지를 더 괴롭히지 않으려고 학교를 그만 둔다.

그가 내놓은 마지막 소년소설은 을유광복 뒤 작품 「도라온 아버지」다. 1945년 12월 별나라】 속간호에 실렸다. 광복을 맞자마자 쓴 작품인 셈이다. 주인공은 열여섯 살 용성. 아버지가 섬나라 복강으로 이른바 '징용'에 끌려가고 용성은 왜인 목장에서 푼돈을 벌다 주인 행패가 심하자 그만 두고 마을 일꾼으로 살아간다. 을유광복도 달포가 지나 여느 사람은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날 유골 상태로 다른 사람 손에 들리워져 돌아온다. 말씨는 실국시대 작품과 마찬가지로 입말투에 삼가체를 쓰고 있어 안준식 작품이 지닌 구술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광복 뒤 이저곳의 동화회에서 구연했을 작품이다.

안준식은 별나라】를 빌려 소년소설 일곱 편을 선뵀다. 그들은 소년 가족의 가난상과 불행이라는 얼개 위에서 펼쳐진다. 어버이는 없거나 무능력하여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공통점을 지닌다. 그 아래 주인공 소년 또한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거나 다니지 못한 채 식민자의 제도 교육 바깥에 놓여 있는 이른바 '무산 소년'이다. 그런 속에서 그들을 돕는 조력자로서 선행 교사나 가까운 이웃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현 방식에서 읽는 소설임에도 듣는 이야기로서 입말투를 한결같이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입말투와 글말투, 곧 구술성과 문자

175) 별나라】, 1931, 7.8월 합호, 25쪽.

성이 한 작품에서 뒤섞인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 준다.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의 특장이 한결같이 문자성 위에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위에 현실 독자/청자를 향해 서술자의 잦고도 직접적 개입이나 다음 호 기대감을 키우기 위한 절단 기법과 같은 표현을 끌어와 독자/청자 지향성을 더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준식의 이야기 양식은 동화와 소년소설에 걸친다. 그럼에도 그 맵시나 줄거리에서는 기존의 동화/소년소설과 달리 구술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독자/청자 지향의 입말투에다 '습니다' 삼가체를 거듭하면서 구연에 좋을 반복이나 열거를 알맞게 끌어들인 것이다. 연재 이야기 경우, 절단 기법을 활용하고 줄거리 요약 제시도 많은 쪽이다. 안준식 이야기 문학은 그 무렵 여느 작가와 달리 구술성과 문자성을 얽어 줄거리를 엮는 이중적인 특이성이 한결같은 셈이다[176] 동화구연가로서 안준식이 지닌 특장에다 새로운 문자문화적 조건이 녹아든, 우리 어린이문학 창작으로서는 드문 모습이다.

3) 동요의 간접화, 기타

안준식 문학은 시쓰기로 비롯한다. 1921년 5월 【조선일보】에 이름을 올린 투고시 「초연(初戀)」이 그것이다. 오늘날 찾을 수 있는 가장 앞선 작품이다. 10대 후반 배재고보 시절 작품일 것이다. 안준식이 문학 출발을 시쓰기로 시작한 일은 열정에 찬 청소년으로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따라서 그의 초기 시쓰기를 향한 열정은 편지 꼴로 연애의 격정을 담뿍 담은 수필 「도회에 계신 S에게, 관악 하에서」[177]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삽입시를 둘이나 넣었다. 그뿐 아니라 【조선일보】 창간 축사로 쓴 줄글, 「축 창간 1주년 기념」[178]에도 삽입시를 넣은 데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몇 경우를 젖혀 두고 보면 시에 관한 관심은 초기에 머문다. 그 대신 소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관심은 자연스레 동요로 옮겨 간다. 그리하여 오늘날 확인된 그의 가락글은 시 「초연」 1편과 동요 5편이다.

> 소녀- 소녀- 소녀- 우름답고 어엽분 소녀- 신성훈 하ᄂᆞ님의 ᄯᆞᆯ 갓치 사랑스런 그ᄃᆡ 그ᄃᆡ의 우름답고 고흔 맵신
>
> -(줄임)-
>
> 금음날 어둔 밤에 반짝이는 성(星)의 빗 같고
> 바위틈에 나뷔기는 톡기 눈 갓치
> 담담하고 영농훈 그ᄃᆡ
> -「초연」 가운데서[179]

「초연」 한 자리다. '소녀'를 두고 "신성훈 하ᄂᆞ님의 ᄯᆞᆯ" 같다라 했다. '소녀'를 향한 이상화가 극에 이르렀다. 전형적인 낭만적 사랑을 담았다. 아직 현실을 향한 객관적인 눈길을 얻지 못한 데서 드러나는 격정이다. 그런데 초기에 보이는 이러한 시적 열정은 금방 가라앉고 소년 지도자로서 모습이 뚜렷하게 돋아 오른다.

---

176) 아예 '구연용 동화'를 발표한 이도 있다. 양재응, 「찌여진 조희 조각」, 【별나라】, 1934, 9월 호, 9-11쪽.
177) 【조선일보】, 1921. 8. 20.
178) 【조선일보】, 1921. 5. 23.
179) 【범 】, 1921. 5. 5.

①아가 아가 우리 아가
우지 말고 니러나라
금년에는 풍년 들어
떡해 주고 책 사주마

아가 아가 우지 말고
공부하고 일을 하야
우리 조선 새로 세울
아가 되어 자라거라
-「우지 마라」[180]

②아이고 조와라
아이고 조와
품파리 가섯던
우리 아버지
조 팔고 나무 사
씨고 오시네.
엄마야 누나야
어서 나와서
밥 짓고 국 쓰려
양양 먹자꾼
-「배곱흔 애기」(119)[181]

①과 ②는 초기 동요에 드는 작품이다. ①은 우는 아이를 달래는 노래다. 아이에게 풍년 들면 떡해 주고 책 사줄 터이니, 공부하고 일해 "우리 조선"을 "새로 세울" 인재로 자라거라고 노래한다. 소년 지도자로서 안준식의 평소 생각이 단출하게 담겼다. '흉년/배고픔/입학 금지/무너진 조선'이라는 울음 울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과 '풍년/ㅉ/공부와 일/새로 세운 조선'이라는 울음 그칠 앞날 현실 사이 뚜렷한 대립이 그것이다. 안준식은 그런 가운데 다가올 앞날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까지 작품 속에 녹였다.

②는 류희정이 북한에서 엮은 『1920년대 아동문학집(1)』[182]에 안준식 것으로 유일하게 올린 작품이다. 『어린이독본』(1928)에서 가져오면서 출판된 해를 1926으로 적고, 마지막 시줄 '양양'을 '얌얌'으로 고쳐 올린 점이 다르다. 작품 발표는 『어린이 독본』이 나온 이전일 터이니 안준식 문학으로 볼 때 이른 시기 작품이다. 제목에서부터 '배곱흔' 애기라 해 노동자의 가난상을 밑그림으로 삼았음을 알렸다. '무산 청년' 시인으로 '무산 소년' 활동을 하는 지도자 안준식의 세계 이해에 걸맞은 작품이다. 말할이인 '애기'는 아버지가 품 팔아 오는 모습을 보고 어서 나와 "밥 짓고 국 ㅉ려" 먹자고 말한다. 배고픈 아이 목소리가 고통과는 떨어진 자리에서 천진스럽다. 아이다운 목소리를 잘 갖춘 셈이다. 그렇다고 그 바탕에 놓인 고통을 읽는이가 모를 리 없다. 반어, 곧 시침떼기 기법이다.

①달아 달아 밝은 달아

180) 별나라】, 1927, 10월 호, 5쪽
181) 새벗사 엮음, 어린이독본】, 회동서관, 1928, 119쪽.
18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41쪽.

너의 집이 어디길네
밤이면은 나아오고
낫이면은 안 나오나

나는 나는 밤이 오면
아주 퍽 실탄다야
그럿치만 야학갈 땐
네가 아조 조-와
-「달」[183]

②구- 구- 닭아
내 모이 만히 줄께
하로에 알을 두 게씩
세 게씩 만이 까라
그래야만 샌님댁에
보내고 나도 먹지
-「닭」[184]

위에 올린 셋은 「배곱흔 애기」보다 적어도 여섯 해나 늦은 때 내놓은 작품이다. 그럼에도 아이 목소리에 걸맞은 속살은 한결같다. ①은 "달아 달아 밝은 달아"라는 우리 노래에서 되풀이하는 상투어구를 끌어 들여 낮이면 사라졌다 밤이면 나오는 '달'을 향한 정감을 담았다. 그리하여 밤배움 길에 나서는 소년이 그 달을 향해 지닌 고마움을 돋보이게 이끌었다. 그 고마움이란 다름 아니라 밤배움을 이끄는 교사나 함께하는 동무들로 향하기도 한다. 소박한 달노래에다 '무산 소년'의 밤배움이 지닌 무거움과 그를 향한 안준식의 관심이 잘 옹근 작품이다. ②는 시골 닭치는 아이 노래다. 달걀을 많이 낳기 바라는 뜻을 담았다. 자신도 먹고 '샌님댁에' 보내기도 하겠다고 말한다. 드러난 속살로는 예사 닭치기 노래로 그친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른바 '노농 무산 소년'을 위해 밤배움을 베푸는 선생댁, 곧 '샌님댁'에 달걀을 보내기 위한 뜻이라는 데로 생각을 옮기면 아연 작품 속뜻이 만만찮다.

이렇듯 안준식 동요는 소박한 속에 날카롭거나 억지스럽지 않게 노농 소년이나 가난한 무산계급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격려를 그들 눈길에 걸맞은 목소리로 드러낸다. 무거움과 가벼움이 알맞게 녹아 들어 폭넓은 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울림을 지녔다. 이런 점은 대장간이라는 같은 글감으로 쓴 안준식과 박세영의 두 작품을 견주어 보면 뚜렷해진다.

①대장간 아저씨가
샛빨안 쇠떵이를
툭-탁 하면은
샛파란 독기가
돼여 나와요
대장간 아저씨가
툭-탁 하면은
머든지 돼 와요

183) 【조선중앙일보】, 1934. 11. 14.
184) 【조선중앙일보】, 1934. 12. 4.

부삽도 돼 나오고
곡괭이도 돼 나와요
-「툭탁」[185]

②소리소리 나는 저 집은
할아버지 낡은 대장간
아츰부터 저녁때까지
똑딱똑딱 징징글뚝딱

동무네가 부는 풀무는
풀느더삑 풀느덕빽
쉬지 안코 장단 맛추어
불은 훨훨 쇠야 다러라.

할아버지 매는 연장은
시골 서울 논아가지만
딱딱하고 말는 손들이
넷날부터 벗들이래요.

할아버지 저 대장간도
이새 와선 요란해젓지
손이면은 다 잡으리란
소리소리 석겨 들녀서.
-박세영, 「대장간」[186]

안준식의 ①은 겉보기로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묘사 중심의 노래다. “툭-탁 하면은” “부삽도 돼 나오고/곡갱이도 돼 나”올 뿐 아니라, “머든지 돼”는 신기한 일을 바라보는 아이의 호기심어린 눈길이 녹아 들었다. 제목부터 ‘대장간’이라 하지 않고 ‘톡탁’이라는 소리로 슬쩍 비켜났다. 그럼에도 그 바닥에는 하루하루 어려운 대장간 일을 하면서 삶을 꾸리는 어른 세대 ‘무산 노동자’를 향한 안타까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지닐 법한 호기심어린 눈길에 어른 세대 삶의 무거움을 녹여 담은 셈이다.

거기에 견주어 박세영의 ②는 대장간을 다루면서도 계급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첫 토막에서 ‘동무네’라 해, 말할이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무산 소년임을 알렸다. 그런 다음 둘째 토막에서 그들을 향한 당파적 경계를 뚜렷이 한다. 곧 “시골 서울” 할 것 없이 “할아버지 매는 연장”을 쓰는 이들은 “딱딱하고 말는 손들”로 “넷날부터 벗들”이라 썼다. 그리고 할아버지 대장간이 이즈음 들어 더욱 ‘요란’해졌는데, 그 까닭은 “손이면 다 잡으리란/소리소리 석겨” 든 탓이다. 대장간에서 들리는 소리가 같은 무산 계급끼리 ‘손’ “다 잡”으리라는 뜻으로 들린다는 데서 계급적 경계가 더 뚜렷하다. 안준식의 말씨와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무산 계급끼리 이룰 당파적 연대를 웅변한다. 그런 뜻이 앞쪽에 도드라질수록 말할이의 눈길과 말씨는 어린이다운 데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억지스럽다. 따라서 읽는이를 잣대로 보면 너

185) 【조선중앙일보】, 1934. 11. 27.
186) 【별별】, 중앙인서관, 1931, 16쪽. 첫 발표지는 【별나라】(1928. 3월 호, 34쪽)다.

절하게 직접적인 요설을 택하면서 읽는이의 상상적 유추와 울림의 너비를 좁힌다.

안준식은 많은 가락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드물게 남은 동요가 보여 주는 울림은 예사롭지 않다. 그 점은 확연히 계급의식이나 투쟁 의욕을 앞세우기보다 그것을 속살 안으로 녹이고 더 폭넓은 읽기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간접적인 자세에세 빛난다. 계급주의 이념이나 경험적 현실로 볼 때는 느슨할지 모르나 읽는이를 잣대로 볼 때는 울림이 훨씬 클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운 농촌과 도시의 무산 농민 노동자나 무산 소년의 삶을 따뜻하게 껴안는 눈길이 깃들였다. 드물게 남은 안준식 동요가 보여 주는 아름다움이 그것이다.

시와 동요와 같은 가락글 말고 안준식은 번역과 재담까지 남겼다. 문학 활동 초기에 보여준 루블란의 '기괴탐정소설' 번역 「813」과 말기에 보이는 위고의 「억 무정」 번역이 그것이다. 둘 다 왜어에서 옮겨온 중역이겠다. 그런데 발표 동기는 같지 않다. 문학 초기, 그것을 향한 관심이 이저런 갈래로 드나들 때 얻은 한 결과물이 추리소설 「813」 번역이다. 빅토르 위고의 「억 무정」은 범별나라】 마지막 호 1935년 1.2월 합호에 실렸다. 연재를 뜻했으나 다음 호가 이어지지 않아 1회 게재로 그쳤다. 전편을 싣지 않고 '편역'이라 적어 안준식의 작품 손질을 알렸다. 그런데 이 작품은 김대균이 옮긴 똘스토이의 「거지」가 '사정'에 의하여 실리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안준식이 다른 원고로 마련한 것이다. 범별나라】를 향한 왜로의 검열과 통제에 가로막힌 출판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원고 확보용 번역이었다. 그렇다고 「억 무정」에 나타나는 무산 계급 '장발잔'을 향한 옮긴이 안준식의 공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에 머물지만 안준식이 남긴 특유의 글이 재담 「내가 너 본지도」다. 범조선중앙일보】에 실은 짧은 것이다. 대중/관중의 반응을 고려하는 데 남 달랐을 동화구연가 안준식다운 갈래 선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재담을 비롯해 동요 5편을 모두 범별나라】가 폐간한 앞뒤 시기에, 그것도 그가 첫 작품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창간 1주년을 각별하게 기려 축하의 글을 보내기도 했던 범조선일보】나 범동아일보】 지상이 아니라 범조선중앙일보】에 실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작가 안준식이 놓인 매체 심리, 이념 경계를 암시 받을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안준식은 이미 개량적인 매체 범조선일보】와 범동아일보】와는 뚜렷하게 거리를 둔 것이다.

5. 수원 지역문학 연구를 향하여

필명을 운파와 구름결로 썼던 안준식은 이제껏 잊혔던 어린이문학인이다. 그의 삶과 문학 자취에 관해서는 본격 논의 하나 없었다. 게다가 태생지나 생몰 연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1901년 경기도 수원이 낳은 근대 첫 어린이문학인이다. 1951년 죽을 때까지 활발한 소년 활동가며 범별나라】 발행을 이끌었던 인쇄출판인이자 현실주의 문학인으로 살다 간 이다. 이 글은 그러한 안준식을 대상으로 그의 삶과 문학 업적을 처음으로 재구성하고 풀이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루어졌다. 그에 이르기 위해 논의는 안준식에 대한 작가 혼동을 바로 잡고 고향 수원에 귀속시킨 뒤, 그의 삶의 중심 활동, 그리고 어린이문학의 됨됨이를 구명하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었다. 논의를 줄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안준식은 오래도록 안평원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2012년부터 그가 영천 문학인 안평원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태생도 확정되지 못했다. 막연히 서울 사람으로 알려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남아 있는 남북한 기록을 빌려 그가 1901년 수원에서 태어나 1951년 3월 전중기 황해도 금천에서 폭격으로 죽었음을 알았다. 그런 가운데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인쇄 노동자로 일하며 배재고보에 만학으로 공부하다 1924년 하반

기 무렵 중퇴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925년 무렵부터 인쇄소 동아사를 세우고 1926년 별나라사를 세워 실국시대 현실주의 어린이문학 대표 매체 별나라】를 책임지고 1935년까지 열 해 동안 펴냈다. 그리하여 안준식은 수원 지역 첫 근대 어린이문학인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현실주의 어린이문학의 출발과 성장에 꾸준한 뒷받침을 한 작가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두리는 수원 지연과 배재고보 학연이 늘 함께했다.

둘째, 쉰을 갓 넘긴 안준식의 삶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 소년 활동가와 인쇄출판인, 그리고 어린이문학가다. 소년 활동가로서 안준식은 기존 색동회를 주류로 한 초기 지식인, 유학생 중심의 지도자와 달리 1925년 무렵부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기 시작했던 새 세대, 자생적 청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울을 텃밭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 무산소년 활동 앞자리에서 활약했다. 인쇄출판인으로서 안준식은 1926년 창간하여 1935년까지 낸 실국시대 80권에 광복기 2권, 모두 82권을 펴낸 별나라】 발행에서 오롯하다. 카프의 어린이문학 기관지로 나아가기도 했던 별나라】는 왜로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 일군 우리 어린이문학의 매체 투쟁력과 결실을 오롯이 웅변하는 잡지다. 어린이문학가로서 안준식은 타고난 몸 조건을 바탕으로 명망 있는 동화구연가며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남다른 활동을 벌였다. 이렇듯 세 가지 삶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든 그의 활동을 두고 지인은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백전불굴하는 정신'의 결과라 매겼다.

셋째, 어린이문학 작가로서 안준식의 작품은 오늘날 61편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책임진 별나라】 앞머리에 실은 '권두'와 본문의 '독본'.'훈화'.'강좌'에서부터 수필까지 걸친 줄글 양식, 동화와 소년소설에 걸친 이야기 양식, 그리고 6편에 머물지만 동요와 시에 걸친 가락글에다 재담과 번역이 더한다. 개인 작가로서 양에 견주어 여러 갈래를 오갔다. 줄글에서는 해마다 거듭하는 기념절이나 별나라】 기획 방향, 소년 활동의 투쟁 노선을 가리키는 훈육적 의도를 담은 글이 압도적이다. 각별히 이야기문학에서는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사회주의 변혁과 해방을 향한 뜻을 숨기지 않은 속살에 동화구연가에 걸맞게 들을이 지향의 구술적 특성을 작품 속에 담은, 문자성과 구술성이 뒤섞인 이중 특성이 유별났다. 거기다 동요에 보이는 간접화한 현실 표현은 사회주의 이념 바탕 위에서도 폭넓은 울림을 끌어내는 장점을 보여 준다. 앞으로 별나라】의 발굴에 따라 그의 문학이 지닌 다채로움은 더 드러나리라 여겨진다.

이 글을 빌려 잊혔던 수원 지역 근대 첫 어린이문학가 운파 안준식의 삶과 문학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남과 북 모두에서 잘못 알려지거나 제대로 대접 받지 못했던 그다. 이제 걸음을 뗀 격이어서 기워야 할 일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원에 남아 있을 수원 백씨 문중의 도움을 받아 5남 병원 씨를 비롯한 후손을 찾을 일이 바쁘다. 그리고 그 둘레에서 자라고 뜻을 함께했던 수원 문학인을 찾아 연결망과 활동 지형을 꼼꼼하게 가늠할 일이다. 월북에 실패한 안준식과 달리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 문학사회에 성공적인 편입을 해 살았던 박승극.박팔양.정청산이 그들 앞자리에 놓인다. 그 뒤를 구직회가 따른다. 이 글로 말미암아 안준식의 문학이 수원 지역문학의 전통으로 되살 뿐 아니라, 우리 근대 어린이문학사에서 수원 문학이 차지하는 무거운 자리가 깊이 있게 조명되기 바란다. 이 글은 그리로 가는 한 디딤돌을 자임한다.

(　　)

1. 1 문헌

별나라】.신소년】.문학창조】.배재학보】.배재】.양정】.시대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조선중앙일보】.자유신문】.한성일보】.중외경제신문】.조선신문】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엮음, 별나라를 차져간 소녀 3】, 국학자료실, 2012.

김현식.정선태 엮음, 삐라'로 듣는 해방 직후의 목소리】, 소명출판, 2011.

류덕제, 한국 현대 아동문학 비평 자료집】(1), 소명출판사, 2016.

류희정 엮음,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 문학예술출판사, 2005.

류희정 엮음, 1920년대 아동문학집(1)】(현대조선문학선집 1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박승극문학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박승극 문학전집 1 소설】, 학민사, 2001.

박승극문학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박승극 문학전집 2 수필】, 학민사, 2011.

박태일 엮음, 소년소설육인집】, 도서출판 경진, 2013.

새벗사 엮음, 어린이독본】, 회동서관, 1928.

최시한.최배은 엮음, 하늘은 맑건만】, 문학과지성사, 2007.

1941년 배재동창회원명부】, 배재동창회, 1941.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018.

별나라】, 조선민주청년출판사, 1956.

별나라】, 연변교육출판사, 1957.

별나라】, 아동도서출판사, 1958.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2. 2차 문헌

김봉희, 「나라잃은시기, 계급주의 아동극 운동 : 신소년】과 별나라】를 중심으로」, 아동문학평론】 36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11, 48-75쪽.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류덕재,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아동문학연구】 26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35-172쪽.

류덕제 엮음,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필명」,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 청동거울, 2017, 307-309쪽.

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 46집, 국어교육학회, 2010, 305-334쪽.

박영기, 「일제강점기 아동문예지 별나라】 연구-송영과 임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143-177쪽.

박태일, 「1930년대 한국 계급주의 소년소설과 소년소설육인집】」,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83-220쪽

박태일, 「나라잃은시대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37호,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손증상, 「박세영의 아동극 연구 : 별나라】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13-48쪽.

신현득, 「신소년】、별나라】 회고」, 아동문학평론】 31-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 189-200쪽.

원종찬, 「1920년대 별나라】의 위상 : 남북한 주류의 아동문학사 인식 비판」, 한국아동문학연구】 2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65-104쪽.

,「별나라」 소재 문예물 연구 : 1930년대 아동문예물의 이면과 문학적 전략」, 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9-256쪽.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정진헌,「1920년대 별나라」 동요 연구 : 주요 문인 활동과 작품 현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7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105-141쪽.
조성운,「박승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집, 광복기념관 한국광복항쟁사연구소, 2001, 315-338쪽.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018.
항은 글이 되고 물은 시가 되고」, 경기문화재단, 2006.
해방 전의 조선 아동문학」, 아동도서출판사, 1956.

운파 안준식 작품 죽보기

1. 권두

「씨를 뿌리자」, 별나라】, 1927, 4월 호.
「나아갑시다」, 별나라】, 1927, 5월 호.
「첫 돌을 마지하면서」, 별나라】, 1927, 6월 호.
「우리에게는 녀름도 업다」, 별나라】, 1927, 8월 호.
「우리도 일합시다」, 별나라】, 1928, 3월 호.
「별나라 선언」, 별나라】, 1928, 제3권 제5호.
「우리도 나아갑시다」, 별나라】, 1929, 5월 호.
「5주년을 마지하면서」, 별나라】, 1931, 5월 호.
「단 한 곳, 단 한 가지」, 별나라】, 1931, 6월 호.
「1931년을 보내며」, 별나라】, 1931, 12월 호.
「새해와 별나라의 임무」, 별나라】, 1932, 1월 호.
「졸업하는 동무들에게」, 별나라】, 1933, 4.5월 합호.
「녀름」, 별나라】, 1933, 8월 호.
「닭해를 보내며」, 별나라】, 1933, 12월 호.
「1934년을 마즈면서」, 별나라】, 1934, 1월 호.
「'돌상'머리에서 무엇을 먼저 집을가요?」, 별나라】, 1934, 9월 호.
「이 해를 보내면서」, 별나라】, 1934, 12월 호.
「조선 해방과 소년 소녀에게」, 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2. 강좌.훈화.독본

「자치의 정신」, 배일신보】, 1926. 4. 11.
「카필드의 소녀시대」, 별나라】, 1927. 7월 호.
「어머니날」, 별나라】, 1931, 3월 호.
「우리들의 설날 국제소년데」, 별나라】, 1931, 5월 호.
「'쏘비엣트 로서아'의 잇는 농촌 '아이들의 집'」, 별나라】, 1932, 4월 호.
「전선 무산아동 연합대학예회를 열면서-별나라 육주년 기념에 당하야」(1회), 조선일보】, 1932. 5. 28.
「전선 무산아동 연합대학예회를 열면서-별나라 육주년 기념에 당하야」(2회), 조선일보】, 1932. 5. 29.
「연합학예회를 맛치고-여러분께 감사한 말삼을 듸림」, 별나라】, 1932, 7월 호.
「어린이날 준비회에 대한 공개장」, 조선중앙일보】, 1932. 4. 26.
「겨울의 거리」, 별나라】, 1933, 2월 호.
「순이야」, 별나라】, 1933, 8월 호.
「새해」, 별나라】, 1946, 속간 2호.

3. 수필

축 창간 1주년 기념」, 조선일보】, 1921. 5. 23.
「도회에 계신 S씨에게-관악 하에서」, 조선일보】, 1921. 8. 20.

4. 동화

「영장(靈將)」, 별나라】, 1926, 7월 호.
「이상한 돌종소리」, 별나라】, 1926, 제1권 제7호.
「만두 장수」(「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7. 11. 9
「어린 궁수」(「JODK」), 조선신문】, 1929. 5. 10.

「어린 활량」(「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29. 5. 10.
「없는 ×전」(「JODK), 【조선신문】, 1929. 11. 16.
「불상한 복순」(「라듸오 순서」), 【중외일보】, 1930. 1. 18.
「어리석은 길동」(「JODK」), 【조선신문】, 1931. 6. 26
「사자와 원숭이」, 【별나라】, 1932, 2.3월 합호.
「바보 길동(2)」[187], 【별나라】, 1933, 2월 호.
「바보 길동」(4), 【별나라】, 1933, 4.5월 합호.
「이사 가는 다람쥐」(유년동화), 【별나라】, 1933, 12월 호.[188]
「산양개」(1), 【별나라】, 1934, 1월 호.
「산양개」(2), 【별나라】, 1934, 2월 호.
「옥색 '호로병'」, 【별나라】, 1934, 4월 호.
「병아리」, 【별나라】, 1934, 10.11월 합호.

5. 소년소설

「달도 운다」(3), 【별나라】, 1927, 4월 호.
「달도 운다」(4), 【별나라】, 1927, 5월 호.
「달도 운다」(5), 【별나라】, 1927, 6월 호.
「달도 운다」, 【별나라】, 1927, 10월 호.
「우리 어머니는 미첫다」, 【별나라】, 1928, 3월 호.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29, 2월 호.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29, 3월 호.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29, 7월 호.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30, 1월 호.
「광주 나물 장수」, 【별나라】, 1930, 2.3월 합호.
「호떡 선생」(2), 【별나라】, 1930, 6월 호.
「호떡 선생」(3), 【별나라】, 1930, 7월 호.
「호떡 선생」(4), 【별나라】, 1930, 10월 호.
「홋떡 선생」(5), 【별나라】, 1931, 1.2월 합호.
「호떡 선생」(종), 【별나라】, 1931, 5월 호.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1), 【별나라】, 1931, 7.8월 합호.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2), 【별나라】, 1931, 9월 호.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다」(3), 【별나라】, 1931, 10.11월 합호.
「아버지와 딸」, 【별나라】, 1934, 9월 호.
「도라온 아버지」, 【별나라】, 1945, 해방 속간호.

6. 시

초연(初戀)」, 【조선일보】, 1921. 5. 5.

7. 동요

「우지 마라」, 【별나라】, 1927, 10월 호.
「배곱흔 애기」, 【어린이독본】(새벗사 엮음), 회동서관, 1928.
「달」, 【조선중앙일보】, 1934. 11. 14.

---

187) 연재한 동화나 소년소설 경우, 【별나라】 미발굴에 따라 작품 원전을 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문 확인을 거친 연재분은 다 적는 방식을 따랐다.
188)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 1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87-196쪽.

「툭탁」, 뱝조선중앙일보】, 1934. 11. 27.
「닭」, 뱝조선중앙일보】, 1934. 12. 4.

8. 옮김

루블란, 「513」, 「조선일보」, 1921. 9. 15-9.30.
유고, 「억 무정」(1), 뱸별나라】, 1935, 1.2월 합호.

9. 재담

「내가 너본지도」, 뱝조선중앙일보】, 1935. 5. 21.

【기획주제1】

구술생활사로 본 격동기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

- 부산지역 노년층을 중심으로-

류경자(부산대)

차 례

1. 머리말
2. 구술생활사를 통해 본 격동기의 상황과 아동의 삶
3. 격동기, 아동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부산지역의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채록한 구술생활사를 통해 격동기 아동의 삶과, 그 시기 아동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에 대해 살피고자 한 것이다. 구술생활사는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개인의 실제 삶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되짚어낸 일상생활사의 재현물이다. 이러한 구술생활사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일은 아동 연구에 있어 현장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근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발견'된 것[1]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아동에 대한 논의는 연원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문학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동문학 작품과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로 당대 작가들이 지녔던 아동관과 아동문학론의 전개, 그리고 아동문학의 주제 경향, 아동문학 작품의 교육적 활용, 아동문학의 지향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2]

---

1)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51~179쪽.

2)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이재철, 【한국 아동문학 연구】, 개문사, 1983; 김지연, 「아동문학작품의 주제경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정석, 「'어린이'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심명숙, 「한국 근대 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오길주,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영기, 「한국 근대 아동문학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1920년대에서 해방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윤소희,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유주현, 「1930년대 아동문학 연구-이태준, 이주홍, 현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최윤정, 「1920~193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모티프 연구-아동잡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박성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윤리성 연구-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충일, 「1950~19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

그러나 이것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보니, 아동의 실제 삶이나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주관이나 의식에 대한 비평과 논의에 치우친 점이 없지 않다. 아동문학 작가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지향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삶을 형상화하고 아동상(兒童像)을 제시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아동들의 삶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의 삶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 하는 과정에 작가의 의도가 개입됨에 따라 환상성과 계몽성까지도 내포된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 아동의 실제 삶과 아동에 대한 당대의 보편적 인식을 짚어내기란 쉽지 않다.

오늘날은 구술 자료로 역사를 재구하고 교육 현장에도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역사학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학·사회학, 예술,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술사 방법론은 기존의 문헌 중심 연구사적 지평과는 별개의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복잡다단한 문학사를 보다 풍부하고 진실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3] 해준다. 더구나 일반인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구술생활사를 통해 시대적 현상이나 의식을 짚어내는 일은 문헌에서 배제된 소외계층,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공동체 다수를 구성하는 민간의 역사와 인식을 재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구술생활사를 통해 본 격동기의 상황과 아동의 삶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연구자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채록·수집한 구술생활사를 기반으로 한다. 부산지역 경로당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격동기인 일제강점기 막바지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다. 때문에 이들의 삶은 대한민국 격동기 역사의 수레바퀴와 맞물려 있다. 그들은 절대다수의 절대빈곤 시대를 살았던 역사의 산증인들로, 이들의 구술생활사 자료는 민간역사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자료를 제보한 제보자만도 40명이 넘으며, 각 소재에 따른 이야기 편수도 54편에 이른다. 이들 중 7편의 구비설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부산지역 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기이한 일이나 생활사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단 부산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험난한 시기를 살았던 우리네 노년세대 모두가 공유하는 체험과 기억의 역사이며 인식일 것이다.

이 자료 속에는 공동체의 가장 어린 구성원이었던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직접체험도 있지만, 부모세대의 생활상을 통해 감지되는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삶을

문, 2015; 이미정, 「1920~30년대 한국 아동문학에 나타난 아동상 연구-아동-되기 서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주현,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의 서사성 변천과정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우남희, 「어린이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소파 방정환에 대한 다각적 분석」, 【아동과 권리】 3,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101~106쪽; 우남희, 「조선시대 아동의 삶과 소파 방정환의 아동관」, 【생활과학연구】 12,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7, 51~62쪽; 이재철, 「한국 아동문학의 현주소와 미래」, 【한국아동문학연구】 13, 한국아동문학학회, 2007, 5~18쪽; 정선혜,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 【한국아동문학연구】 14,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35~171쪽; 권혁준, 「【아이들보이】의 아동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5~60쪽; 정선혜, 「해방기 소년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아동잡지에 게재된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2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93~134쪽; 신헌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63~84쪽; 신정아, 「한국 아동문학 기점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3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7, 159~187쪽 등.

3) 김성수, 「구술사 방법론과 현대문학 연구의 새 지평」, 【한국근대문학연구】 5, 한국근대문학회, 2004, 307쪽.

아동 삶의 동인이 된 역사적 배경과 생활상을 아울러 봄으로써, 아동문학 작품이 간과하고 있는 보편적 아동 삶의 측면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외부적 폭력과 아동의 삶

(1) 일제강점기 침탈당한 초등교육의 현장

격동기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문제적인 현상을 든다면 일제강점기의 상황일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 일제가 우리민족에게 가했던 만행들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배우고 들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慰安婦) 등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사건들 외에는 그 양상에 대해 그다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아동문학 작품도 많이 창작되었지만 그 양상은 어디까지나 민족내적 문제로, 가난과 연결된 월사금 문제라든가,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아동상을 제시하여 시대 보편적 가난과 계몽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4] 그러다보니 그 시절 초등교육 현장에 실존하던 일제의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폭력적 상황이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는 연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5]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절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에 의지해 그 상황을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일제강점기 부산지역과 경남 거창지역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일제의 집단적 폭력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한참 인자 해방될 그 무렵에, 일본사람들이 전~부 인자 저거 일본사람 만들라꼬, 우리 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이리 인자 성적은 안 보고, 카드 요런 기 있어요. 카드 요런 거로 한 스무나무 개씩(스무 개 남짓씩) 이리 주거덩. 쥐고 있으미, 조선말 하마 카드 그거를 하나씩 뺏어가뿌는 기라. 일본말을 해야지. [필자: 여기 부산 있을 때예?] 예. 그 성지국민학교 다닐 때. 일제 때…. [필자: 어무이, 카드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하여튼 어떤 모양인고 카드를 주더라꼬. 그걸 뺏기몬 성적이 내려가고, 다 받는 사람은 성적이 올라가는 기라. …(중략)… 그래 인자 말 더듬는 것도, '네.' 칼라 카면 '네.' 말이 안 나와가 [더듬는 시늉을 하며] 이러카고, 퍼뜩 말이 안 나와가 그렇는데, 그 때 인자 2학년 때 와가 2학년, 3학년, 4학년 이래 3년으로 조선말 할 일이 없는 기라. 이래 놀다가도 조선말 하면, "조셍!" 카면 표로 줘야 되는 기라. 주면 성적이 떨어지니까네 마, 조선말을 못하는 기라.[6]

위의 인용문은 일제가 조선어말살정책을 위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카드를 배부한 후, 조선

---

4) 대표적인 예로,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방정환의 작품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난이 늘 개입하고 있으며,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아동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아동을 계몽하여 작가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이상이 담겨 있다. 그 외에도 송창일, 마해송, 강소천, 김요섭 등의 작가들도 일제강점기의 아동문학 작품을 내놓고 있으나, 식민지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간접적 묘사에 그치거나, 오히려 환상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소극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 - 김현숙, 「아동문학이 아동에 대한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 - 1920년대 학교 관련 아동서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289~316쪽; 김젬마, 「일제강점기 송창일의 아동문학」,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27~244쪽; 신헌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 1 - 마해송, 강소천, 김요섭의 동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63~84쪽

5) 마해송의 「토끼와 원숭이」는 일본인을 상징하는 원숭이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흰토끼를 구박한다는 우의적 작품인데, 1931년부터 「어린이」지에 3번 연재하고는 중단되었다. - 신헌재, 위의 논문 69쪽

6) 류경자, 【변혁동의 세월 속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 교양, 2018, 176~180쪽 - <일제강점기 성지초등학교의 성적 매기기>

말을 할 때마다 카드를 빼앗고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수로 성적을 매겼다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할머니는 당시 부산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오빠의 밥을 해주기 위해 언니와 함께 고향인 밀양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온 저학년 학생이었다. 언니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할머니는 학교의 이러한 규칙 때문에 극도로 조심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일본말만 하게 되더라고 했다. 일제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라는 미명 아래 아직 민족혼이나 애국 등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못했던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을 빌미로 기만적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할머니는 부산으로 오기 전 고향에서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데, 학교에서 배부하는 카드 때문에 3년 가까이 우리말을 안 쓰다 보니 말더듬는 습관까지 고쳤노라고 했다. 초등학교의 카드 배부 사건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그 정책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된다.

이러한 일제의 만행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러 양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골 학교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 그래가지고 인자 관솔가지를 쪼매 따고 그래갖고 인자, 망태를 갖고 인자 전부 학교로 들어가거덩. 들어가면 인자 조사를 하는 기라. 누가 많이 땄는고 그걸 보는 기라. 머스마들은 많이 따는데, 가시나들은 한 개도 따고, 두 개도 따고 이래가 가면, 전~부 이렇게 또 가미사마('신神'을 뜻하는 일본어) 앞에, 애놈들 가미사마 안 있나? 거서(거기서) 막…. 우리가 학교만 가면은 그 앞에서 조회를 하거덩. 그 앞에서 일본말로 인자 조회를 하는 기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전부 이리 세우는 기라. 그래 섰제. 아이구!~, 말도 몬한다. …(중략)… 그래갖고 또 가마니때기로 갖고 인자 그걸 만드는 기라. 이래 이래. 작대기 두 개 이리 해가지고, 가마니때기로 비(베어, 잘라)갖고, 이래 이래 매갖고, 이러면 인자 둘이 머리 하나씩 거머잡으라 캐. 것다 거름을 내갖고…. 우리 조선사람 논밭을 갖다 뺏들아갖고 애놈들이 인자 것다다 농사를 짓는 기라. 그러면 우리는 거(거기), 거름을 인자 그 논에 내는 기라. 우리 공부 한~내끼도(하나도) 몬했다.[7]

위의 인용문은 경남 거창군에서 겪었던 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까지도 태평양 전쟁의 군수물자 보급 인력으로 삼았던 이야기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보따리를 책상서랍에 넣어두고는 준비해온 망태기와 낫을 들고 모두 산으로 향했다. 그래서 공부 대신 관솔가지를 꺾어오고, 일본인 경작지에 거름을 날랐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일정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선별해 일본의 신격(神格)인 '가미사마' 앞에 세워놓고는 반성하게끔 했다. 관솔을 딴 일은 일제강점기 시골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인 것 같다. 관솔은 송진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로 솔기름의 원료가 되는데, 남해군에서도 관솔 따는 일에 초등학생들이 동원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8] 이 관솔의 기름은 비행기 연료로 쓰였다고 한다.

그 시절 일상생활에서도 고초를 겪었던 구연자 할머니는 일제의 횡포 때문에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며, '일본은 자손대대로 발복(發福)을 못할 것'이라는 저주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할머니의 구술생활사에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통해 제국주의의 횡포와 이에 대한 적의(敵意)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강점기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일제의 폭력적 상황과 그로 인한 보편적 아동의 수난은 아동문학 어디에도 묘사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폭력적 상황은 드러난 것 외에도 여러 형태로 묻혀 있을지 모른다. 따라

---

7) 위의 책, 185~186쪽 - <일제강점기 시골 초등학교의 공부시간>

8) 남해군에서는 관솔에 불을 붙여 흐르는 기름을 단지에 받아 그 기름을 학교에 바쳤다고 한다. - 류경자, 【한국구전설화집】 20(남해군 민담 2), 민속원, 2011, 565~568쪽 - <왜정시대 이야기>

서 구술사의 확대를 통해 격동기 역사의 민간사적 측면을 재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일제의 정신대(挺身隊) 동원과 조혼(早婚)

일제강점기의 후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자 일제는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군수물자 보급의 자원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어린 소녀들을 차출하여 군(軍)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소녀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궁여지책으로 삼았던 일이 바로 조혼이다.

> 양정으로 이사를 와가 사는데, 그래 인자 정신대 표가 나왔어. 16살 묵어가(먹어서)…. 뺄간(빨간) 표 쪼가리가 나왔어. …(중략)… "할매, 와 우노?" "아무것도 아이다. 아이고~ 이 나(나이) 애린(어린) 거로…. 우짜꼬?…." …(중략)… 오인까네 친정에서는 사성을 받아놓고, 그 이튿날 자고나이 봉채封采가 떡~ 안오나….[9]

위의 인용문은 일제의 정신대 동원 때문에 삼촌집에서 숨어 지내던 어린 소녀가 결국은 결혼이라는 출구를 통해 정신대를 피하는 이야기이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일제가 정신대 동원에 박차를 가하느라 길거리에 여자아이만 보이면 무조건 차에 태워 끌고 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여자아이가 있는 집을 물색해 무조건 끌고 갔기에 구연자 할머니는 친척 집으로 피신해 한동안 숨어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일제의 강압적인 정책을 견디다 못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껏해야 그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5살, 16살이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3조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하더라도 15살, 16살이면 아직 아동에 속한다. 지금이야 삶의 질도 높고 영양상태도 좋아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월경(月經)을 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의 첫 월경 평균연령은 중학교 2, 3학년인 15~16세였다. 그러니 영양상태가 극도로 좋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때는 그 연령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보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곧바로 자녀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첫 출산은 보통 19세, 20세를 넘어선다.[10]

그 시기는 초등교육조차도 받지 못한 아동들이 많았는데, 구연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육체적·정신적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새색시는 추석날 친정에 신고 갈 신 때문에 울고, 논두렁에 불을 질러 불 쬔다고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를 입은 채 쫓아다니기도 한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압을 피해 이루어졌던 조혼(早婚)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동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폭력으로 인한 조혼은 아동의 배움에 대한 열망마저도 앗아갔다.

> 이 부산에 폭탄이 저녁마다 날라온다 아입니까? 대동아전쟁 때…. 막 내려오는 기라. 비행기로 인자 우~ 온다 아입니까? 그러인께너 우리 아버지가, 공부시키려다가 아-(아이)까지 다 죽이겠다고 카면서너, 그래가지고 인자 우리 오빠는 쌀집에 하숙을 시키놓고, 그때는 쌀이 귀하이 다른 데 시키면 배 곯는다꼬, 쌀집에 하숙을 시키놓고…. 그래 인자 가자 카이, 우리 언니가 마, "졸업하고 가지. 죽어도 졸업 안 하고는 안 간다." 캤거덩. 안 간다 캐놓으니 할 수 없이 2월달에 졸업한다 아입니까? 2월달에 졸업하고, 우리 언니만 졸업하고…. 우리 언니는 막 안 갈라꼬 막 버둥을 쳤대

9) 류경자, 범일동의 세월 속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 교양, 2018, 158~160쪽 - <일제의 정신대挺身隊 동원과 조혼早婚>

10) 이러한 나이는 필자가 채록을 다니면서 구두로 확인한 바라,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학교 갈 끼라꼬…. …(중략)… “우리 언니는 대동아전쟁 때미(때문에) 신세 조짔다(망쳤다).”[11]

위의 인용문은 태평양전쟁 당시 부산지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전시(戰時)가 되자 자녀들을 부산으로 유학 보내 공부시키던 시골의 부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만 남겨둔 채 딸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간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은 중학교에 가겠다고 버텼으나 부모의 뜻을 당할 수 없었고, 상급학교 진학이 충분히 가능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신대 차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의 꿈을 접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혼은 이 시기 비일비재하고 보편적인 일이었다.[12]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나라 소녀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조혼 또한 그 어느 시대보다 아동의 삶에 육체적·정서적 폭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내적 환경과 아동의 삶

(1) 전쟁이 앗아간 배움의 터전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의 또 한 차례 격동기는 6.25전쟁으로 이어진다. 이 시기의 아동문학에는 전쟁으로 인한 가족 상실과 고아가 된 아동들, 분단의 비극, 전후의 혼란과 궁핍, 반공주의, 자유당 독재 정권과 그 횡포에 맞서는 투사 등이 테마가 되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작품은 일제강점기의 계몽성·환상성은 줄어든 반면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이 공동체의 감성적 결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아동문학에까지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13]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 중에는 아동의 실상과는 무관하게 사회현상과 작가들의 현실인식을 아동문학이라는 장르에 비유적으로 재현해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동문학은 아동들에게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여 보여주며, 현실을 직시하게끔 유도한 면도 없지 않다.

구술생활사를 통해본 전쟁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 삶의 가장 큰 타격이라면, 배움의 장인 학교가 불타 없어지는 바람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하며 학교가 아동 삶의 현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몇몇 개나 존재하고, 또한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의 소실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렵고 험난했던 시절, 그것도 전시(戰時)의 상황에 있어 학교 소실은 한 사람의 일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사건이 되기도 한다.

촌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못했잖아.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조카들을 봐주고, 내가 그하면은 야간학교라도 안 갈 수 있겠나?….’ 그래갖고는 딱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네, …(중략)… 그래갖고는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양장점에 시다(보조)로 들어갔는 기라. 대신동에 있는 양장점에 떡 인자 말을 해갖고 들어가게 됐는데, 잠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때는 밥만 얻

11) 류경자, 【격동의 세월 속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 교양, 2018, 175~176쪽 - <일제강점기 성지초등학교의 성적 매기기>

12) 필자가 남해군 구비문학을 채록하면서 결혼 연령을 비교해 보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결혼했던 할머니들과 해방 후에 결혼한 할머니들의 연령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5살, 16살, 17살을 넘기지 않는 데 비해, 해방 후에는 일반적으로 19살, 20살을 넘겼다.

13) 장수경, 「1950년대 구성되는 기억·아동·문학 - 【새벗】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29~354쪽; 김태호, 「1950년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29쪽; 박금숙, 「1960년대 초 아동문학에 나타난 시대의식」, 【한국아동문학연구】 2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 5~27쪽

어먹고 단춧구멍 같은 거, 월급은 없고…. …(중략)… 저녁에 마치고 탁 들어가몬, 한 10시가 되면 문을, 벨을 눌리도 문을 안 열어줘. …(중략)… 제일 섧어. 여자고, 또 뭐 그럴 때는 길거리에 강패들도 많앴고…. 그것도 옛날 그 시절, 자유당 그때 4.19혁명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인까네(돼서니까) 군데군데 다리 밑에 깡패들이 그거 하고 그러는데…. …(하략)…[14]

위의 인용문은 6.25전쟁 당시 갓 입학한 초등학교가 인민군에 의해 불타자, 배움에 대한 열망을 안고 부산으로 올라온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이다. 어린 소녀는 사촌오빠의 집에서 조카들을 돌봐주면서 야간학교라도 다니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양장점에 보조로 들어간다. 그러나 잠잘 곳이 없어 밤거리를 헤매는 바람에 일하면서 졸다가 양장점에서도 쫓겨난다. 시골에서 가지고 온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하루에 한 끼를 때우며 헤매다가 버스안내양이 되고자 버스회사로 찾아간다. 그러나 나이가 14살밖에 되지 않아 어리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는다. 우여곡절 끝에 버스안내양이 되어 돈벌이를 시작하지만, 남동생들의 뒷바라지와 홀어머니의 결혼 요구에 밀려 배움에 대한 열망을 접고 만다.

노년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력이 형체만을 어렴풋이 알아볼 정도로 심히 좋지 않아 지금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노라고 했다. 할머니는 공부를 해서 자신의 삶을 수기로 썼더라면 수십 권은 썼을 것이라는 말로 끝내 펼치지 못한 배움에 대한 열망을 표했다. 이렇듯 전쟁은 학교를 빼앗아 감으로 인해 한 소녀를 배움의 열망으로 목마르게 했고, 그 열망은 평생을 두고도 해결하지 못할 응어리로 남게 했다.

(2) 전후(戰後)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학교 부족 현상

일제강점기에 이어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집결지였던 부산지역은 밀려든 피난민들로 인해 주거(住居)의 수요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빈터만 있으면 버려지는 판때기나 통조림깡통 등으로 얽어매 집을 올리는 '하코방'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하코방은 부산 빈민층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고, 산기슭은 물론 공동묘지도 가리지 않고 터를 잡는 바람에 공동묘지를 끼고 마을이 조성되기도 했다.

1 이 동네가 전부다 공동묘지라예. [청중: 우리집 뒤 그 하코방 거기 전부다 공동묘지라. 요게도 전부다요.] 여게가 전부 공동묘지였어예. 깎아뿌고 인자 집을 지어서 그렇지. 첨문제 촌에서 인자 여 와가지고는 앞에 여게도 토깨비불이 왔가가 갔다가 했어예. [청중: 도깨비불 그기야 뭐뭐….] 예. 옛날에 여게 있었어예. 바로 집 앞에 전부다 공동묘지라예.[15]

2 이다짝으로 지어가지고, [필자: 이다짝이 뭡니까?] 그걸 뭐, 사과상자 같은 그런 걸로 지어가지고, 우(위)에는 도단을 입혔어. 그걸 걸로(집을) 샀는데, 도단이 삭아가지고 비는 철철 새데. [필자: 방은?….] 방 한 칸. 고거 사 가지고, 부엌은 막아가지고 올리지. 그런데 마, 한날 '쾅!' 하더니 벽이 '펑' 넘어가데. 하하하.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16]

위의 인용문 1은 공동묘지 사이에 하코방을 짓고 살았던 이야기이고, 2는 당시 부산지역에 즐비했던 하코방의 재료와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시기의 주거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14) 류경자, 【범죄동의 세월 속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 교양, 2018, 223~225쪽 - <시골소녀의 부산정착기와 쪽방촌 이야기>
15) 위의 책, 206쪽 - <이기 부산이가?, 피난민과 하코방>
16) 위의 책, 251쪽 - <난전에서 폐백음식까지, 부전시장 할머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하코방으로 대변되는 절대빈곤 상태의 지역민들 삶 속에서 아동들의 삶 역시 험난한 시대상과 맞물려 핍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아픈 아이를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방에 눕혀두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시장에 장사를 나가야 했으며,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며,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에서 나오는 잔반과 부두의 구호물자에서 흘러나온 옥수수가루 등을 모아와 끼니를 에우기도 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공동묘지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늘상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대나무로 대롱을 만들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죄의식 없이 시장에 쌓아놓는 쌀가마니를 찔러 생쌀을 훔쳐 먹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민의 대다수가 절대빈곤의 삶을 공유했던 탓인지 빈곤으로 인한 개별적 자존감 저하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지역민 모두가 당시의 상황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혼란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빈민촌 민가로 파고든 유해업소인 사창가는 아동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소가 되었으며, 아동들의 삶에 여러 양상으로 개입했다. 비록 그것이 그 시기 아동들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술 한 잔 묵고 그래가, 회사 댕기면 돈을 많이 옇어가 안 댕기나? 그런께 인자 안 갈라꼬 막 오면, 300번지 다 아는데…. 오면 막 등때기를 잡아땡기. 와이샤스 다 잡아째고, 난냉구(런닝셔츠)도 잡아째고 마, 들어오라꼬…. …(중략)… “어디서 왔노?” “우리 거(거기) 300번지 있는 데 거 산다.” “야! 너거 똥고동네 거, 300번지 거 있네.”[17]

위의 인용문은 사창가 인근에 살던 주민과 어린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겪었던 이야기이다. 이 마을은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로도 유명한데, 300번지에 사창가가 있었던 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오늘날이야 삶의 터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 들어서기라도 하면 집단행동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지만, 격동기 우리의 현실은 오로지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 주변 환경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으며, 그러한 인식조차도 없었다.

이러한 지역의 아동들은 사창가 거리를 늘상 오가야 했기 때문에 사창가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작태들을 일상에서 접하며 살아야 했다. 그리고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사창가를 낀 열악한 생활환경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마을의 아동들은 그들 삶의 현장으로 인해 학교에서조차 ‘똥고동네’에 산다는 놀림을 당하는 바람에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창가는 2014년 초에야 보상을 마무리 하고 정리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그들 삶의 터전이 갖는 부정적 장소성으로 인해 심적 애로를 겪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동기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속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놀림감이 됨으로써 자존감이 떨어질 경우,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그 질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수준의 정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주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관적 요인들이 객관적 지표들에 의하여 어떻게 표출되며, 이러한 표출이 개인 삶의 중심을 이루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안정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기[18]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베이비붐 시대를 맞게 된다. 특히 피난민들이 몰려든 부산지역은 학교 수 대비 학생 수의 초과 현상을 빚어, 초등학교들에서는 과밀 학급은 물론 오전 오후로 나뉘어 분반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

17) 위의 책, 418쪽 - <범전동의 300번지 사창가>

18) 문선화 외, 「아동의 삶의 질 :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12쪽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뭐, 학생들이 옛날에는 많애 놓인께네, 그때는 한 반에 보통 한 오륙십 명 이리 안 됐을까? 그래 돼가지고 그것도 또 오전, 오후 수업으로 나놔가 했거덩. [필자: 한 학년에 몇 반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십 몇 반까지 있고, 옛날에는 그랬거덩. 그랬는데, 그래 오전, 오후반으로 뭐, 오후반 되면 아-들이 우짜면 마, 시간을 못 맞촤가이, 요새맨치로 시계가 짜다리(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못 맞촤가이 늦게 가는 아-도 있고, 또 미리 가갖고 거(거기) 가서 뛰놀고 있는 아-들고 있고 그랬다 아인교? …(중략)… 아-들이 그때는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일찍 가가 놀다가 기다리는 아-도 있고, 뭐한 아-들은 마, 지각도 하고 뭐, 빼묵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다 아이가. 그래 운동회를 인자, 1, 3, 5하고, 2, 4, 6하고, 이틀로 하고 그랬다꼬.[19]

위의 인용문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한 것이다. 부모들은 모두 생활전선으로 나가고, 시계도 없이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오후 수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등교시간이 제각각이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생 수 대비 학교 부족 현상은 운동회마저도 한꺼번에 치르지 못해 1, 3, 5학년과 2, 4, 6학년으로 나뉘어 이틀 간 치러지는 바람에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중고를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개체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학교는 하나의 사회 체계였으며, 아동은 체계에 맞춰 길러져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학생 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부산지역의 이러한 초등학교 분반 수업은 1990년대 초ㆍ중반까지 이어져왔던 현상이다.

3. 격동기, 아동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1) 절대빈곤 속 가사노동 대체인력으로서의 아동 인식

오늘날은 자녀가 상전(上典)인 세상이다. 한 자녀만을 둔 젊은 부부에게 왜 자녀를 더 낳지 않느냐고 물으면,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부모 두 사람이 자녀 둘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회가 됐으며, 왜 자녀에게는 부모가 담당치도 못할 필요가 요구되어졌는지 모르겠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부모들은 태어날 자녀가 살아가야할 미래에 대해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먹을 것은 각자가 타고 난다고들 말하곤 했다.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던 때도 그렇게 오래된 세월의 일이 아니다. 농경사회였던 시절 아동들은 노동력으로서 크고 작은 노동일에 투여됐고, 산업사회로 와서도 어려운 가정경제를 위해 산업역군으로 나선 부모를 대신해 아동들이 가사노동을 떠맡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형제자매가 부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양육하다시피 한 일은 새삼 놀랍지도 않다. 이러한 아동의 가사노동력 대체는 격동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행해져 온 보편적인 일이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의 절대빈곤 상황에서 많은 여자아동들은 초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했으며,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들어가 아기를 봐주거나, 가정부로 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없는

19) 류경자, 범일동의 세월 속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 교양, 2018, 283~284쪽 - <소풍 도시락 때문에 잃어버린 장사 보따리>

살림살이에 입이라도 덜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었다. 구연자 중 한 할머니는 6.25전쟁 직후 초등학교 진학도 못한 채, 고향의 또래 소녀친구 몇 명과 부산으로 올라온다. 친구들은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동래나 온천장 등의 가정집 가정부로 가고, 할머니는 삼촌집에서 아기 보는 일을 하며 지낸다. 삼촌집이 고무공장을 하고 있던 터라, 아기를 등에 업은 소녀는 틈만 나면 그 일이 하고 싶어 공장을 기웃거렸다고 한다.[20] 이러한 소녀들의 상황은 1980~90년대 학원가를 떠돌았던 도시전설 속에도 등장하는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어린 소녀가 일본인 가정의 아기보기를 하다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마당에 있는 우물에 빠져죽었다는 이야기이다.[21] 떠돌던 도시전설이라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기를 등에 업은 어린 소녀가 우물물을 긷거나,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아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아기와 함께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로, 어린 소녀들의 노동력 투입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이후 근대화의 물결이 밀어닥쳤을 때에도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서민들은 많았고, 아동들의 일상도 별반 나아질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 아닌 부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상황에 놓인 아동의 삶은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는다.

> 1 아-(아이)들은 집에 두고…. 밥은 딸아 큰 기 8살 먹어서 밥을 해 묵데요. 둘째 딸이 3살, 머시마가 인자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든가? 6학년이든가?…. 한번은 밥을 죽밥을, 한번은 콩밥을(안 익어서 콩처럼 여물었다는 말임) 해놓고…. 우리는 참말로 고생 많이 했어예. [청중: 시절로 잘못 타고 나갖고….] 하아(응). 하여튼 시절로 잘 못 타서…. 일본시대서부텅 고생한 기 6.25사변 때까정 고생을 했이인까네 뭐 말할 거 없지예.[22]

> 2 그래가지고 아-(아이)는, 우리 고모는 뭐 낳기만 하지. 아-는 내가 다 키우고…. 아- 업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병원 있지? 송도 복음병원? 고 밑에까지 물을 길러 댕기야 돼. 그때 밤새도록 길어봐야, 물동이로 길어봐야 몇 동이 못 기니까…. 우리 고모가 자기 자식 같으면 그리 안 할 거야.[23]

위의 이야기 1을 들려준 할머니는 하코방도 지을 수도 없어 폐차가 된 미니버스 속에서 다른 가족과 두 세대가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막노동을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들판의 쑥과 나물을 뜯고, 아기를 업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차에서의 생활을 접고 달셋방을 얻어서 나왔는데, 당시 할머니는 포목장사를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아이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장사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 3살짜리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한 아이는 불과 8살밖에 안된 딸이었다. 이 여자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을 것이며, 어른 없이 남겨진 아동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험요소가 따랐을지도 불을 보듯 뻔하다.

2의 이야기는 고아가 되어 강원도 철원에서 고모와 함께 살다가 6.25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을 와 살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전쟁으로 인해 형편이 여의치 않자 고모마저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게 되어 13살 난 어린 조카딸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된다. 낮이면 아

---

20) 위의 책, 88쪽 - <집지킴이 보고 망한 집>
21) 위의 책, 63쪽 - <부산진구 최고의 도시전설 '귀신집'>
22) 위의 책, 276쪽 - <아재비(아저씨) 삼촌 잘 살지 말고 시절 좋아라>
23) 위의 책, 242쪽 - <난전에서 폐백음식까지, 부전시장 할머니>

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하고, 밤이면 먼 곳까지 물지게를 지고 다니며 물을 길어다 나르는 힘에 겨운 중노동을 한다.

이렇듯 절대빈곤의 생활 속에서 아동들은 가사노동의 대체인력이 되어 어른을 대신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아동학대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부모는 아동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급급해 제대로 돌아보고 보살필 여력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뛰는 동안 집안일을 대신할 아동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다보니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여자아동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사노동을 대체하게 되고, 아동의 노동에 대해 몸소 학습해 온 부모세대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국가나 사회단체 역시 아동들을 가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아무런 힘도 장치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모든 책임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었으며, 부모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대다수의 아동들은 어른을 대신해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여자아동에 대한 부수적 존재로서의 인식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다. 특히 여자아이의 초등학교 진학은 더욱 그러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 여자아이의 진학은 한 가정의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빈축을 사기도 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았던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비문학과 민속 조사를 하다 보면, 노년에 한글을 배우러 다니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 배움에 들떠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게 편견의 세월을 살아온 노년세대지만, 그들의 구술생활사를 보면 그 편견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남녀 아동을 대하는 부모세대의 인식과 아동들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험난한 격동기를 살아온 여자아동들 삶의 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자아동들이 어머니나 기성세대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이러한 대체인력으로서의 여자아동은 남자형제의 부속물적 존재가 되기도 한다.

구연자였던 한 할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향인 밀양에서 언니와 함께 부산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니는 언니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의 밥을 해주며 뒷바라지하기 위함이었다.[24]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의 유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유학이었지만, 딸들의 유학은 단지 오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수적으로 따랐던 일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오빠는 하숙을 마련해 부산에 남겨두고, 딸들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즉 아들의 학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였고, 딸들의 학업은 그저 부수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딸들의 고향 회귀가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행해진 일이지만, 그로인해 큰딸은 그렇게도 열망하던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다. 물론 정신대와 맞물린 시대상황이 여자아동들의 삶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간 면도 있지만, 딸들은 심혈을 기울여 공부시킬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부모세대의 인식도 크게 작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자아동에 대한 편견은 가정 내의 작은 일에서도 발견된다.

> 위험하지! 까꾸리다(갈퀴에다), 대에다가 요리 딱 맨들아가지고 딱 끼우면 되거덩. 그쪽에는 철사가…. 여 집에 들어가는 데, 쎄껄(처마) 밑에 거기를 딱 벳기 놔놓고, 딴 나무에다가 짝대기를 달아

24) 위의 책, 174쪽 - <일제강점기 성지초등학교의 성적 매기기>

가지고, 요 철사로 맨들아가 요리 딱 끼우몬 딱 집에 불이 들어오데. 메다(미터기)는 안 돌아가데. 그래가 그걸 아-(아이)들로 인자, 학교 갔다 온 국민학교 딸아 그걸로, 우리 아들은 뭐라 카도 못하고….[25]

위의 인용문은 우리네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시절, 도시민들이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쓴 이야기이다. 공공연하고도 비밀스러웠던 일인이라 이야기 도중 청중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던 이야기이다. 민가에서 불법전기를 끌어다 쓰는 일은 목숨을 담보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 목숨을 담보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동이었다. 그 일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행해졌는데, 행여 딸아이가 잊고 안 해놓았을 때는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느냐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나무랐다고 한다. 어두워지면 못 하는 일이었던지라 해지기 전에 해야 하는데, 직장에 나간 부모를 대신해 집을 지키던 아이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그 일이 목숨을 담보한 위험한 일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며, 걸리면 쌀 한가마니를 벌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중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집에 딸보다 나이가 위인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차마 그 일을 시킬 수 없어 딸아이에게 시켰다는 점이다. 부모에게 있어 딸은 결코 아들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들을 우선시 하고 딸을 부수적 존재로 여기는 의식은 우리의 노년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위의 이야기에는 단지 그것이 격동기의 험난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보다 극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부산지역 노년세대를 중심으로 채록·수집한 구술생활사를 통해 격동기 아동의 삶과, 부모세대의 아동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년층의 구술생활사에 나타난 아동의 삶을 보면, 일제강점기 침탈당한 초등교육 현장이 여실히 드러난다.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카드를 발부해 조선말을 할 때마다 카드를 빼앗는 수법으로 조선어말살정책을 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관솔가지를 따게 하고, 일본인 경작지에 거름을 나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의 학업시간을 빼앗아갔다. 뿐만 아니라 정신대 동원으로 어린 아동들이 조혼(早婚)이라는 시대적 폭압을 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닥친 6.25전쟁은 아동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학교가 불타자 아동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었다. 그뿐 아니라 전후(戰後)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베이비붐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은 아동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 시대 부모세대는 절대빈곤의 상황 속에서 아동을 가사노동의 대체인력으로 인식했다.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부모는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 아동을 제대로 보살필 여력조차 없었고, 국가 또한 아동들을 가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아무런 힘도 장치도 갖고 있지 못했다. 때문에 부모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아동들은 부모를 대신해 노동인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측면의 인식은 여자아동에 대한 부수적 존재로서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 시기만의 특징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대물림된 사고이다.

구술생활사는 민간 삶의 현장을 담은 1차 자료로서, 개인의 삶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바탕

25) 위의 책, 455쪽 - <들키면 쌀 한가마니, 불법으로 끌어다 쓴 전기>

으로 재현되는 서사물이다. 그 속에는 각양각색의 개인 삶과 의식들이 녹아있어 주제나 소재 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활용 또한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참고문헌

, 『격동의 세월 속,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 교양, 2018.

_____, 『한국구전설화집』 20(남해군 민담 2), 민속원, 2011.

권혁준, 「『아이들보이』의 아동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5~60쪽.

김지연, 「아동문학작품의 주제경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문선화 외, 「아동의 삶의 질 :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9~49쪽.

박성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윤리성 연구-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영기, 「한국 근대 아동문학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1920년대에서 해방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신정아, 「한국 아동문학 기점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3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7, 159~187쪽.

심명숙, 「한국 근대 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오길주,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우남희, 「어린이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소파 방정환에 대한 다각적 분석」, 『아동과 권리』 3,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101~106쪽.

_____, 「조선시대 아동의 삶과 소파 방정환의 아동관」, 『생활과학연구』 12,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7, 51~62쪽.

유주현, 「1930년대 아동문학 연구-이태준, 이주홍, 현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윤소희,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미정, 「1920~30년대 한국 아동문학에 나타난 아동상 연구-아동-되기 서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재철, 「한국 아동문학의 현주소와 미래」, 『한국아동문학연구』 13, 한국아동문학학회, 2007, 5~18쪽.

이재철, 『한국 아동문학 연구』, 개문사, 1983.

이정석, 「'어린이'지에 나타난 아동문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주현,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의 서사성 변천과정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충일, 「1950~19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해방 후 아동문학의 지형과 담론』, 청동거울, 2017.

장영미, 『전후 현실과 아동의 세계』, 박이정, 2017.

정선혜,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 『한국아동문학연구』 14,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35~171쪽.

_____, 「해방기 소년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아동잡지에 게재된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2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93~134쪽.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신헌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63~84쪽

최윤정, 「1920~193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모티프 연구-아동잡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 논문, 2012.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H. Rudolph Schaffer, 한국청소년연구원 옮김, 『아동의 삶에 관한 논쟁점과 해답』, 1991.

【기획주제1 토론】

「구술생활사로 본 격동기 아동의 삶과 아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토론문

김국희(경성대)

이 연구는 부산지역의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채록한 구술생활사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시기 아동의 열악한 삶과 그들을 대체 노동인력으로 간주했던 부모 세대의 인식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아동의 실제 생활상에 대한 기록은 문학적 형상화의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면이 크다. 이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의 서두에는 격동기의 구체적 범위(연도), 이 시기의 아동의 삶이 이전 및 이후의 아동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 그리고 부산지역 노년층의 아동 시절의 삶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논문에서는 부산지역 노인들의 제보를 인용하여 격동기 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생활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보자는 연령이 80대로 당시에 아동기였던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격동기의 폭압에 대한 '그 시대 아동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글의 인용문을 보면 "전~부 인자 저거 일본사람 만들라꼬", "우리 언니는 대동아전쟁 때미 신세 조졌다", "하하하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하여튼 시절을 잘못 타서...일본시대부터 고생한 기 6.25사변 때까정 고생을 했어이까네 뭐 말할 거 없지예."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80대인 현재의 시선에서 10대 시절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 즉 아동기의 삶을 인식하는 기준이 현재라는 것이다. 격동기 아동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직접적 내용이나 인용문을 토대로 한 필자의 분석이 더 첨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셋째, 3장 1)의 인용문 ①의 배경은 제보자의 나이(2015년 81세)와 아들의 나이(사건 당시 12세)로 추정컨대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의 일화로 보인다. 60년대 중반은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식민지, 전쟁, 그리고 전후의 격동기와 거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용문 ①의 서술자는 식민지와 6.25전쟁 시기 아동 시절을 보낸 제보자가 부모가 되어 어른의 관점에서 60년대 아동의 노동을 언급하는데 비해, ②의 경우 전쟁 시기 노동하는 아동을 통해 당시 어른들의 아동관을 추정하고 있다. 아동을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넷째, 구술생애담에서는 구연자와 조사자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며, 조사자를 연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김영희,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 민속원, 2013) 이 글의 인용문 모두는 글쓴이가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글쓴이는 조사 당시 구연자의 아동시절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끌어내려고 했는지가 궁금하다.

【기획주제3】

황순원 소년소설과 경계성의 의미고찰

최미선(경상대)

차 례

1. 문제제기: 은폐된 시간의 작품 조명
2. ‘소년소설’의 개념과 황순원의 소년소설
3. 황순원 소년소설의 주제의식
4. 황순원 소년소설의 특질과 경계성의 의미
5. 결론: 남은 말과 과제

1. 서론 : 은폐된 시간의 작품 조명

소설가 황순원이 남긴 문학적 업적은 실로 방대하고 다양하다.[1] 그에 걸맞게 작가 황순원에 대한 연구는 한 눈으로 일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축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황순원 연구에서 아직 미답이나 다름없는 작품과 갈래의 영역이 있다면 ‘소년소설’ 분야이다. 황순원의 소년소설로는 「追憶」과 「卒業日」을 꼽을 수 있다.

황순원 창작활동은 시(詩)로 시작되어 점차 소설로 이행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 과정을 전후(前後)해서 황순원은 소년소설 「追憶」과 「卒業日」을 썼다. 「追憶」은 1931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했고, 「卒業日」은 당시의 대표적인 아동문학매체 『어린이』 1932년 4월호에 실었다.

무엇보다 「卒業日」은 그동안 작품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거의 사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잡지의 망실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될 것인데, 다만 『어린이』 1932년 7월호 노양근이 쓴 반년간평(反年間評)에 「卒業日」 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작품의 제목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황순원의 연보[2]에 의하면 16세(1930)에 처음 동요와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17세에 시 「아들아 무서워 말라」(1931년 9월), 「默想」(1931년 12월)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 소설 「거리의 副詞」를 시작으로 소설 창작을 시작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작가의 연보가 한 번 공식화되면 다음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행처럼 되다보니,[3] 누락되었거

1) 황순원은 단편집 여덟 권(106편)과 일곱 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2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참조,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 양상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8. 등 참조.
2)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456～459쪽 참조.
3) 황순원의 「별」에서 유독 오독으로 인한 연구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웃집의 과수노파가 “쟈 동복 누이가 꼭 죽은 쟈 오마니 닮았디 왜,?”(황순원, 「별」, 『황순원 전집』1, 문학과지성

나 사장된 작품은 거의 도외시 되는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은 소년소설 「卒業日」의 발견으로 작가 황순원 창작활동의 경계 지점에 대해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해야한다는 것, 다음으로 그와 같은 경계지점의 문학활동에서 나타난 주제의식은 작가의 창작활동 전반에서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이다. 시에서 단편소설로, 단편소설에서 장편소설로 창작 장르를 변모해 나가는 이행 과정 전후에 어떠한 질적 변화를 수반하였는지 탐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황순원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학적 성과에 걸맞게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4] 권영민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용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험했고, 소설적 형상화가 가능한 모든 주제를 다루어온 작가'라고 했으며,[5] 유종호는 '겨레의 기억 전수자'로 명명하기도 했다.[6] 김종회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지순한 정신력의 정화"로 설명했다.[7]

황순원 문학 연구 성과는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지만,[8] 소년소설의 영역은 아직도 거의 미답의 영역이나 다름이 없다. 최배은의「황순원의 첫 작품「追憶」연구」[9]는 '소년소설' 논문으로 거의 유일하게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최배은은 황순원은 소년소설 창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김소이는 황순원의 소년소녀 인물이 성인 남녀로 재탄생되고 있는[10]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강정구는 현실 속의 아동을 보기 전에 이미 순수한 표상으로 시각화하고자 한 황순원의 의도, 전략이 선행했음[11]을 말하고 있다. 황순원의 작품이 방대한 만큼 황순원에 대한 논의는 방대하게 축적되었으나, 소년소설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범위는 발표 당시에 '소년소설'로 명명된 작품을 우선으로 한다.「추억」과「졸업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년(아동)의 세계를 다루고 있되, 현재 아동문학 자료로 읽히면서 소년소설의 폭을 넓혀주는 작품들을 포함시킨다.「별」,「소나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작품들은 애초에 '소년소설'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성장기의 소년(소녀)가 주인공이고 소년기에 겪어야할 내용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기에 현재 아동문학 텍스트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논문의 주제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황순원은 처음 단편을 창작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장편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장

사, 1980, 163쪽)하는 데서 '동복(同腹)'은 같은 어머니를 둔 오누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순원 연구의 여러 편 논문에서 '동복'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문 안에서 '이복동생', '의붓 어머니' 등의 어휘가 사용된 것, 그리고 문맥 전체를 고려해 보면 '이복(異腹)'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복(同腹)'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논문이 잘 못된 선행연구를 비판 없이 따르고 있어서 오류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오류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황순원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2008년 현재 소논문이 130여 편, 학위 논문이 260여 편에 달하고 있다. 김소이 위의 논문, 8쪽 참조.

5) 권영민,「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적 미학」,『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148~149쪽)

6) 유종호,「겨레의 기억- 황순원의 일면」,『황순원 전집2』해설, 문학과 지성사, 2005(초판 1980), 256~257쪽.

7) 김종회,「삶과 죽음의 존재양식」,『문학사상』, 1998,3.

8) 일반적으로 황순원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을 전기로, 그 이후의 작품을 후기로 파악하는 전후 구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황순원 문학의 변화 양상을 주제의식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구분법이 최근 늘고 있다. (정수현,「황순원 단편소설의 동심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15쪽 참조)

9) 여기에서 최배은은 황순원의 첫 창작 작품은 1931년 7월『동광』에 발표된「나의 꿈」이 아니라 1931년 4월「동아일보」에 발표된 소년소설「追憶」으로 정정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최배은,「황순원 첫 작품「추억」연구」, 한국어와문화,Vol.12 No.2012, 106쪽.

10) 김소이,「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13쪽.

11) 강정구,「황순원 초기 소설 속의 순수한 아동 표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Vol.33, No.2017

편 소설에는 단편소설의 소년·소녀가 성장해서 재등장하기라도 한 듯, 그들과 성향이 너무나도 흡사한 성인남녀가 중심인물로 등장[12]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황순원이 소설가로 본격 입신하기 이전에 쓴 소년소설에서 인물과 주제는 이후의 단·장편소설에 어떤 유사성이 있으며, 소년소설 창작은 그의 작품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방향은 소년 소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며, 주제 형상화 방법에 대해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초기의 작가의식을 통해서 황순원의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특질을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소년소설이 창작활동 전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며 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황순원은 일체의 잡문을 쓰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오직 소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자기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고집[13]한 작가 중의 작가이다. 그리고 황순원 자신도 '소년'들에 관심이 있음을 표하였는데 "나만큼 이이들 이야기를 쓴 사람은 드물게다. 아이들 것을 쓸 때는 언제나 즐겁다"[14]고 말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년소설에 대해 미시적이며 다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2. '소년소설' 개념과 황순원의 소년소설

1) '소년소설'의 구성과 조건

(1) 소년소설의 개념

소년소설은 동화와 함께 아동산문 문학의 대표적 양식으로, 산문정신에 입각하여 개개의 인물 성격이나 또는 디테일까지 진실을 그려야하는 사실적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아동의 현실 문제를 리얼하게 탐구해 나간다. 동화가 시적이요 싱징적 문학양식이라면 소설은 현실적이요 구체적인 문학양식이다.[15] 동화가 상상의 에스프리를 기본 양식으로 취한다면 소년소설은 리얼리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소설이 동화와는 다른 내용과 양식을 취한다는 설명은 이주홍의 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 소년소설은 예술성은 본질로 보아 그 모든 것에잇서서어른의 小說과 다름이 업다. 즉廣義의 어른小說에 屬하는 것이다. 다만 그 使命을 광범 廣汎다하기 위해서 그 對象에 依해서 質的形態的技術的分化를 必要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區別없이 아동이 理解하고 認識하고 感得할만한 內容으로 兒童이 읽을수 잇는볼수잇는 單純한 體制와 쉬운말로써 구상해논 것임으로 소년소설도 어른소설의 한 種類이다.[16]

소년소설은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소년'을 위하여 쓴 산문문학이다. 문학적

---

12) 김소이,「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66쪽.
13) 황순원 외,『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36쪽.
14) 황순원,「책 끝에」,『황순원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251쪽.
15) 이재철,『兒童文學의 理論』, 형설출판사, 1988,
16) 이주홍,「兒童文學運動一年間(少年小說), 조선일보, 1931, 2.17.
이 논문에서 맞춤법 표기 및 띄어쓰기 등은 발표당시의 형식을 따름을 밝혀둠

기법 에서는 일반 소설의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리얼리즘 정신에 충실한 문학이며, 독자 대상은 성인을 포함한 소년이다.

(2) '소년소설'용어 사용의 문제

'소년소설'이 형성되기 위해 '소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한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시간적 단위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유사한 용어 사용의 폭이 넓다 보니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용어 혼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소년소설', '청소년 소설', '소년소녀소설', '아동소설'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혼선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년', '아동', '청년' 세 어휘가 전통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고 교차사용된 것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발달과 관련된 시기를 나이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것은 용어가 혼효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소년', '아동', '청년'을 구분 짓는 일에 부심하면 할수록 그 경계선에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소년'으로 그 용어를 고정하기로 하는 데 다음에서 살펴보는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우선 '소년'이라는 용어는 문화적으로 장구한 기간 사용된 연원을 가지고 있다.[17] '소년'은 '늙지 않은 사람' 혹은 '나이어린 사람'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근대 변혁기에 강력한 계몽 기획의 작동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상되기도 했다. '늙지 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의 '소년'이 다분히 연령에 의한 지칭이었다면 최남선의 『少年』에서 호명된 '소년'은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18]

'소년'이라는 용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성(性) 표징이었다. '소년'은 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사내아이 ②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사람[19]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집착한 나머지 '소년소설'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우리 언어의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소년'의 통시적 사용례를 살펴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20] 문화역사적으로 근거를 통해서 보면 '소년'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을 대표하기 보는 '늙지 않았다'는 뜻에 치중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1]

또 최근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는 논리가 더해져 '소년'이 '청소년'으로 대

---

17) 신라 경덕왕 4년(745년)에 설치된 '소년감전'(少年監典 景德王改爲釣天省, 後復故, 大舍二人 史二人"『三國史記』, 券三十九, 雜志, 第八 職官,李丙燾 譯註,『삼국사기』下, 을유문화사, 1983, 259면) 등에서도 그 사용을 찾아 볼 수 있고, 1900년 대 후반에 들어서면 최남선의 『少年』과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구축된 계몽담론에서 국난에 즈음해 근대 국가를 책임져 나갈 주체로 호명되었다.

18) 『少年』에서 호명된 '소년'은 '신대한(新大韓)의 용소년(勇少年)', '쾌소년(快少年)'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핵심적인 주체'라는 의미였다. 졸저,『한국 소년소설과 근대 주체 '소년'』, 소명출판,

19)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 국어대사전 참조.

20) '少年寡婦로 發奮해 一代의 女流 事業家로 故 白善行女史一生(…)'『동아일보』, 1933, 5.10. 신문기사, '벽상에 ᄒᆞᆫ 소년부인의 화샹을 ᄂᆡ려보니, 몬지가 가득ᄒᆞ야, 글ᄌᆞ도(…)', 이해조 역,『텰세계』, 雁東書館, 1908. 14쪽 참조, 이같은 사용례를 보면 근대초기까지 소년이라는 말은 중성적인 의미에서 '젊은 사람'의 뜻으로 사용된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1) '소년'에서 강력하게 표상되는 의미 중 하나가 '미성년'일 것이다. 그러나『少年』혹은『어린이』에서 불러낸 '소년'들을 모두 '미성년'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少年』혹은『어린이』의 독자로 상정할 수 있는 보통학교 학생 중에는 '수염난 상투장이'나 '학생 서방님' 혹은 '상투한 점잖은 학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체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소년'이란 말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신종어[22]인 것을 감안해서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교육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고, 대중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식의 용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밝혀둔다.[23]

'소년'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문화사에서 통시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인 것은 분명하다. '늙지 않은 사람' 정도의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다가 근대에 들면서 기성세대와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 존재로 호명된 것이다.

그래서 '소년'은 연령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려는 의지를 갖춘 '신세대 집단'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4]

그렇게 되면 개인적 발달의 격차도 고려해 전체를 포용하면서 '문학'을 담아내는 용어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25]

2) 황순원의 소년소설

황순원은 '소년소설'이라는 표제로 발표한 작품은 현재까지는 「追憶」과 「卒業日」 두 편이다.[26] 황순원이 소년소설을 썼던 시기는 16~18세 때이다. 소년이 쓴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될 수도 있다. 소년소설에 나타난 인물형상화 방법이나 주제의식은 이후 단·장편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소년소설을 제외하더라도 황순원의 초기 단편소설에는 유독 소년 주인공이 자주 등장한다. 초기 단편은 이들 인물들이 어떠한 충격과 시련을 받고, 주체적으로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애쓰며 정신적, 심리적 갈등을 체험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황순원 자신도 '소년'들에 관심이 있음을 표하였는데 "나만큼 이이들 이야기를 쓴 사람은 드물게다. 아이들 것을 쓸 때는 언제나 즐겁다"[27]고 말하기도 했다.

(1) 황순원 소년소설의 서지사항 고찰

(가) 「卒業日」

---

22) '청소년'이라는 말은 1920년대 중반이후부터 신문·잡지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일제의 사회사업 관련 문건 및 법률조항에서 그 사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제의 사회사업상에 있어 훈련되고 개량되어야할 대상으로서 소년과 청년은 청소년으로 자연스럽게 분류되기 시작했다.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9, 24쪽 참조.

23) '소년소설'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아직 하나의 어휘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경우 근대 아동문학 전개형성기에 '소년소설'이라는 표제로 발표된 작품에 대해서도 '청소년 소설'로 명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어 사용에서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

24) 최기숙은 "소년이란 내적 자질과 지적 소양, 문화적 활동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신대한 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생태학」, 『상허학보』16, 2006, 216면.

25) 졸저, 「한국 소년소설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22쪽.

26) 김종회는 "1962년에 이르러 황순원은 그의 장편소설 시대의 만개를 예고하는 『일월』을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고 썼다. 1931년 소년소설 발표 이후 30여 년이 되는 해이다.(김종회,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델」, 새미, 1998, 27쪽)

27) 황순원, 「책 끝에」, 『황순원 전집 2』, 문학과 지성사, 251쪽.

「卒業日」[28] 은 그동안 제목으로만 전해질 뿐 그 작품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없었다. 잡지 망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29] 소년소설 「卒業日」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보는 노양근(盧良根)이 쓴 평론[30] 몇 줄이 전부였다.

노양근은 1932년 7월호 『어린이』에 「어린이 雜誌 半年間에少年小說總評(續)」을 계절평(月評)형식으로 실었다. 이 계절평에는 그해 상반기 동안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8편의 소년소설을 다루면서,= 황순원의 「卒業日」에 대해서도 짧게 비평했다.[31] 노양근(盧良根)의 평론으로 「졸업일」의 작중 인물이 '길순'이라는 '보통학교 졸업생'이라는 것, '어머니와 곤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정도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입수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짧은 정보를 통해 황순원은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追憶」 외 다른 소년소설을 더 남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1932년이라고 하면 황순원이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이전인데다 시 창작에서 소설 창작으로 옮겨가는 경계에 서 있는 시기이다. 이때 소년소설을 쓴 것이다.

시와 소설 사이에 소년소설이 개입되어있었고, 그 사실은 작가 황순원의 창작 인생 전반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년에서 성인으로 혹은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모의 시기를 창작내용의 변화를 통해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더욱이 노양근은 "어느 程度 成功한作品이라고 말하고 십다.'[32]라고 평가했는데서 「졸업일」은 소설가로 변모되는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1976년 어린이진흥회에서 보성사 본을 영인으로 발행한 것을 가장 주된 텍스트로 삼고 있었는데, 보성사 영인본 『어린이』 에서는 「卒業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2015년 소명출판에서 발행된 『미공개 어린이』[33]에 소년소설 「卒業日」이 포함되었다.

「卒業日」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의 짧은 작품이지만, 우선 두 가지 면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에서 소설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의 주제의식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황순원이 만 17세 소년기에 가졌던 작가의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卒業日」의 인물 초점화자는 보통학교(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길순이다. 6학년 담임선생님은 상급학교 진학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공부도 잘하거니와 모든 점에서 모범인 길순은 가정 형편 때문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자신의 학업을 위해 정미소에 다니는 노쇠한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소년이다. 「卒業日」의 길순이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의식과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 「追憶」

---

28) 「卒業日」에 앞서 「追憶」이 먼저 『동아일보』에 발표된다. 하지만 「卒業日」은 학술대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는 자리임을 감안해서 「追憶」 보다 먼저 거론하기로 한다.

29) 잡지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1976년 어린이진흥회에서 보성사 본을 영인으로 발행한 것을 가장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보성사 영인본에는 「卒業日」이 실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1932년 4월호가 누락된 결호 상태였다.

30) 노양근, 「어린이 雜誌 半年間少年小說總評(續)」, 『어린이』, 1932년 7월, 38~42쪽.

31) 1932년 7월호에 실린 노양근의 비평은 「어린이 雜誌 半年間少年小說總評(續)」은 그해 상반기 어린이 잡지에 실린 소년소설 전반에 대한 총평이다. 속(續)은 전편(前篇) 1932년 6월호에 이어서 쓴 글이다.

32) 노양근, 「어린이 雜誌 半年間少年小說總評(續)」, 『어린이』, 1932년 7월, 39쪽.

33) 『미공개 어린이』는 2015년 소명출판에서 총 5권 발간되었다. 그 중 2권이 『어린이』 제10권에 해당되는 1932년 책이고 여기에 제10권 1호부터 7권이 수록되어 있다.

1931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追憶」은 황순원이 가장 먼저 쓴 산문 작품이다.[34] 황순원의 나이 16세 때이다. 첫 단편 소설 「거리의 부사」(1937년7월)보다 무려 6여전에 『동아일보』 에 발표했다.

「追憶」은 1931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학예면(4면)에 3회에 걸쳐 연재되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비중 있는 위치에 '소년소설'이라는 갈래 명으로 실린다. 제목 왼쪽에는 작가 이름이 있고 연재 횟수 또한 밝혀 놓았다. 소설의 전체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정도의 분량이고, 연재 마지막 회인 4월 9일자 원고 끝에는 1930년 4월에 썼다는 표시도 해두었다.

「추억」은 당년(當年) 16세 영일이가 중심 인물인 액자형 소설이다. 영일은 현재 평양시내 ×× 종교중학교에 재학 중으로 금년 9월에 전학으로 입학하게 된 외로운 소년이다. "공부도 잘하고 또 조행(操行)도 좋은 것 같아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전학을 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없거니와 온순한 성품 때문에 스스로 친구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외로운 소년의 심리를 달래주는 것은 한 장의 여자 사진이다. 영일이 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움을 견뎌내는 이유도 사진 속의 인물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게 된다.

영일이가 ×× 종교중학교에서 급우들과 겪게 되는 오해가 이 글의 외화(外話)에 해당된다면, 불구덩이가 된 화재 현장에서 3세의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식모 경숙이의 희생은 이 소설의 내화(內話)가 된다.

무엇보다 황순원이 '소년소설'을 집필하였던 시기는 그의 인생 전체로 두고 볼 때도 16~7세일 때다. 21세에 양정길과 결혼한 작가의 인생 전체를 볼 때도 소년소설을 집필했던 때는 소년기인 것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통과의례의 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던 때로 볼 수 있다.

황순원의 소설은 성인입문의 의례와 관련된 연구가 유독 많다. 통과제의 혹은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 연구로 명명되면서 성인의 단계로 들어서는 단계와 과정이 소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작가로서의 삶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 이런 점과 연관지어 황순원 소년소설의 특질 및 의의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3. 황순원 소년소설의 주제의식

1) 모성애적 보호본능

소년소설 「추억」에서 모성애는 거의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러있다. 「추억」의 화자는 당년(當年) 16세 영일이다. 현재 평양시내 ×× 종교중학교에 재학 중으로 금년 9월에 전학으로 입학하게 된 외로운 소년이다. "공부도 잘하고 또 조행(操行)도 좋은 것 같아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전학으로 온 뒤라 친구들도 없거니와 온순한 자신의 성품 때문에 스스로 친구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외로운 소년의 심리를 달래주는 것은 한 장의 여자 사진이다. 영일이 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움을 견뎌내는 이유도 사진 속의 인물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진으로

34) 「추억」은 1931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연재되는데, 마지막 회 원고 끝에 1930년 4월 1일에 쓴 것으로 부기되어 있다.

인해 오해가 생기게 된다.

품속에 간직하였다가 사진을 가끔 꺼내보면서 '전학 소년의 외로움'을 달래는 영일의 모습을 불순하게 여긴 동급생 친구들의 장난으로 영일은 선생님 앞에 불려가서 엄중한 훈계를 듣는다. 곧 영일이가 재학 중인 종교 중학교는 학칙이 엄격하여서 여자의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군도 다ㅣ아는 바가 아닌가? 우리학교는 규측(規則)이 엄격한학교이 니만치 녀자의 사진같은것을 가지고 다니면안되는것이 아닌 가? 응?"[35]

선생님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눈물로만 항변할 뿐인 영일이는 집으로 돌아와 그 답답한 마음을 글로 쓴다. 그리고 이튿날 육십이 훨씬 넘은 교장선생님은 아침 조회에서 강설(講說) 대신으로 뭔가를 읽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영일이 눈물로 쓴 내용이 무엇이며, 그 글의 도착지점이 어디인지가 드러난다. 교장선생님의 강설은 이 소설의 내화(內話)에 해당된다.

> 모든사람들은 단꿈을 꾸며 몸곤히잠잘 때 이무서운 불결이 타올으는집 二層 창문을 열고 한녀자가 음성노펴 구원을 청하엿습니다. 그 녀 자는 전경숙이라는 녀 자인대 그집食母로 잇든 녀 자입니다.(...중략...) 경숙이는 안으로 들어가자요를 가져다가 아래로 나려보냇습니다. 그 아래잇든 사람들은 이미경숙이가 아이를나려 보낼려고하는 줄을 알고요의 네귀를 쥐고 창밑으로 가까히 왓습니다. 그때 경숙이는 또방으로 들어 가드니 삼세된 산아이를 끼고나왓습니다. 그는 알에모인 사람들보고 암사자와같이 힘잇게.
> "받아주시요!"하고 부르짖은후 끼고나왓든 삼세된산아이를 내던졋습니다.
> (...생략...) [36]

화마에 휩싸인 집은 예상대로 화자 영일이의 집이다. 소방대가 달려왔지만, 석유상점 기름에 붙은 불이라 진화작업도 소용이 없었고, 불길은 점점 타올랐다. 불길에 쌓여있는 집 이층에는 5세 여아와 3세 남아가 자고 있다. 경숙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기에 급급해 한다. 이층 창 아래로 요(이불)을 던져놓고 삼 세된 사내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진다. 그리고 다시 5세 여아도 던지지만, 여자아이는 크게 부상을 당한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화재로 인하여 경숙은 희생되고, 영일이의 친누이와 부친도 화마에서 얻은 부상으로 세상을 떠난다. 3세 남아였던 영일이만 생존한다. 고아가 된 영일이는 숙부집으로 옮기게 되고, 지금 중학생으로 성장한 영일은 자기를 구하느라 목숨을 잃은 생명의 은인 경숙을 사진을 얻게 되어 '깃븐때와 슬픔의 벗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추억」에서 식모 경숙이가 보여준 희생은 모성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구덩이 속에서 주인집의 두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숙은 끝내 화마에 희생되고 만다. 엄마의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불길 주변에서 사람들이 외투를 깔고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경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집의 두 아이들을 먼저 창밖으로 내보낸다. 어머니라야 할 수 있는 정도의 희생이다.

---

35) 황순원, 「추억」, 『동아일보』, 1931.04.07., 4면.
36) 황순원, 위의 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목숨까지 내어준 경숙의 숭고한 희생은 예수그리스도의 희생과 다르지 않았고, 종교중학교 교장선생님을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했다. 영일이에게 쏟아졌던 급우들과 담임의 의심은 말끔하게 해소되었고, 그 뿐 아니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여자 사진 소지 허용'이라는 예외적인 학칙 허락도 얻는다.

2) 가난과 결핍에 대응하는 결기

「卒業日」은 길순의 극심한 가난과 결핍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1930년 대 가난의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가 감당해 내야할 숙명과 같은 고통의 문제였을 텐데, 당장에 그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은「卒業日」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보통 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열여섯 살 '길순'의 고민과 갈등의 주 요인은 가난이다. 어머니가 정미소에 다니는 것으로 어렵사리 소학교 졸업을 맞게 되었지만, 학업의 기간은 결코 순탄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길순의 현실적인 고민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다.

> 「어쩌케 하면 남가치 잘살어 어머니를 평안케 하나? 소학교를 졸업한 다음엔 무엇을 할싸? 물론웃학교엔느 돈문제로 못가겟고」- 하는 「삶」의 걱정을 적지 안케 아니 늙은이한테 지지안케 하여왓다.[37]

길순이가 겪는 가난의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박아지 미테 남어잇든 좁쌀 한줌을 모다 글거서 가마(솟)에 너헛다'는 것이나 '어제 저녁에 한단 사다가 째고 남은 솔가지를 아궁에 너코 불을 부쳣다'는 데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길순이의 이러한 인식은 그리 길지 않은 소설 안에서 담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의식이 점점 강건하여지면서 보다 투쟁적인 결기마저도 보여줄 정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공부도 잘하거니와 모든 점에서 모범인 길순이가 당연히 중학교에 진학해야 될 것"말하는 6학년 담임 선생님 앞에서 노쇠한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소심함을 보여주는 소년이다. 그러나 길순의 현실 인식은 그의 독백에서 소년은 점점 굳건한 의지로 나타난다.

> "지금 늙은 어머니는 굶어잇다 로동(勞動)이라는 물건이 뼈사히의 기름을쌔아 섯다. 아직도 쌔앗는다. 아프로도 쌔앗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구가 보호하여야 할싸? 자긔(길순)가 할 일이 아닌가?"[38]

길순은 어머니의 노동의 강도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계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길순의 독백에 의하면 노동 때문에 어머니가 노쇠해 가는 것은 분명 누군가 어머니의 노동을 착취하는 세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어머니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자신이 그 것을 맡아야 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있는데서 가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개

---

37) 황순원,「卒業日」,『미공개 어린이 2』, 소명출판, 2015, 293~295쪽.『어린이』, 1932년 4월, 57~59쪽.

38) 황순원, 위의 책, 59쪽.

인이 극복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문제의 해결 주체가 어디여야 하는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계급의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도 보인다.[39] 그러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분명해진다.

> 그러나 지금은 먹을것이업고 불쌜나무가 업스니 엇저나? 오날도 굶고 래일도 모래도 주림! 주림 그러면 우리는 죽는날까지 주려야 하나?
> 길순이의 주먹은 바사질 듯이 단단히쥐여젓고 두눈은 점점 붉게 타올랏다
> 『아니다 우리라고 굶어 죽으라는법이잇나 길순이는 힘차게 부르짓자 무슨 결심이나 한 듯이 벌덕 니러낫다.[40]

길순은 '주먹을 단단히 쥐고, 두 눈을 붉혀가면서' 분연한 결기를 보인다. 현재의 가난과 결핍 상황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소년다운 결기를 보이며 분연히 일어나는 자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길순이와 달리 길순의 모친이 가난에 대해 인식하는 지점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박아지 미테 남어잇든 좁쌀 한줌을 모다 글거서 가마(솟)에 너헛다'는 정도의 극빈이지만, 내일 졸업식에 입을 양복을 한 벌 사주려고 점심시간에 감독을 찾아가는 길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졸업식을 마치고 '회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송별식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은 합치되어 의식의 합일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 송별식에 회비 일원식을 내고 드러가든 선생, 학부형, 졸업생을 교문밧게 서서 바라보는 자긔네의 신세를 한참만에 길순이의 빗나는 눈과 길순이 어머니의 눈물고힌눈동자가 약속이나한 듯이 마조첫다.[41]

소학교 졸업을 맞는 길순은 수줍고 소심한 성격에서 벗어나 소년다운 강건함을 보여준다. 짧은 소설이지만 전체를 통해 보면 길순의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의식의 성장을 간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길순이 말한 독백체의 담화를 통해 황순원의 소년소설 인물은 개인의 가난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데서 인물의 현실인식을 논할 수 있고, 리얼리즘의 획득을 읽어 낼 수 있다.

3) 죽음, 현실에 대한 각성

황순원의 초기 작품에서 화자(주인공)은 주변 인물의 죽음을 겪으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42] 「별」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식

---

39) 이러한 계급인식에 대한 경향은 1930년대 아동문단에서 매우 두드러졌다. 1930년대 들면 『新少年』의 서사작품에서도 계급의식이 강조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는 문단 전체에서 KAPF의 활동이 뜨거워지면서 아동문학에도 계급의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영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졸저, 「『신소년』의 서사 특성과 작가의 경향 분석」, 한국아동문학연구, Vol.27, No. 2014, 193쪽.

40) 황순원, 앞의 책, 59쪽.

41) 황순원, 앞의 책, 59쪽.

42) 제 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황순원의 작품은 모두 7편이며, 7편 모두 죽음이 중요한 제재로 드러나 있다. 임유미,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3쪽.

변모 과정을 겪는 주인공 아이의 고독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다.

「별」에는 죽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죽음과 동복(同腹)누이의 죽음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세상에 부재하는 어머니에 대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지키게 만들게 한다면, 누이의 죽음은 '죽음'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별」에서 '아이'는 일찍 어머니를 여윈 소년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소년의 의식이 깨기 전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런 어머니를 별로 기억하고자 하고자 한다.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하늘이 별나게 맑은 첫가을 밤에 "땅위의 이슬같이 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밤엔 그 어느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43]을 하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기도 한다. 아이는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별로 환치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승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고, 그 어머니가 하늘의 별로 현상되는 소년의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누이의 죽음에 직면한 아이의 감정은 사뭇 다르게 표현된다.

>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 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을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키우는 곳을 손으로 팠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힘껏 파댔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골목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매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채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나처럼 우리 뉠 왜 쥑엔! 왜 쥑엔!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뛸수록 아이의, 왜 쥑엔! 왜 쥑엔!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갔다.[44]

누이의 부고가 도착한 날은 별나게 놀이 빨간 늦저녁 때였다. 누이의 부고를 받고 아이는 슬픔보다 어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지난날 누이가 만들어준 인형을 묻었던 곳을 손가락으로 파대고, 당나귀의 잔등에 올라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하지만,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현실임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 곧 별로 환치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거로 착각하면서, 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삐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돋아났다가 눈물 괸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

43) 황순원, 「별」, 『황순원 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80, 163쪽, 170쪽.
44) 황순원, 위의 책, 173쪽.

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속의 별을 내몰았다.[45]

소설 「별」에서 '죽음'이 아이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면이다. 아이는 누이의 부음을 듣고도 슬프지도 않은 자신을 발견하면서 누이의 죽음을 어머니의 죽음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죽음을 곧 현실로 받아들이는 한 장면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무의식 세계에서의 죽음이었다면, 인형의 죽음(소멸)은 상징적인 죽음이며 누이의 죽음은 소년이 현실에서 감당해야할 실제의 죽음인 것이다.[46]

무의식 세계에서 겪은 어머니의 죽음은 어머니를 '별'로 형상화할 수 있었으나 의식의 세계에서 겪는 누이의 죽음에서는 누이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다. 죽은 누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누이의 외모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죽음이 보편적인 것을 알게 된 소년의 의식 변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누이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혹독하다할 만큼 냉정하다.[47] 미추(美醜)의 발견 또한 성장의식 변화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48] 아이는 죽음의 의미를 알기에 앞서 아이는 미추(美醜)의 발견을 선험(先驗)하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도 한다.

아이에게 죽은 어머니의 존재는 별처럼 멀고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만 기억되고 있다. 죽은 어머니와의 비교 때문 소녀의 접근도 거부하였던 소년은 죽음을 더 이상 미화하지 않게 되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일반적인 죽음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죽음이 곧 별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소년의 의식 변모과정을 소설 「별」에서 보여주었다.

4. 황순원 소년소설의 특질과 경계성의 의미

1) 서사 주제의 토대 마련

황순원은 그의 소설에서 모성, 사랑, 순수 등의 휴머니즘적 주제를 구현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성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천착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

그의 장편 소설에는 단편소설의 소년·소녀가 성장해서 재등장하기라도 한 듯, 그들과 성향이 너무나도 흡사한 성인남녀가 중심인물로 등장[49]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 것처럼, 소년소설 「追憶」에서 보여준 '모성지향성'은 이후 그의 많은 작품에서 빈번하게 찾아 볼 수 있다.

---

45) 황순원, 위의 책, 173쪽.
46) 최경애, 「'성장'을 위한 문학 교육 모형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8쪽 참조.
47) '아이'는 누이의 외모 때문에 자신이나 죽은 어머니와는 다른 존재로 여기고자 하나, 이들은 분명 동복(同腹)의 오누이다. 작가도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쟈 동복누이가 꼭 죽은 쟈 오마니 닮았디"(황순원, 「별」, 『황순원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0, 163쪽)라는 이웃의 과수 노파의 담화를 소설의 도입부에서 내세워 강조하고 있다.
48) 남미영, 「「韓國 現代 成長小說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2, 18쪽 참조.
49) 김소이, 「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66쪽.

소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거의 유사한 인물로 형상화 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주제로 구현되는 예는 「追憶」과 『카인의 後裔』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追憶」에서 경숙의 희생은 『카인의 後裔』 오작녀에서 재생되어 나타난다고 할 만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追憶」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영원성을 가진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은 『카인의 後裔』에서 오작녀가 보여준 헌신적이며 적극적인 모성애와 흡사하다.

『카인의 후예』에서 지주의 아들 박훈은 엘리트 지식인이다. 하지만 천성이 섬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토지개혁을 앞두고 소작인들의 위협에 불안과 위기감을 느낀다. 이때 오작녀는 어머니와 같은 무한정한 보호정신과 원초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여 박 훈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작녀는 훈에게 '모성적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투여하고 있으며 박훈 또한 모친에게서나 느꼈던 아늑하고 평화로웠던 감정을 느끼며 놀라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어릴 적 박훈은 밤뻐꾸기 우는 소리가 무서워 무턱대고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을 때 느꼈던 '아늑함과 자릿한 행복감'을 '어머니 아닌 오작녀에게서 만족'[50]을 누리기도 하며 보안서에서 훈을 부른다는 전갈이 왔을 때도 오작녀는 '자기가 대신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다'[51]고 나선다. 이는 심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들을 돌보려는 어머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박훈이 일곱 여덟 살의 아이일 때 산에서 또래들과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로 번지려 할 때쯤 나물을 캐고 있던 오작녀가 달려와 몸을 굴려서 산불을 끄고, 겁을 집어먹고 있던 훈의 심정을 달래주는 장면은 모성애의 절정을 보여준다.

> (…)일곱인가 여덟살 때의 일이었다. 이른 봄철이었다. 같은 또래의 사내애들과 같이 산막골 넘어가는 언덕에서 불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다.(…중략…) 한번은 퍼진 불이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았다. 발로 비비면 죽은 듯하다가 다시 되살아나곤 했다. 저고리들을 벗어 들고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리어 불티만 날려 놓아 불자리는 넓어져만 갔다. 덜컥 겁들이 났다. 하나 둘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훈 혼자만이 남았다. 자기도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오작녀가 달려왔다. 나무바구니를 팽개치더니 그대로 불 위에 뒹굴기 시작했다. 한 자리를 끄고 나서는 다음 자리로 가 뒹굴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다 껐다. 훈은 그저 놀라운 눈으로 오작녀의 하는 양을 보고만 있었다.[52](…생략…)

박훈이 또래 사내애들과 산막골 넘어 언덕에서 불장난을 하고 놀다가 마른 잔디에 불이 붙어 산불로 번져갈 때 나물을 캐고 있던 오작녀가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그대로 불 위에 뒹굴어서' 불을 다 끄는 장면은 「추억」에서 화마에 휩싸인 불구덩이 이층집에서 주인 아들을 '영일'을 구해내는 '경숙'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만큼 겹쳐진다.

오작녀는 적극적 모성애는 『카인의 후예』 작품 전편에 걸쳐 헌신적으로 나타난다. 오작녀가 투여하는 '모성적 사랑'은 약골이자 소심한 성격인 훈에게 바치는 영혼의 사랑인 것이다.[53]

---

50) 황순원, 『카인의 후예』, 황순원 전집 6, 문학과지성사, 1981, 184쪽.
51) 황순원, 앞의 책, 189쪽.
52) 황순원, 『카인의 後裔』, 문학과 지성사, 1981, 213쪽.

오작녀가 박 훈을 보호하고 감싸주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카인의 후예』전편에서 나타나는데, 김인환은 이에 대해 "원모(原母)로서의 애정"이며 박훈은 "오작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줄 밖에 모르는 겁 많고 순결한 유아"[54]로 해석하기도 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보여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사랑의 순수성, 그리고 모성의 절대성 강조[5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황순원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모성적 헌신은「조그만 섬마을에서」의 진이에게서도 나타난다.[56]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 가난으로 인해 훼손된 아이들의 삶을『움직이는 城』인물에서 내면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소설「졸업일」에서 길순이가 보여준 현실 인식은 이후 단편에서 나타나는 리얼리즘 정신의 기반으로 확장되지 않았을까하는 유추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보았을 때 황순원의 소년소설 인물은 소설 전체에서 원형적 인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년소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찾았으며, 한 작가의 창작 전체를 관통하는 특질로 기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자 했다.

2) 입사 과정의 실현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원래 인류학의 개념인데 '시작하다initiate'에서 연유된 것으로 통과제의(rite de passage)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인류학적 개념이 소설론의 주제나 유형에서도 입사소설 initiation story로 원용되고 있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는 미성숙한 주인공이 성인의 세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갈등들을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다.

이재선은 황순원의 통과제의 소설에 대해 "사춘기의 소년이나 소녀가 죽음이나 성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갈등 그리고 미(美)와 추(醜) 및 자아(自我)와 같은 일련의 충격적인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아울러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성숙되는 가를 다룬 소설"이라고 정의하였다. [57]

황순원 초기단편 소설 중에는 소년 주인공의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다수이고, 이런 내용이 인류학적 통과제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내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8] 소년주인공의 성장이 인류학에서 말하는 '통과제의'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황순원 초기 단편의 주요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황순원이 구현한 통과제의적 스토리는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정을 들추어내어 사회를 순화시켜 주는 이해와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을 그렸고[59]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의 의미

---

53) 장현숙,『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221~222쪽.
54) 金仁煥,「忍苦의 美學」,『카인의 後裔』, 황순원 전집 제 6권, 문학과 지성사, 1981. 362~363쪽.
55) 장현숙, 앞의 책, 313쪽.
56) 장현숙, 위의 책, 221쪽.
57) 이재선,『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518~531참조.
58) 전현주,「황순원 단편고찰-이니시에이션 스토리를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논문, 1984. 김봉숙,「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 연구:「별」,「소나기」,「학」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박명복,「황순원 통과제의적 소설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1999.
59) 이정숙,「지속적 자아와 변모하는 삶: 황순원론」,『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443쪽.

와 인간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소년의 시각으로 꾸준히 찾아내는데 기여했다.

아놀드 반 게넵(A. Van Gennep)은 통과제의의 구조를 '분리(separation)'- '전이(translation)'- '결합(incorporation)' 로 설명했다.[60] 소년인물이 등장하는 황순원의 초기 소설은 이재선(1978)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통과제의 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이다.[61]

황순원의 창작활동 전체는 반 게넵이 제시한 통과제의의 과정과 흡사하게 일치되는 면이 있다. 소년소설 집필은 작가 황순원에게 통과제의적 의례의 시간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즉 황순원이 시에서 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에 소년소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반 게넵(A. Van Gennep) 이 제시한 '분리(separation)'- '전이(translation)'- '결합(incorporation)'과 흡사한 일면을 보여준다.

'분리(separation)'는 입사과정을 거쳐야할 사람이 일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점이다. 황순원은 그의 소년소설 「追憶」을 집필하여 1931년 4월 동아일보에 발표함으로써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한다. 그러면서 곧이어 '전이(translation)'의 과정이 진행된다. 황순원 창작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시를 썼던 시기를 이 때로 볼 수 있다. '전이(translation)'는 입사자가 세속 공간과는 분리된 장소로 떠나기도 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는 시기이다. 「아들아 무서워 말라」, 「默想」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변모해 나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그동안 교제해 온 여성(楊正吉)과 혼인을 함으로 일생의 중요한 지점을 만들기도 한다. 별도의 성스러운 장소로 옮겨지고, 동시에 많은 시험이 가해지는 '전이'의 과정이 황순원의 인생을 통해 이 시기에 충실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결합(incorporation)'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결합'은 분리와 전이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황순원에게 이 시기는 소설가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통과의례를 무사히 마무리한 입사자는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위

---

60) 아놀드 반 게넵(A. Van Gennep) 이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분리(separation): 입사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이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며 집으로부터 벗어나 여행을 떠나거나 별도의 성스러운 장소로 옮겨지게 된다. ②전이(translation): 입사자가 세속 공간과는 분리된 성스러운 공간에 격리된 상태 속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는 많은 시험과 시련이 가해진다. ③ 결합(incorporation): 분리와 전이의 가정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후 통과의례를 마무리하는 입사자는 과거의 미숙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건넵, 정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110-172쪽 참조,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62-63쪽 참조)

61) 소설 「소나기」에서 '소년'은 통과의례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소년'이 개울가에서 윤초시네 증손녀를 보는 장면에서 '분리의례'는 시작된다. 아직 '소년'은 순진무구의 상태였으나 '소녀'가 보여주는 행동 등으로 미미하게나마 의식의 변화를 느낀다. '소년'은 개울물에 비친 '검게 탄' 자신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느껴 몇 번이고 물을 움켜 얼굴을 씻는데, 이런 행동은 '분리의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화의 과정에 해당된다. 무의식적 정화를 거치면서 소년은 과도의례를 준비한다. '과도의례'는 진입의식을 과정을 거쳐 피안으로의 여행이나 이입하는 것을 뜻하는 데, 성인식으로 입사하는 것이다. '소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으로 '소녀'와 함께 가게 된다. 이때는 의사(疑似)혼절상태의 경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소년'은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나 혹은 고삐도 없는 소잔등에 올라탐으로써 의사혼절 상태를 경험한다. 무엇보다 과도의례에서는 통과제의적 죽음을 거쳐야하는데 산에서 소나기를 만난 것은 죽음과 시련에 해당된다. 통과제의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는 과도의례에서 탈출하여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입사자는 과거의 존재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나기」에서 산에서 통과제의적 경험을 하고 돌아온 '소년'은 이전과 다르게 '남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는'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 예전의 그 숫기없는 모습에서 탈피해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나간다. 김봉숙,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 연구: 「별」, 「소나기」, 「학」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27～37쪽 참조.

를 얻은 사회인으로 입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황순원에게 이 시기는 소설가로 변모하여 시에서 소설로 이행하였고, 통과의례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소설가로 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모르데차이 마르커스는 입사의례의 힘과 효과에 대해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잠정적인 것, 미완적인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의 3분화가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잠정적인 이니시에이션은 주인공이 성숙과 이해의 문지방까지는 도달하지만, 명확히 이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인 미완적 이니시에이션은 주인공이 성숙과 이해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확실성을 찾는 고투 속에 머물러 있으며 때로 자아 발견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3유형인 결정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주인공이 확고하게 성숙과 이해에 도달하거나 또는 결정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자아 발견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황순원은 경계의 문턱을 확실히 넘어 확고하게 성숙과 이해에 도달하였고 또 결정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으로 말할 수 있다.

황순원은 1930년부터 동요와 시를 쓰기 시작[62]한 것에서 비롯되어 창작의 변모과정을 시기별로 충실히 보여준 남다른 특징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과제의 적 작가 인생을 보여준 것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단계별 인생의 성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작가의 삶이 무엇으로, 어떻게 일관되느냐 하는 질문에 확실한 해답으로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 남은 말과 과제

오랫동안 글을 써온 작가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작품을 모두 남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소년의 시기는 정말 중요하다. 그 시기가 짧거나 길거나의 물리적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경계의 시기에 사유의 내용은 장차(將次)의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며 소설가의 묻혀 있던 시기와 작품을 발굴해 인생의 틈새를 메움으로 작가의 창작활동 전모를 보는데 기여하게 된다면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작된 글이다.

이 논문에서는 황순원의 소년소설과 초기 단편소설이 그의 작품 세계에서 다른 소설과 어떻게 잇닿아 있는가를 사실을 확인데 많은 노력을 투자 하였다. 이는 한국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의 작가의식이나 미의식의 변천과정을 탐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작업이었다.

황순원이 작품 활동 시작단계에서 보여준 주제의식과 미의식은 그의 대표작으로 일컫는『카인의 후예』등에서 재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묻혀있었던 황순원의 소년소설「卒業日」을 찾아내 학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본다. 작가가 '아이들을 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언제나 즐겁다고 했던 것'과 소년소설을 남긴 것은 아동문학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로 이해되어 논문을 쓰는 동안 보람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황순원의 연구 논문을 기회로 스스로에게 연구자로서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텍스트의 숙독이다.

* 이번 학술대회 토론에서 조언과 지도를 경청하여 졸고를 보완하고 보충해서 알찬 글로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62) 장현숙, 앞의 책, 456쪽.

참고문헌

기본자료

『미공개 어린이』 소명출판 2015, 『어린이』 어린이문화진흥회 영인본 1978,『동아일보』, 『조선일보』, 『황순원 전집』 문학과 지성사 1980, 『황순원 단편선』,문학과 지성사 2004.

논문 및 단행본

강정구,「황순원 초기 소설 속의 순수한 아동 표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한국아동문학학회, Vol.33, No.2017.
권영민,『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김봉숙,「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 연구:「별」,「소나기」,「학」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김부식, 이병도 역주,『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83.
김소이,「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8.
김인환,「忍苦의 美學」,『황순원 전집』6, 문학과지성사, 1980.
김종회,『황순원』, 새미, 1998.
김　현,「안과 밖의 변증법」,『황순원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0.
김현철,「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남미영,「韓國 現代 成長小說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2.
남보라,「황순원 단편 소설 모성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노양근,「어린이 雜誌 反年間少年小說總評(續)」,『어린이』, 1932. 7.
박명복,「황순원 통과제의적 소설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1999.
박미연,「황순원 단편소설의 모성세계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유종호,「겨레의 기억」,『목넘이 마을의 개/곡예사』, 문학과 지성사,1985.
이승복,「황순원『카인의 후예』인물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이재선,『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이재철,『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4.
이정숙,「지속적 자아와 변모하는 삶: 황순원론」,『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443쪽.
이현주, 황순원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술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임유미,「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 양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장현숙,『황순원 소설연구』, 푸른사상, 2005.
전현주,「황순원 단편고찰-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를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논문, 1984.
정수현,「황순원 단편소설의 동심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최경애,「'성장'을 위한 문학교육 모형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8쪽.
최기숙,「'신대한 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생태학」,『상허학보』,16, 2006.
최미선,「한국소년소설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한국 소년소설과 근대주체 '소년'』, 소명출판, 2015.
최배은,「황순원의 첫 작품「추억」연구」. 한국어와 문화, Vol. 12, No. 2012.
최현주,『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柄谷行人,『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A. Van Gennep: 정경수 역:『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기획주제2 토론】

「황순원 소년소설과 경계성의 의미고찰 」에 대한 토론문

김민옥(부산외대)

이 연구는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황순원의 창작활동의 경계 지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소년소설이 황순원의 문학 활동에서 어떠한 주제의식으로 확장되는가를 살핀 것입니다. 그동안 가려 있던 「卒業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점, 단편소설에서 장편소설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소년소설이 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데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연구자는 소년소설의 구성과 조건을 살핀다고 하였는데 실제 발표에서는 소년소설의 개념만을 다루고 있어서, 「卒業日」이 지니고 있는 소년소설로서의 구체적인 특징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소설' 사용의 문제에서 소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담아 낼 수 없는 소년소설의 특징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소년소설의 기본적 구성과 조건은 무엇이며, 「卒業日」에서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2. 황순원 소년소설의 주제의식으로 연구자는 세 가지(「추억」-모성애적 보호본능, 「졸업일」-가난과 결핍에 대응하는 결기, 「별」-죽음, 현실에 대한 각성)를 들고 있는데, 연구자의 분석을 보면 이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황순원 소년소설에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연구자가 파악한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혹시 무엇인지, 그런 요소를 소년소설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2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황순원 소년소설이 단편소설 또는 장편소설로 넘어가는 경계 지점에 놓여 있다면, 서사 주제의 토대 마련이나 입사 과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추억」이라는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졸업일」이나 「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년소설이 경계지점에 놓여 있고 소년소설에서 나타나는 요소가 이후 황순원의 장편에서 확장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면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소년소설에서 이를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순원 소년소설의 특질과 경계성의 의미를 밝히는 부분 중 '입사 과정의 실현' 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지 않고, 황순원의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이 변모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순원 소년소설이 서사 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앞장과 달라서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기획주제3】

산업화 시대의 감수성과 어린이의 (재)발견

김성환(부산대)

별지처리

【기획주제3 토론】

「산업화 시대의 감수성과 어린이의 (재)발견」에 대한 토론문

김옥선(경성대)

별지처리

【기획주제4】

『어린이』에서 '발견'한 방정환
-'검열'의 흔적과 그 실체의 추적-

장정희(서울대)

차 례

1. 들어가며
2. 창간호의 검열 양상
3. '사고' 중심으로 살펴본 『어린이』의 검열 양상
4. 『조선경찰월보』에서 확인한 『어린이』의 검열 양상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대표 아동지인 『어린이』에서 확인되는 일제의 '검열' 흔적을 종합적으로 조사, 그 삭제된 '흔적'의 실체를 추적하는 한편, 검열 당국에 대응해 나갔던 『어린이』지의 텍스트 편집 전략을 대비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 연구에서 아동 문예 잡지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단행본 출간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아동문학은 주로 아동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다종의 아동 잡지[1] 가운데 본 연구는 『어린이』에 주목해 본다. 『어린이』는 우리나라 아동문학과 아동문화를 개화시킨 선구자 방정환이 주재한 잡지로, 일제 강점 기간 동안 1923년 3월에 창간하여 1935년 3월 속간호[2]를 마지막으로 총 122호를 발행했다. 해방 후 보성사에서 1948년 123호로 복간을 시도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제의 '검열' 양상과 그 대응 전략을 다루는 만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고는 햇수로 13년간 발행된 『어린이』는 아동 매체에 가해진 일제의 조직적 검열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연도별 변화를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검열 당국에 의해 침탈된 식민 시기 텍스트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추적·복원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복원은 『개벽』 창간호의 압수 원본이 발굴된 것과 같은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1)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아동지로는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새벗』, 『아이생활』, 『가톨릭소년』 등을 꼽을 수 있다.
2) 지금까지 『어린이』 잡지는 1934년 7월호가 122호 종간호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최근 '미공개 어린이' 잡지 28개 호가 발굴되면서 일제 강점 기간 『어린이』 마지막 호인 122호는 1935년 3월 이정호 발행으로 나온 '속간호'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어린이』는 1934년 6월호 121호 이후, 약 9개월여의 공백 이후 1935년 3월 122호 '속간호'로 이어졌다. 『어린이』 창간 이후 속간호를 낸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동안 『어린이』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소논문에 이르기까지, 아동 잡지 『어린이』 연구는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어[3] '보성사 영인본'(총 102개 호)이 출간된 1976년 이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4] 최근까지도 『어린이』는 한국 아동문학 초창기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자료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미공개 『어린이』' 총 28개 호가 추가 발굴됨으로써 사실상 『어린이』의 전체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이제부터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가 상허 이태준은 방정환 작고 후 『별건곤』 추도호에서, "오오 뚜렷한 그대의 자취 빛남이여. (중략) 이젠 그대에겐 검열난檢閱難의 고통苦痛도 없을 것이로다."[5] 라고 조사를 쓰면서 검열난으로 인한 방정환의 고통을 직접 토로하기도 했다. 일제 시기 잡지의 발행 기획부터 인쇄되어 책이 나오기까지 '검열'은 항존하는 '감시 체계'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에 가해진 '검열' 양상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선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에는 '전문 삭제', '불허가', '압수' 등 검열의 흔적이 일종의 신호로 남아 있다.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검열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OO' '××' 등 복자 처리하는 방식, 내용의 일부-가령 몇 줄 削-를 삭제하는 방식, 원고 자체가 '불허가' 되어 싣지 못한 경우, 삭제된 원고 목록을 '사고(謝告)'에 남기는 방식, '목차'에 제목을 남겨두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일제가 아동 매체에 가한 검열 제도는 곧 식민 치하의 아동을 사상적으로 탄압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검열 권력이 수록 텍스트 문면에 억압 기제로 작동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다시 말해 일제 시기 『어린이』를 비롯한 각 아동 매체는 독립 주체로 성장해 나갈 어린이를 위해 '말할 수 없지만 전해야 하는 것', '문맥 속에 내면화함으로써 '표현'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일제 시기 아동 매체에 가한 일제의 검열 행위와 그에 저항하고 대응했던 아동 매체의 텍스트 전략적 측면의 연구는 앞으로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에 가해진 일제의 '검열' 흔적을 조사하고, 그 주변의 사료를 통해 실체를 추적해 보려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어린이』에는 "此間 71자 삭제" "이하 4백 18자 삭제"[6]와 같은 형태의 검열 기록이 셀 수 없이 포진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어린이』에 남아 있는 '검열' 가운데 특히 <사고> <특별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지가 지향했던 발행 목적을 복원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해 보고자 한다.

---

3) 김상련, 「소파 연구-『어린이』를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논문, 1971.
4) 신상철, 「소파 방정환 연구-『어린이』지를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논문, 1976.
이재철, 「소파와 『어린이』지」,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이정석, 「『어린이』에 나타난 아동문학 양상 연구」, 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5) 이태준, '평안平安할지어다', 《별건곤》6권 8호, 1931. 8. p.3
6) 차상찬, 「정포은과 이율곡-2월중에 탄생하신 두 분 선생 이약이」, 『어린이』 1권 2호, 1929.2. 32~36.

2. 창간호의 검열 양상

『어린이』는 창간호부터 검열란에 시달려야 했다. 창간호 12면 하단 끝에 '사고(謝告)'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어린이」 창간호가 3월 1일에 여러분 어른께 첫인사를 들일 작정으로 미리 광고까지 하였습니다. 마는 세상일이란 마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소위 원고 검렬하는 절차가 어떠케 싸달아운지 여긔저기 왓다 갓다 하는 동안에 어느듯 이십여일이 휙 지내가고 인쇄하는 동안에 또 며칠이 걸리고하야 이제야 비롯오 변변치 못한 면목을 내어 놋습니다.
> 그런 가운대도 내용 긔사중에 짭짭한 귀절은 원고 검렬할 적에 꼭꼭 삭제(削除)를 당하야 마치 꼬리 쌘 쪽저비 모양이 되엇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한 탓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외다. 여러 어른께서는 이왕 지내보신 경험이 게실 터이온즉 저의 사정을 깁히 통촉하시와 만히 용서하시고 내내 두터운 사랑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밑줄 인용자 주)
>
> 「어린이」 편즙실에서[7]

『어린이』는 애초 창간호를 '3월 1일'에 내려고 했다. 이 '3월 1일자'는 방정환 자신에게, 천도교에, 또 당시 조선 전체에 매우 의미 있는 '표상 기호'였다. 바로 3.1 독립운동 거사가 일어났던 날이었던 것이다. '3월 1일'은 무작위로 선택된 날짜가 아니라 곧 방정환의 기획 의도가 반영된 날짜였다. 동경에서 유학중이던 방정환은 『어린이』 창간에 앞서 '경성 조정호 형'에게 편지 형식의 기고글을 『천도교회월보』에 보낸다. 이 글에서 방정환은 "이럿하야 3월 1일에 첫소리를 지르는 『어린이』의 탄생은 분명히 조선소년운동의 기록 위에 의의 잇난 시금일 것임니다."[8] 라고 하여 '3월 1일'이라는 날짜를 '조선소년운동'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원고 검열 절차를 밟느라고 『어린이』는 애초 창간하고자 하는 '3월 1일'을 훌쩍 지난 20여일이나 뒤에 허가를 받게 된다. 창간호 판권란에 보면 발행일이 '3월 20일'로 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린이』의 '제3종 우편물 인가' 날짜가 '3월 일'로 날짜 공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2호부터 '3월 22일'이라고 날짜를 기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 창간호가 '까다로운 검열'을 거쳐 정식 인가를 받기 전에 급히 인쇄를 넘겨 잡지를 발행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원고 검열 절차가 20여일이라면, 당시 '월 2회 발행 체제'를 표방했던 『어린이』 발행 주기보다 길었던 셈이다.

창간호 5면 <톡기의 귀>란에는 각종 어린이 천재 예술가 소식, 유치원 설립 등 어린이 관련 새소식이 실리고 있다. 총 8개의 기사 가운데 <경성부의 어린이공원 계획>

---

7) 사고, 『어린이』 창간호, 1923. 3. 20. 12면.
8) 재 동경 소파, 「소년의 지도에 관하야-잡지 『어린이』 창간에 제하야 경성 조정호 형께」, 『천도교회월보』 150호, 1923. 3. 15. 5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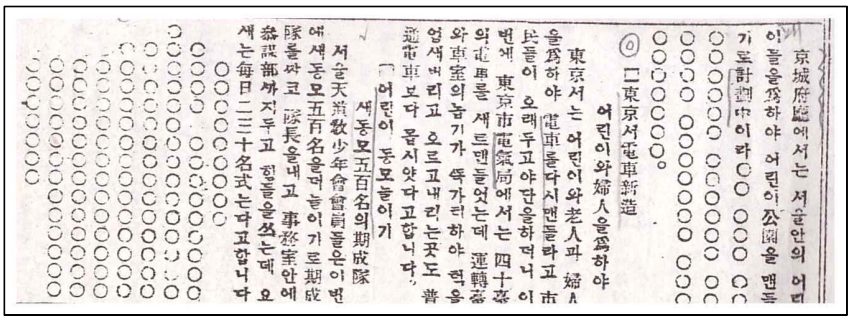
기사가 일부 삭제되고, 기사 1가지는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기사는 전혀 단서를 포착할 수 없다. 다른 기사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독립된 기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일부 삭제된 <경성부어린이공원계획>의 기사를 살펴보자.

京城府어린이公園計劃

京城府廳에서는 서울안의 어린이들을 위하야 어린이公園을 맨들기로 計劃中이라 ○○○○○ ○○ ○○○○○ ○○○○○ ○○○○○○ ○○○○○○○ ○○○ ○○○○○○○.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 이 당시 『동아일보』 1923년 1월 29일자 「京城에 兒童公園, 경성부 사회과에서 계획중」이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구미 각국에도 나라마다 큰 도시에는 아해들만 노는 공원이 잇는대 그 공원은 아해들에게 덕당한 운동긔구와 도서관이 잇슴으로 아해들이 일요일이 되면 만히 와서 놀게 되고" 하는 내용과 함께 끝부분에 "경성부에는 아즉 충분한 예산은 업스나 아동의 심리를 연구하야 개선을 할 터"라고 언급된 것이 있다. 왜 짧은 기사의 뒷부분이 삭제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동공원 설치에 열악한 현실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1938년 11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9] 1938년 당시까지만 해도 '아동공원'이 한 곳도 없었던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京城府廳에서는 서울안의 어린이들을爲하야 어린이公園을 맨들기로計劃中이라○○ ○○○○○ ○○○○○ ○○○○○○○ ○○○○○○○○ ○○○ ○○○○○○○。

◎ 東京서電車新造

어린이와婦人을爲하야

東京서는 어린이와老人과 婦人을爲하야 電車를다시맨들라고 市民들이 오래두고야단을하더니이번에 東京市電氣局에서는 四十臺의電車를 새로맨들었는데 運轉臺와車室의놉기가 똑가티하야 힉을 엄새내리고 오르고내리는곳도 普通電車보다 몹시얏다고합니다。

「어린이」동모들이기

새동모五百名의期成隊

서울天道敎少年會會員들은이번에새동모五百名을더늘이기로期成隊를짜고 隊長을내고 事務室안에 本部를 지두고 회를을 쓰는데 요새는每日二三十名式는다고합니다

『어린이』 창간호(1923.3)에서 검열로 삭제된 장면.

9) 「京城의 公園計劃完成 全部百十一個 公園道路新設 兒童公園 出現이 異彩」, 『동아일보』 1938.11.5. "현재 70만 인구가 거주하는 경성 시내에 공원 시설은 7개소가 잇을 뿐이고, 아동들을 위한 아동공원의 시설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열망은 1923년 어린이날 선언(소년운동 기초조항) 3번째 조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10]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어린이』는 창간호부터 군데군데 내용 삭제를 당한 채 인쇄를 하여, 그야말로 ‘꼬리 뺀 쪽제비’ 모양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3. ‘사고’ 중심으로 살펴본 『어린이』의 검열 양상

그러면 먼저 창간호부터 가해진 『어린이』의 검열 양상을 <사고>의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고 및 특별사고에 남아 있는 삭제 압수 작품 기록]

공지 방식	수록 권호	매체에 나타난 삭제·압수 기록 내용(원문 표기)
사고(社告)	제4권 7호, 통권 42호, 1926.7.30.	19페지로 23페지까지 다섯 페지는 삭제를 당하야 인쇄 못하고 빠젓습니다.
알림	제5권 1호, 통권 47호, 1927.1.1.	(불허가 작품「신나는 깡깡이」-진장섭,「로서아 삐오네르」-일기자)
알림	제6권 2호, 통권 56호, 1928.3.20.	(삭제를 당하야 내지 못하게 되여서) 이성환-졸업하고 유학 못 가는 소년들에게, 동원민-수남이와 닭)
특고	제6권 4호, 통권 58호, 1928.7.20.	(원고 압수를 당하고 다시 또 편즙하야 다시 허가를 맛느라고)
사고(謝告)	제6권 3호, 통권 57호, 1928.5.20.	(어린이날호 특별 편즙이 압수당하고)
알림	제6권 4호, 통권 58호, 1928.7.20.	(미소씨의 아동극「마리의 기계(奇計)」전문 6항 삭제)
알림	제6권 4호, 통권 58호, 1928.7.20.	로서아의 어린이 생활 삭제
알림	제6권 5호, 통권 59호, 1928.9.20.	(이정호씨의 장편미담「남아 한번 맹세한 바에야」초회 전문이 삭제되야)
알림	제6권 5호, 통권 59호, 1928.9.20.	(홍은성씨 동화「병아리의 죽음」-검열 전문 삭제)
알림	제6권 6호, 통권 60호, 1928.10.20.	(삭제 당한 부분 중 「나나니 대신」-이정호, 백여시 소학독본 중 「하다리 고수」-연성흠)
알림	제6권 7호, 통권 61호, 1928.12.20.	(삭제3 편 금년 중 닛저지 안는 일-연성흠, 소년소설「가난과 싸움」-송영, 시작동화「행복의꼿」-김여)

10) 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는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가지면서 소년운동 기초 조항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아래의 각 조 세 가지 조건의 표방을 우리 전 체 어린이에 대하야 천하 형제에 이 사회 중의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라.

-. 어린이를 제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 어린이를 제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알림	제7권 1호, 통권 62호, 1929.1.20.	홍경래 이약이(삭제)
알림	제7권 1호, 통권 62호, 1929.1.20.	(삭제 2편 백두산 자랑-신영철, 정의의 화살-이정호)
알림	제7권 3호, 통권 64호, 1929.3.20.	(이충무공의 한산대전과 양명대첩 전문 삭제)
알림	제7권 3호, 통권 64호, 1929.3.20.	(삭제-어린이독본 「모다 합해서」, 조선 사람의 도량 자랑, 이상 2편 전문 삭제)
알림	제7권 3호, 통권 64호, 1929.3.20.	(전문 삭제-군함의 시조인 철갑선도 조선이 먼저)
알림	제7권 4호, 통권 65호, 1929.5.10.	(삭제 2편 어린이날 일기-최청곡, 눈물의 엽서-이정호)
특고(特告)	제7권 4호, 통권 65호, 1929.5.10.	(8편 원고 전부가 불허가) 사진소설 「이엽초」-몽견초,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정호, 어린이날을 마즈며-방정환, 남이장군 이약이-차상찬, 제비와 개고리-천응규, 독자담화실, 편즙을 맛치고, 어린이독본-방정환
특별사고	제8권 10호, 통권 80호, 1930.12.20.	(어린이 이달치는 임의 신문지상을 통하야 발표된 바와 가티 당국에 제출하엿든 원고 전부가 불허가의 처분을)
사고	제10권 5호, 통권 96호, 1932.5.20.	(독자 동무에게 급고 꼼짝 못할 사정으로 못 실은 원고) 노농아동세계대회 이야기(여효생), 「다 가튼 놈들」(신계몽편,신영철), 라라노래(동요, 주향두), 누나야(소년시, 허문일), 거지희(소년소설, 천종호), 제철공장(동요, 차득록)
(사고)	제10권 9호, 통권 100호 1932.9.20.	(게재 불허가 처분 원고 목록) 금갑과 물건감(경제강좌, 박송), 8월 소년문예평(최응상), 옛날·오늘·미래(이원수), 낫과 낫을 노피 들고(소년시, 이원수), 끌려가는 황소(소년시, 문기열), 흙마-크(소년시, 정흥필), 대장장이 아들(소년시, 양가빈), 흙은부 른다(소년시, 이동우), 문길이와 소(동화,정 순철丁純鐵), 범과 토끼(동극, 최윤수), 모기(수필, 계윤집), 어린 나그내(실화, 백학서), 동무를 위하야(소설, 정순철丁淳哲), 어린 룸펜(소설, 남철인), 보리밥과 밀죽(소설, 노양근), 그 외 동요 10여편

주로 원고 압수를 당하거나 작품이 삭제되었을 경우 <사고>를 내어 사정을 설명하거나 삭제된 글의 작가와 제목을 밝히고 있다. <사고>를 통해 밝히고 있는 삭제 작품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명	작품명	수록 지면
진장섭	신나는 깡깡이	어린이 5권 1호. 1927.11.
일기자	로서아 삐오네르	어린이 5권 1호. 1927.11.
이성환	졸업하고 유학 못 가는 소년들에게	어린이 6권 2호. 1928.7.
동원민	수남이와 닭	어린이 6권 2호. 1928.7.

이정호	(아동극) 마리의 기계(奇計) 전문 6항	어린이 6권 4호. 1928.7.
이정호	(장편미담) 남아 한 번 맹세한 바에야(초회 전문)	어린이 6권 5호. 1928.9.
홍은성	병아리의 죽음(전문삭제)	어린이 6권 5호. 1928.9.
이정호	내 나라 예찬(쿠오레 중)	어린이 6권 6호. 1928.10.
연성흠	한 다리 고수(벡이기 소학독본)	어린이 6권 6호. 1928. 10.
연성흠	금년 중 닛처지지 안는 일	어린이 6권 7호. 1928.12.
송영	가난과 싸홈	어린이 6권 7호. 1928.12.
김한	행복의 꼿	어린이 6권 7호. 1928.12.
·	홍경래 이약이	어린이 7권 1호. 1929.1.
신영철	백두산 자랑	어린이 7권 1호. 1929.1.
이정호	정의의 화살	어린이 7권 1호. 1929.1.
·	이충무공의 한산대첩과 양명대첩(전문삭제)	어린이 7권 3호. 1929.3.
·	(어린이독본) 보다 합해서(전문삭제)	어린이 7권 3호. 1929.3.
이상	조선 사람의 도량 자랑(전문삭제)	어린이 7권 3호. 1929.3.
·	군함의 시조인 철갑선도 조선이 먼저	어린이 7권 3호. 1929.3.
최청곡	어린이날 일기	어린이 7권 4호. 1929.5.
이정호	눈물의 엽서	어린이 7권 4호. 1929.5.
몽견초(방정환)	(사진소설) 이엽초	어린이 7권 4호. 1929.5.
이정호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 7권 4호. 1929.5.
방정환	어린이날을 마즈며	어린이 7권 4호. 1929.5.
차상찬	남이장군 이약이	어린이 7권 4호. 1929.5.
천응규	제비와 개고리	어린이 7권 4호. 1929.5.
방정환	어린이독본	어린이 7권 4호. 1929.5.
이윤재	(사화) 충렬의 6용사	어린이 8권 10호. 1930.12.
최경화	페쓰타롯치 선생	어린이 8권 10호. 1930.12.
김준상	(동화) '크레테'의 미궁	어린이 8권 10호. 1930.12.
허문일	(소설) 천공의 용소년	어린이 8권 10호. 1930.12.
민봉호	(소품) 생일날 아츰	어린이 8권 10호. 1930.12.
김영팔	눈 눈 눈	어린이 8권 10호. 1930.12.
박달성	(훈화) 연말 정리	어린이 8권 10호. 1930.12.
깔깔박사	(소화) 엉터리 장사	어린이 8권 10호. 1930.12.
여효생	노농아동세계대회 이야기	어린이 10권 5호. 1932.5.
신영철	(신계몽편) 다 가튼 놈들	어린이 10권 5호. 1932.5.
주향두	(동요) 라라노래	어린이 10권 5호. 1932.5.
허문일	(소년시) 누나야	어린이 10권 5호. 1932.5.
천종호	(소년소설) 거지희	어린이 10권 5호. 1932.5.
차득록	(동요) 제철공장	어린이 10권 5호. 1932.5.

박송	(경제강좌) 금갑과 물건감	어린이 10권 9호. 1932.9.
이원수	옛날·오늘·미래	어린이 10권 9호. 1932.9.
최응상	8월 소년문예평	어린이 10권 9호. 1932.9.
이원수	(소년시) 낫과 낫을 노피 들고	어린이 10권 9호. 1932.9.
문기열	(소년시) 끌려가는 황소	어린이 10권 9호. 1932.9.
정흥필	(소년시) 흙마-크	어린이 10권 9호. 1932.9.
양가빈	(소년시) 대장장이 아들	어린이 10권 9호. 1932.9.
이동우	흙은 부른다	어린이 10권 9호. 1932.9.
정순철丁純鐵	(동화) 문길이와 소	어린이 10권 9호. 1932.9.
최윤수	(동극) 범과 토끼	어린이 10권 9호. 1932.9.
백학서	(실화) 어린 나그내	어린이 10권 9호. 1932.9.
계윤집	(수필) 모기	어린이 10권 9호. 1932.9.
정순철丁淳哲	(소설) 동무를 위하야	어린이 10권 9호. 1932.9.
남철인	(소설) 어린 룸펜	어린이 10권 9호. 1932.9.
노양근	(소설) 보리밥과 밀죽	어린이 10권 9호. 1932.9.

현재 『어린이』의 <사고> 기록상에 의하면, 처음으로 대형 삭제의 사건을 겪은 일은 4권 7호(1926.7)이다. 가장 많은 편수의 원고가 삭제되어 수난을 겪는 것은 7권 4호(1929.5), 8권 10호(1930.12), 10권 9호(1932.9)의 일이다.

7권 4호에서는 8편의 작품이 삭제 당하고, 8권 10호는 검열 당국에 제출한 '원고 전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아 "편집국과영업국이 총동원으로 밤을 새워 가며 다시 재편즙"[11]을 해서 8권 10호를 다시 내어야 했다. 이때 삭제된 주요 작품은 8편이 지면의 기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10권 9호는 『어린이』가 100호를 맞이하는 뜻깊은 호였음에도 무려 15편에 해당하는 작품이 삭제 당했다.

방정환·이정호·연성흠·홍은성·송 영·최청곡·허문일·최경화·차상찬··박달성·이원수·노양근 등의 작가 작품이 삭제되었다. 허문일의 소설 「천공의 용소년」과 김준상의 동화 「크레테의 미궁」은 연재 작품이었으나, 검열로 인해 미결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12]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검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린이』는 여기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순신'의 내면화 전략을 펼쳤다. 『어린이』는 7권 3호를 '조선자랑호'로 편집했다. 이 가운데서도 이순신과 관련된 「이충무공의 한산대첩과 양명대접」과 「군함의 시조인 철갑선도 조선이 먼저」 2편이 전문 삭제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의 발명 자랑>란에는 도자기, 한글, 활자, 비행기 등에 대

11) 「특별사고」, 『어린이』 8권 10호, 1930.12. 1면.

12) 『어린이』 8권 10호(19230.12) 「편집을 맛치고」에서 이정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금년의 마즈막 달이라고 해서 최선으 힘을 다하야 나든 중 충실하게 편즙을 하엿든 것이 불행히 불허가(不許可)가 되야 원고 전부를 밧구지 안으면 안 되게 되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든 『크레테』의 迷宮과 『天空의 勇少年』은 엇절 수 업시 그 끗을 못보고 중단하게 된 것을 필자에 또는 독자에 사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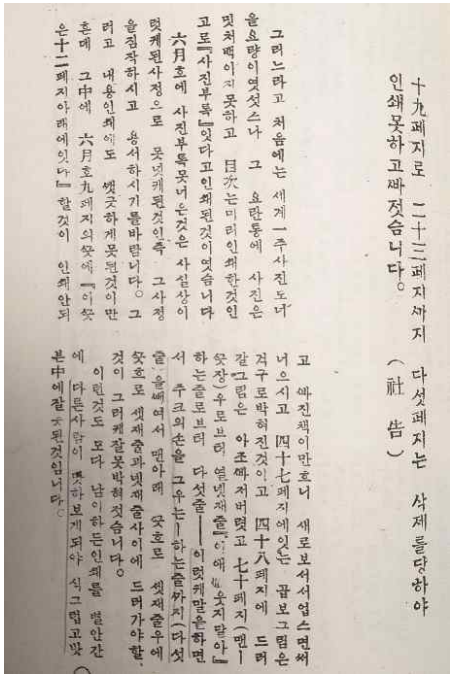
한 내용을 실렸지만, 유독 '철갑선도 조선이 먼저'라는 글이 삭제되었다.[13]

3.1. 첫 대형 검열 삭제: 4권 7호 다섯 페지 삭제

『어린이』는 창간호 때 '사고'(謝告)를 낸 후 3년여 뒤에 '대형' 검열 삭제를 당하는 사건을 겪는다. 물론,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검열 흔적은 『어린이』 곳곳에[14]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린이』 4권 7호는 창간 후 겪은 첫 참혹한 검열 사건이었다

"19페지로 23페싸지 다섯 페지는 삭제를 당하야 인쇄를 못하고 빠젓습니다.(社告)" 라는 큰 인쇄 글씨와 함께, 이 '검열 삭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남겨 놓고 있다.

> 그러느라고 처음에는 세계1주 사진도 너을 요량이엿섯스나 그 요란통에 사진은 밋처 백이지 못하고 目次는 미리 인쇄한 것인고로 <사진 부록> 잇다고 인쇄된 것이엿습니다.


十九페지로 二十三페지싸지 다섯페지는 삭제를당하야
인쇄못하고빠젓습니다。 (社告)

그러느라고 처음에는 세계一주사진도너
을요량이엿섯스나 그 요란통에 사진은
밋처백이지 못하고 目次는미리인쇄한것인
고로『사진부록』잇다고인쇄된것이엿습니다
六月호에 사진부록못너은것은 사실상이
렷케된사정으로 못넛케된것인즉 그사정
을짐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바랍니다。그
러고 내용인쇄에도 쌧긋하게못된것이만
흔데 그中에 六月호九페지의끗에『이끗
은十二페지아래에잇다』할것이 인쇄안되
고 싸진책이만흐니 새로보서서업스면써
너으시고 四十七페지에잇는 곱보그림은
걱구로박혀진것이고 四十八페지에 드러
갈그림은 아조빠저버렷고 七十페지(맨-
끗장)으로브터 열넷재줄『이애 웃지말아』
하는줄로브터 다섯줄—이렷케말은하면
서 주크의손을 그우는—하는줄까지(다섯
줄을빼여서 맨아래 끗호로 셋재줄우에
끗호로 셋재줄과넷재줄사이에 드러가야할
것이 그러케잘못박혀젓습니다。
이런것도 모다 남이하든인쇄를 별안간
에 다른사람이 맛하보게되야 식그럽고맛
본中에잘못된것임니다。

6월호에 사진부록 못 너은 것은 사실상 이렷케 된 사정으로 못 넛케 된 것인즉 그 사정을 짐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내용 인쇄에도 쌧긋하게 못된 것이 만흔데 그 중에 6월호 9페지의 끗에 『이 끗은 20페지 아래에 잇다』 할 것이 인쇄 안 되고 빠진 책이 만흐니 새로 보서서 업스면 써너으시고 47페지에 잇는 곱보 그림은 걱구로 박혀진 것이고48페지에 드러갈 그림은 아조 빠저버렷고 70페지(맨-끗장)으로브터 열넷재줄 『이애 웃지말아』 하는 줄로브터 다섯 줄-이렷케 말은 하면서 주크의 손을 그우는-하는 줄까지(다섯 줄을 빼어서 맨아래 끗흐로 셋재줄 우에 끗흐로 셋재줄과 넷재줄 사이에 드러가야 할 것이 그러케 잘못박혀젓습니다.

이런 것도 모다 남이 하든 인쇄를 별안간에 다른 사람이 맛하보게 되야 식그럽고 밧븐 중에 잘못된 것임니다.[15]

애초 '사진부록' 넣겠다는 목차를 인쇄해 놓고 '사진 부록'을 못 넣게 되었다고 썼다. 그렇다면 '목차'도 검열 후 새로 인쇄했다는 것이 된다.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13) 일제의 검열에도 『어린이』 창간 4주년 기념호인 5권 3호(1927.5)에는 '조선의 자랑' 「이충무공과 귀선(거북선)」 같은 글은 실리기도 했다.

14) 예를 들어, 『어린이』 창간 1주년을 맞이하는 「돌풀이」(1924.3)라는 글에 초창기 시절 검열 때문에 총독부에 조사다니던 일의 일부 내용이 '복자'(○) 처리된 부분이 있다.
"도로 서울로 나와서 서울서 총독부로 허가를 맛추고 ○○○ ○○○○○○○ ○○○○○ 와서야 인쇄를 하엿스니 본사의 일이 엇더케 수구롭고"

15) 『어린이』 4권 7호, 1926.7.30.

않고 그냥 “그 요란통에” “식그럽고 밧븐 중에” “인쇄를 별안간에 다른 사람이 맛하보게 되야”라며 암시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개벽』 1926년 6월호에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문제가 되어 결국 『개벽』이 ‘강제 폐간’이 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

3.2. 삭제된 방정환의 작품 : ‘사진소설’「이엽초」 외

『어린이』 7권 4호(1929.5.)에는 방정환의 사진소설 「이엽초(二葉草)」가 원고 검열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실리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엽초’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엽무학초’(二葉舞鶴草), 일본의 ‘후타바쿠사’(ふたばぐさ)라는 식물종이 나타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엽’, ‘두 개의 잎’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 이 작품이 삭제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쉽다.

방정환의 ‘어린이독본’은 제1과 「한 자 앞서라」부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사’ 이미지를 투영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글을 연속적으로 싣고 있다. <사고>에 나타난 기록만 하더라도 방정환의 ‘어린이독본’은 2회에 걸쳐 삭제되었다. 7권 3호(1929.3)에는 「모다 합해서」라고 제목이 밝혀져 있지만, 7권 4호(1929.5)에는 ‘어린이독본’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런데 7권 3호(1929.3)에 실릴 예정이었다가 ‘전문 삭제’된 방정환의 ‘어린이독본’ 「모다 합해서」가 3개월 뒤 7권 5호(1929.6)에 ‘어린이독본’ 「적은 힘도 합치면」로 실린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왜냐하면 같은 ‘어린이독본’인데다가 ‘합한다’는 주제의 제목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참새 부부가 사는 둥지를 짓밟은 ‘큰 곰 한 마리’를 벌, 딱따구리, 개구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큰 곰을 물리쳐 죽여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잇흘날 아츰에 슯흐게 우는 소리를 듯고 벌이 먼저 차저와서 『왜 이러케 우느냐』고 물엇슴니다. 참새 양주가 눈물을 흘니면서 어적게 당한 이약이를 모다 하고 『힘이 업서서 그 낫븐 놈을 원수 갑지 못하는 것이 슯허서 운다』고 하엿슴니다.
> 『염려마시요. 우리는 모다 몸이 적고 힘이 약하지만 동무들이 잇스닛가 동무들이 서로 도아서 힘을 합치면 곰이 아모리 크드래도 여럿은 당하지 못함니다』 하고 즉시 날러가서 짝짝우리와 개고리를 차저보고 그 이약이를 다 전하엿슴니다.[16]

참새가 지어 놓은 집을 부수고 그 속에 낳아 놓은 알을 짓밟아버린 ‘큰 곰’과 그에 맞서 힘을 합쳐 물리치는 ‘적은 동물’의 비유는 남의 나라와 목숨을 뺏고 짓밟은 일제와 그에 맞서 싸워야 하는 힘 약한 조선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사고>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정환 글에 대한 ‘검열’ 흔적도 적지 않다. 예를

16) 방정환, 「적은 힘도 합치면!」, 『어린이』 7권 5호, 1929. 6. 6~7면.

들어, 방정환은 7권 1호(1929.1) 신년호 특집으로 소년탐정소설 「소년 삼태성」을 1회 연재를 한 뒤 그 이후의 연재는 '불허가'로 연재를 잇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7권 3호(1929.3) 「북극성 선생의 탐정소설」에서야 "경무국으로브터 금지(삭제)를 당하야"[17] 하고 밝혀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어린이』의 전체를 두고 총괄적으로 검열 양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3. 검열 삭제 후 재수록된 작품의 경우

앞서 본고는 방정환의 삭제 작품 '어린이독본' 「모다 합해서」가 7권 5호(1926.5)에 실린 '어린이독본' 「적은 힘도 합치면」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삭제된 글이 '같은 제목'으로 실린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텍스트상에 작동되었던 일제의 검열 논리를 얼마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사고>에 나타난 기록만 보더라도 이정호의 글이 삭제된 건수는 6편에 이른다. 아동극 「마리의 기계」(6권 4호, 1928.7), 장편미담 「남아 한 번 맹세한 바에야」(6권 6호, 1928.9), 「내 나라 예찬(쿠오레)」(6권 6호, 1928.10), 「정의의 화살」(7권 1호, 1929.1), 「어린이날! 어린이날!」(7권 4호, 1929.5), 「눈물의 엽서」(7권 4호, 1929.5) 등이다.

장편미담 「남아 한 번 맹세한 바에야」는 『어린이』 9권 5호(1931.6)에 실리고, 9권 6호(1931.7)에서 '다음 호 게재'를 예고했지만 더 이상 실리지 않게 된다. 그 다음 호는 '방정환 추도호'였다. 연재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검열'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어린이』 잡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7권 1호(1929.1)에서 '삭제' 처분되었던 이정호의 「정의의 화살」이 같은 제목으로 실리게 된다.

검열 당국은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2,3년여 지난 시점이라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전략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애초 일제 당국은 왜 어떤 측면에서 이들 작품을 '삭제'했을까? 반면 『어린이』가 이들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 『바로 우리 폐하가 전쟁에는 대단히 강하고 지혜 잇는 분이라면 그것은 혹시 부합될 말일지 모르나 전쟁에 밋첫다는 말이야 도모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 아닌가? 온 고약한 놈들도 다 잇지... 그것은 자네도 아는 일이겟지만 그 증거가 잇지 안은가 저 「지다니아」 왕국! 요 몃해 전에 저 「스라보니아」에게 망해버린 「지다니아」가 잇지 안은가? 「스라보니아」의 「도-갈」 2세가 불의에 습격을 하야 빼아서간 나라말일세...』
>
> 「마루단」 노인이 말하지 안어도 이 「지다니아」 나라에 대한 일은 「라자라스」 노인도 잘 알고 잇섯다. 그것은 「지다니아」 왕국이란 구라파에 잇서서 하나밧게 업는 지상의 낙원이요 무릉도원으로 그 일홈이 유명하였든만치 흉폭한 「스라보니아」의 무리한 습격으로 인하야 망해바린지 발서 7,8년 전의 일이다.[18]

17) 「북극성 선생의 탐정소설」, 『어린이』 7권 3호, 1929.3. 65면.
18) 이정호, 「남아 한 번 맹세한 바에야」, 『어린이』 9권 6호, 1931.6. 58~59면.

이 글에서 '지다니아'의 멸망은 곧 '조선'의 입장으로 읽힐 수도 있으며, 이 왕국을 습격한 '스라보니아'는 충분히 침략 국가 '일본'으로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1860년 그 무렵의 프랑스 어느 선술집이다. 소년 악사가 바이올린을 켜고, 늙은 병정 '마루단'은 이야기 상대가 되는 '라자라쓰'라는 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들은 '스라보니아'에 망해버린 '지다니아'의 슬픈 역사와 나폴레옹이 '지다니아' 나라에 들러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낙원'의 나라였음을 칭송한 일들에 대해서도 회상한다. 그때 돌연히 술집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나이는 신문지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 내던진다. <지다니아의 양민 학살> 이 소식을 듣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소년 악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한다.

물론 <지다니아의 양민 학살>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호에 예고되었다. "마루단 노인의 입에서 엇더한 말이 흘너저 나올지... 그리고 소년 악사와 신문긔사와 엇더한 관계가 연결되엇스며"[19] 하고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방정환추도호'로 마련되어 미뤄졌다 치더라도 이후의 연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정호의 「정의의 화살」에는 '토나이자'라는 쇠사슬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대장장이 이야기를 다룬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무사히 검열을 거쳐 '방정환 추도호'(9권 7호, 1931.8)부터 실리기 시작하여 10권 3호(1932.3)까지 총 8회가 연재되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완결'되지는 못했다.

그 동안 '미공개 『어린이』'가 발굴되기 이전에는 「정의의 화살」이 2회 정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미공개 『어린이』' 28개 호의 발굴로 「정의의 화살」 연재 상황도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20] 흥미롭게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정호의 「정의의 화살」 연재에서 매우 특이한 장치로 삽입한 <전회의 경개(梗槪)> 내용이 일제히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동일한 내용'은 줄거리가 아니라, 바로 9권 7호(1931.8)에 처음 실렸던 「정의의 화살」 서두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따서 재록한 것이라는 점이다. 7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을 <전회의 경개>로 앞세운 것은 어딘가 이것이 애초 기획된 것이 아닐까 짐작케 한다. 『어린이』 편집의 우연적 실수라고 보기에는 집요한 면까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정의의 화살」이 7권 1호에서 일제의 검열에 의해 '삭제' 처분을 받았던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

19) 이정호, 위의 글, 62면.

20) 이정호의 「정의의 화살」이 연재된 것은 다음과 같다.

9권 7호(1931.8)	1회
9권 8호(1932.9)	2회
9권 9호(1931.10)	3회
9권 10호(1931.11)	4회
9권 11호(송년특집호, 1931.12)	5회
10권 1호(1932.1)	6회
10권 2호(1932.2)	7회
10권 3호(1932.3)	(계속) 미완

전회의 경개- 지금으로부터 쐐 오래된 옛날- 그 때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제각기 싸홈하기를 조와하고 또 싸홈하는 것으로 큰일을 삼은 까닭에 전쟁이 끗칠 날이 업고 전쟁으로 인하야 생기는 참혹한 일이 하로에도 수를 헤일 수 업슬만치 만엇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한 나라 백성들의 불상한 형상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찬가지겟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몃갑절이나 더 참혹하엿습니다. 싸홈의 진 탓으로 쌍덩이를 빼앗기고 온갖 보화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야 익인 나라의 군사가 짓밟혀진 자기 나라를 처들어 와서 아모리 억지의 짓을 하고 아모리 못된 짓을 하여도 한 마듸의 반항도 말고 그저 죽어져야 하는 것이엇습니다. 죄업는 사람이 까닭업시 죽고 화려한 집들이 불뎀이 속에 뛰여들고 피와 땀으로 엉키여진 재물을 까닭업시 빼앗길 때 그들의 분하고 억울함이 얼마나 컷겟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분하고 억울함은 그것 뿐만이 아니엿습니다. 이보다 더 가슴쓰리고 슯흔 일이 잇섯스니 그것은 사나희거나 녀자거나 젊고 튼튼한 사람이면 누구를 물론하고 원수의 나라로 붓들려 가서 억지의 종노릇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려다가 되는대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굵다란 쇠사슬로 발목을 잔뜩 얼거놋코 아츰부터 밤까지 소나 말보다도 더 혹독하게 부려먹엇습니다.

서로 전쟁을 일삼던 때의 참혹한 일을, 특히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의 입장을 비참하게 그리고 있다. “싸홈의 짓 탓으로 쌍덩이를 빼앗기고 온갖 보호를 빼앗기고” “익인 나라의 군사가 짓밟혀진 자기 나라를 처들어 와서 아무리 억지의 짓을 하고 아모리 못된 짓을 하여도 한 마듸의 반항도 말고 그저 죽어져야 하는” 등과 같이 은근히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고통받고 약탈 당하는 조선의 실정을 비유해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회의 경개’는 본문 글씨보다 2배 가량 적게 편집되었다. ‘전회’의 대략적인 요약으로 볼 수 없는 서술 내용이다.

『어린이』가 얼마나 대담한 편집 기획으로 일제의 검열에 대응하고 또 민족적 ‘저항’으로 밀고 나갔는지 이정호의 이 글은 잘 보여 주고 있다. 「정의의 화살」은 10권 3호(1932.3)에 ‘계속’을 예고했지만 더 이상 연재되지 않았다. 이 연재 중단이 ‘검열’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4. 『조선경찰월보』에서 확인한 일부 『어린이』의 검열 실태

『어린이』의 검열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검열 기록을 공시해 놓은 『조선출판경찰월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일제의 검열 기구인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발간한 월보이다.

우선,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이를 『어린이』와 비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 두자. 우선, 검열의 기록 상황이 양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4.1 『어린이』 6권 6호, 7호와 비교

『어린이』 6권 6호(1928.10)의 기록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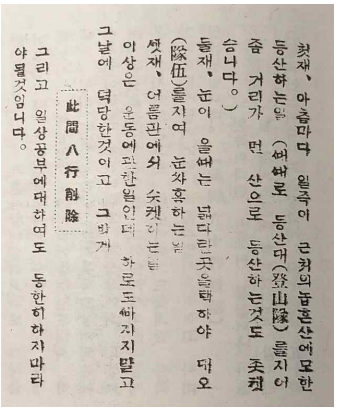
『어린이』6권 6호 (1928.10.20.)	『조선경찰월보』2호 (처분연월일. 1928.10.9.)
손성화 역, 콩눈섭(일본동화집 중에서) “일본소개 전문 삭제”(57쪽)	1. 독자담화실의 ‘관북의 수해의 정황’ 동포애의 절규
이정호 이태리 아미틔쓰 작 쿠오레중 “내 나라 예찬”(59쪽)	2. 일본 본국의 면적 1만 4천 5백 71방리(方里). 영지(領地) 2만 8천 4백 29방리 합계 4만 3천여 방리. 총인구 5천 6백만으로 조선의 약 2배
연성흠 역, 白耳義 소학독본 중「한 다리 고수」(미담)(59쪽)	3. 片足ノ鼓手(백이의 소학독본) 백이의의 수도 부근 수십 명의 척후대와 독일군의 대군대가 격전

『조선경찰월보』의 기록에는 ‘삭제 및 불허가 출판물 목록’이라고 되어 있다. 손성화의 글은 ‘삭제’에 해당되고, 이정호·연성흠의 글은 ‘불허가’에 해당한다. 경찰월보에서 독자담화실의 글 삭제 내용은 ‘동포애의 절규’라고 되어 있다. 『어린이』 6권 6호에는 따로 독자담화실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삭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성흠의 글에 대해서도 벨기에의 수도 부근에서 수십 명의 벨기에 척후대와 독일군 대군대가 격전을 벌이던 중의 이야기라는 것 정도 파악이 되었다.

실물 『어린이』 6권 6호(1928.10.20.)에는 세계아동예술전람회 특집 각국 동화로 ’白耳義‘(벨기에)는 ’마구쓰엘쓰캄프 作‘ 『목장의 아츰』이 수록되어 있다. 결국 아동 매체의 지면에는 일제가 삭제한 「片足ノ鼓手(白耳義小學讀本)」(『어린이』에서는 「한다리 鼓手」로 표현)의 대체 작품으로 『목장의 아츰』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 역시 검열 관련 연구가 대비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경찰월보』 3호에는 『어린이』 6권 7호(1928.12.20.)의 처분 날짜를 ‘11.30’로 되어 있다. 삭제 기사로 ‘少年會’ 1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6권 7호(1928.12)에 보면, 경찰월보의 기록과 달리 『어린이』는 더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성환	「겨울방학에 무엇을 할가!」	차간 8줄 삭제	3쪽
연성흠	「금년 중 닛치지 안는 일」		『어린이』 25쪽 기록
송영	「가난과 싸홈」		『어린이』 25쪽 기록
윤석중	「나그네 ‘색상자」	차간 21행 삭제 차간 37행 삭제	60쪽 66쪽


첫째, 아침마다 일찍이 근처의 높은산에 모한
등산하는일 (새벽로 등산대(登山隊) 를지어
좀 거리가 먼 산으로 등산하는것도 좋켓
습니다。)
둘째, 눈이 올때는 넓다란곳을택하야 대오
(隊伍)를지어 눈싸홈하는일
셋째, 겨울관에서 스케이트하는일
이상은 운동에관한일인데 하로도빠지지말고
그날에 덕당한것이고 그밖에
此間八行削除
그리고 일상공부에대하여도 등한히하지마라야
될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성환의 「겨울방학에 무엇을 할가!」라는 글이 <소년회> 삭제 내용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이 글에서 이성환은 겨울방학에 할 일을 ‘네 가지’ 소개하는 글이다. 요약하면 ‘운동에 관한 일’로 첫째 등산, 둘째 눈싸움, 셋째 스케이트 등을 소개한다. 그 뒤 “그밧게”라고 하여 특별히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데 『어린이』에는 “8줄 삭제”라는 ‘흔적’만 남아 있다.

『조선경찰월보』가 기록해 놓은 ‘소년회’ 삭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소년회
> 아직 소년회가 없는 마을이라면 이번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상의해서 소년회를 만드십시오. 어른이나 소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각각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집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아도 모여서 놀고 배워도 모여서 배운다면, 놀 때라도 저절로 배울 것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소년회를 처음으로 창립하기에는 방학 중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번역: 박종진)[21]

집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이번 방학을 맞아 각 지방에서 ‘소년회’를 창립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달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어린이』의 ‘삭제’된 내용을 일제가 기록해 놓은 『조선경찰월보』를 바탕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됨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조선경찰월보』에 나타난 검열 기간을 살펴보면, 2호의 발송일은 ‘1928.10.9.’, 처분날짜는 ‘11.30’, 이후 『어린이』 6권 7호 판권란에 표시된 발행일은 ‘1928. 12.20’. 잡지 한 호를 발행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검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있다.

4.2 『어린이』 6권 3호 ‘조선자랑호’와 ‘6권 8호’의 존재

『어린이』는 창간호부터 검열란을 겪으며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성장해 갔다. 1928년에는 『어린이』를 중심 무대로 해서 ‘세계어린이예술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점차 세계에 이름을 드높여가는 잡지가 되었다.

그런데 『어린이』의 간행사를 살펴보면, 유독 1928년 한 해에 발행된 잡지가 총7책으로 적은 것이 확인된다.[22] 그것은 1928년 1월호인 7권 1호가 이미 발행되어 판매

21) 미국 출국을 앞두고 급히 번역을 도와 준 박종진 박사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22) 『어린이』의 간행 개관에 대해서는 ‘장정희, 「『어린이』지 간행사의 개관」, 『아동문학평론』, 2015. 겨울호’를 참조.

가 되던 중 '압수' 명령이 내려, 그 수습과 함께 이로 인한 당국의 『어린이』 검열이 강화된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 『어린이』 6권 1호 '신년호'는 '대부록 <명산대천 일주말판>을 삽입하여 "굉장히 소문이 조와서 팔리고 팔리고 엇더케 몹시 팔니넌지 금방 모자라겟서서 다시 또 더 박히기를 시작"[23]하던 중에, 압수 명령을 받게 된다

> 뜻밧게 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압수(押收) 명령이 나리여 본사와 경성 50여 책사는 물론이요 왼 조선 3백여처에서 책을 모다 몰수 당하엿슴니다. 『어린이』에 내지 못할 말을 냇다는 리유임니다. 책을 압수 당한 것뿐 안이라 그 후에 작고 말성스러운 문뎨가 거듭하야 『어린이』로서는 참말 위험한 경우를 지내엿슴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골 각처에는 『어린이』가 아조 다시 못 나오게 되엿다는 헛소문까지 도라다니게 되엿슴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생긴 소문이요 한동안 느저젓스나마 여전히 발행하게 되엿슴니다.(중략)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이』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중에 이럿케 피로운 고생을 격고 나오는 것을 짐작해 주시고 오래 궁금하시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24]

전국 3백여 처에 책을 모두 몰수 당하는 '압수' 명령은 『어린이』의 창간 이후 겪은 대형 사건이었다. "작고 말성스러운 문뎨가 거듭하야 『어린이』로서는 참말 위험한 경우"에 있었던 만큼 다음 호인 7권 2호는 한 달을 지나 '3월 20일'에야 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행이 늦게 된 이유를 <편즙을 맛치고>에서 적고 있다. 총독부의 이 『어린이』 '압수 명령'은 "소년 잡지로 압수를 당하기는 참말 처음" 있는 일로 "방 선생님이 날마다 날마다 총독부에 드러가서서 교섭하노라고 애를 쓰섯스나 끗끗내 조흔 해결을 엇지 못하고 마럿슴니다"[25]라고 쓰

『어린이』의 발행 연혁은 다음과 같다.

[해방 전] ·1923년 : 창간호~11호(총 11책 발행) *결호(4·5·6·7호)
·1924년 : 12호~23호(총 12책 발행)
·1925년 : 24호~35호(총 12책 발행)
·1926년 : 36호~46호(총 11책 발행)
·1927년 : 47호~54호(총 8책 발행)
·1928년 : 55호~61호(총 7책 발행)
·1929년 : 62호~70호(총 9책 발행)
·1930년 : 71호~80호(총 10책 발행)
·1931년 : 81호~91호(총 11책 발행)
·1932년 : 92호~103호(총 12책 발행)
·1933년 : 104호~115호(총 12책 발행) *결호(104·107호)
·1934년 : 116호~121호(총 6책 발행)
·1935년 : 122호(총 1책 발행)

[해방 후] ·1948년 : 123호~129호(총 7책 발행) *결호(126호)
·1949년 : 130호~137호(총 8책 발행)

23)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동모들께 고함니다(사고)」, 『어린이』 7권 1호, 1928.1. 1면.
24)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동모들께 고함니다(사고)」, 『어린이』 6권 1호, 1928.1. 1면.
25) 「편즙을 맛치고」, 『어린이』 6권 2호(창간 5주년), 1928. 3. 6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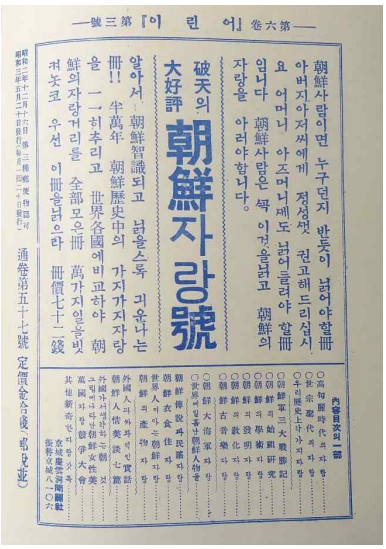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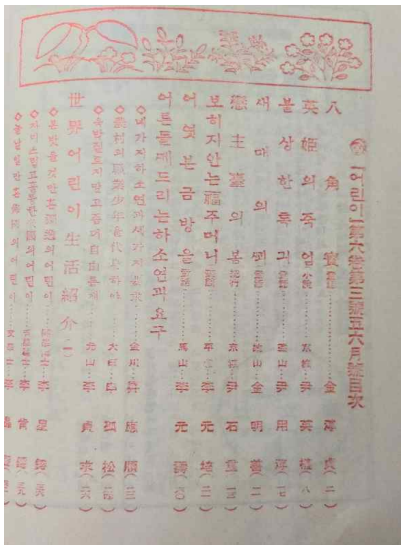
그리고 『어린이』는 그 다음 호로 이어질 '어린이날호'마저 '압수' 명령으로 이번에는 인쇄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할 수 없이 1928년 이 해의 『어린이』는 '어린이날 기념호'도 없이 7권 3호를 '5·6월 합본'으로 내고 '5월 20일' 발행일로 내게 된다. 그 사정을 1면 <사고(社告)>란에 밝히고 있다. 실상 '5월 1일'에 맞춰 발행할 것으로 '어린이날기념호'를 특별 편집하여 새로운 기사를 많이 싣고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 그림'도 준비하였는데, "그것이 불행이 (모다 온건치 못하다는 리유로) 압수를 당하여서 인쇄를 못하게 된고로 다시 곳 새로 편즙을 곳쳐 하여서 다시 허가를 맛느라고" 늦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혼란을 겪는 와중에 '5·6월 합본호'의 편집후기는 '어린이날 기념호' 편집을 마쳐 놓고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방정환의 심경이 담긴 글로 남아 있다.

> 어린이날이 갓가와 옵니다.(중략) 어린이 편즙이 끗나는 오늘 지금 이것을 쓰고 안젓는 들창밧게는 비단결가티 부드럽고 고흔 봄비가 옛날 이야기하듯 부실부실 나리고 잇습니다.(중략) 어린이날이 5월 6일이니 5월 5일 밤에 우리들은 마루 끗 첨하 끗에 색등(色燈)에 불을 켜달고 어린이날을 마지하십시다. 그 등불 하나로 왼 집안 구석구석이 어린이날 명절이 슴여드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 일홈을 일일히 싼 종의에 써서 매달어 두십시요. 그들의 생명을 축복하는 의미임니다.[26]

일제 검열 당국의 수많은 삭제, 불허가, 압수 명령을 받으면서도 『어린이』는 꺾임없이 발행해 나갔다. 『어린이』 6권 3호(1928.5.20.) 뒷표지에는 '조선자랑호 6권 3호' 광고가 크게 실려 있다. 바로 이 내용이 '불허가'되어 인쇄되지 못한 어린이날 기념호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에 기획 편집되었다가 '압수'된 '어린이날 기념호' 『어린이』 6권 3호(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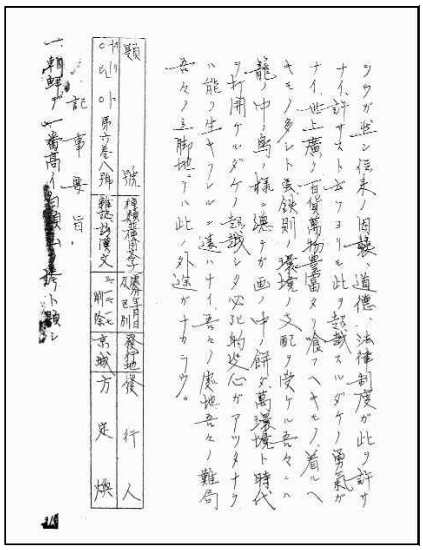
실제 인쇄되어 발행된 '5·6월 합본호'의 내용(오른쪽)

26) 「편즙실에서」, 『어린이』 6권 3호, 1928.5, 68면.

‘조선자랑호’는 1년 뒤인 1929년 3월 ‘창간 6주년 기념호’에 내게 된다. 이 때에도 ‘조선자랑호’라는 표현은 표지가 아닌 본문 속에 인쇄함으로써, 검열 당국의 감시망을 전략적으로 피해갔음을 볼 수 있다. 6권 3호에 기획했던 ‘조선군 3대 전승기’까지 7권 3호(1929.3)에 ‘조선 전승 3대 자랑’「문덕장군의 살수대승」,「이충무공의 한산대승」,「양만춘장군의 안시대승」으로 모두 다 수록한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검열의 감시망을 적절히 활용하면서,『어린이』는 불허가 받은 원고를 새로 재편하여 검열에 대응해 나가는 등 다양한 텍스트 전략을 펼쳐 나갔다.

1928년도 『어린이』는 6권 7호까지 발행했다. 그러나 『조선경찰월보』 4호(발송;1928.12.17.)를 검토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일제 검열 당국이『어린이』‘6권 8호’를 검열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조선에서 최고 높은 백두산」이라는 글이 ‘조국사상을 고취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삭제 처분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이미 6권 7호를 ‘12월 20일’자 ‘송년호’로 내야 했던『어린이』는 검열 중이었던 ‘6권 8호’를 다음 해인 1929년 신년호 ‘7권 1호’로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신영철이 쓴 ‘백두산 자랑 이야기’가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7권 1호(1929.1)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웠다.『어린이』‘6권 8호’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제 검열 당국에『어린이』6권 8호가 검열 계류 중이었다는 사실은 기억될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본 연구는『어린이』에 남아 있는 삭제·압수·불허가 기록 등을 <사고>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제의 검열 문서와 대비적 관점에서 검열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식민지 아동 매체에 가해진 검열 실태를 밝히고, 일부이나마 삭제·불허가 처분을 받은 텍스트를 추적·복원하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은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어린이』의 삭제 및 출판 불허가 작품의 내용을 얼마간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본 연구는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어린이』에 가한 일제의 검열 기록의 누락까지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예시를 든 몇 가지 사례에서 확인되듯 일제 시기 아동 매체 검열 기록 조사는 절실한 과제이다. 조선총독부 기록 열람 등 자료 수집의 한계로 연구의 범위를 일부로 축소하고 말았다는 점은 본 연구가 극복해야 할 한계로 남아 있다.

앞으로『어린이』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 아동 매체에 가해진 일제 검열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텍스트의 복원 및 그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기획주제4 토론】

「『어린이』에서 '발견'한 방정환」에 대한 토론문

윤현진(인제대)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대표 아동 문예 잡지인 『어린이』에서 확인되는 일제의 '검열' 흔적을 종합적으로 조사, 그 삭제된 '흔적'의 실체를 추적하고, 검열 당국에 대응해 나갔던 『어린이』지의 텍스트 편집 전략을 대비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햇수로 13년간 발행된 『어린이』지에서 아동 매체에 가해진 일제의 조직적 검열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서 그 변화를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 『어린이』지가 지향했던 발행 목적을 복원해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필자는 이 연구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몇 가지 의문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1.

발표자는 『어린이』지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아동'이라는 용어는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인가?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어린이』지의 검열 작품에는 '소년소설', '소년시'라는 명칭이 붙은 작품도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지에서 사용한 '어린이'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발표자는 '아동'에 대한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범위'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

발표문의 제목과 관련해서, <『어린이』에서 '발견'한 방정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3.2. 삭제된 방정환의 작품: '사진소설'「이엽초」 외'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만 보면 이 발표문의 주제는 『어린이』지에서 일제의 '검열' 양상과 삭제된 '흔적'의 실체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발표자 또한 서두에 "일제 시기 아동 매체에 가한 일제의 검열 행위와 그에 저항하고 대응했던 아동 매체의 텍스트 전략적 측면의 연구는 앞으로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시작한 연구이기에 '방정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보충하거나, 제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주제5】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의 문학교육

박기범(전주대)

차 례

1. 머리말
2.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3.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4.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의 특징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남한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교육 분야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영향을 받아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통해 길러낼 인재상에서부터,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철학으로 인해 큰 간극을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립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시 통일과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 과제로 주어졌다.

이에 본고는 국어교육 분야에서 이 시대적 과제를 향한 첫 걸음으로 남북 간에 형성된 현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남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북한 초급중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현행 북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 연구 대상으로 상정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성 및 체제, 단원별 내용을 조감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제재를 다룬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 및 내용과 방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북한의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표 1과 같다.

표 28. 북한의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상 교과서	집필진[1]	총 쪽수	발행일
국어 (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우인철, 구경희, 방복림, 문 성, 백광명, 장광길, 리정화	232	2013.8.16
국어 (초급중학교 제2학년용)	우인철, 백광명, 구경희, 문 성, 방복림, 장광길	208	2014.8.14
국어 (초급중학교 제3학년용)	리근세, 최은향, 한송이, 구경희, 김만경, 박복실	224	2015.10.5

지금까지 북한의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이인제(1996), 윤희원 외(1997), 박갑수(1999)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조경석(1996), 한철우(1998), 허재영(2002)이 있으며, 문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대행(1995)와 홍지선(2013)이 대표적이다.[2]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북한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최영지(2017), 강보선(2018), 주재우(2018), 홍지혜(2018) 등이 있다.[3] 하지만 이 논문들은 국어 교과서의 구성과 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문법영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초급중학교의 문학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고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초급중학교 3개 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한국의 문학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집필진을 보면, 1~2학년과 3학년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때문에 교과서 체제와 구성도 1~2학년과 3학년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3개 학년 모두 참여한 이는 구경희 한 사람뿐이다. 출판사는 모두 '교육도서출판사'로 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재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이인제,「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6.
윤희원 외,「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사대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7.
박갑수,「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그 통일 정책」,『선청어문』27,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9.
조경석,「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남한 국어 교과서와의 비교」, 강원대 석사논문, 1996.
한철우,「북한 국어교과서의 체제와 내용」,『한국어문교육』7,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8.
허재영,「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의 체재와 내용」,『한말연구』11, 한말연구학회, 2002.
김대행,「남북한 국문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국어국문학』115, 국어국문학회, 1995.
홍지선,「북한 문학 교육 연구:『국어문학』과『문학』교과서 비교 고찰」, 인하대 박사논문, 2013.

3) 최영지,「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 연구-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17.
강보선,「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국어교육』161, 한국어교육학회, 2018.
주재우,「김정은 시대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독서연구』48, 한국독서학회, 2018.
홍지혜,「북한의 2013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북한 초급중학교『국어 1, 2, 3』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18.

2.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고, 교육 내용, 방법, 평가를 규정한 공식적인 문서를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우리에게 친숙한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이를 '교육강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강령은 우리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과정안'과 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수요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9월에 이른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발표하면서 37년 만에 학제를 개편하였다.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이루어진 12년제 의무교육을 표방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새로운 교육강령을 고시하면서 이를 적용한 새 교과서를 출간하였다.[4)]

이와 같은 교육 체제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를 맞이한 북한이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과학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영어교육의 강화, 그리고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교급 간, 학년 간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하였으며, 둘째 교과교육을 통해 해당 교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의 신장도 강조하였다. 셋째 과거에 비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김 씨 일가의 우상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내용에 덧붙여 김정은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5)]

그러면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머리말'에서는 국어 과목의 성격과 북한의 언어관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9. 북한의 국어 과목의 성격과 언어관

국어 과목의 성격	북한의 언어관
국어 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고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할 뿐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이다.	언어는 인간교제의 힘있는 수단이고 자연과 사회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인간 교양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국어 과목을 통해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정신임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교육을 통해 체제 유지와 국민 교화(indoctrination)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과목의 성격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6)] 또한 이러한 과목 성격은 북한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언어관과도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4)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11~49쪽.
5)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249~267쪽.
6)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6년 6월호, 14쪽.

언어를 철저히 '수단'과 '무기'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의 이념과 체제를 위해 이러한 언어의 도구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초급중학교 국어 과목의 교수목적과 교수목표는 표 3과 같다.

표 30.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과목의 교수목적과 교수목표

교수목적	교수목표
우리 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말고 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도록 한다. ②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의 기초지식과 기능을 체득시키도록 한다.

이를 보면 교수목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의 정신'이라는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교수목표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태도 형성을 먼저 내세운 다음, '영역별 지식과 기능의 체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목표는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육목표를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별 지식, 기능, 태도의 형성으로 기술한 것과 유사하지만, 남한보다 '태도'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로 보아 북한에서는 지식과 기능의 체득보다도 근본적인 토대로서 긍지, 자부심, 품성의 형성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의 하위 영역 구분도 북한은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가 각각 다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31. 북한의 학교급별 국어과 하위 영역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	2~3학년	4~5학년	
①글자교육 ②읽기 및 쓰기 교육 ③글씨쓰기교육 ④듣기교육 ⑤말하기교육 ⑥기초원리지식교육	①읽기 및 쓰기 교육 ②듣기교육 ③말하기교육 ④글짓기교육 ⑤글씨쓰기교육 ⑥기초원리지식교육	①읽기 및 쓰기 교육 ②듣기교육 ③말하기교육 ④글짓기교육 ⑤기초원리지식교육	①듣기교육 ②읽기교육 ③말하기교육 ④글짓기교육 ⑤기초원리지식교육

이를 보면 북한에서는 쓰기와 글짓기를 구별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에서 글씨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과는 달리 문법이나 문학과 같은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이들을 다른 영역에서 통합해서 다루되, 문법과 문학의 기초적인 지식만을 별도의 '기초원리지식' 영역을 마련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학교의 '읽기와 쓰기 교육' 영역에서는 글읽기기초교육, 글분석교육, 맞춤법교육, 어휘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의 '쓰기 교육'은 다양한 어휘를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서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향과 방법, 평가 방향 및 방법, 내용, 그리고 교과서 집필 원칙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7)]

3.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새 교과서에 대해서 북한의 교육 관계자들은 큰 기대와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이전 교과서에 비해 단원 도입 글을 통해 해당 단원의 주요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있으며, 중심 제재를 읽고 나서 뒤이어 제시되는 학습 활동도 개념과 원리에 관한 지식을 익히는 '학습의 길'과,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기르는 '실천의 길'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교육 전문 잡지인 『인민교육』에서는 "수업에서 학습할 단계를 밝힌 점, 문제 제시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점"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8)]

그럼, 먼저 북한의 현행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을 학년별로 살펴보자.[9)]

표 32.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단원별 내용

단원	단원 명	주요 제재의 갈래	작가	주요 학습 목표
제1과	김일성장군의 노래	송가	리 찬	내용 파악하기 가사 살려읊어보기
제2과	아홉명의 배사공	이야기	김정일	기본내용 파악하기 교훈적내용 파악하기
제3과	조선의 제일봉	소개글		내용 파악하기 토막글 짓기
제4과	마부와 길손들	동화	리성칠	단락에 대해 알기 내용체계를 말하기
제5과	밝은 눈 밝은 귀	동요	김청일	운률 파악하기 운률에 맞게 살려읊기
제6과	나는 철령소녀	일기		김정일 업적 새기기 일기 쓰기
제7과	한사람 또 한사람	동시	성연일	감정정서 파악하기 동시 살려읊어보기 다른 동시(달은 몇개일가-김정연)의 감정정서 말해보기

7) 자세한 내용은 김진숙 외,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Ⅲ)-총론, 중등 국어과, 중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17-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18~226쪽을 참조할 것.
8) 장윤순, 「새 교과서를 받아안고-신심이 넘친다」, 『인민교육』 2014년 3호, 교육신문사, 19쪽.
9) 표 안의 내용은 북한 교과서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제8과	뜨거운 마음으로	대화		환경과 대상에 맞게 축하, 위로, 격려의 말하기
제9과	세계탁구녀왕 박영순	소개글		내용 파악하기 동무를 소개하는 글 짓기
제10과	쪽딱 녹았지	동요	림금담	정서적으로 읊기 단어의 감정적뜻빛갈 파악하기 감정적뜻빛갈을 가진 단어를 넣어 표현(글, 말)하기
제11과	물과 건강	설명글		글의 체계 파악하기 설명하는 토막글 짓기
제12과	악어의 눈물	우화	한일영	이야기줄거리 밝히기 우화의 특성 파악하기 다른 우화(뻐기던 바위-김신복)의 특징 파악하기 제목의 의미 말하기
제13과	CNC자랑	대화		정확히 질문하고 명백하게 대답하기 대화에서 오해의 원인을 찾고 바로잡기
제14과	까까머리 학생	소설 (1939년)	강훈	이야기줄거리 파악하기 작품에서 받은 느낌을 말하기 다른 소설(만년샤쯔-방정환)의 느낌 말하기
제15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가사	김정일	가사를 살려읊어보기
제16과	교실의 참된 주인이 되겠다	토론글		토론글 체계 알기 토론글을 써서 발표하기 벽보글의 옳은것과 틀린것을 찾아 근거를 밝혀 말하기
제17과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	동화	황령아	이야기줄거리 밝히기 동화의 특성 파악하기
제18과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전기문		항일아동단 전기옥 소년의 본받기 근거를 들어 옳게 주장해 보기
제19과	나래펴는 시절	단편소설 (1990년)	신종붕	김일성 대원수의 사랑 새기기 인물들의 모습을 밝히기
제20과	무슨 말로 회답을 써 보낼가요	동시	김경준	내용 파악하기 시적계기를 밝히기 다른 작품(푸른 하늘 씽씽 나는 날아요-리정순)의 시적계기 밝히기
제21과	성냥파는 소녀	동화	안데르쎈	주인공의 모습을 밝히기 성냥파는 소녀가 살던 사회에서 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기

제22과	맏형	단편소설	김용길	김정일 장군의 풍모 새기기 제목의 의미를 소설의 내용과 관련시켜 말해보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말해보기 자본주의 사회의 추악성을 보여주는 토막글을 짓기
제23과	만경대의 민들레	일기		자연현상에서 받은 느낌을 생동하게 표현하기 관찰일기 써서 발표하기
제24과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말	설명글		설명하는 글의 체계와 설명방법 파악하기 근거를 들어 우리 말의 우수성에 대해 주장하는 말하기

표 33.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단원별 내용

단원	단원 명	주요 제재의 갈래	작가	주요 학습 목표
제1과	김정일장군의 노래	송가	신운호	내용 파악하기 그에 맞게 살려읊기
제2과	자랑	이야기		이야기글의 형태와 내용 알기 이야기글을 자기 말로 말하기 느낀 점과 교훈 말하기
제3과	까치와 여우	우화	김정일	어떤 인물로 형상화되었는지 교훈이 무엇인지 말하기
제4과	하늘가에 솟은 집	동시 (2012년)	최성희	내용과 운률을 파악하기 그에 맞게 살려읊기 다른 동요(웃는 밤동산_김영수)의 운률 파악하기
제5과	기관총	단편소설 (1968년)	강효순	이야기줄거리와 기본내용을 밝혀보기 중점대목을 찾아 이야기하기
제6과	선군풍경	설명글		김정일 헌신의 자욱 새기기 설명글 잘 쓰는 능력 키우기
제7과	이마를 친 메토끼	우화	김영길	이야기줄거리 분석하기
제8과	천리길에 미신 수레	동시 (1975년)	송봉렬	김일성의 업적 느끼기 동시의 내용 새기기
제9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감상문		리수복 영웅아저씨의 조국애 새기기 감상문 짓는 능력 키우기
제10과	행랑자식	단편소설 (1923년)	라도향	단편소설에서 받은 느낌 말하기
제11과	빛나라 우리 평양	가사 (1969년)	김정태	운률을 파악하기 살려읊는 능력 키우기
제12과	장수와 검	우화 (1999년)	지홍길	이야기줄거리와 교훈 찾기 자기의 생활과 결부하여 이야기글을 짓는 능력 키우기

제13과	덕만이와 쇠돌이	이야기	김정일	글의 문단을 가를줄 아는 능력 키우기
제14과	순철이는 죽지 않았다	단편소설 (1947년)	신영길	김일성의 조국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기 기본내용과 이야기줄거리 밝히기 자기의 느낌을 말할줄 알기
제15과	여름방학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자	토의		토의하는 방법 잘 알기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나누면서 토의하는 능력 키우기
제16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가사	김정일	가사의 감정정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살려읊기
제17과	묘향산 만폭동등산길을 따라	기행문		묘향산 등산기 새겨읽기 기행문 특성에 맞게 등산기를 능숙하게 쓰는 능력 키우기
제18과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	동화 (2008년)	김성현	애국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 구성 밝히기 내용 새기기
제19과	사랑의 축복	토론글 (결의와 호소 발표)		김정은의 사랑에 보답하는 충정의 결의 새기기 결의토론글을 쓰고 발표하는 능력 키우기
제20과	날개	단편소설 (1968년)	전기영	김일성의 고매한 풍모 새기기 문장짓기능력 키우기
제21과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가사 (1984년)	김승길	가사의 절별내용과 기본내용 분석하는 능력, 살려읊기 능력 키우기
제22과	소중한 싹	단편소설 (2008년)	량철수	주인공의 모습을 밝혀내고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 키우기
제23과	꿀벌 마야	동화 (1912년)	본젤스	성구, 속담을 리용하여 동화에 담겨져있는 생활적인 교훈 이야기하기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교훈적인 글을 짓는 능력 키우기
제24과	내가 본 고향	묘사글		묘사글과 설명글의 차이점 밝히기
제25과	아버지, 어머니 웃으세요	단편소설 (2004년)	최치성	단편소설의 특성 파악하기 이야기줄거리 요약하여 말하기 제목에 맞게 이야기글을 짓는 능력 키우기

표 34. 초급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단원별 내용

대단원	단원	단원 명	주요 제재의 갈래	작가	주요 학습 목표

이야기가 주는 흥미	제1과	기쁨의 담시	시 (1961년)	최승칠	이야기에 담겨진 사건을 이루는 구성요소 파악하기
	제2과	신기한 종이장	이야기		이야기흐름을 이루는 사건의 전개방식 파악하기
	제3과	느티나무박물관	동화 (1987년)	최낙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자세히 알기
	제4과	하늘을 안으라	단편소설 (2011년)	최영호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로 엮어지는 원리를 파악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능력 키우기 다른 동화(골치거리를 수매하였던 아이_전봉욱)의 이야기 단계 찾기
	제5과	래일	구연 (2015년)	옥성일	구연이야기에서 대사의 효과 파악하기
설명과 리해	제6과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	설명글		인물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 파악하기
	제7과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설명글		건물과 일반사물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 파악하기
	제8과	용맹과 위엄의 상징 조선범	설명글		동물과 식물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 파악하기
	제9과	시대를 변화시킨 정보기술	설명글		어떤 현상에 대하여 원인을 따져가며 설명하는 방법 파악하기
	제10과	아리랑이 걸어온 길	설명글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진행 과정을 밝히면서 설명하는 방법 파악하기
묘사로 펼치는 화폭	제11과	불후의 고전적명작《조국의 품》	가사 (1952년)	김정일	묘사의 효과(방불하고 생동한 느낌) 파악하기 운률을 살리기 위한 수법(되풀이법, 대구법, 소리줄임법, 소리늘임법) 알기 다른 동시(봄뜨락_김승길)의 묘사의 효과를 밝히기
	제12과	흥부전	소설		묘사에 널리 쓰이는 비유와 과장의 수법 파악하기
	제13과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	영화문학	김무국 장광남 오현락	묘사의 여러 갈래(인물묘사, 환경묘사) 파악하기 소설책에서 잘된 묘사문을 발취하기
	제14과	자유에 대한 갈망	일기 (1943~44년)	안네	묘사시점에 대해 알기 안네의 지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점이 바뀌였을 때 심리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기
설득의 묘리	제15과	모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자	강연		사실자료를 리용하여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 알기
	제16과	심장 없는 코끼리	우화	아이소포스 (이솝)	적중하고 생동한 비유를 통하여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 알기
	제17과	숲과 멀어져서는 안된다	증명글		공리를 리용하여 과학적인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 알기
	제18과	단 한순간일지라도	설득글		명확한 대비와 적중한 인용을 통하여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 알기

북한 초급중학교 3개 학년의 단원은 총 67개이며, 각 단원의 중심 제재의 갈래별 비중은 표 8과 같다.[10)]

표 35.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된 중심 제재의 갈래별 비중

	정보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하는 글				담화	합계
			서정	서사	교술	극		
1학년	4	1	6	8	3		2	24
2학년	1	1	6	13	3		1	25
3학년	5	2	2	5	1	1	2	18
소계 (%)	10 (14.9)	4 (6.0)	14 (20.9)	26 (38.8)	7 (10.4)	1 (1.5)	5 (7.5)	67 (100)

이처럼 북한의 교과서에는 문학 제재가 전체의 70%가 넘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하위 영역으로 별도의 문학 영역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읽기를 비롯하여 다른 언어 사용 영역과 관련하여 주요한 제재로 문학 작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국어 과목이 학생들에게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하는” 과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어 과목의 교수목적 중 가장 먼저 내세운 것처럼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학 제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심 제재의 작가와 발표 연도는 밝힌 것도 있고 밝히지 않은 것도 있다. 2013년에 만든 중학교 1교과서에서는 잘 밝히지 않았다가 그 이듬해부터 차례로 나온 2, 3학년 교과서에 와서는 가능하면 작가와 발표 연도를 밝히는 쪽으로 편집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김정일이 이야기, 우화, 가사의 지은이로 총 6회 제시된 것 말고는 중복된 이는 없었다.

작가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안데르센, 안네 프랑크, 본젤스, 이솝 등 외국 작가의 작품이 의외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에서도 잘 알려진 나도향의 작품(행랑자식)이 수록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과서의 특징으로는 매 단원마다 어휘와 문법적 지식을 매우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직유법, 은유법, 대구법, 대조법, 의인법, 야유법(풍자), 자리바꿈법, 내세움법, 과장법, 되풀이법, 물음법, 느낌법, 벌림법, 점층법 등과 같이 전통적인 수사법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글의 종류나 형태별 특징과 체계, 다양한 설명 방법에 관한 학습도 주요한 학

10) 각 단원에는 중심 제재 이외에도 ‘실천의 길’의 학습 활동에는 다른 제재도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제재를 분류한 기준은 남한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자료’의 사례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보전달하는 글: 소개글, 설명글
설득하는 글: 토론글, 증명글, 설득글
서정: 송가, 동요, 가사, 동시, 시
서사: 이야기, 동화, 우화, 소설, 단편소설
교술: 일기, 기행문, 전기문, 감상문, 묘사글
극: 영화문학
담화: 대화, 토의, 구연, 강연

습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중심 제재를 읽은 뒤에는 두 가지 학습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학습의 길'에서는 어휘 학습, 학습 목표와 관련된 지식, 문법 지식 등 개념과 원리에 관한 지식 중심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실천의 길'에서는 앞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제재나 상황에 적용하여 좀 더 심화된 학습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남한의 학습 내용 체계 '지식 이해 - 기능 습득 / 태도 형성'과도 비슷한 체계라 할 수 있다.

4~5개의 단원이 마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학습 활동이 있어서 4~5개 단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남한의 '대단원 마무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3학년 교과서의 체제는 1~2학년 체제와 많은 부분 다르다. 우선 전체 단원을 문종을 중심으로 4개의 대단원으로 묶어서 각각 '이야기가 주는 흥미', '설명과 리해', '묘사로 펼치는 화폭', '설득의 묘리'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아래로 4~5개의 소단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문법'과 '나도 할수 있다'를 각 대단원 후반부에 별도로 각각 배치하였다.

4.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의 특징

이제까지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개정된 북한의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우리와 달리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읽기의 제재로 문학 작품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 제재의 70%가 넘게 문학 작품들이 중심 제재로 제시될 정도로 문학의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문학이 중심이 되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다른 언어 사용 영역과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국어교육이야말로 김상욱(2006)이 말한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1] 이것은 근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의 국어교육이 다분히 언어 사용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논의의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볼 때, 오늘날 북한의 문학교육은 첫째로 조국과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노동의식 고취라는 사상교육을 최우선의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과목 자체의 교육 목적이자 성격이며, 국어 교과서 제재 중 문학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단편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인물(교수할아버지)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학생들은 이 인물의 말 속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찾아 이를 자신에게 내면화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11) 김상욱은 전체에 대한 통찰, 실질적인 언어자료의 선택,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 현실적인 공동체의 건설, 진정한 발달에 대한 기획, 사회적·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국어 활동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바로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이라고 보았다. 김상욱,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의 재개념화」,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34쪽.

《애들아, 잘 들거라. 제 집생각, 제 자식걱정만 앞세우는 부모가 제일인건 아니니라. 언제나 나라일을 걱정하고 나라일에 마음쓰는 부모가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야. 나라생각이자 그게 곧 자기 자식들 생각이거든. 그래서 너의 부모들은 자식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한 시간을 남들의 열시간, 백시간, 천시간 맞잡이로 일하는것이 아니겠느냐? 암!》

교수할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우리 동무들의 가슴가슴도 크게 울려준듯 모두들 반짝반짝 눈을 빛내인다.

-『초급중학교 국어2』(200쪽) 제25과 '아버지, 어머니 웃으세요' 중에서 -

또한 익히 예상한 것처럼 북한의 교과서는 첫 머리말부터 거의 모든 단원에 김 씨 3대 일가와 관련지어 언급하면서 이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음은 교과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이다.

나는 영웅의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오늘의 리수복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초급중학교 국어2』(66쪽) 제9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중에서 -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사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읊어봅시다.

❖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줄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정중하게 읊어야 합니다.

❖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의 사상감정은 매 절에서 3행까지 축적되여오다가 4행에서 폭발되며 1절에서부터 3절로 가면서 점차 고조되도록 읊어야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문학교육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측면이 강하다. 단편소설, 동화, 우화, 이야기 등 서사 갈래 제재의 경우에는 작품의 주제와 학습 목표가 주로 미군, 일본제국주의자, 남조선 경찰에 맞서 싸운 영웅에 대한 찬양, 악덕한 자본가의 괴롭힘으로 인한 무산자와 아동의 고통과 울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근면 성실한 생활 태도의 확립,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정권에 대한 긍지 고취 등 대부분이 조국과 정권에 대한 충성과 노동의식 고취에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이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제재와 학습 내용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 다음 표에 알맞는 답을 써넣으면서 우화 《악어의 눈물》과의 비교속에서 본문의 이야기꾸밈의 특성을 밝혀봅시다.

제목	등장인물		죽음을 당하는 인물	리유
	힘센 인물	힘 약한 인물		
악어의 눈물				
장수와 검				

순간 장수의 앞에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네
《검이냐? 쌀이냐?》
이 물음앞에서 주린 창자는 대답을 재촉했네

《검 없이야 무슨 장수랴?
하지만 검도 살아서 필요한거지
굶어죽은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야?》
오, 배고픔이란 용맹으로도 어쩌지 못하는가
싸움에선 용맹떨쳐 승리한 장수
주림앞에 굴복하여 검을 내놓고말았네

그런데 장수가 쌀자루 집어드는 순간
가슴치는 호통소리 울렸네
《용맹한 장수어른 쌀자루 도루 내놓소!》
어느새 칼을 빼든 텁석부리 큰소리치고있었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임자한테 패하고 검마저 잃었던 적군이지!》

순간 장수의 손은 허리를 더듬었건만
거기에는 벌써 검이 없었네
《아, 검! 검! 내 장검!》

장수는 가슴을 쳤으나 때는 늦었네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검을 놓은탓에
검도 쌀도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는구나!》
천추에 새겨야 할 이 피의 교훈을 남기며
장수의 머리는 어깨와 영영 작별하고말았네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악어의 눈물》이라는 우화의 말미에는 이 작품의 교훈을 “원쑤에 대한 동정심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원숭이는 죽고말았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왼쪽에 인용한 학습 활동을 보자. 교과서에 제시된 두 우화 작품 모두 힘센 인물(미국/외세)에게 속아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위의 오른쪽 작품의 내용도 장수(북한)에게 검(핵무장)은 쌀(미국/외세의 경제적 원조)보다 중요한 것이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포기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결국 이러한 교훈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정 갈래 제재의 경우에도 3대에 걸친 김 씨 일가의 업적과 풍모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작품과 학습 활동을 통해 볼 때, 북한의 문학교육은 국가의 정치 체제와 상황에 맞는 인간형을 기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의무교육을 받으며 철저하게 사상교육과 정서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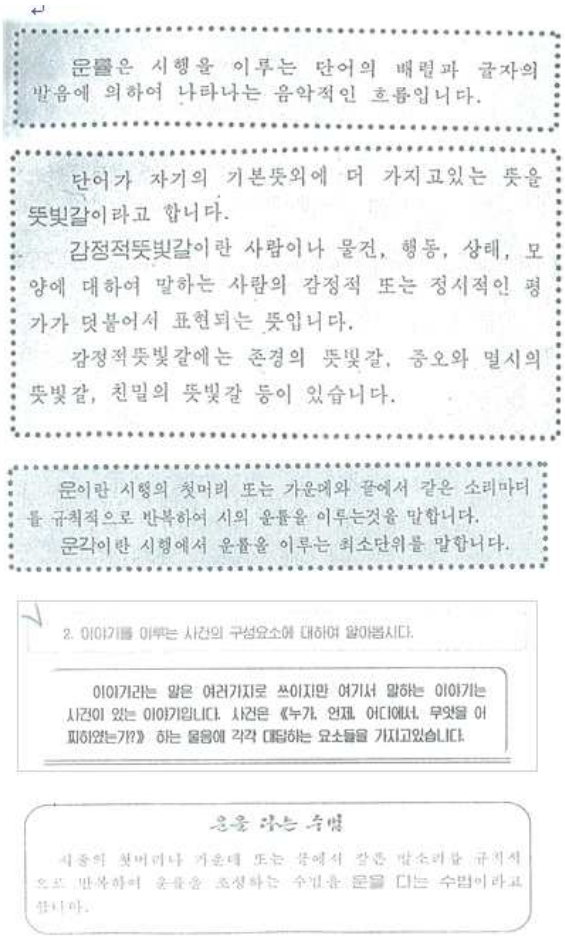
둘째, 새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비하여 교과 내용에서 이와 같은 이념적인 내용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12]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주요 교과로 비중 높게

12) 김정원 외, 「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변화 방향」, 『한국교육』 42-4, 한국교육개발원, 2015, 29~55쪽.

교육되어 온 국어 과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학습 내용과 활동 면에서 김 씨 일가에 대한 찬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의 학습 활동이 매우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그에 비해 김 씨 일가 찬양과 관계없이 국어교육 본연의 학습 목표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학습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대조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 문학 작품이 확대된 점도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과거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보편적 수준에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14] 그래서 민중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설화나 이념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카프 계열의 제재가 사라지는 대신, 인간 본연의 자유와 권리를 갈망하는 안데르센의 동화나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수록된 점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문학의 개념적 지식을 중시하여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 문학을 별도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각 단원의 학습 활동이나 '기초원리지식'이라는 영역을 통해 학생들이 서정구조, 주인공 인물의 형상화 방식, 운률 조성방식 등 문학의 기초 개념과 원리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운률은 시행을 이루는 단어의 배렬과 글자의 발음에 의하여 나타나는 음악적인 흐름입니다.

단어가 자기의 기본뜻외에 더 가지고있는 뜻을 뜻빛갈이라고 합니다.

감정적뜻빛갈이란 사람이나 물건, 행동, 상태, 모양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인 평가가 덧붙어서 표현되는 뜻입니다.

감정적뜻빛갈에는 존경의 뜻빛갈, 증오와 멸시의 뜻빛갈, 친밀의 뜻빛갈 등이 있습니다.

운이란 시행의 첫머리 또는 가운데와 끝에서 같은 소리마디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시의 운률을 이루는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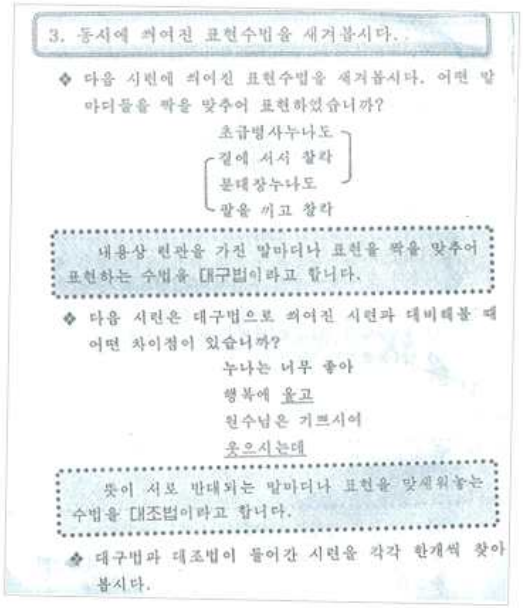
운각이란 시행에서 운률을 이루는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2.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야기라는 말은 여러가지로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사건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찌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각각 대답하는 요소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운을 다는 수법

시줄의 첫머리나 가운데 또는 끝에서 같은 말소리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률을 조성하는 수단을 운을 다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3. 동시에 씌어진 표현수법을 새겨봅시다.

❖ 다음 시련에 씌어진 표현수법을 새겨봅시다. 어떤 말마디들을 짝을 맞추어 표현하였습니까?

초급병사누나도
걸에 서서 잘라
분대장누나도
팔을 끼고 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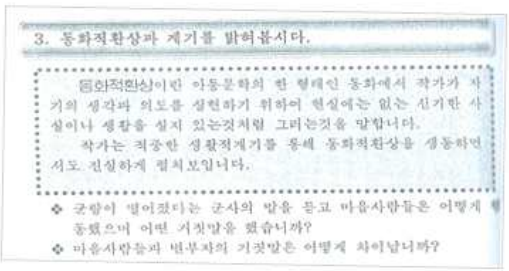
내용상 련관을 가진 말마디나 표현을 짝을 맞추어 표현하는 수법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 다음 시련은 대구법으로 씌어진 시련과 대비해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누나는 너무 좋아
행복에 울고
원수님은 기쁘시어
웃으시는데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마디나 표현을 맞세워놓는 수법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 대구법과 대조법이 들어간 시련을 각각 한개씩 찾아봅시다.


3. 동화적환상과 계기를 밝혀봅시다.

동화적환상이란 아동문학의 한 형태인 동화에서 작가가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에는 없는 신기한 사실이나 생활을 실지 있는것처럼 그리는것을 말합니다.

작가는 적중한 성격적계기를 통해 동화적환상을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펼쳐보입니다.

❖ 군왕이 벌이잤다는 군사의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 마을사람들과 변부자의 거짓말은 어떻게 차이납니까?

13) 북한의 현행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보는 의견은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한 강보선(2018: 143)과, 설명문과 고전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한 주재우(2018: 147)에서도 개진된 바 있다.

14)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KINU 연구총서 15-03, 통일연구원, 2015, 12쪽.

이와 관련하여 북한 교과서에서는 작가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작가에 대한 정보를 비본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여겨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제시하는 양상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강훈선생님(1911—1950)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이름있는 작가입니다.

선생님은 단편소설 《일색이야기》(1934년), 《까까머리학생》(1939년)을 창작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해방후에는 단편소설 《산막집》(1946년), 《장군님을 맞는 날》(1948년), 동화 《지지와 메배》(1948년), 단편소설 《양촌》(1950년) 등 많은 아동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1957년에 선생님의 작품집 《산막집》이 나왔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1875)은 생의 전기간에 160여편의 동화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쓴 덴마르크의 이름난 동화작가입니다.

학생들이 즐겨읽는 세계명작동화집들가운데 《엄지손가락공주》, 《벌거벗은 왕》, 《인어공주》, 《모셩긴 세째오리》, 《성냥파는 소녀》 등 많은 작품들이 바로 그의 동화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우에 올라앉아서 싹을 대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벋어나갈것입니다.》

이 말은 방정환선생님이 1923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맞으면서 쓴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글의 한 대목입니다.

방정환(1899—1931)선생님은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냈고 《어린이의 날》이라는 아이들의 명절도 처음으로 제정한 이름난 소년운동가이며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동요 《귀뚜라미노래》(1924년), 《형제별》(1925년), 동화 《마음의 꽃》(1924년), 소설 《눈물의 모자》(1925년), 《만년샤쯔》(1927년)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작품의 해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나도향과 그의 작품 「행랑자식」에 관한 해제이다.

라도향선생님(1902—1927)은 해방전 우리 나라의 이름난 작가의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창작한 단편소설 《행랑자식》(1923년)은 가난한탓으로 이른새벽부터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하루종일 울적한 심정속에서 지내는 어린 소년의 심리를 뜨거운 동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순진한 소년을 모욕하고 학대하는자들을 비판하고있습니다. 선생님은 짧은 생에에 단편소설 《벙어리 삼룡이》(1925년), 《자기를 찾기 전》(1924년), 《물레방아》(1925년)를 비롯하여 20여편의 단편소설과 3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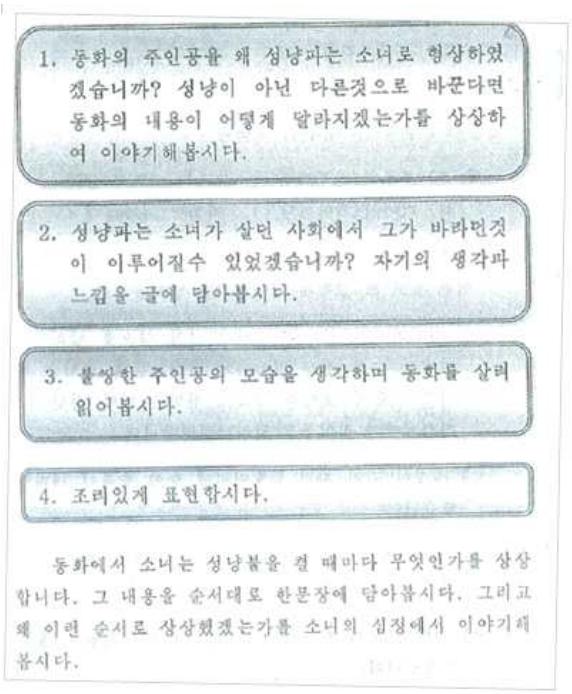
넷째, 북한의 문학교육은 다른 영역의 국어활동과 통합하여 이뤄지고 있다. 아래와 같이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문학 제재를 감상한 뒤에는 이를 중심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짓는) 다양한 통합적 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동요의 운률을 새겨봅시다.

- 옥이와 용이가 한 일을 설명하는 글을 쓰고 읽어봅시다.
- 동요의 1련과 3련을 읊어봅시다. 설명한 글을 읽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동요의 음악적인 흐름이 왜 생겨났습니까? 2련과 4련의 글자수를 놓고 생각해봅시다.

ㄴ) 전설의 내용을 자기 말로 전달해봅시다.

- 먼저 시간적순차에 따르는 이야기인가 장소의 변화에 따르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시간과 장소가 다 변하는 이야기인가 밝혀 말해봅시다.
-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그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면서 정확하고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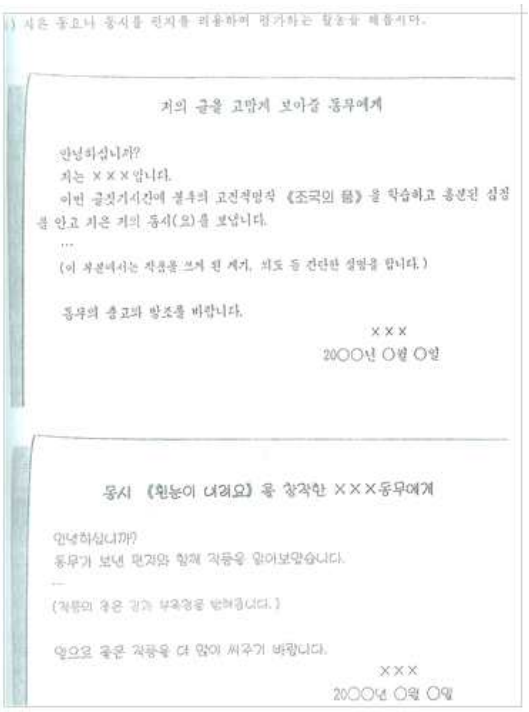
1. 동화의 주인공을 왜 성냥파는 소녀로 형상하였겠습니까? 성냥이 아닌 다른것으로 바꾼다면 동화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를 상상하여 이야기해봅시다.

2. 성냥파는 소녀가 살던 사회에서 그가 바라던것이 이루어질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글에 담아봅시다.

3. 불쌍한 주인공의 모습을 생각하며 동화를 살려 읽어봅시다.

4. 조리있게 표현합시다.

동화에서 소녀는 성냥불을 켤 때마다 무엇인가를 상상합니다. 그 내용을 순서대로 한문장에 담아봅시다. 그리고 왜 이런 순서로 상상했겠는가를 소녀의 심정에서 이야기해봅시다.



) 서은 동고나 동시를 편지를 리용하여 평가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지의 글을 고맙게 보아준 동무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이번 글짓기시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을 학습하고 흥분된 심정을 안고 저은 저의 동시(요)를 보냅니다.
…
(이 부분에서는 작품을 쓰게 된 계기, 의도 등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동무의 충고와 방조를 바랍니다.

×××
2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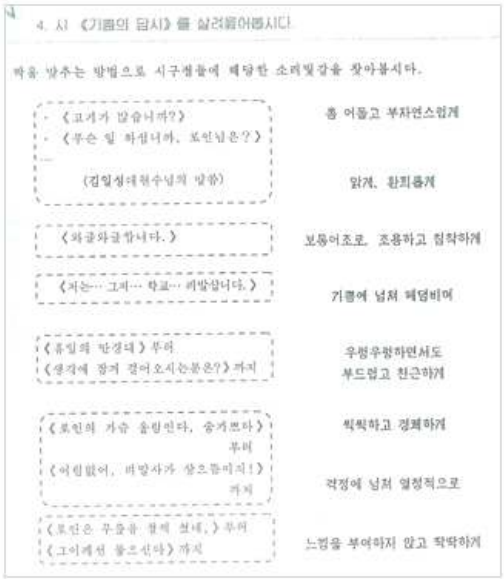
동시 《흰눈이 내려요》를 창작한 ×××동무에게

안녕하십니까?
동무가 보낸 편지와 함께 작품을 읽어보았습니다.
…
(작품의 좋은 점과 부족점을 밝혀줍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
2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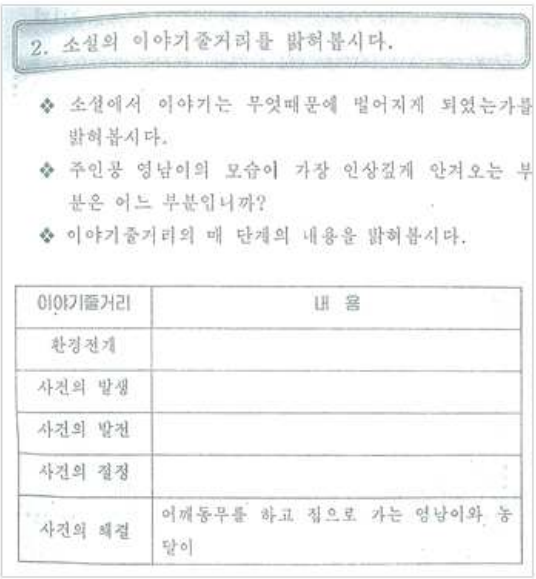
이처럼 북한 교과서에서는 문학 제재를 감상한 다음에는 해당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새겨보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내용을 상상·추론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지어서 다른 학생에게 조리 있게 표현하고 서로 평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시 《기쁨의 담시》를 살려읽어봅시다.

박을 발추는 방법으로 시구절들에 해당한 소리빛갈을 찾아봅시다.

《고기가 많습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로인님은?》 … (김일성대학수님의 말씀)	흥 어둡고 부자연스럽게
	맑게, 환희롭게
《와글와글합니다.》	보통어조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저는… 그저… 학교… 리발삽니다.》	기쁨에 넘쳐 웨염비며
《휴일의 탄생대》부터 《생각에 잠겨 걸어오시는분은?》까지	우렁우렁하면서도 부드럽고 친근하게
《로인의 가슴 울림인다, 숨가쁘다》부터 《어림없어, 리발사가 살으뜸이지!》까지	씩씩하고 경쾌하게
	격정에 넘쳐 열정적으로
《로인은 무슨을 할지 몰래, 》부터 《그이께선 물으신다》까지	느낌을 부여하지 않고 착착하게



2.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밝혀봅시다.

❖ 소설에서 이야기는 무엇때문에 벌어지게 되였는가를 밝혀봅시다.
❖ 주인공 영남이의 모습이 가장 인상깊게 안겨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이야기줄거리의 매 단계의 내용을 밝혀봅시다.

이야기줄거리	내 용
환경전개	
사건의 발생	
사건의 발전	
사건의 절정	
사건의 해결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가는 영남이와 농달이

다섯째, 기본적인 작품 수용 활동은 반복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서정 갈래의 경우에는 매번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살려읊기를 하고, 서사 갈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작품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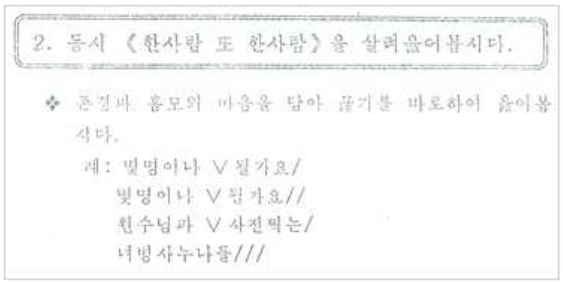
야기줄거리를 사건 전개 단계에 맞춰 요약해 보도록 한다. 또 교술 갈래는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극 갈래는 배역을 정해 연습을 한 뒤 공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단원에서 작품 제목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보게 한다. 다음은 여러 단원에서 제시한 각각의 활동 사례들이다.

* 동화의 제목을 왜 <보물을 찾지 못한 메토끼>나 <눈물을 흐린 메토끼>로 하지 않고 <이마를 친 메토끼>라고 달았겠는가를 말해봅시다.
* 단편소설에서 순철이는 부대장놈이 쏜 총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단편소설의 제목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순철이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가를 자기의 견해를 세워 말해봅시다.
* 제목에 담겨진 뜻을 소설의 마지막문장과 련관시켜 밝히고 그 근거를 말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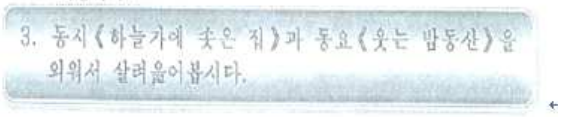
이 밖에도 낭송이나 연행(performance)을 강조하고 있다. 동요, 동시, 가사 등 대부분의 서정 양식 제재를 제시하면 반드시 제재의 내용과 정서를 '살려읊기'를 필수적으로 하게 한다. 다음은 여러 단원에서 제시한 각각의 활동 사례들이다.

* 1, 2절은 속도를 늦추어 읊는다면 3절은 박력있게 속도를 조금 빨리 읊어줍니다.
* 가사에서 사상정서적내용을 깊게 해주는 어휘들에 세기마루와 길이마루를 정확히 두고 감정정서를 잘 살려읊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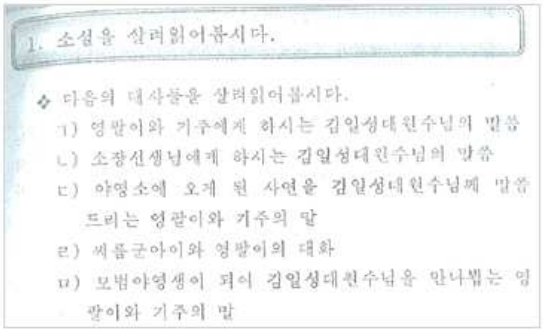

2. 동시 《한사람 또 한사람》을 살려읊어봅시다.

❖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끊기를 바로하여 읊어봅시다.

례: 빛명이나 ∨ 될가요/
빛명이나 ∨ 될가요//
원수님과 ∨ 사진찍는/
녀병사누나들///


3. 동시《하늘가에 솟은 집》과 동요《웃는 밤동산》을 외워서 살려읊어봅시다.

소설도 내용과 느낌, 특징 등을 잘 살려서 읽어보자는 식으로 낭독과 낭송을 중요한 수업 내용으로 삼고 있다.


1. 소설을 살려읽어봅시다.

❖ 다음의 대사들을 살려읽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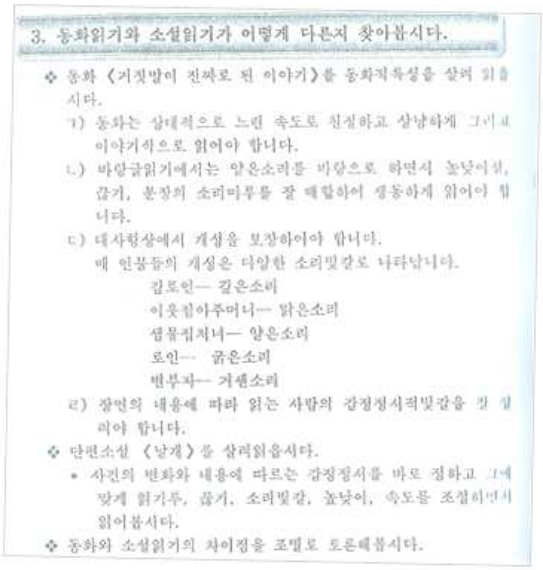
ㄱ) 영팔이와 기주에게 하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

ㄴ) 소장선생님에게 하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

ㄷ) 야영소에 오게 된 사연을 김일성대원수님께 말씀드리는 영팔이와 기주의 말

ㄹ) 씨름군아이와 영팔이의 대화

ㅁ) 모범아영생이 되어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나뵙는 영팔이와 기주의 말


3. 동화읽기와 소설읽기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봅시다.

❖ 동화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를 동화적특성을 살려 읽읍시다.

ㄱ) 동화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침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ㄴ) 바람글읽기에서는 알은소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높낮이, 쉼기, 분장의 소리마루를 잘 배합하여 생동하게 읽어야 합니다.

ㄷ) 대사형상에서 개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매 인물들의 개성은 다양한 소리빛깔로 나타납니다.

김로인— 깊은소리

이웃집아주머니— 맑은소리

샘물집처녀— 얇은소리

로인— 굵은소리

벙부자— 거센소리

ㄹ) 장면의 내용에 따라 읽는 사람의 감정정서적빛깔을 잘 살리야 합니다.

❖ 단편소설 《낭개》를 살려읽읍시다.

• 사건의 변화와 내용에 따르는 감정정서를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읽기루, 쉼기, 소리빛깔, 높낮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읽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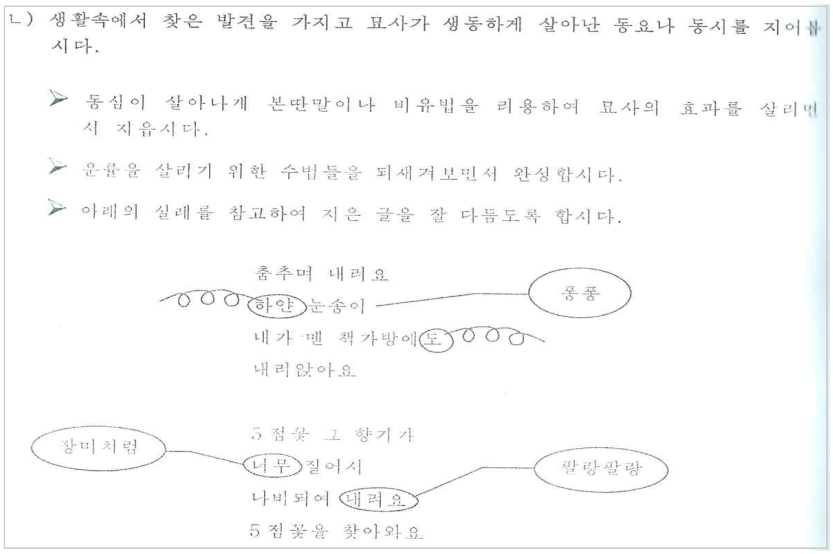
❖ 동화와 소설읽기의 차이점을 조별로 토론해봅시다.

여섯째, 문학 갈래로서 아동 문학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초급중학교 1~2학년 교과서에는 동화, 동요, 동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제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들 아동 문학 제재는 학생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 혁명 정신의 계승, 노동의식의 고취 등의 교육 목적을 쉽고 자연스럽게 가르치기에 적합한 제재라 할 수 있다.[15] 이처럼 아동 문학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대한 남북한의 이해 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교육 목적에도 동의할 수 없으므로 향후 중학교 단계에서 아동 문학 제재의 활용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북한의 문학교육에서는 창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학습의 길'에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에 관한 지식을 익힌 뒤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천의 길'에서 여러 가지 심화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갈래의 글을 짓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창작 활동을 안내하는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며 단계화되어 있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앞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학습 활동이 개별 활동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조별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함께 공유하면서 평가하는 활동도 있다. 다음은 여러 단원에서 제시한 각각의 활동 사례들이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긍정적 주인공↔부정적 주인공)으로 바꾸어 이야기의 내용을 고쳐써봅시다.
* 조국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 그림을 보거나 노래를 듣고 느낌글을 지어봅시다.
* 우(위)와 같은 서술순서로 집이나 학교에서 아침에 있은 일을 가지고 토막글을 지어봅시다.
* 묘사문들을 그림으로 옮겨봅시다. - 중편소설 《초순이》 중에서, - 장편소설 《만경대》 중에서

15) 홍지혜, 「북한의 2013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8, 92쪽.


ㄴ) 생활속에서 찾은 발견을 가지고 묘사가 생동하게 살아난 동요나 동시를 지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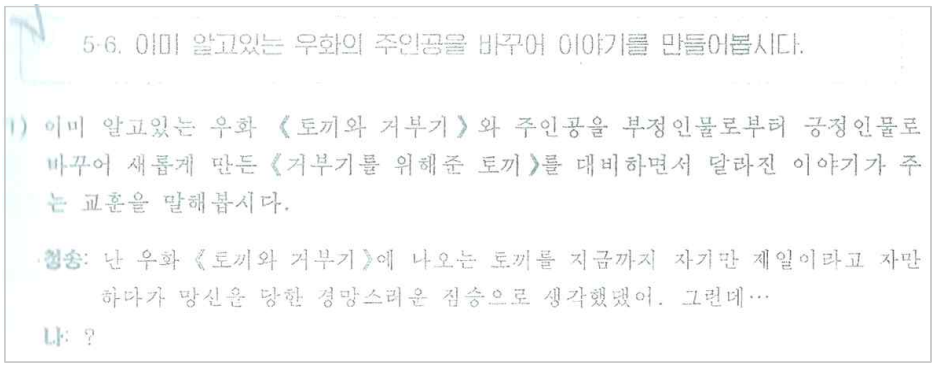
➢ 동심이 살아나게 본딴말이나 비유법을 리용하여 묘사의 효과를 살리면서 지읍시다.

➢ 운률을 살리기 위한 수법들을 되새겨보면서 완성합시다.

➢ 아래의 실례를 참고하여 지은 글을 잘 다듬도록 합시다.

춤추며 내려요
하얀 눈송이 — 롱롱
내가 멘 책가방에도
내려앉아요

5점꽃 그 향기가
장미처럼 — 너무 짙어서
나비되어 내려요 — 팔랑팔랑
5점꽃을 찾아와요


5·6. 이미 알고있는 우화의 주인공을 바꾸어 이야기를 만들어봅시다.

1) 이미 알고있는 우화 《토끼와 거부기》와 주인공을 부정인물로부터 긍정인물로 바꾸어 새롭게 만든 《거부기를 위해준 토끼》를 대비하면서 달라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말해봅시다.

청송: 난 우화 《토끼와 거부기》에 나오는 토끼를 지금까지 자기만 제일이라고 자만하다가 망신을 당한 경망스러운 짐승으로 생각했댔어. 그런데…

나: ?

이와 함께 ‘나도 할수 있다 3’에서 극활동을 제시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극대본을 공부한 뒤에 앞에서 배운 《흥부전》이나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을 극대본으로 옮겨보고, 조별로 배역을 정해 연극 연습을 한 다음 극활동을 하고 평가를 받아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초급중학교 국어 1~3학년 교과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북한의 문학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남북한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고 멀다고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을 좁힐 가능성을 발견해 보려고 할 수도 있다. 필자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대적인 정치 체제 아래에서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아 온 남북한의 동포들이 이제야 비로소 화해와 협력을 말하고 통일 이후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고는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고는 최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의 단면을 교과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문

학교육 측면에서 남북한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통일 이후를 지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연구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여러 동학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문학은 인간의 소산이며, 인간을 표현하고 그 결과도 인간을 지향한다. 그래서 문학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성장,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 인류공동체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 이후에 필요로 하는 인간형은 통합형 인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형은 문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교육의 역할과 기대를 감안할 때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인간형의 육성은 문학교육이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어느 학자의 견해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16)]

참고 문헌

※ 각주로 대신함.

16)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기획주제5 토론】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의 문학교육」에 대한 토론문

오현석(부산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고려해 볼 때 이후의 남북교육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 이후 국어교육은 많은 부분 문법 영역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로 달라진 우리말에 대한 걱정과 문법 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문학 영역에서는 선생님의 지적대로 거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의식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문학 영역의 통일 교육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논의가 통일 문학교육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 교육과정에서 문학 영역에 대한 설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논문에서는 문학 영역이라고 명시하여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 제재를 활용한 교과서의 단원과 내용을 문학 영역으로 설정하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장에서 북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주안점에 대한 설명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영역에 대한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기초원리지식교육에 문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설명 외에는 없어서 교육과정 전체 차원에서 문학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에서 “문학 제재가 전체의 70%가 넘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하위 영역으로 별도의 문학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진술을 고려할 때 북한의 문학교육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제재가 다른 영역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문학교육의 위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